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집

제1집

중구문화원

■ 인사말씀 ■



중구문화원장 김 영 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중구 문화원에서는 “중구향토사 관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집에 지나지 않지만 향토사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향토문화연구는 사료의 부족과 무관심으로 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방에서는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참다운 ‘지역자치’는 각 지역의 ‘문화자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토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며 향토출신의 인물·각 분야의 명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면 국민적 단합의 기반으로서 지역주민의 참다운 일체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 문화원은 자료집의 발간과 더불어 향토사 연구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어서 자료집의 발간에 그쳤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구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로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집에 전재를 허락해 주신 논문 필자분들,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애쓰신 향토사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문화원 향토사 연구 위원회

위원장 : 이준학 부원장

위원 : 원중희 이사(구의원)

남상만 이사(대림정 대표)

홍한선 감사(필동 마을문고 위원장)

김용중(중구청 공보실장)

최충원(문화원 사무국장)

자문위원 : 박경룡 박사(시사 편찬 위원회 위원)

김창수 교수(동국대학교 사학과)

간사 : 양정심 연구원(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목차

남소문과 개폐문제	(7)
세종대왕과 이충무공의 탄생지	
- 현지답사전말보고 -	(25)
이씨조선 주자 인쇄소사	
- 주자소를 중심으로 -	(47)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 연암학과 - 이용후생학과의 성립배경 -	(93)
신화방에 대하여	(127)
정동구락부의 친러반일정책	(137)
서울 남산의 경관 가치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의 풍류문학에 표현된 경관관을 중심으로 -	(165)
남산공원(서울)의 식생과 토양요인에 관하여	(285)

일러두기

1. 이 자료집은 기존에 발표된 학술논문 가운데 서울 중구 향토사
관계 글을 모은 것입니다.
1. 논문의 배열 순서는 연대순으로, 주는 논문의 뒤로 실었습니다.
1. 논문의 한문 제목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南小門과 開閉問題

李 丙 燾

—

將忠洞에서 漢南洞으로 넘어가는 고개, 지금은 양측의 성벽도 모두 헐리고, 일제시대 도로공사로 해서, 고개 마루의 암석을 삼십척내외가량 깎아 내리고 길을 통하여, 옛날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지만, 이곳이 서울의 향토적 풍정과 전설을 많이 풍기고 전하여 오는 「南小門」의 옛터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있던 南小門이 펴 말뚝이 되었다. 즉 여러차례에 걸쳐서 문을 열어놓자는 奏請이 있는 반면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앓된다는 편이 들고 일어나서, 近朝鮮의 제8대 睿宗元年(서기 1469)에 한번 닫힌 다음으로는, 구한국말기까지 약 450년간은 굳게 폐쇄하고 人馬의 통행을 엄금하던 것이 南小門, 즉 이 고개의 역사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성문의 주춧돌 하나 찾아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깊숙히 깎아내린 고개마루 통로에는 자동차와 人馬가 언제 그런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줄을 이어서 왕래하고 있음을 볼때에, 다시 한번 今昔之感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 南小門의 開閉問題, 그 중에도 東洋傳來의 陰陽地理說과 결부하여 논의되던 점에 대하여 많은 흥미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찍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실지답사를 하고 문헌조사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 建置期間이 매우 짧았고 따라서 관계사료도 희소하기 때문에 논고를 엮어보는 것을 주저하여 오던 터이었다.

마침 서울시史編纂委員會에서 새로이 서울시史에 관한 연구지를 발간한다하여, 기고를 청하므로 우선 實錄의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南小門의 開設과 閉塞의 年代 緣起와

개폐론의 내용 경과등에 관한 管見을 그대로 적어보기로 하는 바이다.

二

서울도성의 내외를 연락하는 문호로 四大正門과 四小間門을 설치한 것은 近朝鮮 太祖 5년 都城築造에 있어서의 한 중요한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이 도성의 八門이 대체적인 완성을 보게된 것은 同年 9월이었다. 즉 太祖實錄(卷十) 五年九月條에

又犁各門月團樓閣, 正北曰肅清門, 東北曰弘化門, 俗稱東小門, 正東曰興仁門, 俗稱東大門, 東南曰光熙門, 俗稱水口門, 正南曰崇禮門, 俗稱南大門, 西南曰昭德門, 俗稱西小門, 正西曰敦義門, 西北曰彰義門

이라 한것이 그것이다. 구 南大門은 규모가 宏傑한만큼 그 완성을 七年 三月 乙酉(初八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八門은, 正北의 肅清門, 正東의 興仁門, 正南의 崇禮門, 正西의 敦義門의 四大正門과, 東北의 弘化門, 東南의 光熙門, 西南의 昭德門, 西北의 彰義門이 四小間門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사대문 중의 正東의 興仁門과 正南의 崇禮門은 속칭하기를 「東大門」, 「南大門」이라고 하였으며, 四小間門 중의 東北의 弘化門과 西南의 昭德門은 속칭하기를 「東小門」, 「西小門」이라고 해서 그 正大門, 間小門을 의미하는 속명이 正名과 함께 불려지던것을 表示하였다. 또한 이 밖에 東南의 光熙門은, 그 東南間의 方位를 의미하는 말이 아닌 「水口門」이라는 속명을 처음부터 일컬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국초에 都城築造와 함께 建置된 八個城門 중에는 문제의 「南小門」이란 것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南小門」의 설치는 언제부터이었던가? 이것은, 문헌에 의해서, 이 都城八門의 建置보다는 좀 후대의 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太祖 5년에서 60년 후인 端宗 2년에 編修된 世宗實錄(卷제148)地理志를 보면 都城八門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을 뿐, 太祖實錄과 같은 내용의 것이며 문제의 「南小門」에 관한 것은 여기에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南小門」의 설치는 이때 즉 世宗實錄地理志가 編修되던 端宗 2년경까지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三

그런데 睿宗實錄(卷第七) 元年己丑九月條에 의하면, 睿宗이 知經筵事 任元濬과 都承旨 권집에게 南小門 閉塞에 대한 便否를 문의한 기사가 보인다. 이때 任元濬의 答言에

定都之初, 豈不經營審度, 而不說此門乎, 今雖說此門, 車路不痛, 無大利益,
且陰陽家, 甚忌巽方, 故初說此門, 言不便者有之, 果後懿敬世子薨逝, 陰陽之說,
雖不足信, 然 此門可塞

이라고 하였는데, 이중에도 주의할 것은 『今雖說此門云云』이라고하고 또는 陰陽家가 巽方(東南間方)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처음 이 문을 설치할 때에도 불가함을 말하는 자가 있더니, 과연 그 후에 懿敬世子(世祖長男)가 薨逝하였다는 구절은 그대로 이 南小門의 설치가 그렇게 오래지 아니한 것을 말하여 준다. 단 懿敬世子の 薨逝보다는 좀 앞서서 된 것임을 암시하여 준다. 그런즉 이 南小門의 개설은 世宗實錄의 완성을 본 端宗二年甲戌(서기 1454)9월 이전에 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아니 좀더 추측을 容許한다면, 懿敬世子가 薨逝한 그 해 즉 世祖三年丁丑이 아니면 그 前年인 世祖二年丙子에 있었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어서의 이 南小門의 개설은 어떤 동기에서 유래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하등의 뚜렷한 기사가 보이지 아니 하므로, 종종의 추측이 달린다. 즉 혹은 이것을 近朝鮮時代를 風靡하던 風水地理說과도 관련시켜 생각하여 보기도 쉬운 일이다. 國初, 定都와 建宮에 있어 모두 風水地理를 참작하여 결정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과학과 발명의 제왕으로 유명하던 世宗大王으로도, 風水家 崔揚善등의 國都主山論을 경청하였음과 같이 宮闕, 陵寢, 樓閣등을 건설하는데에 있어서는 대개가 風水學적 論議가 거듭된

다음 그 실현을 보게 되는 것이 당시 실정이었다. 國初에 建都築城時에 설치되지 않았던 그 「南小門」을 새로이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風水地理적 論據에 의해서 실현되었으리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南小門 개설에 있어서는 예외로 처음부터 그렇게 중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던 것 같다. 즉 이 문이 설치되었을 世祖初年이나 내지는 端宗末年의 實錄기사중에도 아무런 개설여부에 대한 논의나 또는 개설공역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없다. 더구나 風水地理적 관계에 있어서는 상기 睿宗實錄 기사중의,

且陰陽家, 甚忌巽方, 故, 初說此門, 言不便者, 有之

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도리어 陰陽風水學적으로 拘忌하는 巽方에 開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지 이 南小門의 最初의 개설은, 陰陽風水學적 關係에서가 아니라 이 지대의 人文地理적 條件에 의하여서 움직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南小門이 개설되었던 장소는, 당시 水陸運輸 및 人馬交通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漢江과 都城內外의 연락을 취하는데에 捷徑이 될 수 있는 것이니, 南大門과 光熙門과의 거리가 다른 大門과 間門間的 거리보다도 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시 한개의 間門을 설치하여 城內外의 통로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城內外 漢江간의 교통, 운수의 편익을 도모하여 보려고 하였던 것이 곧 이 南小門 설치의 원인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南小門의 개설조치는 그것이 확고한 시설이 아닌 임시적 시도이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그 疎漏한 점도 많았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상기 睿宗實錄의 任元濬의 進言 중에도

「지금 이 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車路가 不通하여 큰 이익이 없다」

고 한 것이나, 任元濬의 뒤를 이어서, 都承旨 권집이, 역시 문을 닫는데 찬성하면서

「만일 그대로 두려하면, 문경을 견고히 하여야 하겠다」

고 한 것은, 모두 이 문의 설치가 임시적 편의조치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疎漏不備가 많았고, 따라서 개설이후, 睿宗元년에 閉塞을 볼때까지 개통 10년간에, 교통운수상에 있어서 큰 이익을 가져오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四

이렇게 해서 都城의 南大門과 水口門 사이에 개설되어 10년간을 존속하던 南小門이 睿宗元年에는 드디어 그 閉塞을 보게 되었다. 즉 상기 睿宗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知經筵事 任元濬의

1. 문이 개설되어 있지만 車路가 불통하니 큰 이익이 없다.

2. 陰陽家の 말과 같이, 巽方의 拘忌를 무시할 수 없다.

는 의미의 進言과, 뒤를 이어서

김, 亦啓, 塞之爲便, 若仍置則固門경, 上曰, 塞之則用人力幾何, 김 啓曰, 用功不多, 命塞之

라함과 같이, 都承旨 권짐 역시 閉塞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하고, 또 閉塞하는데는 인력도 많이 들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睿宗은 드디어 그 閉塞의 명령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任元濬이나, 권짐의 말한 南小門의 閉塞가 가하다는 이유는, 실지에 있어서는 새로이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즉 「車路不通」이라든가 「문경不固」는 개설초부터 十有餘년간 동일한 사실이었고 「巽方拘忌」도 처음 개설시부터 있었던 문제이며, 더구나 懿敬世子の 薨逝도 벌써 10여전의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즉 睿宗이 經筵에서의 講說이 끝난 다음 특히 신임하는 신하인 知經筵事 任元濬과 都承旨 권짐에게 대하여 從容히 南小門 閉塞의 便否를 문의하였다는 것은, 이밖에 어떤 새로운 원인이 발생한데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 이 南小門 閉塞에 관련있는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동 睿宗實錄(卷七)元年己丑 八月條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볼 수 있다.

丙子(25일), 傳旨于刑曹曰, 昨日, 南小門外, 賊徒, 射殺尙州上番甲士孫順生, 泰仁甲士田永生, 劫掠旅裝, 又劫逐守門宣傳官, 不可不搜捕, 其布告論功事目, 速諭中外, 其事目曰, 有能捕告者, 良人超二階除職, 鄉驛吏免役, 賤人永良, 元有職者超二階, 有罪者免罪, 自願受賞者, 給綿布百匹, 其告者雖首謀, 亦免罪論賞, 命兵曹, 順生, 永生, 給復一年

즉睿宗은 昨日-8월 24일-南小門외에 賊徒가 나타나서, 尙州의 上番軍士 孫順生과 泰仁의 上番軍士 田永生의 二名을 射傷하고 旅裝糧탁을 掠奪하였으며, 다시 守門將인 宣傳官을 劫逐한 것으로서, 그 賊行이 심상치 않은 즉 搜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論功行賞의 條例를 告示함과 함께, 堅急搜捕를 형조에게 엄명한 것이니, 이 城中咫尺에서 일어난 南小門 賊徒事件이 조정과 시민에게 적지않은 衝動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즉 8월 26일 丁丑條에는, 王이 親命으로 宣傳官과 刑曹正郎을 特과하여 賊徒嫌疑者로 李莫山·金先達·毛知里·李加尼同·白斤今晉·丁安生 등을 搜捕해서, 담당관아에 넘기지 않고, 특히 承政院에 分付하여 맘을 새워가면서 鞫問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承旨들이 밤이 깊었다고 해서, 一人의 自服을 얻고는, 刑曹正郎·佐郎으로 賊徒被疑者들을 押領하여 迎秋門으로 나가서 典獄에 囚禁하게 하고 그 사유를 王께 아뢰었는데, 王은, 承旨들이 명령없이, 죄인을 罷鞫收監하였다고해서, 곧 宣傳官을 명하여 迎秋門守門將 李仲善을 義禁府에 拿囚하고, 刑曹正郎高台翼, 佐郎崔淑精을 內禁衛廳에 拿囚하며, 當直都承旨 권집과 同副承旨 李崇元을 譴責하는 등의 예외의 엄벌을 실시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迎秋門을 열고 賊人등을 納入하여 入直한 兵曹官員과 都總府郎官등으로 西南北所에 囚禁하고 위장을 시켜서 嚴重監守하게 하였다는 것이 보인다. 이 기사만으로도 당시 睿宗이 얼마나 이 南小門 賊徒事件을 중대시하였던 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28일 己卯에, 睿宗은 다시 政院에 傳旨하기를

今強盜等, 射傷軍士, 雖一二人至死, 予不惜之, 其不計數杖之, 必得其情이라고 嚴鞫을 명하였으며 이 傳旨에 의해서 院相 尹子雲이 承旨들과 함께 圓杖을 사용하여 嚴鞫하기를 三四次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동안에는 逮捕被鞫者 20여인중에서 四人의 杖死者까지 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南大門의 賊徒事件이 맨처음 발생한 것은 南小門 閉塞 下命日인 9월 19일 己亥에서 20여일전의 일이었으며 杖死者 4명을 내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病者에 한해서는 「解鎖鞫之」하라고 명하였던 9월 10일 辛卯는 이보다 앞서기 겨우 일주일전의 일이었다. 따라서 이 賊徒事件이 이렇게 王 이하 内外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니 만

치 이 사건심리의 진행과 함께 개설 十有餘年에 別無利益이었을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敬世子の 薨逝 후 不吉의 疑慮조차 없지 않던 이 南小門에 대한 閉塞論이 있음직도 한 일이었다. 또한 前記 睿宗實錄 元年 九月條에 권집의 啓言중

若因置則宜固門경

이라는 구절도 이 南小門의 시설이 문경조차 견고하지 못하여 賊徒의 患을 유치하기 용이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의 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睿宗은 陰陽風水說에 대해서도 많이 依從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이 南小門의 閉塞를 명하기 月餘前인 7월 30일 甲午에는, 旱魃이 있다고 해서 전래의 陰陽學적 故事에 의하여 市塵을 銅峴으로 옮기고 南大門(崇禮門)을 閉鎖하였다가, 4월을 지나서 비가 나린 다음인 7월 18일 己亥에 復市開門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同月 14일 乙未에는 光化門 鐘閣이 宮城밖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宮城을 光化門밖으로 退築하려 하였는데, 日者(觀象監員) 安孝禮가

上의 본명이 午인데 지금 성을 午方(南方)에 쌓으려 하니 이것은 「金神歲破死符」의 方位인것으로 犯할 수 없다.

고 하였다. 睿宗은 거기에 조차 築城의 役을 그만 정지하는 동시에 종각의 舊牆을 높이 쌓고 守鍾將만을 두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陰陽說도 무시하지 않던 睿宗이었음으로 이 일시 성내를 소란하게 하였던 南小門의 賊徒事件發生이 종전부터 말하여오는 異方不吉說 및 懿敬世子 薨逝에 대한 疑慮와도 관련하여, 나중에는 南小門 閉塞의 명을 내리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五

睿宗元년에 南小門이 閉塞된 다음, 80여년을 지나서, 제13대 明宗時代(서기 1546~1575)에는 다시 南小門의 개통론이 일어났다. 즉 明宗實錄(卷14) 8년 癸丑 4월 辛卯(16일)條에

政院啓曰, 前者, 雲溪令等, 以南小門請開事, 上言矣, 今考日記, 則睿宗元年,

經筵進講後，上。問新南小門閉塞便否，任元濬，啓曰，定都之初，豈不經營審度，而不說此門，且陰陽家，甚忌巽方，初開此門之後，懿敬世子薨逝，陰陽之說，雖不足信，然，此門可塞，於是，上，命塞之，今考日記則如此，傳曰，祖宗朝，豈偶然商量，而閉塞乎，上言 勿用之

라는 기사가 보인다. 여기에 의하면, 이보다 먼저 雲溪令등 몇사람이 南小門을 열어 놓자는 上疏를 하였기 때문에, 王은 政院에 下命하여 前日 閉塞의 사실을 實錄에서 考出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대로 들어서 上奏하니 明宗이 傳旨하여 「先王朝時代に 어찌 심상히 생각하고서 閉塞하였겠느냐? 上言한 것을 채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雲溪令등이 南小門 개통을 奏請한 이유로는 前引 實錄기사 중 「前者 雲溪令等以南小門請開事，上言矣」下에，註로

其上言曰，盜賊，利其閉門，隱匿城外，夜則踰城作賊，請開南小門
이라고 기입하여 있다.

즉 睿宗元年에는, 南小門閉塞論의 발생이 그 개통왕래로 인한 賊徒들의 출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南小門의 閉塞으로 교통이 막혔기 때문에, 賊徒들이 낮에는 안심하고 附近城外에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성을 넘어와서 도적행위를 하는 것이니, 南小門을 개통하여, 이 폐문으로 인한 賊徒들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賊徒들의 피해이지만, 그것이 開門으로 인하여 생기기도 하고, 폐문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는 즉 같은 賊徒事件이 폐문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開門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등, 역시 「人事無常」을 여실히 말하는, 일종의 재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이 南小門 일대는 山谷이 深邃迂廻하여 상시적으로 賊徒들의 出沒隱匿에 편의를 주는 지리적 조건이 되어 있었다. 그런 중에도 南小門 개폐문제가 논의되던 睿宗, 明宗時代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한 賊徒들의 晝夜出沒이 더욱 많았다는 것을 이들 實錄의 기사로써 알 수 있다.

그리고 明宗實錄의 기사에 의하여 한가지 辨解하여 두어야만 할 것은, 소위 金安老의 「南小門擅閉傳說」인 것이다. 즉 일부 야사의 기록이나 肅宗實錄에서 보이는

金安老所擅閉，不可不開

云云이라 한 것과 같이, 일부 南小門 개통론자들이 내세우던, 金安老가 用事할 때에

恣意로 南小門을 閉塞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무근 설이었던 것이다.

대개 金安老의 兩次에 걸친 登用執權은 이 明宗朝의 南小門 개폐론이 일어나기보다 이삼십년전밖에 안되는, 제13세 中宗朝의 15년 내지 30년간의 일이었다는 것이니 明宗時의 老成人士로서는 누구나 그 당시의 일을 耳聞目見하였을 것이다. 그런 즉 만일 金安老의 擅閉가 사실이었다면, 이 明宗朝의 南小門 개폐론이 나올 때에 이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政院에서는 다만 그 폐문사실로서, 睿宗元年의 사실을 考出하여 啓奏하였을 뿐이다. 明宗이

祖宗朝, 豈偶然商量, 而閉塞乎

라고 傳旨한것은, 곧 睿宗朝이후 明宗朝까지에는, 다시 南小門의 개폐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즉 이 南小門의 金安老擅閉說은 明宗朝에서도 다시 120여년을 지난 肅宗朝時代에 와서, 일부 南小門 再開를 기도하던 사람들의,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幫助하기 위한 造作之說이었던 것으로 그것이 그대로 사실인양 以訛傳訛하여 오는 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다.

六

明宗朝에서 100여년을 지나 제19대 肅宗朝에 와서는 이 南小門의 개폐문제가 다시 일어났다. 즉 肅宗元年, 5년, 16년, 36년에 4차례 걸쳐서 이 南小門을 다시 열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肅宗朝에 있어서는, 그 횃수로도 4차씩이나 있었지만, 토의도 贊否兩論이 모두 비교적 심각한 감이 없지 않다. 그 중에도 陰陽風水說을 중심으로 해서 개폐론이 전개되었지만, 그것이 당시 대립분파가 심한 「南人」과 「西人」의 政權獲得, 또는 유지를 위한 정략에까지 결부되었다는 것은 자못 흥미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肅宗實錄에 의하면, 元年(乙卯)六月條에,

術士金震發, 上訴言, 人才不出, 由於南小門之閉, 請開之, 下備局

이라고 한 것이 보인다. 여기에 의하면 같은 陰陽風水적 異論이라고 하겠지만 南小門

의 開設時나 睿宗朝의 閉塞時에 논의되던 「巽方拘忌說」과는 반대방향으로, 南小門의 閉塞으로 인하여 인재가 산출되지 않는다 하여 국가를 위한 有用의 인재를 얻기 위하여서는 南小門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術士金震發의 이른바 「人才不出論」은 그 자세한 陰陽學적 설명이 적혀 있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備局에 下付되는 정도에 그치고 개통의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종래의 「南小門開通不吉說」에 반하여 처음으로 「開通吉利說」을 내세웠던 것이니만치 이 南小門 개폐문제에 있어서 한 흥미있는 주목할만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도, 이 金震發의 개통론과는 좀 내용을 달리한 것이지만, 南小門을 닫아두는 것이 不利하니 열어놓자는 의론은 계속해 있었던 것이다. 즉 肅宗實錄(卷之八)5년己未八月條에는 다시 兵曹判書 金錫胄의 南小門 개통론의 오류를 論陳하던 사람들의 개통 이유가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堪輿家(陰陽風水家)들이 말하기를, 少陽方을 閉塞해서 개통치 못하는 까닭에 왕실의 宗斯麟趾의 慶事(자손의 慶事)에 항상 여자가 많이 나고 남자가 적은 것이니. 지금 그 舊址를 찾아서 少陽之氣를 통하게 하면 吉詳善事가 있을 것이라 한다. 또 金安老의 恣意로 閉塞한 것이니, 역시 열어놓지 않을 수 없다.

즉 당시에 있어서, 南小門을 개통하지는 이유는, 이상과 같은 少陽方에 해당되는 南小門이 閉塞되어 있기 때문에 왕실에 여자가 많이 나고 남자가 적으니, 이 少陽方인 南小門을 열어 놓아야 하겠다는 陰陽學적 논거와 南小門 閉塞은 中宗朝의 權奸 金安老의 恣意行動이었던 것이니 그대로 닫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兵曹判書 金錫胄는 이러한—당시 성행하던—南小門 개통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上訴를 하였는데, 여기서, 息庵遺稿(卷之十四)에 실려있는 「請寢南小門開閉之役」중에서, 金錫胄가 주장하였던 南小門 개통반대의 내용을 들어보면,

蓋少陽之方, 本在於正東, 河圖之數, 少陽居三, 而有得五成八之妙, 洛書之畫, 少陽亦占第三位, 而已自含少陽之數, 於圖於書, 俱置三數於左, 左則東也, 天三生木而爲震, 木者, 震之象, 震又東方之卦也, 坤求於乾, 得其初九, 而爲震, 故曰一索得男, 此 震之所以爲長子之方者也, 太子之所居曰春宮, 亦曰東宮, 其義, 蓋皆取儲震, 而東南則巽方, 非震也, 方技之家, 又有一說, 木生於亥, 而終於未,

則自亥至卯，陽氣方生，而日向於盛皆可以屬之於少，自辰至未，陽氣既盛，而將趨於衰，皆可以，屬之於老，辰與巳，則爲巽所居，以卦，則爲長女，以五行，則爲金之始生，金亦陰，非陽也，以此等意義，反覆考索，則其所謂少陽之方者，實未有所據也。

輿地勝覽卽 我成宗朝所撰集，而靖陵庚寅，命李荇等，增補者也，後一年辛卯，安老遂逐荇，而代其相，又七年而敗死，舊門，若果見閉於安老用事之時，則此書乃安老未用事時所成，此門應在於荇所記載之中，而今考京城郭條，只書，京城，太祖五年，用石築之，世宗四年改修，立門八，東南曰光熙云，臣未知所謂光熙者，果卽南小門之正名與，抑卽水口門之本號與，今者，城門已准八數，若復開此門，則京城當爲九門，似有乖於祖宗朝建置之初制，亦非古者，分其間正，按方立門之義也。

즉, 이 金錫胄의 南小門 개통론에 대한 반대요지는 이러하다.

첫째, 論者의 말이 南小門은 少陽方에 해당하고, 少陽方이 閉塞하여 있기 때문에 왕실자녀의 慶事에 女多男小한 것이라고 하지만 少陽之方이란 원래 正東에 있는 것이요, 河圖·洛書에 의하더라도, 少陽은 수에서 삼, 방위에서 左 즉 東에 해당하는 것이며, 東은 五行의 木, 八卦의 震에 해당한다. 人事에 있어서는 長子의 方位인 때문에 太子의 所居를 春宮, 또는 東宮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즉 東南은 巽方으로서 八卦에는 震이 될 수 없는 것인즉, 南小門을 少陽方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말이다.

둘째, 金安老가 南小門을 擅閉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輿地勝覽은 본시 成宗條에 撰集하고 中宗 24년 庚寅에 李荇등이 增補한 것인데, 安老는 그 다음해에 移行을 逐出하고 擅權用事하였은즉, 金安老用事前에 개통하던 南小門이라면 輿地勝覽에 기재되지 아니할리가 없으니 金安老擅閉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셋째, 지금 성문이 四大正門, 四小間門의 八門數에 맞은즉, 八門외에 다시 南小門을 열어 九門을 삼는 것은 祖宗朝의 建置初制에 위배하고 옛날 按方立門의 意義를 무시하는 것이니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金錫胄가 많은 南小門 개통론자들과 대립해서, 그 문의 개통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던 논지이었다.

이 金錫胄의 南小門 폐쇄론에 左袒하던 사람으로 또 相臣 閔熙는 巽巳方에 作門하면 第宅에 불리하다는 설이 있는데 일국의 都城이 私家第宅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다시 商確해서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고 하면서 南小門의 「不當開」를 上言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肅宗五年에 논의되던 南小門 개통론도 王이 「實錄中 可據文字」의 考出을 명하는데 그쳤을 뿐, 중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七

그런데 이 肅宗五年에 있어서의 南小門 개통론이, 이상과 같이 金錫胄등의 上言으로 해서 중지된지 10년을 지나서, 同 16년 庚午에는, 다시 보다 더 유력하게 대두하였다. 肅宗實錄(卷22)同年 7월 戊申(19일)條에 의하면, 이때 南小門 개통론의 발단은 廣州人 郭齊崇의 상소에서 비롯한 것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 주동적 역할을 한 것은 工曹判書 吳廷緯, 兵曹判書 민암 등이었다. 그리하여 이때 어명에 의하여 南小門故基를 看審하고 돌아온 吳廷緯·민암 등의 上奏는 南小門의 方位에 대하여 특히 많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아마 전번 개통식의 좌절이 金錫胄·閔熙 등의 方位論辯證에서 초래된 양으로 알았던 때문이다.

여기서 吳廷緯와 민암 두사람의 意見開陳을 들어보면, 吳廷緯는

전번 己未年에도 陽明方을 閉塞할 수 없다는 것이고 少陽方의 閉塞은 더구나 宗斯之慶에 妨害된다고 上訴하는 사람이 있어서 臣이 먼저 이(南小門 개통의) 論을 발설하였다. 그런데 金錫胄가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나중에는 저지하고 故相臣 閔熙도 錫胄가 가진 책자에서 보았다고 하며, 巽巳方作門不利論을 말하여 중지하게 되었다. 그런즉 지금 다시 地官들에게 물어서 그 方位를 알아본 다음 措置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민암은

南小門이 景福宮에서는 巽巳方이 되지만 時御所(昌德宮)에서는 丙丁方이 된다. 陽

明方의 閉塞은 크게 해로운 것인즉 地官으로 方位를 定한 다음 설문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다. 여기서 南小門의 方位가 景福宮에서는 巽巳方이지만, 時御所 즉 昌德宮에서는 丙丁方 즉 陽明方이 된다는 것이나, 陽明方의 閉塞은 크게 불리하다는 것은, 전일의 巽巳方, 少陽方을 내세웠던 南小門 請開建議가 실패한데 鑑한 논리의 전환이었던 것이다. 王은 다시 吳廷緯등에게, 地官등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時御所에서의 方位를 審定하게 하였다.

이 왕명에 의해서 2일후인 8월초 10일 戊辰에는 漢城判尹 俞夏益, 觀象監 提調 洪梓行, 兵曹判書 민암, 工曹判書 吳始復 등이 地師들을 인솔하고 南小門 舊基를 看審하고 還奏하기를

地師 等, 或言門當開或言不當開, 或言開門有何利害, 臣等之見, 歷代定都, 皆以南方開正門, 中原之午門, 我國景福宮之崇禮門, 皆是午丙丁方, 則三火方不可開門之說, 不見其然矣 (肅宗實錄 卷 22)

라고 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함께 看審한 地師들의 말도 모두 열어야 한다거니, 열어서는 안된다거니, 또는 열어서 무슨 이해가 있느냐느니 하여 의견이 구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 看審大臣인 민암·吳始復등은 중국의 午門이나 우리나라 景福宮에서의 崇禮門이 모두 午丙丁方에 해당되는 것인즉 「三火方不可開門之說」은 알 수 없는 말이라고 해서, 時御所 즉 昌德宮에서 丙丁方에 해당되는 南小門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王은 「姑待年事稍稔, 更稟舉行」이라고 해서, 그 실현은 다시 보류되고 말았다.

八

그런데 同實錄에는 다시 아래와 같은 記述을 첨가하여, 5년 己未와 16년 庚午에 兩次에 걸쳐 있었던 南小門 개폐문제의 경위를 밝혀있다.

蓋南小門之閉, 不知自何時, 而中間說者, 以爲, 若開三火方, 南人必益盛. 以此,

己未間, 許積等, 議欲復開, 爲金錫胄所沮止, 至是, 時輩, 必欲復開, 而上不之急, 故, 終未果

이 實錄編修者の 記述에 의하면, 중간에, 만일 三火方(午丙丁) 즉 南方을 개통하면 「南人」이 반드시 더욱 성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己未年(肅宗 5년)에 許積(南人)등이 南小門을 다시 열어놓으려 하다가 金錫胄(西人)에게沮止한바 되었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用事하는 사람들이 기어이 다시 열어놓으려 하였지만 上이 급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實錄編修者の 敍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編修者에 의해서는 왜곡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東西分黨의 발족이후, 당쟁이 반복되던 시기에 있어서는 甲黨의 일을 乙黨人이 쓰는 경우나, 을당에 관련되는 일을 갑당인이 記述하는 경우에는 黨적 偏派心에 의해서 반대당에 관련되는 일을 왜곡하여 서술하는 예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肅宗朝의 南小門 개폐문제에 관한 實錄編修者の 前記 서술도, 그것이 南人無力時代의 기록이었다니만치 혹은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肅宗實錄의 본 서술만은 그 시기와 사실등을 대조하여 볼때 사실 그대로의 서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仁祖이후 西人과 南人의 알력분쟁이 계속하여 오던 중 肅宗朝에 와서는 6년에 「庚申大黜陟」을 전후해서 南人의 세력이 西人에게 밀려서 쫓겨나기 시작하던 시기이었으니, 종전의 세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南人」측으로서는 자기편에 유리한 일이라면 일의 是非曲直을 불문하고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였을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5년에 金錫胄등의 저지로 해서 南小門 개통론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활발히 전개하게 된 16년 庚午는, 역시 당쟁사적으로 볼때에, 西人(老論)의 領袖인 宋時烈·金壽恒등이 元子冊立問題로 해서 南人의 지탄을 받아 流配賜死하게 됨을 따라서 그후 오육년간은 南人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던 시기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南人들의 自派勢力의 신장을 위한 모든 조치가 有形無形 중에 취하여지던 것이었으니 前日의 달성하지 못하던 南小門의 개통을 다시 기도하여 보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5년과 16년에 南小門을 열어놓자고 앞장서서 활동하던 許積, 민암, 吳廷緯등이 모두 南人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점으로도 수긍할 수 있는 일이고, 한편 5년 己未에 西人의 金錫胄가 처음은 吳廷緯등과 함께 南小門의 개통을 찬성하였다가 나중에 始役之

日을 몇날 앞두고서 前日의 불찰을 사죄하면서, 간곡히 無用의 工役을 중지할 것을 上訴 要請하여, 드디어는 南人一派의 개통주장을 좌절시키고 만 것 같은 것도, 그 이면에는 어떤 당파적 관련성이 있지 않았던가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여간 肅宗朝에 있어서 5년 己未와 16년 庚午에 일어난 南小門의 개폐론은 그것이 단순한 陰陽風水說에서, 다시 일 보전진하여, 당시 대립각축하던 「南人」과 「西人」의 당쟁과도 일련의 관계를 맺게까지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兩次에 걸쳐서 활발히 논의되고 南人관료들에 의해서 그, 실현이 기도되던 南小門이 개통문제가 肅宗16년에 왕명에 의하여 다시 보류된 다음에는 南人들의 실세에 의하여서인지 한동안은 잠잠하였다. 그런데 그다음 20년후인 肅宗36년 庚寅에는 다시 前 引儀 安鼎基의 上訴호해서 이 南小門 개통의 논의는 제4차로 일어났다. 즉 肅宗實錄(卷 49)同年 11月丁巳(27日)條에 의하면, 安鼎基는 都城守禦策을 論陳하는 上訴중에서

大小負兒峴間, 有一閉門, 是謂南小門也, 自其門, 距漢江一二里許也, 自兩峴, 至江邊, 築小城. 則可爲築甬道之勢也, 城內城外, 可容儲倉, 而開其舊門, 輸入其穀, 一以爲清野之道, 一以爲足穀之勢, 此是第一策也

라고 한 것으로서, 이 安鼎基의 건의중에는 肅宗朝에 있어서 3차나 있었던 陰陽風水說에 의한 개폐론과는 그 각도를 달리하여, 남소문이 있는 근처 大小負兒峴에서 漢江邊에 이르는 사이에 적은 성을 쌓아서 甬道之勢를 형성하고, 또는 南小門을 열어놓고 江倉의 양곡을 수입하게 하면, 一朝有事時에는 밖으로 「清野之道」가 되고 안으로 「足穀之勢」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都城守禦를 위한 제1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安鼎基의 築城開門論은 그 南小門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도성방어 대책으로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건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上訴는 兵曹에 下付되었을 뿐, 다음에는 다시 논의도 되지 않고 말았다.

九

이상으로써 睿宗이후 肅宗時代까지 200여년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南小門

의 개폐문제를 고찰하여 보았다. 따라서 그 개폐문제의 緣起가,

1. 南小門을 중심으로 한 賊徒들의 출몰관계
2. 南小門閉塞이 人才不出, 王室의 女多男小의 현상초래 및 陽明方不可閉塞云云의 陰陽風水學적 論據
3. 南人·西人의 당파각축시대에 있어서 南人들의 自派의 세력신장을 위한 정략적 계획
4. 都城守禦를 위한 교통운영상 유리한 南小門 일대의 지리적 조건 등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南小門의 개폐문제, 즉 南小門을 다시 열어놓자던 건의는 모두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으며, 문은 睿宗元年에 한번 닫힌 다음으로는 舊韓國末年까지는 한결같이 막혀있었다. 거기에는 물론, 처음부터 한문을 더 만들어 이례적인 都城九開門의 개통을 주저하였던 점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 개통시부터 말썽이 되던 陰陽風水적 설명이 역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巽方開門이 불길하다는 陰陽家의 설에 뒤를 이어서 開門未幾에는 懿敬世子の 薨逝의 실례가 있었으며, 肅宗朝에 와서는 다시 少陽方, 陽明方閉塞이 불길하다는 설에 반하여 같은 陰陽學적 이론으로서 「巽巳方作門不吉」, 「三火方不可開門」의 설이 나왔던 것이다.

더구나 肅宗朝에 있어서 南人들의 개문론에 반대하여 西人측에서는 같은 陰陽學적 이론에 입각한 개문불길론을 들고 나왔던 것인데, 결국은 「開門不吉」의 주장이 관철되어서 문제의 南小門再開는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肅宗朝에서, 南小門이 閉塞하였기 때문에, 王室에 여자가 많이 나고 남자가 적다는 논법과는 반대로 지금까지 口碑로 전하여 오는 말에는, 南小門을 열어놓으면, 서울 시내에 여자의 淫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의 논거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꼭 오래전부터 전하여 오는 것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閑話거리가 되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저 慵齋叢話 卷之一에 보이는

漢都, 西北高, 而東南下, 故, 長子爲輕, 支子爲重, 至今, 大寶相承, 名公鉅卿, 率多支子也

라는 것과 같이, 서울 地勢의 東南方이 低下한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오는 일종의 전래적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끝으로 南小門이 있는 산마루를 예전에는 「버티고개」라 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버티고개」의 「버티」는 저 肅宗實錄(卷49) 36년 庚寅 11月條 安鼎期의 上訴 중에 보이는 大小負兒峴間, 有一閉門, 是謂南小門也

중의 「負兒峴」의 原語가 아닌가 한다. 즉 「負兒」는 우리말의 광명을 의미하는 「불」, 「부여」의 한문식 記寫인것으로서 人居 중심지에서 東南方에 있는 산, 峴의 이름이 흔히 「負兒」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南小門이 있던 고개의 우리말 지명 「버티고개」도 역시 고개의 方位가 서울에서 東南方에 해당하기 때문에 「日出山」 또는 「光明峴」을 의미하여서 「버티」라고 불리워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 「버티」는 남산의 일명인 「列慶山」, 「引慶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은 日後 기회를 얻어서 재고하여 보기로 한다. (필자=본위원회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鄉土서울, 제1호, 1957년에 수록)

世宗大王과 李忠武公의 誕生地

— 現地踏査顛末報告 —

金 永 上

머 리 말

李氏朝鮮 五白有餘年中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서 世宗大王, 栗谷 李珣先生과 忠武公 李舜臣將軍 세 분을 들게 됨은 識者間에 거의 공통된 견해이지만 世宗大王과 李忠武公이 서울 태생이면서 그 舊基가 어디인지 아직도 석연히 밝혀지지 않고 있음은 또한 크게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世宗大王은 李氏朝鮮 제4대 왕으로서 그 업적도 燦然하여 우리가 聖王으로 崇仰하는 중에 그 분이 제4대 국왕이었던니 만큼 당연히 漢城宮中에서 탄생하시었으려니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기간 그 舊基에 대해서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世宗大王은 자칫하면 개성에서 탄생하실 뻔하였기도 했고, 또 李氏朝鮮 제4대 국왕이시면서 결코 景福宮이나 昌德宮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었다. 世宗大王은 바로 서울 俊秀坊이란 곳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朝鮮王朝實錄 世宗 莊憲大王 實錄 卷之1에 「太祖六年丁丑四月壬辰生 於漢陽 俊秀坊 潛邸」라 한 것으로써 우리는 世宗大王께서 탄생하시었음을 알 수 있다. 潛邸라 함은 李氏朝鮮 제3대 왕 太宗께서 아직 왕위에 오르시기 전인 芳遠王子로 계실때에 주거하시던 저택을 말함이다.

이렇듯 聖王 世宗大王께서 탄생하신 곳이 朝鮮王朝實錄에 의하여 의심할 여지조차 없이 알 수 있게 되었지만 李舜臣將軍의 舊基 역시 기간 밝혀지지 못한 채 있는 것도 크게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正郎 李芬의 原著인 「李忠武公行錄」을 譯註한 1948년 乙酉文化社刊 朴泰遠 氏의 「李忠武公行錄」에 의하면 「乙巳年 3月 初8日 子時에 공은 漢城 乾川 洞宅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였다. 그 註에 乾川洞은 지금의 三清洞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朴泰遠 氏는 李 忠武公께서 乙巳年 즉 李氏朝鮮 제12대 仁宗王 元年 西曆 1545년 陰 3월8일에 서울 三清洞에서 탄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朴氏가 忠武公의 誕生地를 서울 三清洞으로 斷定해서 말하고 있는데 比해서 桓山 李允宰氏는 그의 著書「聖雄 李舜臣」에서 「건천동이란 동리는 이왕 서울지도에 같은 이름이 세 군데나 있었다는 데 충무공이 탄생한 건천동은 지금 三清洞 근처라고 한다」라고 들은 말로 적었고 또 湖岩 文一平氏는 乾川洞이 어디었는지 確實히 알 수 없다는 見解를 披瀝하고 있다. 湖岩全集 第3卷 「東岳試壇과 西厓住所」란 題下에서 文一平씨는 이렇게 記述하고 있는 것이다. 『西厓의 功績에 對하여 흔히 論評하기를 일찍 栗谷의 十萬 養兵設에 反對한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나 忠武公을 推薦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 한다. 曲突 徙薪이 無恩澤이요 焦頭爛額이 爲上客 셈으로 비록 未然에 防止를 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既倒에서 挽回하였은즉 西厓의 功도 또한 적다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西厓의 功過를 말하려 함이 아니라 忠武公을 어떤 因緣으로 해서 일찍부터 알게 되었던가 함이다. 或은 西厓와 忠武公이 서로 隣近해서 살던 때문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忠武公實記을 보면 漢陽 乾川洞에서 呱呱의 소리를 질렀다 하는 바 古地圖에 나타난 乾川洞은 一般이 아는 駱山 밑 밖에 三清洞 入口와 南山 및 영정동(筆煮註=지금의 仁峴洞)에도 있었으니 그러면 忠武公 誕生한 乾川洞이 駱山 밑이나 三清洞 入口가 아니요 南山 밑 영정동인가. 西厓 忠武公이 일찍부터 알게 된 것을 보면 서로 가까이 살았다는 것이 그럴듯이 首肯된다. 그러나 이 臆測이 아무 根據도 없는 以上 到底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漢陽朝 文武를 代表한 世宗大王과 李忠武公의 誕生地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은 우리로서는 遺憾이 아니라 할 수 없다.』

以上과 같은 敍述로서 엿볼 수 있듯이 湖岩 文一平氏도 世宗大王과 李忠武公의 舊基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음을 크게 遺憾으로 여기면서 李忠武公이 誕生한 漢城의 乾川洞이란 駱山 밑 乾川洞인지 三清洞 入口에 있던 乾川洞인지 그렇지 않으면 南山 밑 지금의 仁峴洞 地帶에 있던 乾川洞인지 알 수 없다고 한 채 疑問을 풀지 않았다.

그러나 世宗大王께서 誕生하신 漢城의 俊秀坊이 古地圖에도 지금의 通仁洞이었음이 歷然히 나타나 있듯이 李忠武公이 誕生한 漢城의 乾川洞亦是 오직 南山 밑 仁峴洞地帶였음이 歷歷히 나타나 있을 뿐, 三清洞 或은 駱山 밑에도 乾川洞이 있었다는 記錄은 筆者가 지금까지 본 古地圖中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或 지금도 李忠武公 後孫으로 부터 傳해 들은 말이라 해서 忠武公이 駱山 밑 乾川洞에서 誕生하였다고 말하는 이가 있고 또 朴泰遠氏와 같이 三清洞이 곧 忠武公의 誕生地인 옛날 乾川洞이라는 見解를 가지는 이도 있는 상 싶지마는 湖岩도 잠간 비쳤듯이 西厓 柳成龍이 墨寺洞에 卜居하던 關係로 해서 李 忠武公과 竹馬之友였으며 그런 因緣으로 해서 끝끝내 忠武公의 爲人을 認定하게 된 這間의 事情에 비추어 볼 때 李 忠武公이 誕生한 乾川洞이 點에 대해서는 後에 詳細히 밝히려니와 어떻게 以上과 같은 斷定아래 4289年(西曆1956年) 12月5日에 市史編纂委員會에서는 「한글학회」의 後援을 얻어 俊秀坊과 乾川洞을 現地踏查하였다. 當時 踏查에 參加한 人員은 「한글학회」 側에서 李秉岐 유제한 兩氏와 市史編纂委員會 側에서 委員 劉鳳瑩, 金永上 故 希天 金道泰, 同囑託 李學範, 玄昌浩 諸氏였다.

世宗大王的 舊記 · 俊秀坊

앞서 머리 말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朝鮮王朝實錄 世宗 蔣憲大王 實錄券第1에 依하면

「太祖 六年丁丑 四月壬辰 生 於漢陽俊秀坊潛邸」

라 하였다. 이는 世宗大王께서 李氏朝鮮 太祖 6年 卽 西曆 1397年 陰 4月10日에 漢陽 俊秀坊에 있던 世宗의 父親 太宗 潛邸에서 誕生하시었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記錄에 依해서 世宗大王께서 誕生하신 곳이 王宮內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지만 한편 太祖6年이라 하면 아직 漢城이 韓半島의 首都로써 제대로 자리잡히지 못했던 時期였드니 만큼 或 境遇에 따라서는 開城쯤에서 誕生하실 뻔 하였을는 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도 일으키게 한다. 卽 李氏朝鮮 太祖가 百官의 反對를 물리치고 開城에서 漢陽 지금의 서울로 遷都한 것은 太祖 3年 10月 25日의 일이다. 太祖는 宗廟 社稷

과 宮闕의 造營도 未 成就하기 以前에 都邑을 옮기었던 關係로 그 當時 漢陽의 狀態는 文字 그대로 荒涼하였다. 어떻게 王宮인 景福宮이 竣工된 것도 遷都 다음 해인 太祖 4年 9月의 일이었다. 이는 世宗大王이 誕生하시기 겨우 1年 6個月 前의 일이다. 또 서울의 都城도 太祖 4年 閏9月에 都城築造都監을 設置하면서 始役하여 다음 해 卽 太祖 5年 9월에 이르러서 겨우 肅淸, 弘化(後의 惠化) 興仁, 光熙, 崇禮, 昭德(後의 昭義) 敦義, 彰義 等 八大門의 落成을 보게 되었다. 이는 世宗大王이 탄생하신 太祖 6年 4월에 앞서기 겨우 6개월 전의 일이다.

한편 太祖 5年 4月에는 漢城府의 東·西·南·北·中 5部 52坊의 區劃과 함께 坊名을 製作 立標하는 등 都市의 規模를 갖추기에 盡力한 바 있기는 하지만은 遷都後 2·3年 以內에 新都의 건설이 그 얼마나 진보되었을것인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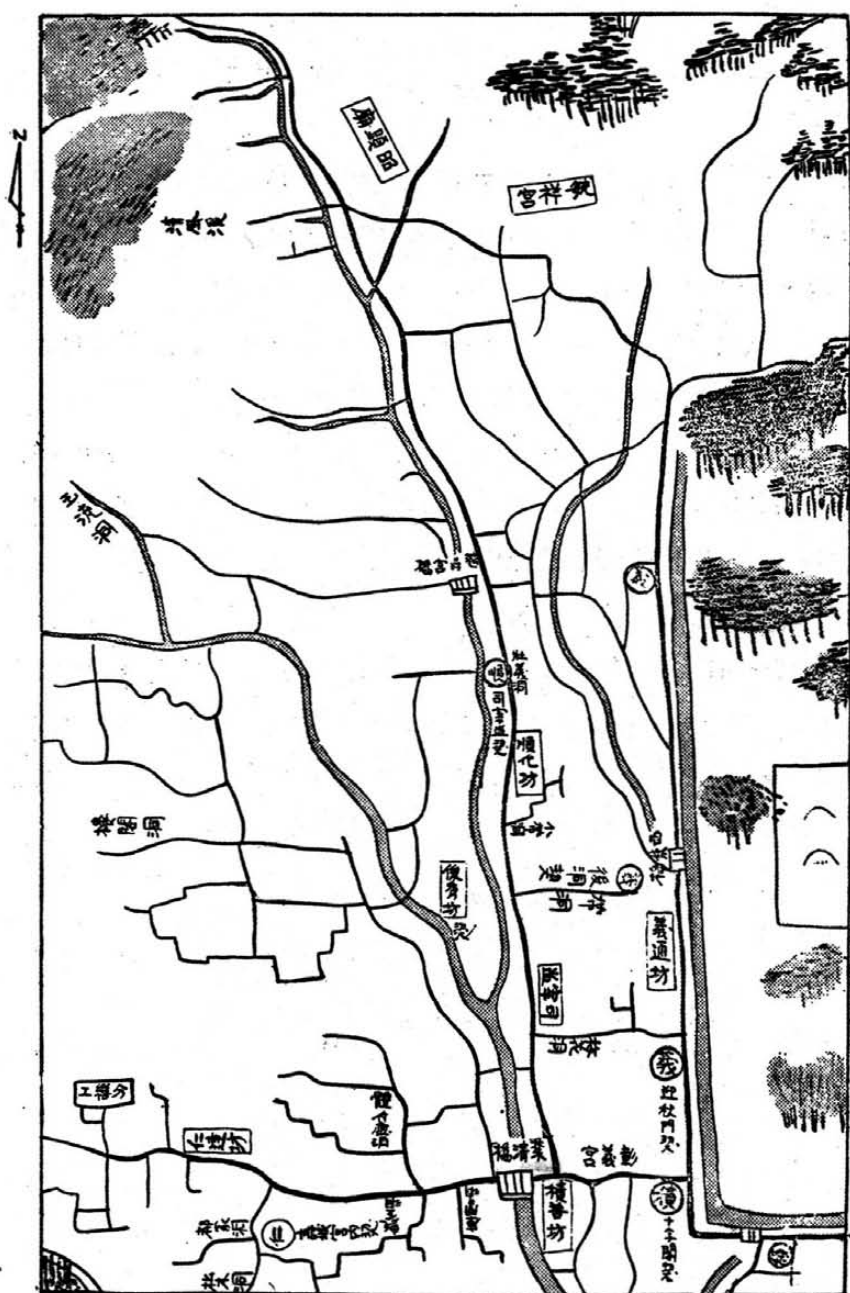
世宗大王은 이렇듯 漢城 遷都後 2年 5個月만에 新都 建設初期에 俊秀坊에서 탄생하시었는데 그로부터 2年 後인 定宗元년에 다시 都邑을 開城으로 옮긴 這間의 事情을 살필 때 太祖 6年 頃의 漢城은 그대로 荒漠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李氏朝鮮 第2代 王 定宗께서 漢城에서 開城으로 다시 복귀한 것은 그의 元年 3月 初8日의 일로서 이에 앞서 正宗 王이 開城 復歸를 宗臣과 功臣에 議論할 새 衆論은,

『서울에 가까운 州縣에는 大小臣僚와 宿衛士兵의 萬居할 곳이 없는데 松都에는 宮闕과 群臣들의 第宅이 모두 完全하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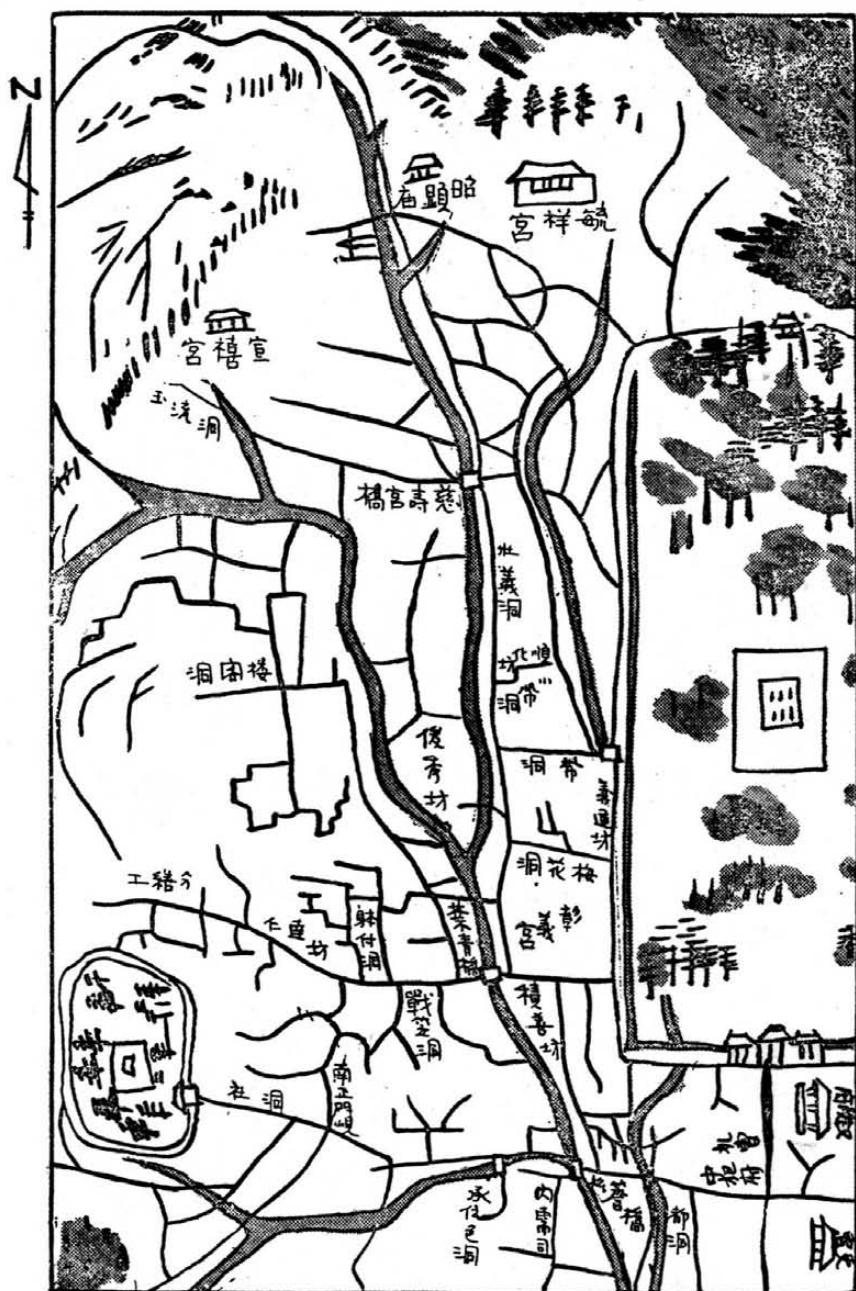
하였고 또 막상 松京 復歸가 決定되자 서울 都民들은 모두 기뻐하여 提携負戴하고 絡繹于路하면서 떠나기 때문에 城門을 막기까지 하였던 것이다(2).

이와 같은 事實에 비추어 推測컨대 漢城에 遷都는 하였지만 그 當時는 宮闕과 몇몇 집들이 들어 섰었을 뿐 아직도 新都로서 허전하였고 따라서 一般은 宮闕과 群臣들의 第宅이 具備해 있던 開城을 도리어 그리워하였던 것 같다.

以上에서 대충 살핀 바와 같이 太祖 3年 10월에 漢城으로 遷都한 以來 다음 太祖 4年 9월에 景福宮이 造成되고 同 5年 9월에 都城이 築城되었지만은 그로부터 不過 3年 後인 正宗 元년에도 아직 新都 漢城의 樣相은 廣漠하여서 오히려 옛 서울 開城을 一般이 그리워 할 程度였고 이러한 環境 속에서 世宗大王은 漢城府 俊秀坊에서 탄생하시었던 것이다. 그러면 俊秀坊은 果是 어느 地點이겠는가?



謙齋都城大地圖 俊秀坊一帶（模寫）



朝鮮長安圖形 俊秀坊一帶 (模寫)

우리는 古地圖에 依해서 그 地點을 一目瞭然하게 알아낼 수 있다. 즉 서울特別市史 編纂委員會에 소장되어 있는 都城大地圖와 靑丘輿地圖를 비롯해서 木版 大東輿地圖 또는 漢城地圖 朝鮮長安圖形 別紙附錄「서울地圖」等에 依하면 現在의 鍾路區 通仁洞 一圓이 俊秀坊으로 되어 있다. 高宗年間に 된 것으로 考證되는 木版 「首善全圖」에만 그 자리에 俊秀坊이라는 記載가 落漏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李氏朝鮮 第26代 高宗 2年에 編纂된 「六典條例 14」에 의하면 坊里 「北部」條에 俊秀坊이 明記되어 있고 俊秀坊에는 舊 司圃署契가 있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記錄은 首善全圖에는 俊秀坊이라 記入되어 있지 않지만은 俊秀坊이 지금의 通仁洞 一圓이었고 또 既往에 이곳에 司圃署가 있었다는 事實과 符合됨을 證明하여 준다. 卽 漢京識略에

『司圃署=在中部壽進坊, 輿濟用監 隔隣, 國初병置, 掌苑圃蔬菜』라하여 司圃署가 中部 壽進坊에 있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지만은 東國輿地備攷에는 「司圃署=在北部俊秀坊, 後移北部 壽進坊, 本朝병置 掌苑圃蔬菜……」

라 記述되어 있어서 司圃署가 進壽坊에 자리잡기 이전에 먼저 俊秀坊에 있었음을 알게 한다.

首善全圖에는 비록 俊秀坊이라 記入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앞서 舉證한 實例와 같이 『北部俊秀坊 司圃署契』라 함은 前記한 都城大地圖, 靑丘輿地圖, 漢城地圖 朝鮮長安圖形 等에 나타난 俊秀坊과 同一한 地域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俊秀坊이 漢城 初부터 이 地帶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六典條例가 編纂된 것은 高宗 2年の 일이거니와 그로부터 30年 後인 高宗 31年(西曆1894年) 甲午更張에 漢城 五部制를 五署制로 改置할 때의 文獻(3)에 依하면 北署 俊秀坊에 司圃署契가 있고 司圃署契에 仁王洞 玉洞 通谷 이렇게 三洞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거름 뒤로 물러나서 지금의 鍾路區 通仁洞과 玉仁洞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개혁되었는가를 살피어 보건대 倭政時代 西曆1914年(大正 3年) 4月 1日 附 京畿道 告示 第7號 「京城府 町洞 名稱 區域變更」에 의하면

『通洞은 通谷, 司圃洞, 玉洞 一部』라 하였고

『玉仁洞은 玉洞一部 仁王洞』

이라 하였다. 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옛날 俊秀坊이야 말로 곧 지금 通仁洞 玉仁洞 一

圓의 地域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서 俊秀坊은 곧 지금의 鍾路區 通仁洞 玉仁洞 一圓이었음을 明白히 알 수 있거니와 既往에 俊秀坊은 廣大한 地域을 차지하고 있던 順化坊 諸洞으로 뺨 둘러워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通仁洞 159番地(朝興 土建 株式會社란 看板이 붙어있는 二層 建物)에서 孝子洞 方面으로 뺨한 「아스팔트」길과 樓上洞 玉仁洞으로 뺨혀나간 「아스팔트」길은 모두 白雲洞 淸雲洞 쪽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내(川)와 樓上洞 松石園에서 흘러내리는 내를 매꾼 暗渠上의 道路로서 既往에는 이 것이 넷 줄기였으며 俊秀坊은 바로 그 두 줄기 내 안 地帶에 局限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順化坊은 俊秀坊을 비켜놓은 東·北·西·南 周圍 一帶를 점거하고 있었다.

俊秀坊을 둘러 쌓고 자리잡고 있던 順化坊을 살펴어 보면 高宗 2年 경까지만 해도 順化坊에는 司宰監上牌契 司宰監下牌契 玉井洞契 玉井後洞契 等 4契(4)나 있었으나 그後 甲午更張 以後에 5署로 改置된 뒤로는 司宰監上牌契와 司宰監下牌契로만 나누어져 있을 뿐이다(5). 그러나 順化坊이 包攝하고 있던 洞里는 이전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司宰監上牌契에는 『孝谷, 新橋, 白雲洞, 朴井洞, 祥宮洞, 溫井洞, 淸楓契, 東谷, 白狗洞, 昌城洞, 間谷, 玉井洞, 帶洞』등 13洞이 있었고 司宰監下牌契에는 『壯洞, 梅洞, 九曲洞, 體府洞, 禁橋, 樓閣洞, 南隻洞, 長城洞, 柳木洞, 福祚洞, 大松井, 間谷, 五巨里』等 亦是 13洞이 있었다. 既往의 俊秀坊인 通仁, 玉仁兩洞은 지금도 新橋洞, 孝子洞, 昌城洞, 通義洞, 體府洞, 樓下洞, 樓上洞等에 의하여 뺨 둘러 쌓여 있지만 이들 現在의 諸洞이 司宰監上·下兩契 아래에 있던 26洞으로부터 分割區劃된 내력을 살펴어 보면 다음과 같다(6).

△ 新橋洞=新橋洞一部

△ 孝子洞=白狗洞一部, 東谷一部, 毓祥宮洞一部, 壯洞一部, 孝谷, 溫井洞一部, 新橋一部

△ 昌城洞=玉井洞, 帶洞一部, 間谷, 昌城洞, 壯洞一部, 白狗洞一部

△ 體府洞=九曲洞, 體府洞, 樓閣洞一部

△ 樓下洞=五巨里, 南雙洞, 松木洞, 長城洞, 柳木洞, 福井洞, 樓閣洞一部

△ 樓上洞=樓閣洞一部

그런데 通仁洞이 지금은 通義洞과 접하여 있지만 既往에는 順化坊의 司宰監下契가 지금 通義洞의 거의 全域을 차지하다시피 하였다.

이상과 같은 例證으로서 俊秀坊이 지금의 通仁 玉仁 兩洞 一圓이었음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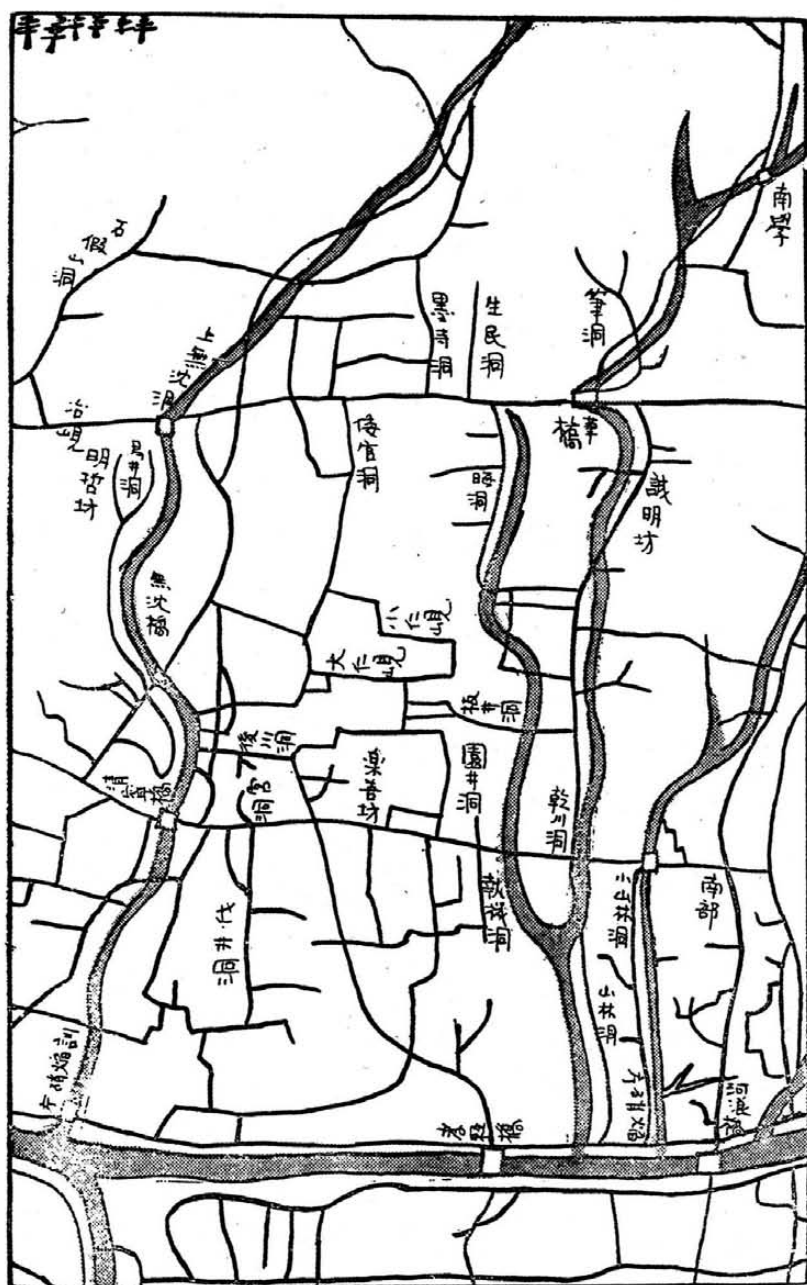
그러면 李氏朝鮮 最初期인 漢城 遷都 當時의 太宗의 潛都, 卽 世宗大王께서 탄생하신 舊基는 果然 어디쯤에 있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바로 이 자리라고 집어내기는 매우 困難한 일이지는 하지만 再昨年에 우리들 現地踏查隊가 踏查한 바로는 지금의 玉仁洞 一帶보다도 오히려 通仁洞 區域內가 아닌가 하는 推測을 내리는데 一致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後日 더욱 詳細히 考察할 問題로서 輕率히 云謂함은 妄發되기 쉬운 일이지마는 이 機會에 古文獻에 나타난 몇 가지를 다음에 添錄하여 두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李氏朝鮮 國初에 俊秀坊에 內瞻寺가 있었다. 卽 東國輿地備考 卷一에

『內瞻寺=初在 北部 俊秀坊, 移西部仁達坊, 國初因麗制置德泉庫, 太宗 三年 改爲 內瞻寺, 掌名宮室各殿供上, 二品以上酒, 及倭野人供饋, 織造等事今廢油醋及素膳供上』

이라 記述되어있다. 이것으로써 俊秀坊에 內瞻寺가 있다가 後에 西部 仁達坊으로 移轉한 事實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德泉庫라 했다가 太宗 3년에 內瞻寺라 하였다고 하였으니 改稱한 것은 定宗王이 開城으로 復歸한 以來 太宗이 아직도 開城에 留하고 계실 때의 일이다. 卽 太宗은 그의 5年(西曆 1405年)10월에 漢城 遷都를 實現하였으므로 아마 漢城遷都 卽時 內瞻寺가 俊秀坊에 설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司圃署, 內瞻寺等이 俊秀坊에 있었던 事實도 研究考察하여 불만한 일일상 싶다.

또 俊秀坊에는 內侍府가 있었다. 즉 東國輿地備考에 『內侍府, 在北部 俊秀坊, 國初置宦寺三府, 掌大內監膳, 傳命, 掃門掃除之任』이라 하였고 漢京識略에도 『內侍府, 在北部 俊秀坊, 內醫院北, 國初置 宦寺之府也』라 하였다. 司圃署나 內瞻寺는 모두 中部 進壽坊과 西部 仁達坊으로 移轉하였지마는 內侍府는 高宗時代까지도 通仁洞에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그 宏大한 建物이 分讓되고 或은 疎開道路로 變改되었지마는 지금도 住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內侍가 살았던 자리라고 전하는 지점에는 오래된 槐木이 서있다.



朝鮮長安圖形 乾川洞一帶 (模寫)

〈註〉

- (1) 正宗實錄 卷第1 正宗元年乙卯 2月 條
- (2) 同 上
- (3) 京城府史 第2卷 漢城府改革
- (4) 高宗2年 編纂「6典條例」 4
- (5) 京城府史 第2卷 漢城府改革
- (6) 1914年(大正 3年) 4月1日附 京畿道 告示 第7號「京城府 町洞名稱 區域變更表」

李 忠武公 舊基 · 乾川洞

李 忠武公 全書 卷9의 附錄「行錄」에「公 生于漢城 乾川洞家」라 한 것으로써 李舜臣 將軍이 서울 乾川洞에서 탄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或 一部에 口傳되는 바로는 駱山 밑에도 乾川洞이 있어서 忠武公이 誕生한 것은 바로 駱山 밑 乾川洞이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머리말에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朴泰遠 氏 같은 이는 李 忠武公이 誕生한 漢城의 乾川洞은 바로 오늘날의 三清洞이라고 斷定해서 記述하고 있다. 朴氏가 이렇게 斷定해서 말한 것은 그의「李忠武公行錄」釋本보다 먼저 出刊된 李允宰 氏의「聖雄 李舜臣」에서 본 땀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李氏는 어디까지나 들은 말투로 記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口傳이나 朴泰遠 氏의 三清洞 設이 어떠한 구체적인 考證을 들지 않고 있는만큼 그 것이 信憑할만한 것은 못되지마는 어쨌든 區區한 臆測이 떠들게 된 것은 크게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臆測이 떠들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古地圖 어떤 것을 살펴어 보아도 駱山 밑이나 三清洞 入口에는 乾川洞이란 洞名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中區 仁峴洞 一街 地域에 乾川洞이란 洞里가 있었다는 것마는 古地圖에 거의 記載되어 있다. 湖岩 文一平 氏는 일찌기 乾川洞이란 洞名이 駱山 밑과 三清洞 入口와 南山 밑 仁峴洞에 있었음이 古地圖에 나타나 있다고 記述하였지마는 (1) 어떠한 古

地圖을 보았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지금 市史編纂委員會에서 所藏하고 있는 都城大地圖 靑丘輿地圖는 勿論 漢城地圖나 木版 大東輿地圖나 首善全圖나 朝鮮長安圖 形및 別紙「서울지도」에도 南山 밑 仁峴洞1街 地點에만 乾川洞이라 記入되어 있을 뿐 駱山밑과 三清洞 入口 地域에는 乾川洞이란 洞名이 전혀 記入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廣範圍로 涉獵은 못하였지마는 筆者가 지금까지 본 古文獻 中에서는 駱山 밑과 三清洞入口에 乾川洞이란 洞里가 있었다는 記錄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實例로써 漢城에 乾川洞이란 오직 한 곳 南山 밑 以外에는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터이지마는 그 外의 考證으로서도 李 忠武公의 誕生地가 바로 지금의 中區 仁峴洞1街 地點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湖岩은 일찌기 西厓 柳成龍이 乾川洞 附近인 墨寺洞(筆者註=지금 筆洞 2街 或은 3街)에 살았다는 事實을 말하고 西厓와 忠武公은 少時부터 서로 잘 아는 터이었으므로 後日 忠武公을 朝廷에 推薦하게 되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두 사람이 少時부터 잘 알게 된 것은 隣近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多少 疑問을 가지는 同時에 西厓와 忠武公이 일찍부터 알게 된 것을 보면 서로 가까이 살았다는 것이 그럴 듯이 首肯되지만 이 臆測이 아무 根據도 없는 이상 도저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結論지어 말하였다(2).

그러나 西厓와 忠武公이 가까이 이웃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억측도 아니며 또 그렇게 少時부터 이웃하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도 文獻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李忠武公全書 卷9의 附錄 「行錄」에

『性不好奔走，以此雖長生於洛中，而少有知者，獨西厓 柳相公，以洞里少友，每許其將帥才也』

라 한 구절만으로도 忠武公이 번거로움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으로 서울 長安에서 자랐으면서 아는 이가 별로 없었고 오직 西厓와는 洞里的 어렸을 때 동무로써 西厓는 이미 어렸을 때 부터 忠武公이 將帥의 才局있는 爲人임을 알아주었던 事實을 알 수 있다.

忠武公이 어찌나 奔走하기를 즐기지 않았던지 栗谷 李珣先生이 吏曹判書로 있을

때 忠武公의 이름을 듣고 同姓임을 알자 한번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종내 가보지를 앓았다. 이 때에도 竹馬之友 西厓가 사이에 들어서 栗谷을 찾아가 보라고 권하였지만 『내가 栗谷과 同姓인만큼 한번 만나볼만도 하지만 그가 吏曹判書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찾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다(3). 이 한 토막 일화를 통해서 보더라도 柳西厓와 忠武公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두 사람이 서로 알게된 것도 社會人으로서 忠武公이 柳西厓를 찾아 다니었기 때문에 서로 알게된 것이 아니었고 少時부터 竹馬之友였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였던 것도 충분히 짐작된다. 忠武公이 時流에 쫓아서 出世를 企圖하는 그러한 성품이었다고 하면 西厓가 中間에 들어서 권할 때 學者이며 高官의 位에 있던 栗谷을 아니 찾아갔을 리 만무였을 것이다. 忠武公이 後日 柳西厓의 추천에 의해서 全羅左水使로 陞差한 것도 決코 西厓에게 交涉해서 된 것이 아닐 것으로서 西厓는 西厓대로 少時부터 忠武公의 將帥의 才局을 許容한 心地에서 추천한 것이었을 것이다. 燃藜室記述 卷15 壬辰倭亂에

是時 倭聲日急，上命備邊司，各薦才堪將帥者，擢加里浦僉使 李舜臣，爲全羅左水使 左相 柳成龍 所薦也

라 한 것으로서도 西厓가 忠武公을 加里浦 僉使로부터 全羅左水使로 拔擢 登用케 하겠끔 推薦한 것을 알 수 있다.

柳西厓가 墨寺洞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壬辰倭亂 後 龍灣 播遷으로 부터 還京한 뒤로도 亦是 墨寺洞 假宅에 住居하고 있었음은 懲瑟錄에도 明記되어 있다. 이렇게 文獻을 통해서 보더라도 忠武公의 誕生地야 말로 바로 南山 밑 墨寺洞에 隣近한 乾川洞이 아닐 수 없다. 또 宣朝時代 사람인 許筠의 著書 惺所覆早稿 卷之 24에 依해서도 이 點은 충분히 考證된다. 卽

余親家在乾川洞，自青寧公主邸後。至本房橋， 재 三十四家。國朝以來多出名仁。金宗瑞，鄭麟趾，李季同爲一時。梁誠元，金守溫，李秉正，爲一時。其後 盧相及 先大夫 기，邊知事，爲一時。近世 柳西厓 及 家兄 기，李德豐舜臣，元原城 均爲一時。而西厓有功於中興之後，元李二將，有再造之功，到치尤盛。(惺所覆早稿 卷之24.)

이 文獻에 依해서도 西厓와 忠武公이 隣近해서 같은 城域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忠武公이 탄생한 乾川洞은 어느 범위의 地域이었던가? 古地圖와 현재 지도를 참고로 현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古地圖에 依하면 南山밑 지금 筆洞1街에서 긴 내(川) 줄기가 淸溪川까지 흘러서 山林洞 201番地 北方地點에서 바로 그 東쪽 孝經橋로 흘러내리게 그려져 있다. 漢京識略 卷之2 橋梁條에 南山下, 筆洞川水則, 經筆洞橋(在南部誠明坊) 與生民洞川水, 合流于水豐橋(俗名孝經橋)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것이다. 南山下 筆洞川이 既往에 어떻게 흘렀는가 하면 지금 陸軍憲兵監室 西便 溪谷을 따라서 흘러 내려오다가 지금 「코리아·하우스」가 있는 앞을 스치고 忠武路와 잇갈리는 東便 地點에서 筆洞橋를 지나서 仁峴洞1街 아스팔드 길을 따라 孝經橋에까지 흘러내렸다. 이 개울은 앞서 指摘한 漢京識略 橋梁條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중간에 生民洞 川과 합쳐서 淸溪川으로 흘러내렸다. 生民洞 川이란 古地圖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忠武路4街 警察官派出所가 있는 바로 못미쳐 골목 卽 仁峴洞 1街와 2街의 境界를 이루고 있는 골목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 지금 國都劇場 西便을 스치며 乙支路 큰 길을 꿰뚫고 흘러 내리다가 山林洞 162番地 地點에서 筆洞川水와 합류하여 孝經橋로 흐르는 내(川)였다. 筆洞川과 生民洞川을 다시 설명하면 지금 수도극장앞 草洞 큰길 東便 南北으로 뚫린 仁峴洞「아스팔트」길이 既往에 筆洞川水 물줄기였으며 亦是 南北으로 뚫린 그 東便 골목 길이 生民洞내의 줄기였다. 그리하여 이 두 줄기 냇물은 乙支大路 넘어 地點까지 亦是 두줄기로 흘러가다가 山林洞 162番地와 275番地 地點에서 합쳐서 淸溪川邊孝經橋 西便에서 淸溪川으로 흘러들어 갔던 것이다. 이 두 냇 줄기가 지금은 모두 暗渠가 되어서 길이 되어 있다.

이상에서 시도한 설명은 古地圖와 現在의 서울特別市 精圖를 對照하며 살펴보면 곧 納得될 수 있는 터이지만은 지금 山林洞 162番地와 275番地 地點 卽 筆洞川과 生民洞川이 合流하던 地點을 頂點으로 두 개울은 그 사이에 몹시 좁다란 三角洲를 이루었다. 이 三角洲 內의 地域이 곧 乾川洞이었다. 그런데 앞서 指摘한 여러 地圖에 依하면 이 三角洲地域안에서도 乾川洞은 筆洞川과 生民洞川이 지금 乙支大路를

건너 지르기 이전 지대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事實은 地圖上에 明示되어 있는만큼 의문할 여지조차 없지만 西曆1914年(大正 3年)에 지금 仁峴洞 1街를 倭名 營井町으로 改稱하고 區域을 변경할 때 營井町1丁目 卽 지금의 仁峴洞 1街에 包攝한 洞里는 筆洞一部, 桑洞, 山林洞一部 大仁峴洞一部, 晦洞一部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改編 以前의 山林洞은 지금 乙支大路를 넘어서 지금 仁峴洞 一部 地域에까지 침범하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實例로써 乾川洞은 지금 仁峴洞1街 아주 南端地域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지만은 한편 1914年 度에 仁峴洞 1街(當時 營井町 1丁目)를 區域 變更할 때 筆洞一部, 晦洞一部, 大仁峴洞一部까지도 包含시키었다는 事實을 미루어서 볼 때 지금 仁峴洞 北部地域도 亦是 乾川洞이 아니었고 筆洞이었으며 大仁峴洞은 지금 草洞大路에서 예관동大路까지 東西로 건너지른 언덕 길 中央地點 卽生民洞川을 건너지른 以東地帶 쪽에 있던 洞里로서 大仁峴洞 일부까지도 仁峴洞 1街에 포함되었으니 만큼(4) 乾川洞의 地境은 매우 협소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전에 있던 前記 洞名은 역시 지금으로부터 몹시 가까운 過去에 부르던 것이었으니만큼 李忠武公이 탄생하던 시절보다 이 지역에 或 洞里가 많이 分離派生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推測하는 것이 妥當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巴例를 들면 高宗 2年에 編纂된 6典條例4에 의하면 乾川洞이 隸屬되어 있는 誠明坊(5) 안에는 石橋上契과 石橋下契 및 蓮城尉契 等 三契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高宗 31年 甲午更張 以後에 漢城 5部制를 5署制로 改編 한 때에는 誠明坊에 草洞契, 山林洞契, 桑洞契, 鑄字洞契, 筆洞契, 小筆洞契, 大山林洞契, 晦洞契, 일관동契, 瓦有豆里契, 蓮城尉契 等 無慮 十契나 된다. 이들 여러契와 그契에 소속되어 있는 洞里 中에는 樂善坊의契 및 洞里와 重疊된 것도 많이 있어서 어딘지 모순된 것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관계는 참고로 따로 添記하려 (6) 하거니와 西曆 1914年 倭政後에 京城府 町洞 名稱 區域 變更에 依하여 仁峴洞 1街(當時 營井町 1丁目)도 區域 變更이 되었을 때, 併合된 同名 中에는 前記 지적한 바와 같이 乾川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도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桑洞이란 명칭이 나타나 있음은 몹시 궁금한 일이다. 或 乾川洞이 桑洞으로 한

때 변하였던 것인가? 그도 그러려니와 이에 앞서 甲午更張後의 五署制 改編에도 誠明坊이나 樂善坊에 乾川洞名은 전혀 없으며 다만 明誠坊內에 桑洞契가 있고 同契內에 桑洞 하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典條例에 明記된 誠明坊內 石橋上契 石橋下契 및 蓮城尉契 3契中 石橋 上·下契 그 것이 지금 筆洞 지역에 위치해 있음이 古地圖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만큼 乾川洞은 분명히 蓮城尉 契 內에 속하여 있었을 것이고 또 지도상으로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게끔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午更張 以後에 五署制로 개편됨에 따르는 誠明坊 蓮城契內에는 都家洞, 小仁峴洞, 大仁峴洞, 板井洞, 園井洞, 直井洞, 石中洞, 鍊井洞, 後洞, 孝橋洞, 三台洞, 等 11洞이라는 多數 洞이 編入되어 있으면서 乾川洞은 나타나 있지 않고 또 蓮城尉契 內에는 桑洞이란 洞名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몇몇 가지 事例에 依해서 考察할때 乾川洞 地域이 最近世에 이르러 각가지로 여러 洞名으로 明滅하면서 뒤 바뀌지 않았던가 하는 推測도 자아내게 한다. 그리하여 지금 仁峴洞 1街가 倭名으로 英井町 1丁目이 될때 併合된 여러 洞 亦是 그 當時와 그 以前 사이에 地域의 變更도 없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그러나 어쨌든 李忠武公이 탄생한 乾川洞은 지금의 仁峴洞 1街 中에서도 중앙지대였던 것만은 틀림 없을 것 같이 여겨진다. 卽 1902년에 된 別紙附錄 「서울지도」에도 乾川洞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밝혀줄 것은 앞서도 舉證한 바와 같이 許筠의 所著 惺所覆부稿를 통해서 李忠武公이 本邦再造의 功을 세우고 殉國한 前後만 하더라도 乾川洞 隣近 一帶에 人家가 극히 稀少하였다는 사실이다. 卽 青寧公主邸(지금 國都劇場 東便 地點) (7) 뒤로부터 本房橋(아마도 筆洞川水가 乙支路 大路와 엇갈리는 地點에 있던 다리인 것 같다) (8)에 이르는 사이의 一帶와 墨寺洞에 이르는 지경까지 사이에 人家가 겨우 34戶 밖에 안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새 都會狀態와 달라서 그만큼 人家가 稀少했던 관계도 작용되어서 墨寺洞에 살던 西厓와 李忠武公이 幼時부터 洞里 동무로써 서로 作伴 遊戲하였으리라고 足히 推測도 되지마는 또 筆洞川을 따라서 뚫린 乾川洞길은 墨寺洞에서 서울 中心街로 가자면 自然히 擇하게 된 唯一한 近 距離 길목이었으니만큼 西厓와 忠武公은 이러한 관계로 해서 더욱 이웃의 情分을 두텁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여겨진다.

그런데 乾川洞이란 洞名은 어떻게 해서 지어진 것일까? 이 점도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北岳, 仁旺, 南山, 駱山 등에서 淸溪川으로 향해서 흘러내리는 냇물 中에는 그 長短이 서로 다르듯이 水量의 多寡에 있어서도 各各 差度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乾川洞이란 洞名이 생기게 되기까지에는 筆洞川이나 生民洞川이 어느 내보다도 매마르기 쉬웠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러한 생각이 단지 推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文獻을 통해서도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짐작된다.

芝峰類設 卷3에

『平時都城內外, 謂之禁山, 松木鬱茂, 壬辰兵火之餘, 國法解弛, 日就濯濯 又自頃年以 蟲食葉殆盡, 數十里內稚松 亦無餘者, 四山盡瘁, 所見慘恢 術者乃謂, 漢陽氣衰所致, 倡爲移都之設, 可勝痛哉』

라 한 것을 미루어 보면 李氏朝鮮 中葉 특히 壬辰倭亂 이후에는 四禁山の 伐木禁止가 解弛해서 山野는 荒廢하고 山骨이 튀어나서 그야 말로 만자숙조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에는 松蟲도 尤甚했던 모양으로 역시 서울 주위의 山野를 慘然케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倭軍이 서울에 1년간이나 주둔하고 있었으니만큼 戰時에 예외없이 따르는 山野荒廢도 짐작이 가거니와 아마도 芝峰이 山野의 荒廢를 恨嘆하던 때 쯤은 서울 四山 밑에서 흘러내리는 내 중에도 매마르기 쉬운 내(川)가 間或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어디까지나 壬辰倭亂 이후의 일로서 前記 芝峰의 敘述은 바로 李忠武公이 탄생한 무렵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反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壬辰亂 以前에는 서울 禁山 밑이 어떠하였던가? 이는 李氏朝鮮 第十代 燕山君 時代의 사람인 僞齋 成俔의 僞齋叢話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僞齋叢話에 의하면 壬辰倭亂 以前 李氏朝鮮 初期와 中葉에 걸치는 年間に 있어서 城안에서 景致 좋고 놀만한 곳으로 三清洞이 가장 으뜸이었으며 그 다음이 仁王洞(現 仁旺山麓) 雙溪洞(現 成均館大學 附近) 白雲洞(北岳西麓) 등이었으며 그 다음에 靑鶴洞(現 筆洞憲兵監室 西麓)이 꼽히었다. 그 당시 三清洞에는 淸泉이 亂松사이에 湧出하였고 樹木이 鬱蒼했으며 水量 亦是 豊富하였음에 反해서 靑鶴洞은 洞深하고 맑은 냇물이 흘러서 可히 會遊할만한 곳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곳에는 遺憾될 程度로 나무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漢城都中，佳境雖少，而其中可遊處，三清洞爲最，仁王洞次之，雙溪洞，白雲洞，青鶴洞又次也。三清洞在昭格署東，自鷄林第而北，清泉湧出，亂松間，綠流而上，山高樹密，岩壑深邃，行未數里，有岩斷絕成崖，水洒崖의垂白虹，散沫如跳珠，其下貯水爲泓，其傍平衍，可坐數十人，長松交蔭，其上挾岩皆是杜鵑楓葉，春秋紅影照曜，縉紳之士，多來遊焉，其上數步則演窟也，仁王洞則仁王山下，心曲崙이，福世庵者，谷水合流成溪，都人爭來射帳，雙溪洞在泮宮上谷，有雙泉成澗，金子固挾澗構堂，種桃倣武陵，姜晉山作賦，子固文雅擅一時，故豪俊多從之遊，白雲洞在藏義門內，中樞李念義居之，詩人有題영，然李目不知書，非名流也，青鶴洞在南學之南洞，洞深有清川可候，然山童無樹，是可恨也．．．．．(下略)』

이상과 같은 文獻을 통해서 壬辰 以前만 하더라도 三清洞川이 乾川일 수 없을 程度로 水量이 富豐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동시에 青鶴洞 清川 卽 筆洞川 源流는 그 後山에 樹木이 없던 關係로 水量이 그리 풍부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石澗水로 洞谷에서 清川을 이루었다고 하지마는 그 水量이 결코 그 아래 乾川洞까지 無時로 물줄기를 이룰만 하지 못했을 것 같이 여겨진다. 또 한편 乾川洞 東便을 스치고 흐르던 生民洞川이야말로 古 地圖上으로 보나 또 지금의 地形으로 보나 筆洞川에 比해서 그 源流마저 그윽하지 못한 만큼 더욱 乾川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메마르기 쉬운 筆洞川과 生民洞川 새 中間에 끼어있는 좁다란 三角洲 地帶를 乾川洞이라 부르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

〈註〉

(1) 湖岩全集 第3卷「近郊山岳史話」

(2) 同 上

(3) 李 忠武公 全書 卷9의 附錄「行錄」

(4) 1914年 4月 1日 附 京畿道 第7號「京城府 町洞 名稱 區域 變更」

(5) 漢城地圖에는 乾川洞을 樂善坊 隸屬으로 記入되어 있지만 誠明坊에 隸屬되어 있던 것으로 記入한 地圖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또 文獻上으로도 誠明坊 隸屬이 有力하다.

(6) 李氏朝鮮 第26代 高宗 2年에 編纂된 六典條例와 高宗 31年 甲午更張後에 五署制 改編에 依한 文獻과 西曆 1914年(倭政大正 3年)의 京城府 町洞 名稱 區域 變更等에 依해서 誠明坊 樂善坊 仁峴洞1街 乾川洞과 이에 有關한 部分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六典條例

南部十一坊七十一契···誠明坊(石橋上契, 石橋下契, 蓮城尉契)

樂善坊(禁倉契, 眞流里契, 倭官洞契, 瓦有豆里契)

△ 高宗 31年 五署制 下

南署 十一坊一百契 163洞

※誠明坊

草洞契···舊造山洞, 草洞, 篩洞

山林洞契···小山林洞

桑洞契···桑洞

鑄字契···鑄洞, 南學洞

筆洞契···筆洞

小筆洞契···小筆洞

大山林洞契···大山林洞

晦洞契···晦洞

日館洞契···生民洞

瓦有豆里契···藝洞

蓮城尉契···都家洞, 小仁峴洞, 大仁峴洞, 板井洞, 園井洞, 直井洞,

石中洞, 鍊井洞, 後洞, 孝橋洞, 三台洞

※樂善坊

筆洞契···筆洞

墨洞契···墨洞

蓮城尉契···晦洞

日館洞契···生民洞, 藝洞

瓦有豆里契·····沈橋洞, 銀洞, 五官洞, 後洞, 園井洞, 五壯洞, 青寧尉洞,
甕井洞

大仁峴契·····仁峴洞

直流洞契·····坪井洞, 孝橋洞, 舟橋洞, 午橋洞

△1914年(倭政時代)의 變更

仁峴洞1街(倭名 甕井町1丁目)

筆洞一部, 桑洞, 山林洞一部, 大仁峴洞一部, 晦洞一部

仁峴洞2街(倭名 甕井町2丁目)

晦洞一部, 小仁峴洞, 大仁峴洞一部, 板井洞一部, 仁峴洞一部, 藝洞一部,

甕井洞一部

山林洞(倭名 林町)

山林洞一部, 三台洞, 石中洞, 鍊井洞, 後洞一部

笠井洞(倭名 笠井町)

詩洞一部, 河橋洞, 甲洞一部, 笠井洞一部, 馬契洞, 草洞一部, 舊造山洞, 篩洞
一部, 山林洞一部 乙支路3街(倭名 黃金3町丁目)

山林洞一部, 草洞一部, 篩洞一部, 椒洞一部, 笠井洞一部, 詩洞一部, 履洞一
部, 竹洞一部 乙支路4街(倭名 黃金町4丁目)

青寧橋洞, 甕井洞一部, 園井洞, 銀洞, 板井洞一部, 直井洞, 大仁峴洞一部, 山
林洞一部

忠武路3街(왜명 本町3丁目)

草洞一部, 椒洞一部, 宮基洞一部, 筆洞一部, 鑄洞一部

忠武路4街(倭名 本町4丁目)

五官洞一部, 藝洞一部, 晦洞一部, 生民洞, 墨洞一部

筆洞2街(倭名 大和町2丁目)

筆洞一部, 墨洞一部

筆洞3街(倭名 大和町3丁目)

墨洞一部

(7) 여러 地圖에 依하면 지금 乙支路4街 158番地와 同5街 249番地의 中間地點에 靑寧橋가 있었다. 이는 그 近傍에 靑寧邸가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橋名인 것으로 都城大地圖에 靑寧橋 西便 지금 國都劇場이 있는 地點쯤에 宮洞이란 洞名이 記載되어 있다. 아마도 이 곳이 靑寧公主 邸宅 舊基인상 싶다.

(8) 都城大地圖와 大東輿地圖에는 筆洞川과 生民洞川이 지금 乙支路를 橫斷하는 地點에 各各 다리가 놓여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漢城地圖같은 데는 그 다리가 모두 그려져 있지 않고 首善地圖에는 오직 筆洞川이 乙支大路와 交叉하는 地點에만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어쨌든 筆洞川을 따라서 乾川洞길이 南北으로 뻗었던 這間의 實情을 考慮하면 筆洞川에 놓았던 다리가 本房橋가 아니었던가 싶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鄉土서울, 제3호, 1958년에 수록)

李氏朝鮮 鑄字 印刷 小史

—鑄字所를 중심으로—

金 元 龍

1. 序言
2. 鑄字所의 變遷
3. 鑄字 및 印出事業
4. 結言

필자가 위촉받은 것은 서울 특별시 史의 1항인 「서적의 인쇄」였으나 이것은 말하자면 李朝 인쇄사가 되는 방대한 내용의 것이며 평소 이와 같은 大問題를 다룬만한 연구를 해 둔 것도 아니고 또 지정된 한 달이라는 짧은 시일 가지고는 그러한 논문의 집필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鑄字所를 중심으로 하는 李氏朝鮮 수도에서의 鑄字事業 및 그에 따르는 활판인쇄사업을 概觀함으로써 부과된 책임의 일단을 메꾸는 동시에 필자의 早漏하기 짝이 없는 「韓國古活字概要」(1955年刊)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정하려고 하는 바이다.

追記 이러한 계획으로 집필을 시작하였으나 鑄字 및 印出事業은 이것을 壬辰亂 이후 까지 끝 마칠 시간과 힘이 없어 임진난 직전까지로 일단락을 짓고 임진 이후 것은 稿를 다 시하여 쓰기로 하였다.

1. 序 言

李氏朝鮮이 수행한 여러 가지 문화활동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의 하나에 활판인쇄가 있다. 자그마하고 재력도 넉넉치 못한 李朝政府가 국가사업으로서 활자를 주조하고 말할 수 없을만치 다량다종의 서적을 인쇄해 낸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또 역대 왕들이 활자의

개량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을 선조의 유업이라고 생각한 탓도 있겠지만 李朝의 왕들은 선천적으로 활자에 대한 애착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활자의 주조 또는 서적의 간행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은 언제나 왕 자신인 점은 李朝 인쇄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성격을 띤 李朝 활판인쇄사업의 중심이 된 곳은 鑄字所라고 불리운 왕립활판인쇄였다. 따라서 鑄字所史 곧 李朝의 活版印刷史가 되는 것이며 나는 본문에서 爲先 鑄字所 자체의 변천을 고찰한 후 그가 행한 주조 및 인쇄사업을 회고함으로써 李氏 朝鮮代의 활자제작 및 印刷史로 대하고저 하는 바이다.

2. 鑄字所의 變遷

鑄字所가 처음 설치된 것은 太宗 3년(140) 2월 13일이었다. 鑄字所 설치에 관하여는 癸未字 주조의 사정을 상기한 權近의 鑄字跋(陽村集 卷22)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太宗實錄에만 간단히 新置 鑄字所(註1)라고 나올 뿐이다. 그런데 鑄字所 설치의 착상이 太宗의 新發案인가 하는데 관해서는 뒤에 활자주조문제에 관련시켜 다시 말하겠지만 대체로 고려 최후의 해인 恭讓王 4년(1392)에 생긴 서적원을 본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의 서적원은 왕조 교체의 변동기에 際하여 鑄字事業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으며 太宗은 새로이 鑄字事業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름도 鑄字所라고 고쳐서 鑄字 및 인쇄사업을 전담하게 한 모양이다. 다만 서적원이 太宗 3년까지 존속하였는지 그 전에 폐지되어 있었는지 기록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太祖 4년(1395)까지는 확실히 있었다는 것은 이 해에 서적원이 木活字로 大明律直解 百餘部를 인쇄한 것으로 알 수 있다.(註2)

却說 太宗 3년 2월에 신설된 鑄字所는 실은 서울이 아니고 개성이었다. 李朝政府의 서울 冀都는 太祖 4년 10월이었으나 4년 후인 定宗 元年(1399) 3월에는 다시 개성으로 환도하고 있다. 그 후 다시 서울로 귀환한 것은 太宗 5년(1405) 10월이었다. 따라서 鑄字所가 새로 설치되고 癸未字가 주조된 것은 개성에 수도가 있을 때 일이다.

서울 還歸시에 鑄字所도 서울에 移設되었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鑄字所는 이

때 왕궁인 경복궁에 두지 않고 서울시내의 타처에 두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世宗 17년(1435) 9월에 鑄字所를 경복궁에 移置하였다는 실록의 기사(註3)로써 분명한데 어디서 옮겨 왔는지를 실록은 말하지 않고 있다.

鑄字所를 경복궁 내로 移置한 것은 한달 후인 10월 19일 실록기사(註4)에 의하면 「鑄字所는 承政院이 주장하는데 그것이 궐외에 있어 사무연락에 지연되기 때문에 궐내로 옮기라」는 世宗 자신의 發案에 의한 것이었다.

이 10월 19일 기사에 의하면 鑄字所는 궐내 衙門으로서 承政院 직속기관임을 역시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무 간편상 鑄字所가 궐내에 移置된 뒤로는 鑄字所 구건물은 교서관 소속하에 版木庫로 사용하도록 결정되고 있다.(註5)

그런데 鑄字所의 구위치에 관하여 宮闕志에 의하면 「校書館은 본래 경복궁 司饗院 남쪽에 있던 것으로 현재는 중부 貞善坊에 있는데 이것을 內官이라 부르고 남부 薰陶坊에 있던 것이 앞에 말한 世宗 17년 왕명에 의하여 새로 校書館이 移管받은 鑄字所 건물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이것은 京城府史가 所據한 薰陶坊 鑄字洞志에 의하면 바로 鑄字洞에 校書館 외관이 있었다는 것이다.(註7)

校書館 그 자체와 鑄字洞이라는 이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니 이 鑄字洞이란 이름은 필시 원래 그 자리에 鑄字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동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鑄字所가 있기 때문에 鑄字洞이란 이름이 생겼는데 世宗 17년에 鑄字所가 궐내에 이치되고 鑄字所 건물은 校書館 외관으로서 版木藏置所가 된 후에도 그 洞名은 그대로 남아 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이다. 鑄字洞이란 京城府史에 의하면 일신 국민학교가 있는 현재의 鑄字洞 일대며 日政時에는 鑄字洞의 鑄字를 따고 다시 金변을 떼서 壽町이라고 불리웠다.(註8) 이 洞名 개정은 1914년이었으며 따라서 鑄字洞이란 이름은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府史에 의하면 일신 국민학교 뒤에는 지금은 暗渠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은 왕년에는 鑄字洞橋라는 다리가 있었다 한다.(註9)

이상과 같이 世宗 17년에 경복궁내로 이치된 鑄字所에는 世宗이 돌아간지 5개월 후인 文宗 卽位年 庚午 7월 4일에 1시 폐지되고 있다.(註10) 실록에는 폐지 이유를 들고 있지 않아 폐지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언제 復置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곧 회복된 것은 그 해 12월 17일 실록기사에 「왕이 승정원에 대하여 正音廳이 小學의 인재를 끝냈

으니 사용한 鑄字는 당연히 鑄字所에 돌려보내야 하겠지마는 듣건대 鑄字所는 장소가 좁아 두어둘 곳이 없다 하니 그대로 正音廳에 두고 주자소 관리를 왕래시켜 監掌케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물은데 대하여 都承旨 李季旬이가 한 곳에 모아 두어야지 안된다고 上言하여 右承旨의 조사결과 마침내 활자를 모조리 鑄字所에 돌려보냈다」(註11)는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명백하다.

기후 世祖 6년 庚辰(1430) 5월 22일의 政府 全般의 冗官 汰去 시에 鑄字所는 校書館으로 合屬되고 말았다.(註12)

世祖가 鑄字所를 校書館에 合屬시킨 것은 아마 鑄字所의 두 가지 임무중 주자사업은 몇해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니 그것은 그때마다 임시직을 두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임무 즉 활자로서의 인쇄사업은 校書館에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사실 다음 成宗 15년(1484) 甲辰의 소위 甲辰字 주조시 기록에 鑄字廳 堂上李有仁云云(註13)이라고 나오는 것도 주자사업을 위한 임시직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또 中宗 10년(1515)의 丙子字 주조 동의시에 中宗이 「其令別說都監」(註14)이라고 한 것이다.(註15) 다음 11년 丙子 정월에 「說鑄字都監」한 것, 또는 光海君日記에 「鑄字都監啓曰」云云的 기사등으로 미루어 보면 활자주조가 실시될 때에는 鑄字都監이란 임시직이 특설되어 활자주조를 전담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은 顯宗實錄의 「初校書館鑄字 自壬辰兵亂 散失之後不能更鑄 只以木字印冊 故字體甚不精」(註16)이라는 기사로 미루어 보아 더욱 타당해 보인다. 이 顯宗 9년이란 해는 유명한 金佐明 활자가 만여자 주조된 해인데 이때에도 鑄字를 담당한 것은 守禦廳이었으며 이 활자가 주조완료되자 校書館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이다.(註17)

그러면 활판인쇄 사무는 어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校書館의 主掌事務로 된 뒤에도 그것을 위한 전문관청이 校書館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增補文獻備考 校書館條에 正祖 18년의 鑄字所 復設에 관하여 「모든 활판인쇄는 여기서 하여 왔는데 그 이름은 새로이 만들지 않고 그저 임시로 監印所라고 불러왔는데 이제 國初의 舊號를 따라 鑄字所라고 부른다」(註18)라는 기사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본 바와 같이 鑄字所라는 관청이 다시 舊名을 가지고 독립된 것은 正祖 18년 甲寅(1794년)이었다. 이것은 尹定鉉의 「鑄字事實」에도 「甲寅(正祖18년) 命內閣銅字移藏 于昌慶宮之舊弘文館 稱北鑄字

所」라고 나오고 있다. 여기 이른바 내각이라 함은 正祖 卽位年 丙申(1776)에 설립된 奎章閣의 本閣을 말하는 것이며 이 내각에 대해서 외각이라 함은 正祖元年(丁酉)에 奎章閣에 합병된 校書館을 말하는 것이다.(註20)

그런데 이 독립된 鑄字所에는 奎瀛新府라는 扁額이 걸렸던 것이 漢京識略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즉 漢京識略의 奎瀛新府條에 「이것은 宣仁門안에 있는데 正宗朝에 昌德宮內的 公解를 써서 내각이 鑄字所라고 하고 奎瀛新府라는 扁額을 달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板堂이 있어 冊板과 활자를 두었으며 인쇄시마다 여기에서 局을 열어 일에 당하게 하였으며 여기있는 銅活字는 生生字라고 부른다」(註21)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鑄字所에 整理字(生生字는 잘못)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奎章本閣 所藏의 銅字는 물론 외각인 校書館에서 鑄字所 합병 이래 맡아오던 舊來活字도 전부 맡게 되었으며 그속에는 太宗 世宗朝의 古活字들도 들어있었다. 이것은 哲宗 8년의 鑄字所 소멸후 同 9년 정월의 右議政 趙斗淳의 啓에 「正廟朝所鑄外 太宗世宗朝所鑄俱入其中」(註22)云云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결국 正祖 18년에 독립된 鑄字所 1명 奎瀛新府는 奎章閣本閣 즉 내각 소속하에 板木 鑄字를 저장하고 인쇄를 실시하는 출판소로 발족하였던 것이다. 이 鑄字所를 확실한 위치는 前記 漢京識略에 在宣仁門內라고 있고 그 뒤에 이어 鑄字所傍 有閣曰考文館 즉 옛 弘文館은 昌慶宮 明政殿廻廊의 西南隅 외측에 있으며 宣仁門(昌慶苑 정문인 弘化門 남쪽의 현재 폐쇄된 대문)과도 가깝다.

그런데 이 考文館 옆에 붙어있던 鑄字所는 正祖 24년 4월 13일에 弘化門과 宣仁門 사이에 있는 儀仗庫는 옮겨지고 있다. 이 移舍는 檢校 直提學 李晩秀의 의견에 의한 것이며 그에 의하면 「鑄字所는 御定冊子編印所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春坊과 桂房의 直所(필자註 이것은 모두 인접한 昌德宮所在)가 점점 들어와 부득불 이사해야 했는데 弘化門右邊의 翼廊에 있는 儀仗庫의 儀仗을 昌德宮 敦化門 좌우의 翼廊으로 옮기고 그 儀仗庫자리를 내주면 좋겠다」(註23)는 것이며 正祖는 이 啓請을 허락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할 것은 純祖年間에 편찬되었다고 믿어지는 宮闕志에서 鑄字所를 在宣仁門北이라고 하면서 昌慶宮에 놓지 않고 昌德宮에 포함시킨 사실인데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이것은 鑄字所의 위치가 昌慶, 昌德 兩宮 인접지대에 있어 혼동을 일으킨 모양이다.

正祖一代를 통하여 이 鑄字所에서 활발히 인쇄한 것은 後章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鑄字所가 純祖憲宗을 거친 다음 哲宗 8년 10월 15일밤에 일어난 大火로 소멸되고 말았다. 이것은 그 해 8월 4일에 昇遐한 대왕대비(純朝妃) 金氏純元皇后의 殯殿이 된 昌慶宮 歡慶殿에 임시로 지은 假家에서 불이 일어나 宣仁門, 東北所部 將廳, 衛將所 鑄字所等を 延燒한 것이었다.(註24)

이때에 타 없어진 활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듬 哲宗 9년(1858) 정월 21일부터 시작하여 그 해 9월 18일까지 사이에 활자의 대량 주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後章에서 다시 말하겠다.

활자의 再鑄와 함께 鑄字所도 물론 재건되었으며 鑄字 畢後의 奎章閣 啓言에 分部入藏于鑄字所라고 있다.(註25)

火後의 鑄字所藏 활자수는 鄭元容의 袖香編에 의하면 整理字, 韓構字는 화재를 면한 것이 각종 177,531자 新鑄한 것이 160,693자 도합 338,225자(註26)로 되어 있는데 隆熙 3년(1910년) 3월의 奎章閣 「鑄字目錄」(註27)에는 따로 衛夫人字가 大小 203,921자가 있다.

그러나 鑄字所에는 이 밖에도 막대한 양의 각종 활자(金屬, 木, 陶活字)가 있었으며 1916년 당시의 引繼目錄(註28)에 의하면

1. 금속활자 衛夫人字 大字 121,894 小字 75,181
 實錄字 大字 55,749 小字 13,996
 韓構字 46,451
 整理字 大字 116,766 小字 108,100
 鐵字 大字 9,149 小字 7,107
 諺文 大字 262 小字 575
 字名未定 1,017
2. 陶活字 大字 96 小字 129
3. 木活字 新活字 40,987
 舊活字 極大 533 大字 186,587
 小字 58,196 極小 51,790

한글大字 6,631 小字 2,448

木活字計 347,172

總計 884,644

라는 방대한 수효에 달하고 있다.

이 활자들은 현재 경복궁내 思政殿 동측 廻廊에 들어 있는데 6·25 동란시 萬春殿이 목격될 때 일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상 李朝一代의 鑄字所의 변천은 회고하였다. 끝으로 鑄字所의 職制에 대해서 一瞥해 보아야 하겠는데 鑄字所의 職制에 대해서는 완전한 형식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 자세한 전모를 밝힐 수 없다.

太宗世宗朝를 위시하여 역대 鑄字所에서 鑄字를 실행할 때는 後章에서 언급하다시피 文官 고관들로 된 감독관들이 임시로 임명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鑄字所의 본 직원 자체에 관해서는 世宗年 鑄字所를 경복궁내로 옮길 때의 실록기사에 承旨 2인으로써 주장케 하고 따로 2품 이상의 文臣 1인, 承旨 1인을 提調로 하고 그밖에 校書, 校理, 參外 등 2·3인을 두어 임무를 分掌케 한다는 것이 나와있다.(註29)

이러한 직원들은 고급 사무원들인데 그 밑에 오는 하급관리로는 이보다 앞서 世宗 7년 7월 15일의 吏曹의 啓에 「校書館書員은 鑄字所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校書館書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鑄字所書員이라고 부르자」(註30)는 말이 있어 鑄字所書員이라는 하급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급직에 관해서는 더 기록에 나오는 것이 없으나 반드시 印刷工, 鑄字工 등 다수의 직원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大典會通 卷1 吏典雜職에 나오는 校書館 직원으로 守機諸員 44, 粧冊諸員 20, 司準 1인, 司勸 1인 그리고 同書卷 6工典의 京工匠 校書館條에 나오는 冶匠 6, 均字匠 40, 印出匠 20, 刻字匠 14, 鑄匠 8, 雕刻匠 8, 木匠 2, 紙匠 4의 직원 배치를 통하여 鑄字所의 직원배치도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

大典會通의 편찬은 高宗 2년(1865)이며 鑄字所가 奎章閣에 속하면서도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 이후의 것이지만은 鑄字所 職制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校書館 職制속에 확실히 활자주조, 활판인쇄공이 들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校書館의 職制는 鑄字所 것도 통합하여 기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즉 吏典雜職에 나오는 校書館 직원은 活

字機 管理人, 製本工 등이고 工典京工匠에 나오는 校書館 직원은 실제로 활자주조, 인쇄에 당하는 기술자로서 물론 其中에는 校書館이 담당하는 목판인쇄에 관련된 기술자도 포함되어 있겠지마는 冶匠, 鑄匠 등은 틀림없는 鑄字 기술자고, 均字匠은 말하자면 조판 공들로서 활판인쇄에 관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그만한 수의 이상과 같은 각종 기술자가 鑄字所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과히 큰 착오는 없을 것이다.

3. 鑄字事業

鑄字所가 설치된 뒤 최초로 주조된 것은 太宗 3년의 癸未字였다. 이때의 鑄造에 관하여 실록에는 太宗 3년(1403) 2월 13일에 「왕이 조선에 서적이 적어 유생들이 널리 독서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새로 鑄字所를 설치하여 藝文館 大提學 李稷, 摠制 閔無疾, 知申 朴錫命, 右代言 李膺을 提調로 임명하고 內府所載의 銅을 많이 내고 또 大小臣下에서 자의로 銅을 내게 하여 充用케 하였다」(註31)고 간단히 나오고 있으나 더 자세한 것은 權近의 鑄字跋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永樂元年 春 2월에 전하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널리 서적을 읽어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바로 잡아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는 바다 건너에 있어 중국서적이 들어오는 것이 드물고 또 板本은 갈라지기 쉽고 힘이 들어 천하의 서적을 모두 인쇄해 내기는 어렵다. 이제 銅으로 글짜를 만들어 서적을 얻을 때마다 印出하여 널리 퍼뜨리면 그 利는 무궁일 것이다. 그러나 鑄字費用은 백성으로부터 받아내지 말고 나와 親勳 臣僚中의 유지들이 모아내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다. 여기서 內帑을 몰아내고 李稷, 閔無疾, 朴錫命, 李膺등을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姜天澍, 金莊侃, 柳荑, 金爲民, 朴允英 등으로 하여금 실지 주조를 監掌케 하시다. 또 經筵에 있는 古注詩書 左氏傳을 字本으로 하여 2월 19일부터 주조를 시작하여 수개월 사이에 수십만자를 만들었다.」云云(註32)

이 癸未字 주조에 관련하여 고찰해 볼 것은 과연 銅活字 또는 일반적으로 금속 활자가 太宗의 독창인가 하는 점이다.

활자가 최초로 동양문헌에 나오는 것은 北宋 沈括(1030~1094)의 夢溪筆談이며 沈括

은 그 속에서

「慶曆年間(1041~1048)에 畢昇이란 평민이 활판을 만들었는데 기법은 膠泥(粘土)를 써서 그 위에 字를 새기기를 종이장 처럼 하고 每字를 따로따로 하여 불로 구어서 단단하게 한다. 그리고 철판위에 松脂臘을 紙灰와 섞은 것을 붓고 그 위에 철편로 만든 테두리를 놓고 그 안에 글자를 가득 배열한 다음 그 전체를 불에 대서 그 약이 약간 녹으면 평판으로 위에서부터 글자를 누르면 활자면이 平擔하게 된다. 이것으로 책을 한 권, 두 권 인쇄하려면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수십, 백, 천 권을 인쇄한다면 극히 신속하다.」(註33)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土活字이며 그 사용법도 일일이 이치에 닿고 초창기의 幼雅한 활판 인쇄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 2책을 찍으면 불편한 방법이라고 하겠지마는 다량의 서적을 인쇄하려면 신속한 방법이라고 한 '코멘트'는 필시 沈括의 자신 생각이며 이것은 실지경험이 없는데서 오는 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11세기 전반에 究明된 중국의 土活字가 其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其後의 宋代記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조판상의 難點으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한 개의 죽은 발명품으로 끝난 모양이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활판법이 其後 전혀 없다가 하면 그렇지 않고 14세기 초의 元人 王禎은 錫活字, 木活字의 존재를 보고하고 있다. 즉 그의 유명한 저서 農書의 書後에 실린 활자 印書法에 畢昇의 土活字를 말한다고 생각되는 古活字 인쇄법을 소개한 다음

근세에 와서 또 錫으로 활자를 만들어 한줄기씩 철조로 꿰고 그것을 다시 테두리 안에 넣어 印書한다. 다만 土活字나 錫活字는 墨을 칠하기 어렵고 깨지기 쉬워 오래 쓰지 못하는데 현재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 생겼다. 그것은 목판으로(조판용) 테두리를 만들고 竹片을 깎아 界行으로 한 다음 목판에 글자를 새기고 그것을 細小한 톱으로 한자 한자 잘라낸 다음 다시 다듬어서 각자의 大小高低를 동일하게 한다. 그 후에 이 활자를 조판하고 사이사이에 竹片, 木片으로 흔들리지 않게 넣고 墨칠을 해서 인쇄한다.(註34)

이 王禎이 말하는 「근세」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여기에는 약했지마는 王禎은 그 앞에서 먼저 소위 一字書版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후세」에 와서 土活字法이 생겼다 운운하고 이어 近世錫字 云云의 말이 나온즉 그가 말하는 근세란 과히 멀리 올라가는 시기를 뜻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후세」라고 말할 제11세기보다는 뒤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니 아마 서기 제13세기를 막연히 가리키는 것인지 모른다.

서기 13세기라면 고려에서도 금속활자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고려시대의 活字印刷史料로 가장 오래것을 유명한 東國 李相國 後集에 나오는 詳定禮文에 관한 기록이다. 이것은 고려정부가 서기 1232년에 강화로 천도한 후 禮官이 미처 가지고 가지 못한 詳定禮文을 李奎報가 한 본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금속활자를 써서 28부를 再刊하였다는 것이다.(註25)

이 詳定禮文이 活印된 것은 서기 1234년부터 1241년 사이인데(註36) 이와 비슷한 연대의 活字史料로 南明泉和尚證頌道歌의 刊記가 있다.

이에 의하면 그 책을 더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高宗 己亥(26년 서기 1239년)에 「募工 重彫鑄字本」 즉 鑄字本(註37) 南明泉和尚證頌道歌를 목판으로 重刻했다는 것이다.

이 刊記는 活판본 證頌道歌가 확실히 서기 1239년 이전에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상 두 가지의(그것밖에 없지만) 史料에 의해 늦어도 서기 1230년대에는 고려에 금속활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고려에도 서기 1200년경에 금속활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韓國 古活字 概要에서 고려 금속활자의 출현시기에 관하여 고려정부가 鑄字와 印書를 주장하는 관청을 그 最末年 즉 1392년에야 설치한 것으로 미루어, 高麗活字史는 그다지 긴 역사를 가지지 못한 것이며, 최초의 금속활자 출현시기를 詳定禮文 인쇄시에는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라고 추측하였다.(註38)

이에 대해서는 아직 같은 생각이며 고려 금속활자의 초출 연대를 대체로 서기 1200년 전후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고려의 금속활자와 王禎에 의하여 지적된 중국의 錫活字와는 그 연대가 모두 막연하며 그 선후관계를 정할 수 없다. 매우 답답한 이야기지마는 앞으로 신자료가 나와 모든 것은 해결해 줄 때까지는 이 이상 더 어쩔 수가 없다.

이상 좀 옆길로 들어간 감이 있었으나 다시 우리의 癸未字 문제로 돌아와 보면 금속활자라는 점만으로 따지면 그것은 반드시 太宗의 신안특허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銅活字라는 점만을 따져도 高麗의 鑄字는 錫 또는 鐵이었는지도 모르나 麗代의 청동기 유행으로 보다 다분히 靑銅製 활자일 가능성이 많이 이것도 신안특허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太宗의 鑄字事業이 特記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13세기의 그 금속활자가 其後에 크게 발달되었다는 證據가 없을 뿐더러 王朝交代의 혼란기로 인해 도리어 거의 자취를 감추어 그 존재가 망각되었지나 않나 생각될 정도였다는 것—李朝 初期人들이 癸未 銅活字鑄造에 대해서 미경험으로 인한 주저감을 가진 것은 후에 世宗이 甲寅字를 鑄造할 때 知中樞院事李천에게 「太宗肇造鑄字所 鑄大字時 廷申皆曰難成 太宗強令鑄之」云云(註40)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隣邦 중국에서도 錫活字같은 금속활자가 宋末 元初에 있었다고는 하나 其後 제15세기 말경에 이르러서 민간에서 銅活字 사용이 시작될 때까지는 역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에 관해서 재미있는 것은 世宗 17년(1435)에 金漢이 聖節使 通使로 明에 갔을 때 世宗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明의 禮部員外郎 蕭儀에게 「貴國에서는 글자를 銅으로써 箇箇鑄造하여 排字印出하는가」하고 물었을 때 蕭儀 답이 「그렇지 않다. 昔者에는 或 銅으로써 鑄造했다. 그리고 그 글자와 板이 서로 꼭 맞아 들어가게(相付) 하는데 制度는 木版과 一般이다(字與板相付 制度與木版一般) 그러나 功費가 甚鉅해서 근래에는 모두 木版인쇄를 한다」(註41)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 蕭儀의 대답을 보면 一見 중국에 그 이전에 銅活字가 있었던 것과 같은 인상은 주지마는 나는 사실은 이 답이야말로 중국에 銅活字가 없었다는 반증으로 들고 싶다. 왜 그러냐하면 蕭儀의 말에 「字與板相付」란 「箇箇鑄之」하는가 하는 金漢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포인트를 놓친 말이며, 이것은 蕭儀가 활판법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어 「制度與木版一般」이라는 말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활판법이 목판인쇄법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 무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반문도 안하는 金漢은 자신 역시 활판법에 대해서는 門外漢이었던 모양이다. 하여튼 蕭儀가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한 동기는 필시 畢昇이나 王禎의 활자는 어렵듯이 알고 있었는데 金漢이 銅으로 鑄造하느냐고 질문하니까 「옛날에는 銅으로 鑄造하였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걸려 근래에는 木版만을 쓴다」라고 어물어물 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는 銅活字는 그때까지 없었을 것이며 蕭儀가 말하는 근래 즉 1435년부터 그 앞 수십년 동안에는 중국에서는 목판만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傍證이 되는 것은 弘治 18년(1505)에 陸深의 金臺紀聞에 「近日昆陵人用銅鉛爲活字 視板印 尤巧便 而布置間訛謬尤多」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506년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과거에 비로소 銅鉛活字가 중국에 출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太宗의 銅活字 鑄造는 점점 크레딧트를 받게 된다. 사실 太宗이 銅活字 鑄造를 중국에 특히 明나라에서 배워왔다 한다면 癸未字 鑄造부터 불과 30년을 지낼까 말까 한 世宗 17년에 우리나라에서 明나라에 가서 貴國에서는 銅으로 活字를 鑄造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턱이 없다. 이것은 마치 동양인이 서양에 가서 당신네들도 양복을 입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과 같은 난센스인 것이다.

결국 太宗의 癸未銅字 착상은 고려시대의 금속활자(銅製라고 생각되는)에서 왔을지 모르나 중국과는 아무 관계없는 독자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고려조에서는 착수를 보지 못한 官鑄事業을 대대적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李朝一代의 古今 獨步의 활판한 활판인쇄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때 金宗直이

活版之法 始於深括 而盛於楊充 天下古今之書 無不可印 其利博矣 然其字率皆燒土而爲之 易以殘缺而不能耐久 百歲之下 誕運神智 範銅爲字 以貽永世者 其權與於我朝乎(註42)

라고 한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다.

癸未字 鑄造時에 字本으로 한 古註詩經 書經 春秋左氏傳 등의 諸書는 宋板本임이 틀림없으며 字體도 宋板字體지만 刻字匠의 무식으로 말미암아 貞匡等宋帝의 諱가 原書 그대로 缺劃되어 있다. 그런데 이 癸未字 당시의 활판술은 몹시 유치했으며 제11세기의 畢昇 활자 모양으로 「활자를 동판위에 늘어놓고 黃蠟을 녹여부어 굳게한 다음 인쇄하는데 蠟만 많이 들고 하루 인쇄량이 불과 數紙 밖에 안되었다.」(註43)

그런데 癸未字로 인쇄된 책을 보면 책의 테두리 소위 天地左右四邊의 네모통이가 떨어져 있지 않고 밀집되어 있고 또 界行의 상하도 테두리 天地에 固着되어 있어 다른 활자책과는 판이하다. 다음 庚子字에서는 四周는 꼭 붙어있지만 界行의 상하는 天地에서 떨어져 있다. 결국 癸未字時에는 당초의 橫矩形 테두리 안에 罫紙처럼 界行까지 들어간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활자를 배열하고 黃蠟을 녹여부어 固着시킨 모양인데 제일 첫째는 그 고정된 행간에 활자가 상하로 꼭 끼어 들지 않은 점, 둘째로 그 黃蠟이 단단하지 못해 활자가 흔들려 고생한 모양이다. 첫째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자 네모의 살을 깎

은 모양이며 인쇄예를 보면 윗자의 획이 아랫자의 획까지 침범한 예가 있다. 둘째의 난점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世宗 자신이 연구하여 한 행에 21자면 21자가 꼭 들어맞아 꼼짝 못할 정확한 치수를 가진 동판을 만들고 능률을 올리고 있다.(註44)

그런데 실지로 실행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이 1일 數紙밖에 못 인쇄하는 인쇄술로 찍어낸 책을 일반에게까지 판매하는 것이 太宗 10년(1410)에 허가되고 있다.(註45)

癸未字로 인쇄된 서적의 수는 적지 않았을 것이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예로는 오직 2종 2책이 있을 뿐이다.(註46) 하나는 李仁榮氏 所藏의 宋朝表錢總數 一冊이며 하나는 筆者藏 十七史纂古今通要(卷16) 一冊이다. 이 十七史纂古今通要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太宗 12년(1412) 7월 6일 實錄記事에

遼人 申得財가 華紙를 만들어 進上하였기에 鑄字所에 보내 十七史를 인쇄케 하고 得財에게 米綿을 賜하고 紙工으로 하여금 華紙製造法을 傳習케 하였다.(註47)

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造紙史上 매우 흥미있는 일인데 여기 말하는 華紙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종이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申得財 進上의 華紙로써 인쇄한 十七史란 史記로부터 唐書에 이르는 방대한 正史全部가 아닐 것임은 그에 필요한 紙量이나 당시의 유치한 인쇄술로 보아 명백하다고 믿으며 實錄이 말하는 十七史란 현재 일본 1책이 남아있는 十七史纂古今通要를 말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筆者 所藏의 通要 제16권은 唐滅亡으로 끝나고 있으며 通要의 최종권이니 결국 十七史纂古今通要是 16卷本으로 그만하면 一個人 進上의 용지로 또 癸未字 당시의 인쇄술로써 印出可能할 것 같다. 또 實錄에서 긴 서명을 단축하여 稱한 것은 여기 예를 들어 증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萬苦 太宗 12년 刊行의 十七史가 十七史纂古今通要라면 그 용지가 바로 그 申得財 進上의 華紙가 되는데 지금 그 용지를 보면 楮紙면서도 중국의 白綿紙같고 朝鮮紙 특유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종이는 世宗朝의 庚子字, 甲寅字 印本중에 볼 수 있는 것이며 과연 그것이 申得財가 퍼뜨린 기술에 의한 국산 華紙인지도 모른다.

이상 癸未字에 관해 좀 이야기가 길어진 감이 있는데 실은 이 재미자는 앞에서 말하다 싶이 개성에서 鑄造된 것이며 서울 市史의 범위에서 벗어난 일이겠지마는 癸未字 인쇄로 말하면 서울 還都가 太宗 5년(1405) 10월이니 그때부터 世宗의 庚子字 鑄造가 실시된 世宗(1420)년까지 약 16년동안 서울에서 실시되었다. 이 사이에 많은 서적이 인쇄되었겠

成其味君人之大體甚矣獨受法錄
龍其劉餌金丹躬蹈前人之履轍未幾躁渴
云靜明年疽發於背而莫之救矣已卯惜哉帝
疾不見宰相密以變王屬中官王歸長既崩
王宗實殺歸長宗實亦官官迎帝長子鄆王立之
是為懿宗初鄆王溫長無寵受弟三子變王或
滋微以爲嗣而非次故人不建諸或
者謂文宗之立裴度曾不預謀豈宗之立德
裕亦碌碌拱手蓋至於此觀密以變王屬歸

지만는 太宗 12년(1412) 刊行의 十七史纂古今通要是 서울에서 인쇄된 銅活字 印刷本으로 현존하는 最古本이 될 것이다.(圖版參照)(註48)

癸未字 다음에는 庚子字가 鑄造되고 있다. 庚子字 鑄造가 계획된 것은 世宗 2년 庚子(1420) 11월인데 이것은 동판과 활자치수의 불합리에서 오는 인쇄상의 결점과 字體가 歐陽詢體의 우쭐우쭐한 것임을 개량하기 위해 世宗 자신의 發案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世宗 3년 3월 24일 實錄記事에 癸未字의 인쇄상 불편을 지적한 다음 「여기서 왕이 친히 연구하여 工曹參判李藏, 前小尹南汲에게 활자와 동판이 서로 맞아 틈이 안 생기도록 改鑄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즉 남을 녹여부어도 글자가 움직이지 않고 매우 楷正하여 하루에 數十百紙를 印出하게 되었고 그 공로를 생각하사 여러번 酒肉을 내리셨다」(註49)라고 있다. 또 卞季良의 鑄字跋에도(註50)

鑄字之說 可印群書 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 然其始鑄 字樣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 明工曹參判李藏 新鑄字樣爲極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 監掌其事 七閱月李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라고 있다.

實錄과 卞季良의 말과는 1일 인쇄량에 차가 있는데 이것은 卞季良의 말이 옳을 것 같다.

庚子字의 字本에 관하여는 아무 말이 없으나 庚子字의 字體는 틀림없는 元板本의 字體이다. 크기도 癸未字가 대략 1.4리평방인데 대해서 庚子字는 1리평방 정도이며 훨씬 작고 또 行書體이기 때문에 卞季良이 「字樣爲極精緻」라고 할만하다. 庚子字로 인쇄한 서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약 15종(註51)이 된다. 그 중 제일 오래된 것이 資治通鑑綱目이며 이것은 庚子字가 되던 世宗 3년에 世宗이 인쇄를 명하여 이듬 4년(1422)에 완성된 것이며 世宗은 集賢殿을 시켜 교정을 보게 하고 있다.(圖版參照)(註52)

庚子字 刊本은 10중 89 每半葉 11행 21자이며 匡은 高 23리 橫 15리다. 匡 四周가 꼭 붙어있고 1행에 21자가 꼭 들어가 맞을 수 있는 치수를 가진 동판을 미리 준비해 놓고 排字한 모양이며 그 결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與字樣相准不暇 鎔蠟而字不移 却甚楷正하게 되었다. 그런데 實錄에는 鎔蠟이라고 나오나 그것은 문장의 전후관계도 잘 맞지

司空蘇禹珪揚邠僕射諸大臣議以魏政既溥加恩恐
藩鎮觖望注見魏高帝六年亦端加恩有差議者以郭威不專
有其功推以分人信爲美矣而國家爵位以一人立功
而覃及補言天下不亦濫乎胡氏曰郭威此舉推馮道
不愛官物以賞士卒之意而廣之者也蓋不待他日即
位班賞而已收中外之心矣

冬十月吳越募民墾田

吳越王弘俶募民能墾荒田者勿收其稅由是境內無
棄田或請糾民遺丁以增賦弘俶杖之國門國人皆悅
楚靜江節度使馬希瞻卒

希瞻以兄希萼希廣交爭屢遣使諫止不從知終覆族

않을 뿐더러 다음 인용할 甲寅字 鑄造時의 世宗의 말에도 庚子字에 관하여 「造版鑄字亦皆平正牢固 不待用蠟 印出雖多 字不偏倚」云云이라고 있어 蠟을 쓰지 않고 인쇄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또 世宗 17년에 북경으로 가는 聖節使에게 중국의 활자법을 물어보게한 世宗의 분부에 「本國鑄字用蠟功頗多 後改鑄字四隅平正」이라고 있어 활자가 네모 반듯하여 蠟을 쓰지 않아도 된 것을 말하고 있다.(註53)

이 庚子字는 世宗 16년 7월 2일에 시작된 甲寅字 鑄造로 인해 그해 6월에 老乞大, 朴通事等書를 인쇄한 것을(註54) 아마 최후로 사용이 중지되었다고 믿어진다.

甲寅字 鑄造는 世宗 자신이 아니라 大君등을 비롯한 側近者에 의하여 요청된 듯하며 그것을 16년(甲寅) 7월 3일에 허가한 世宗 말에

「지금 大君等이 大字를 改鑄하자고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근년의 征伐로 인하여 兵器를 많이 없애고 銅이 많이 소용될 뿐아니라 工匠이 각처의 일로 분주한데 그러나 鑄字도 안하면 안되는 일이다」(註55)

라고 있다. 이렇게 되어 庚子字 鑄造를 담당했던 知中樞院事(前工曹參判)李藏이 다시 총감독으로 임명되고 集賢殿直提學金墩 直殿金鎬 外 4명의 掌務官이 지명되고 있다. 字本으로는 經筵所藏의 孝順事實, 爲善陰陽, 論語 등의 明板本을 썼고 不足字는 晉陽大君蹂로 하여금 쓰게 하여 20여 만 자를 鑄造했던 것이다. 그 결과를 實錄은 상기 기사에 이어 「1일 所印可至 40餘紙 字體之正明 課之易就 比舊爲倍」라고 말하고 있다. 癸未字는 1일 印數紙였고 庚子字는 20餘地 甲寅字는 2배나 되는 기술의 발달을 보고있다.

이 甲寅字의 寫本으로 된 孝順事實 等書(註56)의 字體의 趙子昂流의 明初翰林學士의 필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지 衛夫人字라고 불리우고 있다. 爲夫人은 晉의 衛恒의 從妹이며 李短의 처인데 王羲之가 師事하였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다. 爲夫人의 書蹟이 어떤 體인지 필자는 모르나 六朝體가 趙子昂體와 같을 리 없는데 여기서 衛夫人明을 관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徐命膺의 奎章字瑞記에도

臣嘗疑俗名衛夫人字 爲夫人李充之母 而王羲之所學書也 今之活字 乃是明初 翰林學士所書 爲善陰척也 其書與人不似燕越之殊 奈何冒其名以爲名乎

라고 하였다.

侵之乃賄梁山邑于岐山之小從者如歸市
 焉廣雅曰脫誤也毛詩曰棄予如遺鄭玄曰
 如人遺忘忽也其言曰名與身孰親也得與失
 孰賢也榮與辱孰珍也向曰其言謂逆勢利
之人不言也言立忠
 直之名而身致危亡國辱且全其身以存其榮
 我苟順人情以取悅媚且全其身以存其榮
 則名與身孰親言身了親也忠直之名不可
 近也得失離賢言貧者賢也榮與辱誰重言
 榮者重也孰親得與亡孰珍重也善曰老子曰名
與身孰親得與亡孰珍為也家語子貢曰與其
 俱失二者孰賢鄭玄曰遂絜其衣服矜其車
 儀禮注曰賢猶勝也古遂絜其衣服矜其車
 徒冒其貨賄淫其聲也善曰色字
繫前衣飾使其鮮潔
 車徒謂車馬侍從也勸曰冒貪也脈脈善曰爾
善曰衣冠左氏傳注曰冒貪也
 然自以為得矣雅曰脈相視也郭璞曰脉脉
善曰爾

孝順事實卷三

何琦息火

何琦字萬倫廬江潯人也父阜淮南內史琦年十
父家毀過禮性沉敏有識度好古博學居于
陽穀縣事母孜孜朝夕色養常患甘鮮不贍
郡主簿察孝廉除郎中以選補宣城涇縣令
司徒王導引為參軍不就及丁母憂居喪泣血杖
而後起停柩在殯為隣火所逼煙燄已交家之僅
使計無所出乃匍匐撫棺號哭俄而風止火息堂
屋一間免燒其精誠所感如此限閼方訖然歎曰

漢京識略의 저자도 奎瀛新府條에서

世宗朝活字 俗稱衛夫人字 爲夫人即李充之母也 此活字乃是明初翰林學士所書 爲善陰척書本則 魏(衛?) 爲晉同故 有此誤稱歟

라고 애쓴 辯海를 붙여 보고 있다.

그리고 甲寅字 大字의 크기는 약 1.4리평방으로 庚子字보다 커지고 癸未字하고 같게 되고 있다.

甲寅字는 癸未·庚子字兩字가 新活字가 생기면서 사용이 중지된 데 반하여 宣祖時에 改鑄 甲寅字가 鑄造될 때까지 長久한 시일에 걸쳐 종래의 乙亥字·甲寅字 등 新活字와 함께 병용되고 있다. 따라서 甲寅字 刊本の 수는 막대한 것이며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수이며 華山書林의 古銅活字冊標本書目만도 都合 53종의 서명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같은 甲寅字 刊本이라 해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생기며 世宗朝의 초기 甲寅字本과 후대의 것을 비교하면 같은 활자인가 할 정도로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것은 후대의 책이 甲寅字를 주로 쓰면서도 乙亥字를 補用한다던가 또는 補鑄活字, 木刻字를 혼용한 데서 오는 것이며 金宗直의 新鑄字跋(治平要覽)에도 「甲辰秋八月 我殿下傳旨 于承政院若曰 甲寅乙亥字 極爲精好 然而字體差大所印之書 簡帙繁重 且已歲久 散落將盡 雖補鑄而用之 不類其初」라고 있고 居正도 「今則銅字 盡爲工匠盜 而兼用木字 字之大小 生熟不同 行列不齊 視舊印冊本 迥然不俟矣」(註57)라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世宗이 甲寅字에 대해서 또는 서적인쇄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가리켜 주는 일례로 資治通鑑 인쇄상황을 實錄의 記事에 의해 회고해 보겠다.

甲寅字 鑄造가 결정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世宗 16년 7월 丁丑(2일)이었는데 鑄造가 이직 진행중인 7월 16일에 世宗은 甲寅字로서 인쇄할 資治通鑑의 용지 확보를 위해 承政院에 미리 대책을 세우게 하고 있다. 世宗의 그 계획은 「頒諸中外 使老人易於觀覽」이란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註58) 이 世宗의 명에 의해 이튿 17일에는 造紙所에 楮紙 5만권, 慶尙道에 10만5천권, 全羅道에 7만8천권, 忠淸道에 3만3천5백권, 江原에 同量, 都合 30만권의 제작 進上이 명령되었고 그 비용으로는 國庫米의 사용과 紙力增強 및 楮消費量 절약을 위해 楮一分에 모맥질, 竹皮, 麻骨 등을 5분 섞어서 쓰라는 지시

까지 내리고 있다.(註59)

그런데 이렇게 용지를 마련하는 한편 원본이 될 資治通鑑을 구하게 하였던 모양으로 다음 17년 3월 5일 實錄記事에 及第趙頊가 進上한 胡三省註 資治通鑑 100권이 脫落處가 많이 文臣을 諸道에 보내 찾아보게 하였다고 있다.(註60)

그러나 종내 完帙을 찾지 못한 모양이며 그해 8월에 북경으로 聖節使로 가는 南智에게 여러 가지 분부를 내린 중에 胡三省註 資治通鑑 其他書籍을 奏請한다는 條目이 들어있다. 그리고 겸하여 우리나라 활판 인쇄법은 蠟을 썼는데 功이 많이 들어 후에 四隅가 平正하도록 改鑄하였으며 활자종류로는 2종이 있는데 중국의 鑄字의 字體 및 印出方法은 어떠한가를 자세히 물어 보게하고 있다.(註61)

이러한 분부에 대해서 그해 12월 31일 북경서 돌아온 聖節使通使 金漢, 全義 兩人은 앞에 인용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근래는 목판인쇄뿐이라는 蕭儀의 답을 전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世宗이 보낸 그러한 질문서와 그에 대한 중국측의 대답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활판인쇄법은 중국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며칠 늦게 歸着한 聖節使 南智는 다행하게도 원하던 資治通鑑 일부를 明廷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 외의 서적에 관해서는 書板損缺 待刊補完備 頒賜라고 거절당하고 있다.(註63)

이상과 같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마침내 인쇄에 필요한 원본을 입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예는 世宗 22년 6월에 鑄字所로 하여금 인쇄케 한 國語를 들 수 있다. 이것은 經筵所藏의 國語가 탈락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別本을 구해왔으나 아직 완전치 못해 일본에서 詳略二部를 사왔는데 그래도 역시 불완하기에 集賢殿을 시켜 製本을 참고하여 經筵所藏의 舊本을 정정하고 보충한 다음 인쇄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註64)

이것을 보면 世宗의 열성있는 문화정책과 그것을 위하여 이 鑄字所라는 王立 活版 印刷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甲寅字의 뒤를 이어 世宗 18년(1436) 丙辰 7월 29일에 所謂 丙辰字라는 極大活字가 鑄造되었다. 이것은 世宗實錄에

命李季旬金汝撰通鑑訓義(中略) 其舊鑄字樣稍密 上慮春秋高則 難於觀覽令 晉陽

大君跡書大字 新鑄之 以新字爲綱 舊字爲目(註65)

이라고 있어 그것이 왕명으로 편찬된 思政殿 訓義 資治通鑑綱目を 인쇄하는데 甲寅字의 小字는 너무 작아 甲寅字 大字를 小字 대신으로 쓰고 新鑄의 極大字로써 綱을 인쇄케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文獻備考에는 이 丙辰字를 範鉛爲字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鉛活字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임시로 綱目訓義만을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양이며 오늘 印本으로서 그것 이외에는 남아있지 않아 訓義 1종만을 인쇄하고는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世宗 一代의 활자 鑄造는 이상 庚子, 甲寅, 丙辰 등의 3종으로 끝나고 世宗은 32년 2월에 崩했는데 文宗은 그해 즉 卽位年(庚午)에 새로운 활자를 鑄造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文宗實錄에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成宗 5년 11월에 왕이 右副承旨 金永堅에게 방금 사용중인 활자 종류를 下問한데 대하여

甲寅乙亥兩年所鑄字也 然印書莫善於庚午字 而塔之所寫 已毀之 命姜希顔 寫之而鑄成 乙亥字是也(註66)

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慵齋叢話 卷7에는

壬申年間文宗 更鎔庚子字 命安平大君書之 名曰壬申字 乙亥年世祖改鎔壬申字 命姜希顔書之名曰乙亥字 至今用之

라고 있어 庚午字와 壬申字가 본시 동일활자일 것이면서 제조연대가 틀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金永堅이 庚午字에 대한 成宗에게 대답한 成宗 5년(1474)은 庚午字가 鑄造된 庚午年(1450)부터 불과 24년후이고 자신 그것을 보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데 대하여 成倪이 壬申字를 云云한 것은 문제의 庚午年보다 적어도 40년 이상이나 뒤의 일일 뿐 아니라 「而塔之所寫已毀之」云云이라는 金永堅의 말은 더 자신있는 말인즉 이 활자는 庚午年에 주조되었다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현존하는 庚午字 刊本으로 古銅活字冊 標本書目은 가람 李秉岐氏 所藏의 古文眞寶一冊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은 아직 實査할 기회를 못 가지고 있다. 다만 庚午字의 字體는 壬辰亂 후에 생긴 소위 都監活字가 이 庚午字를 字本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原字의 體貌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해 12월 17일의 實錄記事에

上謂承政院曰 近日正音廳 畢印小學 其鑄字當下鑄字所 然聞本所窄狹 無可藏之處

云云이라고(註67) 있는 것을 보면 正音廳에서 小學印刷에 사용한 활자가 鑄字所에서 빌려다 쓴 것이 아니고 新鑄活字라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 小學印刷活字가 바로 그 해에 鑄造된 庚午字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록에는 안나오지마는 庚午字는 正音廳에서 小學을 인쇄하기 위하여 特造한 것—물론 그 실지 鑄造는 鑄字所에서 했겠지마는—아닌가 싶다. 이렇게 특별목적으로 新活字가 소규모로 제작되는 것은 앞에서 丙辰字에서도 보았거니와 후에 春秋綱字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庚午字 다음에 鑄字所가 鑄出한 활자는 乙亥字이다.

乙亥字에 관하여는 實錄에 기록이 나오지 않고 다만 前引 金永堅 所言에 「命姜希顔 寫之而鑄成 乙亥字是也」라고 있고 김종직의 新鑄字跋(前出)에 「成於景泰乙亥字 謂之 乙亥字 姜希顔所書也」라고 나올 뿐이지마는 이 世祖 元年(1456)에 鑄造된 乙亥字는 申寅字와 쌍벽을 이루는 李朝 대표적 활자이며 현존하는 刊本例만 하더라도 李仁氏의 「乙亥字小攷」(註68)에 의하면 25종(註69)이 되며 其中에는 鼎足山本世宗實錄, 魯山君日記, 世祖實錄, 睿宗實錄이 포함되어 있다.

乙亥字는 大中小 三種이 있는데 大字는 2리평방 中字는 길이 1,2리 폭 1,5리 小字는 길이 1리 폭 0.7자리이다. 이중 中字가 他活字의 소위 大字에 해당하는 것인데 보다시피 폭이 길이보다 길어 옆으로 벌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甲寅字 本中에도 혼용되고 있어 양자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특색있는 字는 그렇지 않지만 비슷미스한 字를 하나만 가지고는 甲寅乙亥 兩字를 눈으로만 식별하기는 지난하다. 그러나 小字는 一目瞭然 구별이 된다. 乙亥字 大字의 刊本例는 매우 드문 것이며 李仁榮氏의 前偁「乙亥字 小攷」에는 訓辭, 大方廣圓覺소多羅了義經, 金剛經三家解諺解의 三種만을 들고 있다. 그리고 李仁榮氏는 成宗12년간(1841)이라고 생각되는 乙亥字刊 杜詩諺解(최현배 氏藏)가 한국 활자 사용의 최고본이라고 같은 논고속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金屬活字는 아니지마는 世宗28년에 간행된 甲寅字刊訓民正音(全鑒弼氏藏)에 쓰인 한글 木活字가 한글 활자로는 最古의 것이다. 乙亥字 다음에는 乙酉字가 주조되었다. 이것 역시 實錄에는 나오지 않고 다만 成俔의 慵齋叢話에 欲印圓覺經 命鄭蘭宗書之 字體不整 名曰乙酉字라고 보인다. 乙酉字 자체의 判定問題는 李仁榮氏가 前引「乙亥字小攷」속에서 논급하였으며 氏는 李王家美術館 소장의 奉先寺 字銘에 보이는 鄭蘭宗의

通龍駕中流泛觴酒因執太子詩為樂賢王錦
纔方舟渡瓊筵大樂張風搖垂柳色花發異林香野老
歌無事朝臣飲歲芳皇情被萬物中外洽恩光

公子

韓琮

紫袖長衫色銀蟾半臂花帶裝盤水玉鞍繡坐雲霞別
殿承恩澤飛龍賜渥注控羅青裊轡鏤象碧重葩意氣
催歌舞闌珊走鈿車袖彰雲縹緲釵轉鳳歌斜珠卷迎

필적과 비교하여 口訣圓覺經 . 金剛經啓請 . 普賢行願品 . 觀世音菩薩禮文合冊文翰類選을 乙酉字 간본이라고 고정하였다. (註70)

乙酉字는 1리평방의 네모 반듯한 압전한 자체지만 인쇄자체로서는 효과가 좋지 않으며 成倪도 자체 부정이라고 평했으나 甲辰字에 관한 金宗直의 新鑄字跋(前出)에도 成宗이 乙酉字 卽其字不端 不可用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것은 前引한 바와 같이 成宗 5년 成宗이 中國正史들을 인쇄하기 위해 今用何鑄字印書라고 물어본 데 대하여 甲寅乙亥兩年所鑄字也라고 乙酉字는 입에도 안올리고 있는 것으로도 평판이 나빴음을 알 수 있다. 乙酉字 다음에 成宗15년(1484)에 甲辰字가 주조되고있다. 甲辰字에 관하여는 成宗實錄에 成宗이 「唐本歐陽修業을 보건대 자체의 크기가 적당하니 이 자체를 따서 鑄字하는 것이 하여」라고 한 데 대하여 承旨가 啓曰允當이라 하였기에 行護軍 李有仁 左承旨 權健等を 監掌官으로 임명하였다. (註72)

라고 나온다.

그런데 金宗直의 新鑄字跋(治平要覽末)에는 좀더 자세히

甲辰秋 8월에 俄殿下가 承政院에 傳旨하시기를 甲寅乙亥字는 극히 精好하나 언체가 좀 커서 印本의 부피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이미 年代가 오래되 흠어져 없어져 補鑄하여 쓰고 있지만 당초의 것과는 틀리다. 또 乙酉字는 其字體가 단정치 못해 쓸 수가 없어 새로 新字를 주조하여 活字의 크기자양의 소밀을 적당하게 하여 諸書를 인쇄사방에 퍼뜨리고 싶은데 어쩔나 하여 內府藏의 歐陽公集 烈女傳을 자본으로 李有仁 이하 監掌官을 명하고 자본 부족자는 朴耕補로 하여금 쓰게 하였는데 그 달 24일부터 시작 이듬乙巳年 3월 까지 大小 30여만자를 전했다.(註73)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甲辰字 주조에 있어서는 爲先 大字의 주조가 실시되었으며 실무에 의하면 甲辰 12月 乙丑(12일)에 鑄字廳堂上 李有仁이 來啓畢鑄大學라고 있다. 그래 관계 관은 물론 匠人들도 各等級에 의하여 賞賜가 있었다. 이리하여 鑄字廳에서는 계속 小字鑄造에 들어간 모양인데 小字 鑄造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16년 정월 26일에 成宗은 爲先 王荊公集을 新鑄大字로 인쇄할 것을 承政院에 시달하였다. 이에 대해서 承旨들은 은근히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로 王荊公集에는 有註無註 2본이 있는데 有註本은 甲辰小字

가 未及鑄임으로 인쇄 어렵다고 啓하니 成宗은 그러면 無註本이라도 인쇄하라고 재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承旨들은

王荊公集은 鑄字完了를 기다려 有註本을 인쇄함이 하여 또 事文類聚는 모두 보고 싶어 하나 卷帙이 너무 많아 中國에도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 사들인 것도 적으며 政府 所藏도 一帙에 불과한 형편이니 그것을 먼저 인쇄하자.

고 역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하여 成宗은 몹시 불쾌했던 모양이며,

내가 王荊公集을 印出코저 하는것은 諸史書가 字劃이 완결되어 꼭 인쇄해내야 하겠는데 新鑄字의 자체를 모르니 우선 이 책을 찍어보고 그 뒤에 다른 史書들을 인쇄하려고 할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기네가 좋아하는 冊을 먼저 인쇄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필 나에게 稟議할 필요가 어디있냐.

라고 화를 내고 있다. 이에 놀란 承旨들은

事文類聚는 臣들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바라고 있으나 宮中에도 일부 밖에 없고 외부에도 역시 많지 않아 앞서도 李瓊, 李世匡 등이 印出을 啓請하였으며 그때 成命은 되지 않았으나 綸音은 있었기에 臣등은 上意를 알 수 없어 감히 啓請한 바오니 待罪하나이다.

라고 請罪하고 있다. 成宗은

만약 國家에 관계된 일이면 너희들이 말해야겠지마는 내가 지금 일개 王荊公集을 印出 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감히 曰可曰否할 수 있는가 事文類聚는 卷帙이 많아 인출 곤란한데 王荊公集은 卷帙 작아 印出 용이하니 이것을 먼저 인쇄하고 후에 諸史書

에 미치고저 하는 바이다. 대체로 政院이란 王命을 出納할 뿐인데 무엇이 말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나 論罪는 안할 터이다.

라고 警告와 함께 이 문제를 終結 짓고 있다.(註 76)

이러한 曲折을 밟고 결국 王荊公集은 無註本이 인쇄되어 그해 3월 3일에 文臣에게 分賜되고 있다. (註77) 王荊公集 인쇄는 正月 26일에 成宗과 政院 사이의 女上한 應酬가 있었으니 그 익일부터 인쇄 착수했다 하고 3월 3일까지 약 40일 걸리고 있다. 金宗直의 鑄字跋에 말하다시피 甲辰小字鑄了는 16년 3월이니까 小字는 王荊公 詩集 出版完了와 거의 동시에 鑄造 完了된 것이다.

以上 좀 옆길로 들어간 것 같지마는 書籍印出에 수반되는 흥미 있는 사건으로 王荊公 詩集 문제를 들어 보았다.

甲辰字에 관련하여 慵齋叢話에 「成宗 於辛卯年(2년)用王荊公歐陽公集字鑄之 其體小於庚子而尤精 名曰辛卯字」라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辛卯字는 甲辰字임이 틀림없는데 어디서 辛卯字라는 이름을 꺼내 왔는지 前者 庚午字를 壬辛字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成俔의 말도 믿을 것이 못된다.

甲辰字의 現存刊本에 관해서는 末松保和 博士가 「甲辰活字に就いて」라는 論攷속에서 21종을 들고 있는데 (註78) 古銅活字冊標本書目에서는 36종으로 증가되고있다.

甲辰字 다음에는 9년후인 成宗 24년 癸丑(1493)에 癸丑字가 新鑄되었다.

癸丑字는 李廷馨의 東閣雜記 및 慵齋叢話에 得中朝新板綱目字鑄之 名曰癸丑字라고 나오는 것인데 자세한 기록은 없다. 실물을 보면 암전한 楷書體이며 大字는 1.5리평방, 小字는 1평방으로 큼직큼직한 활자며 小字가 甲辰字의 大字 크기만 한 것이다.

癸丑字 에 관해서는 李仁榮氏가 「文祿役直前の 朝鮮活字」(註79)에서 이 活字는 中宗朝까지 사용되었고 氏가 실현한 刊本例로는 燕山朝의 東國輿地勝覽, 中宗朝의 新增 東國輿地勝覽, 治通經綱目的 3종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癸丑字 다음에 鑄字된 것이 中宗 11년 丙子(1516)에 된 丙子字다.

丙子の 鑄字動議는 그 전년인 乙亥 11월 正月 22일에야 실시되고 있다.(註81)

丙子字의 자체는 甲辰 비슷하면서 劃에 힘이 들어간 것이며 크기는 1리평방으로 갑자

一日白司

唐主徵為相只一日中書五年二月除昭義節度
徵上表乞免詞曰六年內署雖叨捧日之榮一日
台司未展致君之懇

南部新書

一歲至相

唐李訓起流人一歲而至宰相

二暮至相

張鎬起布衣二暮而至宰相

十年至相

李絳十年之間位至宰相

八十為相

張柬之為相年且八十矣

보다 커지고 있다.

丙子字의 刊本の 現有例로 古銅活字冊標本書目은 纂註分類杜詩, 朱子語類, 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 新編大東聯珠詩格, 新編數聚大東詩林,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 玉海, 瀛奎律髓, 歷代兵要, 文苑英華, 使朝鮮錄 등 11종을 들고 있다.(註82) 그 중 文苑英華는 1천권이나 되는 책이며 活版街의 長足進步를 여실히 말하고 있다. 丙子字는 종래 己卯字(中宗 14년 己卯鑄造)라고 알려워지고 李仁榮氏도 前偈「文祿役 직전의 朝鮮活字」속에서 이것을 己卯字로 부르고 있었으나 群書堂刊「朝鮮古活字版 拾葉」(서울 1944년)의 解說文에서는 丙子字라고 訂正하고 있다. 己卯字라고 불리운 원인은 中宗 14년 7월 3일에 侍講官 李希閔이가 外方鄉校儒生은 讀書하려고도 書冊이 甚少하여 못하니 書籍을 廣布하자고 進言한데 대하여 中宗이

그 말이 옳은데 只今 書肆를 설치하면 外邦 人士들도 쉽게 書籍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昭格署의 銅鐵器皿은 모두 工曹에 접수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鑄字하면 어떤가.(註83)

라고 답하고 있다.

이 中宗의 案은 關係官에게 下達된 듯하며 5일 후인 7월 8일에는 思政殿에서 中宗을 중심으로 禮曹判書 南袞, 參判 催命昌, 參議 朴壕이 등 書肆說置其他 案件에 대해서 審議會를 열고 있다.

그 席上에서 南袞의 意見은

書肆說置案은 좋으나 우리나라는 中國과는 다르며 원래가 貧寒하니 民間에서 私費로 書板과 用紙을 준비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書籍을 廣布하여 民間人들도 쉽게 얻어 보게 하는 것은 上意에서 나온 것이니 新등이 다시 잘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中宗은 다시금

紅梨迴得霜風箏吹玉柱露井凍銀牀身退卑周室經
傳拱漢皇谷神如不死養拙更何狂

禹廟

前人

禹廟空山裏秋風落日斜荒庭垂橘柚古屋畫龍蛇雲
氣噓青壁江聲走白沙早知乘四載疏鑿控三巴

蜀相廟

前人

丞相祠堂何處尋錦官城外柏森森映階碧草自春色
隔葉黃鶯空

鳥多

作

好音三顧頻煩天下計兩朝開濟老

臣心出師未捷

身先死

常

長

作

使英雄淚滿襟一

謁漢世祖廟

劉希夷

去陵氣初發漸臺首未傳
開朱旗後道合赤符先宛城劍鳴匣昆陽鏑應弦獷獸

僧祐援巴陵戒之曰賊若水戰以大艦臨之必克若步戰鼓棹就已丘不須交鋒也僧祐至湘浦景遣任約帥銳卒據白塢待之僧祐由他路西上潛引兵至赤沙亭會信州刺史陸法和至與之合軍法和有異術隱於百里洲豫言多中人莫能測至是以任約向江陵請行既至與僧祐縱兵擊之約兵大潰殺溺甚衆擒約送江陵景焚營遁約至繹赦之徐文盛坐怨望下獄死

集覽

白塢

地名

詳處

實錄

巴陵

郡名

註見本

鑄字 事業은 民間人으로서는 과연 어렵다. 그러나 昭格署 其他 寺刹의 鑄器는 모두 國庫로 접수되어 其數量도 많으니 이것으로 鑄字에 充用하면 되니 그런 방법도 考究하라

고 명하고 있다.(註84)

그러나 其後 이 書肆說置案은 實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國家財政上 중지된 모양이다. 以上 본 바와 같이 이 14년 己卯의 書肆案은 書肆를 새로 설치하여 多量으로 活字를 보유케 하고 書籍을 인쇄 민간에게 판매코져 한 것인 모양이며 일은 日個 新活字의 鑄造 문제를 벗어나 더 큰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昭格署 및 寺刹 鑄器 사용도 그러한 書肆를 설치한다면 재료는 그것을 쓰자는 것이며 결코 어떤 특정한 新活字를 鑄造할 것을 發議한 것이 아니고 또 前段 文脈으로 보아도 鑄器로써 活字가 그해 鑄造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中宗 14년의 己卯字는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結論짓고 싶다. 또 己卯字를 鑄製라고 해 왔는데 韓國에서는 靑銅 卽鑄이며 鑄는 즉 李相佰 博士의 소위 코리안 브론즈(韓國靑銅)인 것이니 하필 이것만을 鑄製 云云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中宗의 丙子字 다음에는 宣祖 6年癸酉(153)에 甲寅字가 소규모로 改鑄것 같다. 이것은 柳希春의 眉巖日記章 癸酉 11월 6일조에

甲寅字鑄成鐵 先受出四百六十六斤一兩一錢 鑄字鍊正者三百九十七斤三錢 餘鐵十六斤三兩 鑄末二十七斤

이라고 나오는 것이다. 여기 말하는 鐵은 銅鐵의 뜻일 것이다.

李仁榮氏는 이 癸酉의 改鑄 甲寅字에 관하여 前偈「文祿役 直前の 朝鮮活字」속에서

宣祖 16년 刊行의 靖節先生集 10卷 3冊과 같이 整然한 것은 되었으나 世宗朝의 그것에 비하며 자체는 형식에 흘러 迫力이 없어졌다.(註85)

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現存하는 癸酉字 刊本 例도 古銅活字冊標本書目은 論語諺解, 綱目訓義, 排字禮部韻略, 東萊博議, 箋註靖節先生集, 海東辭賦, 文科覆試榜目, 小學諺解 등 8종을 들고 있고 李仁榮氏는 萬曆 14년간 許蘭雪軒集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癸酉活字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은 宣祖 13년(1580)庚辰에 대구모로 改鑄된 소위 庚辰字와의 관계다. 이 庚辰字에 대해서는 宣祖實錄에는 아무 말이 없으나 光海君 日氣10년 7월 22일 記事에

鑄字都監이 啓曰하기를 平時부터 書籍印出은 鑄字에 專賴하였으며 庚辰年間に 先王(宣祖)이 甲寅字 改鑄를 명하여 一國에 통행하였는데 불행히 兵火를 겪어 舊字가 탕실되어 木刻字를 專用하고 있지마는 틀리기 쉽고 깨지기 쉬어 파는 한편 쪼개져 功費가 배가 된다.(註86) 云云

이라고 있을 뿐 아니라 宣祖實錄 卷 210 宣祖 40년 4월 乙未條에

以內出武經七書 傳于柳公亮曰 此武經七書不帙 其不帙之卷 有處求得 全帙二件 以己亥庚辰字 刻日印出入內

라고 나오는 것이다.

이 庚辰字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야 말로 대구모 改鑄甲寅字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宣祖 6년의 소취 癸酉字에 관한 眉巖記章의 기록은 실은 그 이전에도 수시로 행하여지던 小規模의 補鑄의 하나이며 庚辰字의 鑄造를 위한 準備 工作의 일부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따라서 나는 여기서 癸酉字를 없애고 庚辰字만을 宣祖時의 改鑄甲寅字 즉 再鑄 甲寅字라고 부르고 싶다.(註86)

以上이 壬辰亂 以前の 鑄字所 및 校書館에서의 鑄字印書 事業概況이다. 壬亂當時 景福宮이 燒盡되면서 政府 所有의 一切 活字가 烏有하고 난 후 李朝 政府는 새로운 鑄字 事業을 展開하게 되는데 李朝 後半期の 鑄字 및 印書事業은 稿를 다시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4. 結言

이상 鑄字所를 중심으로 李朝末期까지의 變遷을 回顧하고 그 鑄字 및 印書事業에 있어서는 壬辰亂 직전까지의 概況을 一瞥하였다. 鑄字所는 말하자면 王立 活版 印刷所이며 活字의 製造 및 保管 印刷를 담당하는 機關이었으나 주로 하는 것은 鑄字의 保管과 印刷이며 鑄造를 위하여는 鑄字都監과 같은 臨時職이 설치되고 있었다.

太宗 3년부터 壬辰亂까지 政府에서 鑄造한 活字는 癸未字, 庚子字, 甲寅字, 丙辰

字, 庚午字, 乙亥字, 乙酉字, 甲辰字, 癸丑字, 丙子字, 庚辰字(再鑄甲寅字)의 11종이 있으며 活版術에 관하는 한 中國과는 전혀 관계없이 獨自의 前後 未聞의 活版 印刷 事業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活字의 新鑄動機는 庚子字의 예와 같이 印刷技術上의 편의 圖謀한 것도 있고 活字가 부족하여 부득불 新鑄한 庚辰字 같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活字는 各王의 其時其時의 趣味에 따라 또는 어떠한 特定 書籍을 인쇄하기 위하여 改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甲辰字 또는 丙子字와 같이 新鑄動機가 新着한 中國書籍(木板本)의 자체를 사랑하고 기왕이면 같은 자체로 그 書籍을 인쇄해 보겠다는 데 있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太宗, 世宗 또는 成宗 등은 中國板本을 字本을 택하고 있는데 世祖만은 乙亥字, 己酉字 모두 韓國人의 필적을 자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趣味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한편 印刷 技術 自體는 太宗朝의 癸未字 당시에는 1일에 數紙를 인쇄할 정도의 유치한 것이었으나 中宗朝의 丙子字에 이르러서는 文苑英華 1,000권을 인쇄해 낼 정도로 長足の 進步를 보이고 있다.

鑄字所에서 인쇄한 書籍은 太宗이나 世宗이 목적인 바와 같이 一般民間人에게도 될 수 있는 한 廣布할 계획이었으나 과연 그것이 실행되었는 지는 알 수 없고,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은 書籍이 주요한 文臣과 承政院을 비롯한 몇몇 機關에 配付되었다는 사실 뿐이다.

後記 : 이 논문작성시 각종 소요 자료 색출에 애써주신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長 白麟氏에게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註〉

(1) 太宗實錄卷5 3年癸未 2月庚申條

(2) 이 사실은 世宗 2년 중간한 大明律直解의 다음과 같은 序文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때에 사용한 木活字가 書籍院製作品이 아니고 白州知事의 製作品인 것이 흥미있다.

(前略) 功既告訖 付書籍院 以白州知事徐贊所造刻字 印出無廬本而試頒行 庶不負 欽恤之意也 時洪武乙亥初吉 尙友齋金抵謹識

(3) 世宗實錄 卷69, 17年乙卯 9月庚辰(13日)條

移置鑄字所于景福宮內

(4) 世宗實錄 卷70, 世宗 17년 10월 丁巳條 上曰鑄字所自初設立爲闕內衙門 差官督役皆令承政院主之 而司在闕外 往來啓稟事 多稽滯 已令移於闕內 仍令承旨二人主之 其舊鑄字所 唯置木板 令校書館掌之 又令二品異常文臣一人 承旨一人爲提調 校書校理及參外二三人 除他務分掌 遞代之際 具錄解由 交相授受 以爲恒式

(5) 前註參照

(6) 宮闕志 1957년 서울특별시市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54頁 下段

校書館在中部貞善坊 掌印頒經籍及香祝印篆之任 舊在景福宮司饗院內者稱內館一在南部董陶坊者稱外館

그리고 漢京識略에 校書館在中部貞善坊 舊在南部董陶坊이라 한것은 저자의 혼동인 듯 하다.

(7) 京城府史 서울 1931년 제1권 187頁

(8) 前揭書 同頁

(9) 上右

(10) 文宗實錄 卷2 文宗卽位年 7월 丙午條 傳旨吏曹權廢鑄字所

(11) 文宗實錄 卷5 文宗卽位年 12월 丁亥條 上謂承政院曰「近日正音廳 畢印小學 其鑄字當下鑄字所 然聞本所窄狹 無可藏之處 仍置正音廳 令鑄字所官吏 往來監掌何如 都承旨李季甸對曰宜合置一處 不可分兩所往來掌之 右承旨鄭昌孫 往審便否 竟盡還鑄字所」

(12) 世朝實錄 卷20 世祖 6년 5월 丙申條 및 丁酉條

(13) 成宗實錄 卷173 成宗 15년 甲辰 12월 乙丑(12일)條

鑄字廳堂上李有仁來啓畢鑄大字

(14) 中宗實錄 卷 23 中宗 10년 11월 丙戌條

(15) 中宗實錄 卷23 中宗 11년 正月甲辰條

(16) 顯宗改修實錄 卷19 顯宗 9년 8월 辛未條

(17) 顯宗改修實錄 卷26 顯宗 12년 12월 己巳條에 「守禦廳以銅鑄大字六千 小字四萬六千六百餘字入啓 移送校局 前守禦使金佐明所鑄也」라고 있다

(18)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七 校書館條 (正祖) 甲寅命葺昌慶宮之舊弘文館移儲鑄字 (中略) 凡有活印役 必於此爲之 其名號則未賞肇錫 故姑以監印所稱之 至是命仍國初建置時舊號 稱曰鑄字所

(19) 이것은 哲宗 8년의 鑄字所 燒燼후의 활자 再鑄 전末記로서 哲宗 9년에 쓴 것이며 懸板으로 되어 현재 李王家 박물관에 있다.

(20) 奎章閣에 관해서는 下記 논문참조

末松保和「奎章閣 總目」小田先生 頌壽記念 朝鮮論叢 所收

金龍德「奎章閣考」中央大學校論文集 제2집, 서울 1957 223°238

그리고 小田省吾「朝鮮史籍解題講義」靑丘學叢 23호 146-161중의 1장, 「舊奎章閣本と其の沿革」에서 奎章閣과 校書館의 합병이 正祖年 壬寅으로 되어있는 것은 校書館의 敦化門外로의 移設을 혼동한 것이다.

(21) 漢京識略(저자미상) 서울시史編纂委員會 影印本 奎瀛新府在宣仁門內 正宗朝以昌德宮內公舍爲內閣之鑄字所 扁曰奎瀛新府 又有板堂 置冊板及鑄字 每於印書時開局於此 其藏銅活字 名曰生生字也

여기 말하는 生生字는 整理字의 혼동이다.

(22) 日省錄 哲宗戊午 9년 正月 20일 丁酉條

(23) 正宗實錄 卷54 正祖庚申(24년) 閏4월 乙丑(13일)條

移鑄字所于儀仗庫 檢校直提學李晩秀啓言鑄字所卽御定冊子編印之所 當初設置式違太宗朝故事 體貌之不輕 事勢之難關比之藝閣尤重焉 而春桂房直所 次第入接之後 本所不可無移設之處 若得弘化門右邊翼廊之儀仗庫大廳東北衛將所御營軍番所合十許間則 僅可容接 而儀仗則敦化門左右翼廊 本是儀仗分置之所 移此合彼事甚便好東北衛將所則 本無定處 曾已屢遷(中略) (王)從之

(24) 哲宗實錄 卷99 丁巳 10월 壬戌條

夜三更火起於殯殿都監假家 延燒宣仁門及東北所部將廳衛將所鑄字所大廳板堂并六十二間

(25) 日省錄 哲宗 戊午 9월 18일 庚寅條

(26) 이것은 藤田亮策「鑄字雜記」1, 書物同好會會報 제11호, 서울 1941년 9-14 참

고

(27) 鑄字目錄 사본 1책 서울大學校藏, 奎章閣書番 제7903호

(28) 이것은 복사지로 쓰인 공문서이며 현재 서울대학교도서관 所藏

(29) 註4 참조

(30) 世宗實錄 卷29 7년 乙巳 7월 壬午條

吏曹啓 校書館書員於鑄字所供任 而稱校書館書員 未便 自今改稱鑄字所書員庶合事理 從之

(31) 太宗實錄 卷5 3년 癸未 2월 庚申條

新置鑄字所 上慮本國書籍鮮少 儒生不能搏觀 命置 新以藝文館大提學李稷 摠制閔無疾 知申事朴錫命 右代言李膺爲提調 多出內府銅鐵 又命大小臣僚自願出銅鐵 以支其用

(32) 陽村集 卷 22 鑄字跋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心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海外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 易以完缺 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理 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於是悉出內帑 命判事平府事臣李稷 麗城君臣閔無疾 知申事臣朴錫命 右代言臣李膺等監之 軍資監臣姜天予 長興庫使臣金莊侃 代言司注書臣柳萇 壽寧府丞臣金爲民 校書著作郎臣朴允英等掌之 又出經筵古注詩書左氏傳以爲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多至數十萬字 恭惟我殿下 允哲之資 文明之德 萬機之暇 留神經史孜孜無倦 以允出治之源而 闡修文之化 思廣德教 以淑當時而傳後世 拳拳焉 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傳於萬世 規模宏大 思慮深長 如此王務之傳 聖曆之永 固當并久而彌堅矣 是年後十一月初吉 拜首 稽首敬跋

(33) 夢溪筆談 卷 18 技藝

慶曆中 有布衣畢昇爲活版 其法用膠泥刻字 薄如錢唇 每字爲一印 火燒令堅先設一鐵板 其上以松脂臘和紙灰之數昌之 欲印則一鐵範置鐵板上 乃密布字滿鐵範爲一板 持就火煬之 藥稍鎔則以一平面接其面則字平如砥 若止印一二本未爲簡易 若印數十百千本則 極爲神速

(34) 聚珍版農書 卷後 活字印書法

(前略) 近世又鑄錫作字 以鐵條貫之作行 嵌於管内分行印書 但上項字樣 難於使墨率多印壞 所以不能久行 今又有巧便之法 造板墨作印회 削竹片爲行 雕板木爲字 用小細鋸寸開 各作一字 用小刀四面修之 比試大小高低一同 然後排字作行 削成竹片夾之 회字既滿 用木之使堅리 字皆不動 然後用墨刷印之

(35) 東國 李相國 後集 卷11

新印詳定禮文跋尾

(前略) 予先公 仍令補증 遂成二本 一付禮官 一藏于家 其志遠也 果於遷都之際 禮官遑據未得賚來 則幾若已廢而有家藏一本得存焉 予然後 益암先志 且幸其不失 遂用鑄字 印成二十八本 (後略)

그런데 종래는 新序詳定禮文으로 알려져 있던 것인데 延世大 藏 高麗板 東國 李相國 後集(二冊本)에 의하여 新序가 아니고 新印임이 밝혀졌다.

延世大學校 新築 圖書館 落成記念

한국의 板本과 活字本展示目錄 藁 4290년 11월 12頁 참조

이 목록의 해설을 閔泳珪 教授가 담당하였으며 活字史 자료로서 중요한 것이다.

(36) 李奎報가 이 詳定禮文跋거를 쓴 것은 晉陽侯 崔怡를 대신해서 한 것인데 崔怡가 晉陽侯로 冊封된 것은 1234년이다. 그리고 李奎報가 강화도에 歿한 것이 1241년이다. 나는 拙著「韓國古活字概要」(서울 1954)에서 詳定禮文 新印 연대를 高麗 江都遷都인 1232년부터 李奎報歿年인 1241년사이라고 했는데(34頁 註3) 이것은 前掲延世大 展示目錄에 의하여 이제 정정해 두는 바이다.

(37) 南明泉和尚頌證道歌 一冊 金斗宗博士 卷末刊記

天南明證道歌者實禪門之樞要也 故後學參禪之流 莫不由斯而入外堂觀奧矣 然則其可閉塞而不傳道乎 於是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時己亥九月上旬中書令晉陽公崔怡勤誌

前掲 延世大 展示目錄 參照

(38) 拙著「韓國古活字概要」1954 PP 3~4

(39) 葉德輝 書林清話 卷 8 宋以來活字板

(40) 世宗實錄卷65 16년 甲寅 7월 丁丑條

(41) 世宗實錄권70 17년 乙卯 12월 庚戌條

聖節使通使金漢全義等賚事目先來曰(中略)

問曰字樣以銅箇箇鑄之 隨書排字而印出乎 儀(숙儀)答不是 昔者或以銅鑄之 字與板相付 制度與木板一般 功費甚鉅 近來皆用木板」云云

(42) 治平要覽 甲辰字刊本卷末의 新鑄字跋

(43) 이것은 다음 庚子字鑄造時의 기록에 나온다. 즉 世宗實錄卷11 世宗 3년 3월 丙戌條에

賜鑄字所酒百二十瓶 前此印冊 列字於銅板 鎔黃蠟堅凝 然後印之 故費蠟甚多 而一日所印 不過數紙 至是上親指畫 命工曹參判李藏 前小尹南汲 改鑄銅板與字樣相准 不暇 鎔蠟而字不移 却甚楷正 一日可印數十百紙 上念其功役之勞 屢賜酒肉 命印資治通經綱目 令集賢殿 正其謬誤 自庚子冬至壬寅冬乃訖

(44) 前註參照

(45) 太宗實錄卷19 10년 庚寅 2월 甲辰條 始令鑄字所 印書籍죽之

(46)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書名이라도 알 수 있는 癸未字 刊本の 예는

1. 禮記淺見錄 26卷 11冊

이것은 高麗大學 所藏의 太宗 16년 鑄字本 覆刻本の 刊記에 의함

2. 十一家註孫子 6卷 3冊

이것은 丙子字 刊本으로 일본 宮內省 圖書寮 所藏인데 卷末에 權近의 癸未字 鑄字跋이 있고 永樂 7년(太宗 9년) 4월 日印이라는 原刊記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李弘植教授 「十一家註孫자와 癸未活字問題－親井白石手寫本을 중심으로－(李弘植韓國古文化論攷)所收 PP. 258~275

3. 北史詳節 1冊 이것은 宋錫夏氏 舊藏本인데 6·25당시 아깝게도 破壞佚失되고 말았다.

이밖에 古銅活字冊標本書目(華山書林 1952年刊)에는 眞西山讀書記乙集大學衍義 43卷 15冊(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藏)을 癸未字 刊本이라고 하고 같은 冊을 庚子字 甲寅字 刊本例로도 들고 있으나 이 冊은 宣德 9년 10월(世宗 16년) 甲寅字刊(日本宮內

省圖書寮所藏)이 初版이며 서울 대학교 소장본은 필자의 實査에 의하면 正祖代의 丁酉字 刊本이다.

(47) 太宗實錄卷24 太宗 12년 7월 壬辰條

賜申得財米及綿 得財遼人也 造華紙以進 下鑄字所印十七史 賜得財米五石綿布三匹 令紙工傳習

(48) 이 太宗 實錄記事는 이번에 새로 주의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拙著「韓國古活字概要」에서 十七史通要의 刊年을 太宗 3년부터 世宗 2년까지 사이라고 해 둔 것은 太宗 12년으로 정정한다.

(49) 註43 參照

(50) 東文選103 鑄字跋

(51) 庚子字 刊本の 傳存例로 「古銅活字標本書目」에는

1. 類說經學隊仗 1冊 金斗鍾博士 藏
 2. 史記 1冊 1425年刊 同上
 3. 資治通鑑綱目
 4. 新刊歷舉三場文選對策 金斗鍾博士 藏
 5. 通鑑讀編 1423年刊(世宗實錄卷21 癸卯 8월 庚戌條)
 6. 莊子 권齊口義
 7. 六臣注文選
 8.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1429年刊
 9. 少微家熟點校附音通鑑節要 1冊 李謙魯氏 藏
 10. 宋朝名臣五百家便芳大全文粹 이것은 世宗 6년(1424刊) (世宗實錄 卷22 甲辰正月 戊子條)
 11. 眞西山讀書記乙集 1422年刊 서울대학교 藏의 10종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밖에 다음의 4종이 알려져 있다.
1. 重新校正人註附音通鑑外紀 卷1~2, 1冊 李相伯博士 藏
 2. 前漢書 李仁榮氏 藏
 3. 論語集 註大全

4. 新進決科古今源流論讀集

(52) 註43 參照

(53) 註61 參照

(54) 世宗實錄 卷64 16년 甲寅 6월 丙寅條
頒鑄字所印老乞大 朴通事 于承文院司譯院
此二書譯中國語之書也

(55) 世宗實錄卷65 世宗 16년 7월 丁丑條

召知中樞院事李藏議曰 太宗肇造鑄字時延臣皆曰難成 太宗強令鑄之以印群書 廣布中外 但因草創 制造未精 每當印書 必先以蠟 布於板底而後 植字於其上 然蠟性本柔 植字未固 再印數紙 字有遷動 多致編琦 隨印均正 印者病之 予念此弊 會命卿改造 卿亦以爲難 予強之 卿乃運智 造版鑄字 亦皆平正 固 不待用蠟 印出雖多 字不編琦 予甚嘉之 令者大君等請改鑄大字印書以觀 予念近因比征 頗失兵器 銅鐵所用亦多 今工匠分役各處 務甚 然此亦不可不爲也 乃命 監其事 集賢殿直提等金墩 直殿金鎬 護軍蔣英實 僉司譯院事李世衡 舍人鄭陟 注簿李純之等掌之 字體之正明 課之易就 比舊爲倍

(56) 孝順事實의 明宣德刊本(즉 甲寅字의 字本이 된 版本) 1冊이 李相佰博士 珍藏이 있으며 李博士의 原意에 의하여 여기 사진을 게재하였다.

(57) 筆苑雜記 卷1

(58) 世宗實錄卷65 世宗 16년 7월 辛卯上曰今鑄大字爲寶重矣 予欲印資治通鑑頒諸中外 使老人易於觀覽 差備紙30萬卷則 可印五六百件矣 其紙墨備辦之策 承政院布置

(59) 世宗實錄卷65 16년 7월 壬辰條

命造印資治通鑑五萬卷于造紙所, 十萬五千卷于慶尙道 七萬八千卷于全羅道 三萬三千五百卷于江原道 共三十萬卷 乃傳旨 楮以國米換易 役境內僧人給與衣糧如蒿節豆麥節 竹皮麻骨等物 因其易備每五分交楮一分造之 非惟紙力稍強 合於印冊 用楮亦不多矣

(60) 世宗 17년 3월 丁丑

世宗實錄 67

乃第趙須進胡三省註資治通鑑一百卷 多有脫落處 仍啓曰詹事李承慶宜遊中國 意必資散在民間 若分遣文臣旁求諸道可得 上嘉之令乘駟 往久餘帙于驪興砥平 須受命往來 有自得之

(61) 世宗實錄卷69 17년 8월 癸亥條

遣刑曹參判南智如京師賀聖節(中略) 其從事官賚去事目(中略) 一今奏請胡三省音註資治通鑑 趙完璧源委 金履祥 通鑑前編 陳經歷代筆記等書 若蒙欽賜則不可私買 禮部如云御府所每則亦不可顯求(中略) 一本國鑄字 用燃功頗多 後改鑄字四隅平正 其鑄字體制二樣矣 中朝鑄字字體印出施爲備細問

(62) 註41 參照

(63) 世宗實錄卷70년 12월 戊午條

聖節使南智賚勅回自京師 上以時服 率群臣 幸慕華館迎勅如儀 其辭曰王奏請書籍 今 發去音註資治通鑑一部 其餘書板損缺 待刊補完備 頒賜 王其知之

(64) 世宗實錄 89 世宗 22년 6월 丙申條

經筵所藏國語與音義一本 頗有脫落 求之中國得制本 闕逸尙多 註解亦略 購求日本 又得詳略二本 兼補音 3卷 以來 亦且不完 於是命集賢殿 以經筵所藏舊本爲主 參考諸本 正其訛謬 補其脫落 仍將音義補音 芟更煩亂 分入逐節之下 其不完者以韻書補之 遂鑄字所 模印廣布

(65) 世宗實錄卷74 18년 7월 壬戌條

(66) 成宗實錄卷49 成宗 5년 11월 癸酉條

(67) 註11 參照

(68) 이 논고는 書物동호회 회보 제17호 서울 1942년 9월 26~29頁

(69) 拙著「韓國古活字概要」에 35종이라고 인용된 것은 잘못이다.

(70) 李仁榮「乙亥字小攷」(註68-25頁)

(71) 成宗實錄 卷49 成宗 5년 甲午 11월 癸酉 御書講 講訖 同知事李承召啓曰 嘗聞世宗欲盡印諸史 而史記前漢書則印之 其餘史則未畢而罷 故史記前漢書 則令士大夫之家稍有之 其他諸史則僅藏於秘閣 而民間絕無 故學者不得觀焉 請印頒後漢書等

諸 史上謂右副承旨金永堅曰 今用何鑄字印書 對曰甲寅乙亥兩年所鑄字也 然印書莫善於庚午字 而以鎔之所寫 已毀之 命姜希顔寫之而鑄成 乙亥字是也 上命永堅印頒諸史

(72) 成宗實錄 卷169 15년 甲辰 8월 乙亥

傳曰予見唐本歐陽修集 字體小大適中 以此字樣鑄字何如 承旨啓曰允當 命行護軍李有仁監鑄 左承旨權健掌之

(73) 金宗直 新鑄字跋(甲辰字刊 治平要覽 卷末)

甲辰秋8月 我殿下 傳旨于承政院若曰 甲亥乙亥字 極爲精好 然而字體差大所印之書 簡帙繁重 且已歲久 散落將盡 雖補鑄而用之 不類其初 乙酉字則其字不端 不可用于欲別鑄新字令細大疎密適宜 以印群書 以布四方何如 遂出內藏歐陽公集, 烈女傳爲字本 行上護軍臣李有仁 都承旨臣權健監其事 典籍臣李世卿 別坐臣李沔 前判官臣劉用平 博士臣柳廷秀 學正臣安閔德 正字臣金石精 分左右以掌之 字之不足者 使行司猛臣朴耕補寫之 自是月 24일 始事 至乙巳3月日畢功 爲字大小其30餘萬 用之以印書 明正妍妙 累累若貫珠焉(後略)

(74) 成宗實錄 卷173 15년 12월 乙丑

鑄字廳堂上李有仁 來啓畢鑄大字 賜李有仁^노鍋一部弓一張 郎官承文院副正字金石精 成均館學錄安閔德等 馬粧各一部 補字行司勇劉用平陞^서一階 賜匠人一等線布四匹 次等線布三匹

(75) 成宗實錄 卷174 16년 乙巳正月己酉

傳于承政院曰 今以甲辰字 將印唐書 然先可印王荊公集

(76) 前註 기사에 이어

承旨等對曰王荊公集有二 一有註 一無註 若印有註冊則甲辰鑄字時 未及鑄 印出爲難 傳曰雖無註其印之 承旨等啓曰荊公集姑俟畢鑄 字與註卽之何如 且事文類聚 文士皆欲見之 然卷帙至多 中國亦未多 有買來少 國藏亦不過一帙 請先印之 傳曰予欲印王荊公集者 以諸史字畧頑缺 不可不印而今新鑄字 未知體樣 欲印此冊而後及諸史耳 爾等以己所好之書 請先印出 然則當初何必取稟乎 承旨等對曰事文類聚 非獨臣等好之 人皆欲焉 國藏只有一件 外間亦不多有 因此囊者李瓊同李世匡等 皆請印出而其時

雖無成命 然有俞晉 故臣等未知上意 敢啓請待罪 傳曰若關係國家事則爾等言之可也 今予之欲印王荊公集 有何不可敢爾言之乎 事文類聚 卷帙固多 未易印出 王荊公集則 卷帙少 印出簡易 予以故欲先印而後及諸史耳 大抵政院出納王命而已 何其言之若是 乎 其勿待罪

(77) 成宗實錄卷176 16년 3월 甲申

賜新印王荊公詩集于文臣等

(78) 末松保和「甲辰活字に 就いて」書物동호회 회보 제5호 서울 1939년 9월 PP. 1-4

(79) 李仁榮「文綠役直前の 朝鮮活字」書物동호회 회보 제18호 서울 1943년 3월 PP. 12-14

(80) 中宗實錄 卷230 10년 乙亥 11월 丙戌

下旨曰大抵書冊務要精緻 不當추惡 我世宗朝印出書籍 非但紙品甚佳 打印亦 極其精 近古書冊之美 無踰於此 校書失職近來尤甚 紙淆墨完 校字亦慢以致書籍拙惡 予竊通恨 其令別說都監 量擇勤人 爲堂上郎官(中略) 資治通鑑唐本字樣 細大適中 以此改鑄銅字 且甲辰甲寅等字訛完者 悉令改鑄

(81) 中宗實錄卷23 11년 丙子 正月甲辰 設鑄字都監 使議政領之

(82) 古朝活字冊標本書目(서울 華山書林 1953年刊 40부 한정)

에서는 丙子字를 中宗 14년 己卯字로 하고 있으나 己卯字는 丙字의 잘못이다.

(83) 中宗實錄卷 36 14년 7월 甲午

侍講官李希閔曰 外方鄉校儒生 雖欲讀書 書冊甚少 請令廣布 上曰此言果是 今若設書肆 雖外方果可易得 昭格署銅鐵器皿 皆在工曹 以此鑄字何如

(84) 同上 同年 7월 己亥條

禮曹判書南袞 參判崔命昌 參議朴堦 稟書肆宗法冠禮國忌日變服等事 上引見思政殿(中略) 袞曰 書肆設立 其意則至矣 然我國家與中國有異 我國之民本貧 故書板及紙私備甚難 然廣布書冊 使民間可易得見 事出自天衷 此甚幸也 故臣等更欲磨鍊以啓 上曰鑄字民果難自備 昭格署鑰器及外方寺刹鑰器皆已屬公而多在 以此爲鑄字則甚佳 此事亦磨鍊可也

(85) 李仁榮 前掲論文(註79) P. 13

(86) 이에 관해서 金斗鍾博士가 해설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韓國活字印刷本展示目錄(서울 1954)에도 「再鑄甲寅字 宣祖 13년 庚辰(1580)字 혹은 宣祖 6년 癸酉字라고도 함」이라고 兩者가 동일 활자의 異名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附 李朝前半期官鑄活字表

字名	鑄造年代	字數	字本
癸未字	太宗 3년(1403년) 2월 19일 시작 數月之間	數 10萬字	古注詩書春秋左傳
庚子字	世宗 2년(1420) 11월 시작 7개월간	20여만자	元板本
甲寅字	世宗 16년(1434) 7월 2일 시작		孝順事實, 爲善陰 척晉陽大君유書
丙辰字	世宗 18년(1436) 7월 29일 시작		晉陽大君유書
庚午字	文宗卽位年庚午(1450)(世宗 32년)	30여만자	安平大君瑬書
乙亥字	世祖卽位年 乙亥(1455)		姜希顔書
乙酉字	世祖 11년 乙酉(1465)		鄭蘭宗書
甲辰字	成宗 15년(1484) 8월 24일		歐陽公集, 烈女傳
	成宗 16년 3월		朴耕補書
癸丑字	成宗 24년(1493)		明板資治通鑑綱目
丙子字	中宗 11년(1516) 正月 22일 시작		資治通鑑綱目
庚辰字 (再鑄甲寅字)	宣祖 13년(1580)		甲寅字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鄉土서울」, 제3호, 1958년에 수록)

18 世紀 서울의 都市的 樣相

— 燕岩學派—利用厚生學派의 成立背景—

李 佑 成

目次

1. 商街의 狀況
2. 手工業의 生産적방향
3. 文人 지식층의 생활
 - A. 文人들의 생활과 그주변
 - B. 都市改造의 의욕과 商工業獎勵論

맺 음

머 리 말

近來, 좀 뜸해진 느낌이 있으나 한때 李朝後期の 實學, 즉 英正時代以來의 學風에 대하여 國史學·國文學의 공동된 관심의 高潮로 학계 一角에 활기를 일으킨 바 있었다. 磻溪(柳馨遠)·星湖(李瀾)·燕岩(朴趾源)·楚亭(朴齊家)·阮堂(金正喜) 등 各個 학자에 관한 개별적 연구가 차례로 발표되는 한편, 實學의 개념에 관한 비판, 특히 實學의 명칭에 관한 문제가提起되어 斯學의 闡明에 많은 진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實學」이라는 말이 좋건 못건 이제 의적이 學界에 하나의 市民權을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새삼 그 명칭을 문제삼게 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各個 학자에 관한 개별적 연구의 진전과는 달리, 英正時代以來의 學風의 全般에 관한 종합적 파악이 아직도 體系化되어있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한마디로 實學이라고 불리워오는 이 學風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갈래의 流派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먼저 이 流派의 互異性을 분류하고 그 互異性에서 描出된 한개의 공통성에 歸着시키지 않고서는 實學이라는 용어의 타당성이 언제나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 이 학풍이 지니고 있는 時代的 意義를 역사적으로 규정하기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미의 작업이 지금껏 시도되지 않았던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 분류의 나열이 산만하고 界線이 선명치 못한 데다가 표면상의 類型的 구분에 그쳤을 뿐, 그 사상의 성립조건과 구조적특징을 당시의 현실적 기반위에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의연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筆者는 우선 이 실학의 유파를 셋으로 大別하여, (1) 星湖를 大宗으로하는 經世致用學派——토지정책및 행정기구, 기타 制度上의 개혁에 치중하는학과 (2) 燕岩으로 대표되는 利用厚生學파——상공업의 유통및 생산기구, 일반 기술면의 발전을 指標로하는 학파 (3) 阮堂에 이르러 一家를 이룩하게된 實事求是學파——經書·典故·金石等 考證關係를 일삼는 학파로 구분하고 이 셋 流派가 제각기 학문의 분야를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과 방법에 있어서, 모두 당시의 觀念化된 朱子學의 세계에 埋沒되지않고 새로운 차원을 지향하여 「실용·실증」을 唱導했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으므로 실학으로 일괄 지칭한 종래의 용어에 굳이 이의를 가질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이 實學이라는 말은 英正時代以來의 學風을 汎稱할 경우에 한하여 쓰기로 하고 개별적 연구에 있어서는 되도록 연구대상에 따라, 經世致用學·利用厚生學 또는 實事求是學 등의 구체적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 중의 實事求是學파는 그 학문의 내력으로 보아 經世致用學파의 一附에 불과하였고 마지막에 阮堂이 掉尾의 大業으로 독자적 영역을 이룬 觀庸이 있으나 「經世致用」과 「利用厚生」의 두 학파가 모두 당시의 當面 현실을 과제로 삼았음에 대하여 古典과 陳跡을 다루어놓은 이 實事求是學파는 당시 학계에 있어서의 意義上의 비중이 대단스럽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학문적 관심이 實事求是學파를 제외한 爾餘의 兩派에 주로 쏠리게 되는 것도 당연의 일인 것이다.

筆者는 年前, 拙稿「實學派의 문학」(국어국문학16호, 1957년, 서울)에서 實學이 이 조후기의 전국적 風尙이 아니라, 오직 서울 및 近畿地方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것의 역사적 이유를 밝히고 실학의 담당자들을 이조판료국가의 권력체계에서 離脫 分化된 「士」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나아가 農村土着的 환경에서 성장한 近畿地方(廣州)의 星湖學派(經世致用學과)와 도시적 분위기속에 자라난 서울 城中의 燕岩學派(利用厚生學과)를 비교 설명하여 星湖學派의 思考가 다분히 復古的·高踏的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燕岩學派의 생활·의식·기분은 상당히 전진적 개방적이어서 널리 당시 도시서민층(상인·手工業者·胥吏·검從·賤隸等)에 소식이 통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이 兩學派의 思想의 성립조건과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18세기 당시의 近畿地方의 농촌실태와 서울의 도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前記 拙稿에서 燕岩學派를 도시적 분위기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前提를 해놓고도 주로 燕岩의 문학의 성격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막연히 「도시적분위기」라는 말로써 표현했을 뿐 「도시」그것의 구체적 분석에 힘이 미치지 못했으며 나아가 이 「도시」속에 놓여진 燕岩學派의 생활사정을 상세하게 究明할 수 없었다. 이것은 前稿에서 남겨진 두개의 숙제였다.

이번 서울市史編纂위원회의 請囑으로 이 글을 집필하면서 나는 위의 두 숙제의 해결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자료정리의 예상외의 곤란과 촉박한 시일의 제한으로 소기의 성과는 半分도 達하지 못하였다.

이 글의 제목에 前稿의 도시적 「霧圍氣」라는 말을 겨우 「樣相」으로 고쳐 쓴 것은 이번에도 「都市」의 분석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다만 그 素描에 그치고 만 것을 自認하기 때문이며, 副題에 있어서 前稿의 實學이라는 말 대신, 「燕岩學派——利用厚生學과」라고 한 것은 앞에서 주장한 바의 구체적 명칭을 이 기회에 적용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讀者 諸賢의 叱正을 빈다.

1. 商街의 狀況

서울의 중심가는 「雲從街」이었다. 雲從街은

卽 鍾樓西街, 俗稱生鮮廬, 英宗庚辰, 復國初舊名, 改以雲從街(東國輿地備考卷二

市街)

라 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生鮮塵으로 불리워오던 거리가 1760년(英宗 36년)에 이르러 李朝初의 舊名을 다시 찾은 것이다.

壬辰·丙子 兩亂을 치르고 폐허속에 緩漫하나마, 꾸준히 재건되어온 서울은 零星한 坊里와 함께 변변치 못한 生鮮塵으로 轉落했던 과거의 이 중심가로 하여금 一世紀半을 지난 이 시기에는 舊名을 다시 찾을만큼 본래의 面目을 갖추게 했을 뿐 아니라 前古에 없는 興盛으로 서울의 姿態를 一新케 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서울의 全景을 가장 잘 그려놓은 것으로 楚亭의 「城市全圖詩」를 들 수가 있다. 그 詩의 첫머리에

君不見漢陽宮闕天中起, 以層城四十里, 左廟右社宏樹立, 背負叢山面遠水,
天開地闢南平壤, 舊邦新命先王以, 文明日月近搏桑, 慶會風雲護仙李,
六曹高臨白道傍, 七門聳出丹霞裏, 民惟五部之統轄, 兵乃三營所管理,
鼎鼎瓦鱗四萬戶, 방불운의은방리(정유집 시집卷三 城市全圖詩應令)

라 하여, 「舊邦新命」으로 나라를 維新하여 「文明日月」을 빛내인 先王(英宗)의 治化를 謳歌한 것은 修辭的인 표현에 속하는 것이지만 六曹·七門·五部·三營의 壯觀과 四萬戶의 屋瓦의 鱗比한 광경은 비록 層城四十里의 城壁으로 둘러 싸인 중세도시의 봉쇄적 情調를 짙으게 풍겨주는 하나, 당시 수도로서의 繁華를 잘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 四萬戶의 가혹은 架空的인 數字가 아니었다. 文獻備考 戶口考에 의하여 이조후기의 서울의 戶口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京 五 部	{	戶 口	年	1657 (孝宗8)	1669 (顯宗10)	1678 (肅宗4)	1717 (肅宗43)	1724 (景宗4)	1726 (英宗2)	1753 (英宗29)	1777 (正宗元)	1786 (正宗6)
			戶	15.760	23.899	22.740	28.356	25.844	32.747	34.957	38.593	42.786
			口	80.572	194.030	167.406	185.872	147.772	188.597	174.203	197.957	199.227

1657년에 戶數 15,760戶, 인구 80,572명이었던 것이 1786년에 이르러 戶數 42,786호 인구 199,227명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兩亂後, 서울의 戶口는 여역·饑饉에 의한 사망·離散으로 약간의 증감을 겪으면서 꾸준히 불어오다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증가율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서울의 소비와 需要를 크게 증진시켰고, 게다가 「庚午給代」 이후에 각 지방에서 鑄造된 화폐가 서울로 집중되어 상업과 手工業에 새로운 촉진제가 되었던 것이다.

「生民之業，京師以錢，八道以穀」(金陵集卷十 擬上宰相書)이라고 한 南公轍(1760~1840)의 말과 같이 八도가 곡식으로 살아간다면 서울은 돈으로 살아가는 곳이었다. 돈을 떠나서 삶을 영위할 수 없을만큼 돈과 서울의 관계가 깊어졌고 또한 그만큼 서울은 주위의 농촌지역과 線을 劃할 수 있는 도시로 성격지우게 된 것이었다.

前掲 城市全圖詩에

梨峴鍾樓及七牌，是爲都城三大市，百工居業人磨肩，萬貨輻利車連軌

라 한 바와 같이 梨峴·鐘樓·七牌等 三大市肆의 주변에 百工 즉 갖가지 수공업자들이 操業을 하고 있었고 萬貨 卽 각종 상품들이 상인에 의하여 湊集되고 있었다.

梨峴·鐘樓·七牌는 萬幾要覽 財用篇 각전에

行商所聚，交易而退者 謂之場(右者日中 爲市之類) 如鐘街梨峴七牌，是也

라 하였고 京都雜誌 卷一 市포에

凡趨市者，晨集于梨峴及昭義門外 午集于鐘街，一城之所需者 東部菜 七牌魚 爲盛，南山下，善釀酒，北部 多賣餅家，俗稱南酒北餅

이라 한 것이 있다. 이에 의하면 都城 「三大市」로 일컫는 梨峴·鐘樓·七牌는 주로 行商의 집합소이며 시민의 일상적 購買場이었다. 이 「三大市」를 중심으로 상인·수공업자 그리고 구매자인 시민들이 紛沓을 이루었던 것이 城市全圖詩와 京都雜誌에 나타난 당시 서울의 點景이었다.

漢京識略 市廛에

城內之鐘樓梨峴七牌八牌，是爲大市，而鐘樓兩傍，列建長廊，市人居之，大者有六

이라 한 것이던지 京都雜誌 시포에

緞紬紙布諸大포, 挾鐘街而居, 餘皆散處

라 한 것을 보면 鐘街兩傍에 자리잡은 長廊의 六矣塵이 아직도 왕실과 政府各司의 御用商店으로 전통적 규모를 유지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서울의 심장은 낡은 六矣塵으로부터 차차 新興의 「三大市」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서울 市肆의 일반상점들이란 城市全圖詩에

鳳城용帽燕京絲, 北關麻布한산시, 米菽禾黍곡稷麥, 梗楠楮漆松梧梓, 菽蒜薑蔥
해개심, 葡萄棗栗橘梨柿(下略)

라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각지방의 토산품은 물론, 만주의 용모와 중국의 生絲等 외국제품이 같이 진열되어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漢陽歌에 가장 잘 나타나있다. 漢陽歌는 1844년(憲宗十年)에 지은 것이지만 18세기 當時를 溯及推測하는 자료로 사용하여 큰 틀림은 없을것으로 여겨진다.

八路를 通하였고 燕京日本 다아구나 우리나라 所産들도 붓그럽지 안큰마는 他國物貨 交合하니 百各塵 장할시고(漢陽歌 正音文庫本 52頁)

라 하여 우리나라 物産外에 中國·일본의 상품까지 겹드려서 성황을 이룬 것을 말하고 七牌의 生鮮塵에 각색생선 다있구나 民魚·石魚·石首魚· . . . 南門안 큰 모전에 各色실과 다있구나, 靑실뇌·紅실뇌·乾柿(下略)

라 하여 어물전의 각색생선과 果塵의 온갖 과일들의 풍성을 노래하였다. 특히 果塵에 대하여는 漢京識略 市塵에

果塵 俗稱隅塵, 以其初設於要路隅 仍呼爲隅塵矣 賣各種果實, 大塵 凡爲 六處 松峴·貞洞·典洞及 門外上下也

라 하여 漢陽歌에서 말한 南門안 뿐 아니라 松峴·貞洞等の 六處나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이때의 과일로서는

梨之佳者曰秋香, 自海西之黃州鳳山等地而至 柿名月華 小圓長 存方穴 産於畿內之南陽安山 橘柚石榴 俱南産 京城 盆養石榴亦盛 桃之不毛者曰僧桃 有毛而絕大早熟상美曰六月桃 鬱陵島中 多大桃取核而種之曰鬱陵桃(京都雜誌卷一 果瓜)

라 하여 黃海道産의 배, 近畿産의 감, 鬱陵島産의 복숭아와 같은 지방특산들이 서울에

搬入되었을 뿐 아니라 熱河日記 玉匣夜話 許生篇에

許生 卽得萬金, 不復還家, 以爲安城 畿湖之交 三南之關口 遂止居焉, 棗栗柿梨
柑榴橘柚之屬 皆以倍值居之 許生各菓而國中 無以燕祀 居頃之 諸賈之獲倍直於
許生者 反輸十倍 (燕岩集 卷十四 別集)

라 한 바와 같이 三南 즉 경상 충청 전라도지방의 土産 果實이 不梗한 交通에도 불구하고
安城을 경유하여 서울로 搬入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土貢으로
받아들이던 果物들이 궁중과各司에 직접 소비되어 버리고 果塵은 길 한 보퉁이에 자리잡
아 겨우 「모전」(隅塵)으로 불리워지던 것이 지금 商人의 손으로 이와 같이 판매의 盛況을
볼수 있는 것이다. 다시 漢陽歌를 抄해 보면

上米塵 左右假家 十年之糧 싸아서라 下米中米 極上이며 찹쌀 좁쌀 기장쌀과 綠豆
靑太赤豆팓과 마태중태(중략) 水閣다리 넘어서니 各色商塵버려서라 면빚참빚 어레
빚과 찜지 줍지 허리피며 蟲塵 襦褌 毛彈子며 東紙周紙唐周紙다

라 하여 米穀과 被服日用雜貨의 陳列상황을 노래하고 다음 六矣塵에 들어가,

큰 廣通橋 너머서니 六苴비塵 여기로다 일어난 여립군과 物貨마흔 塵市井은 큰창옷
에 갓을 스고 쇼창옷에 汗衫달고 사람불러 흥정할제 輕薄하기 測量없다. 선
전(선塵)은 슈전(首塵)이라, 돈마흔(많은?) 市井(市民)들이 豪奢도 흥난하고 인물도
준슈하다.

라 하여 서울의 「富」의 會合點인 六矣塵에 있어서 매매 흥정의 紛沓과 돈많은 상인들의
의 호사스런 생활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약국과 染政局은 銅峴(구리고개)에 있었다.

. 賣藥之局 皆在銅峴, 列於左右, 其散在各處者 門傍, 必書付神農遺業
萬病回春之號, 窓臨街道, 必垂蘆箔, 又染전局則諸處有之, 門外壁上 以正花, 踏
掌痕爲表(漢京識略卷二 市塵)

라 한 바와 같이 銅峴 길 좌우양편에 약국이 列지어 있는데, 문곁에 모두 「萬病回春」
「神農遺業」의 號를 붙여 놓았고 窓은 街道에 다달아 있으므로 반드시 밭(蘆箔)을 드리우
고 있었다. 그리고 染전局은 門外壁上에 正花로써 손바닥을 눌러 찍어 표를 해두었던 것
이다.

易知難忘染전局, 滿壁전痕답掌指, 鼓治皮革恒比隣, 上掛亭街下釜錡, 葦簾中人
頗似간, 坐秤川 芎與白芷

라고 한 것은 城市全圖詩에 이 약국과 染전局의 거리를 읊었던 것이오.

구리가 좌우집의 신통유업 써부치고 각색 약이 다 있구나 사삼 인삼 현삼이
며 淸心丸 安神丸과 민강글병 금전병과 鹿茸膏 瓊玉膏
다

라고 한 것은 漢陽歌에 약의 각종을 노래한 것이다.

앞서 중국·일본의 상품이 우리 土産과 같이 진열되어 있음을 보았거니와 이 상품의 국
제적 교류를 이용한 通商人의 蓄財도 대단하였다. 徐有구(1764~?)에 의하면

. 富商大賈 南通倭國, 北通中國, 積年灌輸天下之物, 或至累百萬者, 惟漢
陽 多有之, 次則開城 又次則嶺南之東萊密陽, 關西之義州安州平壤(林園十六志
倪圭志)

라 하여, 중국의 통로인 개성·평양·안주·義州와 일본의 통로인 밀양·동래에 다 蓄
財者가 많이 있으나, 累百萬金에 이르른 者는 역시 서울에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통상인은 대부분이 司譯院에 籍을 둔 譯官들이었다. 사절을 따라 외국으로 가는 역
관들은 정부의 엄중한 감시하에 제한된 일정한 銀包를 가지고, 외국무역을 할 수 있었다.
燕岩의 玉匣夜話에

有一譯 空手入燕, 將還, 對其主顧而泣, 主顧, 訶而問之, 對曰渡江時, 潛挾他人銀,
事發, 銀已包, 沒于官, 今空手還, 無以爲生, 不如無還, 拔刀欲自殺, 主顧驚, 急抱
持, 問曰所沒銀, 幾何, 曰三天兩, 主顧慰曰大丈夫, 獨患無身, 何患無銀, 今死不
還, 將如妻子何, 吾貸君萬金, 五年貨殖, 可復得萬金, 以本銀償我, 譯, 既得萬金,
遂大貿而還, 當時未有識之者, 莫不神其才 五年中, 遂致鉅富, 乃自削籍譯院, 不復
入燕(熱河日記 玉匣夜話)

이라 한 것이 그 일레이었다. 즉 어느 역관이 북경의 부호인 客主로부터 萬金을 빌려 중
국상품을 크게 貨得하여 돌아와 5년동안의 「貨殖」으로 거부가 되었고 부자가 된 후에는
司譯院으로부터 籍을 깎아 버리고 다시 북경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貨殖이란 고리대금업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대금업자중에는 역시 역관출신의 거부가 많

있던 것이다. 조금 앞선 얘기지만 1682년(肅宗 8년) 일본통신사 일행의 首譯으로 왔던 折衝 卞承業과 같은 이가 그 예이었다. 卞承業은 茶房洞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는 한때 「다방골 변부자」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燕岩의 玉匣夜話에

…卞承業之病也, 欲閱視貨殖都數, 聚諸果 計帳簿, 合籌之, 共銀五十餘萬, 其子曰 檢散煩, 久且耗, 請因而收之, 承業大에曰 此都城中萬戶命脈也, 奈何一朝絶之…國中之爲財者, 視吾家出入, 爲高下, 是亦國論也…(同上)

라 하여 변씨의 帳籍에 대출된 총액(貨殖都數)이 銀 50여만양이었고 「이것이 서울 城中의 만호의 命脈이다」라고 한 것이든지, 「국내의 대금업자들이 자기집의 출입(방출과 수납)을 보아 利息의 고하를 정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부의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 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상인들이 그 主가 되었으리라 추측되지만 귀족·관료 내지 지주층이 또한 여기 관련되고 있었던 것 같다. 燕岩의 글에,

時, 殖錢者, 大較典當首희璣翠衣件器什宮室田동奴之簿書, 參伍本弊 以得當(燕岩集卷八 別集, 放客外傳 廣文者傳)

이라 하여 대금업자는 대체로 首희璣翠·衣服·器具들과 宮室·田畝·奴隸의 문서를 잡히고 돈을 꾸어준다고 했는데, 전자는 일반 시민의 것으로 이해되지만 후자는 귀족·관료 내지 지주의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이 귀족·관료·지주들은 상인과 달라 비생산적인 소비층이었다. 家資를 典當하여 돈을 빌리는 것은 그들의 재정적 궁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껏 보아온 바에 의하면 서울의 상업은 六矣塵을 중심으로한 정부어용상인의 특허상업으로부터 대중의 소비생활에 직결된, 「三大市」의 자유매매의 분산적 소상공업으로 폭이 넓혀지고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자금공급자인 자본주—「富」는 「商·譯」으로 통칭되는 「中人階級」으로 옮겨지는 반면, 귀족·관료·지주들의 궁핍이 가중되어 갔던 것이다.

2. 手工業의 生産的 方向

李朝의 수공업은 왕실과 政府各司에 전속된 「京工匠」의 수공업으로 그 主를 삼았다. 농업의 수준이 너무나 低位에 있었던 李朝社會에 있어서, 농업의 발전에 의한 분업의 성

림을 바랄 수 없었고, 따라서 수공업은 그 地盤을 자연 도시에 두게 될 뿐이었다. 「京工匠」의 수공업은 곧 도시수공업이었다. 그러나 이 경공장은 신분의 良·賤에 불구하고 모두 해당 관서에 직접적으로 隸屬되어 있었다. 1543년(中宗 38년)경에 된 규정에

各司匠人, 成案, 藏于本曹本司, 公賤, 亦藏于刑曹, 良人 兵曹(大典後續錄 六 工典 工匠)

라 한 바와 같이 모든 공장에 대하여, 「案」을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간직해 두었고 그 관서외에 다시 公賤은 刑曹에 良人은 兵曹에 따로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公賤은 노예임으로 刑曹에, 그리고 良人은 良役(軍役)관계로 兵曹에 각각 분리 간직하고 있었으나 국가에 대한 隸屬的 地位에 있어서는 별반의 차가 없었던 것이다.

凡工匠 計除公役日數收稅(經國大典 戶典 雜稅小註)

라 하여, 공장은 의무적으로 公役에 취해야 하였고, 公役에 취한 爾餘의 日數는 다시 稅를 받쳐야만 하였다.

錄工匠等第 及坐賈公廊之數, 藏於本曹工曹本道本邑 收稅(經國大典 戶典 雜稅)

라 하여 공장을 坐賈·公廊과 함께 조세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세액을 보면,

工匠, 上等, 每朔 楮貨九張, 中等六張 下等三張(同上 小註)

이라 하여,

坐賈, 每朔 楮貨四張, 公廊, 每一間 春秋 各楮貨二十張(同上)

이라 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率이 아닐 수 없다. 상인(坐賈·公廊)에 비하여 수공업자에 대한 收稅를 보다 높은 率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 것인가? 다시 상인보다 수공업자의 이득이 더 많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공장의 신분적 隸屬度가 더 강했기 때문이었을까? 당시 수공업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冶匠의 경우를 보면,

水鐵匠 三十戶, 大中小冶 各十, 至二十五人, 爲大冶, 十五人以上, 爲中冶 十四人以下, 爲小冶(經國大典 工典 京工匠 本曹)

이라 하여, 戶曹所屬으로 水鐵匠이 30호이며 大冶, 中冶, 小冶가 각 10호인데 이 冶匠은 최하 14인 이하로부터 최고 25인에 이르기까지 操業者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戶」라고 한 것은 「가정공업」을 뜻하는 것으로 보겠으나 20인 이상의 조업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작으나마 일정한 작업장이 있었던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장은

官設인지 私設인지 알 수 없으나, 「戶」로 표시된 것을 보면 비록 관으로부터의 특정된 급여와 지원은 있었더라도 사실적 성질에 속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공장들이 비록 公役에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公役에 취한 爾餘의 日數를 자기이익을 위한 노동시간에 충당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할 때 당시 수공업자의 이득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잉여생산물을 최대한 흡수하고 있던 李朝封建國家는 높은 「收稅」를 통하여 수공업자의 이득을 거의 남김없이 吸取했던 것이다. 서울 冶匠에 대해서 「收稅」에 관한 구체적 기록을 볼 수 없으나 外方 冶匠 특히 경기·충청·강원·黃海諸道の

毎年, 大冶 水鐵一百斤, 中夜 九十斤 小冶 八十斤(經國大典 戶典 雜稅小註)

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짐작이 간다. 이 「收稅」政策은 오래도록 勵行되었고 또한 범위를 넓혀 1746년(영조22년)에 추가된 규정에

瓮店匠人, 勿論軍兵及公私賤, 以陶爲業者 本曹 收稅取用(續大典, 工典, 工匠) 이라 하여 軍兵과 公私賤을 막론하고 陶器의 제조로 업을 삼는 자는 모두 收稅取用한다 하였고

水鐵匠人, 元額未充定者 隨現卽定(同上)

이라 하여 水鐵匠의 인원수가 定額에 미달될 경우, 일반 민간에서 水鐵匠이 발견되는 대로 강제 충당시킨다고 한 후에

閑雜人, 設爐冶處, 本曹, 擲奸錄案, 軍兵則不可移定匠額, 依亂塵例, 移法司科罪(同上)

라 하여 閑雜人 즉 일반 민간인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爐冶處—私設作業場을 가지고 있으면 戶曹에서 摘發되는 대로 「案」에 錄하여 稅源을 삼았고 但 軍兵은 工匠定額에 넣을 수 없으므로 亂塵의 例와 같이 法司에서 科罪한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후반에서 말기로 접어들면서, 두가지 注目할 現象을 보게 된다. 하나는 工匠案의 廢止요, 다른 하나는 工匠稅의 革罷이다. 1785년(정종구년)에 만들어진 大典通編의 工典 京工匠條에 政府各司의 工匠을 말하고

以上諸司中 司瞻寺典艦司昭格署司은署歸厚署 今皆革罷, 內資寺內瞻寺司 司禮

賓寺濟用監典設司掌苑署司圃署養賢庫圖書署 今無工匠，其外 諸司，則名色之新舊互異 額數之加減無定，成籍藏本曹之法，寢廢不行

라 하여各司中에 지금 工匠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아직 名色이 남아 있더라도 新舊互異 · 加減無定의 혼란속에 「成籍藏本曹之法」이 점차 폐지되어 시행치 않고 있다 하였고 外工匠에대해서도

原典 各道各邑 皆有工匠名色，今則外工匠，無成籍藏本道之規，官有使役，則賃用私工(同上)

라 하여, 역시「成籍藏本道之規」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工匠案의 폐지에 뒤를 이어, 1799년(정종23년)에는

正宗己未，因青松府使俞漢謨上疏，嶺南匠稅 屢皆革罷(萬機要覽 財用編三 給代)

라 한 바와 같이 영남의 匠稅를 革罷했고 그 뒤에

至堂耆壬戌，戶曹判書 趙鎮寬，以戶曹所管匠稅 與作紙役價 均廳，當爲給代事，筵凜(同上)

라 하여 1802년(순조2년)에는 戶曹所管의 匠稅를 전부 革罷하여 嶺南匠稅와 함께 均役廳에 給代를 요구했던 것이다. 물론 京 · 外工匠의 匠案과 匠稅가一朝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없어졌던 것은 아니다. 위에 본 바와 같이 中央各司의 일부에 工匠이 남아있었고 外方匠稅도 지역에 따라 잔존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것은 공장의 「隸屬」로부터의 독립과 「收奪」로부터의 解免」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보아 매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李朝政府는 匠案과 匠稅에 代替시킬 어떤 새로운 措置가 있었던가 그리고 李朝政府가 匠案과 匠稅를 없애버린 기본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다음 간단히 拙見을 적어보기로 한다.

外方官廳에는 匠案이 없어진 후, 「官有使役，則賃用私工」이라 하여 私工을賃用한다 하였고 中央官司에도 私工賃用의 예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宮室廳舍의 修補 其他 特殊器物의 造作時에 가능할 따름이요, 모든 部面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왕실과 政府各司의 廣汎한 온갖 需要를 私工의 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생각

조차 못할 일이다. 결국「私工賃用」이라는 消極的 方面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시야를 넓혀 李朝社會事情의 全般的考察에서 端緒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조사회를 봉건사회로 보는 데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내부에는 古代的 關係가 뿌리깊히 잔존해 있었다. 중앙·지방의 행정기구 밑에 奴婢가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물론, 토지조세보다 「貢」의 비중이 컸고 良民全體에 良役이라는 이름下의 身布를 받아 「人身稅」나 다름없었다. 實은 工匠의 존재도 이와같은 요역노동의 체계속에 위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와서 이 요역노동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흐무르지게한 몇가지 정책상의 개혁이 이라났다. 그것은 「大同法」과 「均役法」의 실시였다. 그 후에 연이은 노비의 해방도 주의할 사실이었다.

특히 「大同法」은 「貢」을 토지조세속에 해소시켜버렸고 「均役法」은 身布를 半減하여 良民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이 兩者의 의의를 말하자면 「大同法」이 더 중요한 것이다. 「工匠成籍」의 폐지도 이 대동법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여기 대동법에 잠깐 부딪혀 보려고 한다.

其法, 畿甸三南, 通田沓一結, 收米十二斗, 關東同而未量邑, 加四斗, 嶺東, 加二斗, 海西, 行詳定法, 收十五斗, 統而名之曰大同, 昔之諸道各邑, 各以其土物來貢者, 甞作京貢, 定出京貢主人, 以其所收之米, 量定其價, 魚鱗作等, 出給貢人, 使之進排, 以爲祭享御供及諸般經用之需, 餘則儲置各邑, 以備公用之資(萬幾要覽 財用編三 大同作貢)

咸鏡·平安兩道を 제외한 全國田結에 每一結마다 十二斗 乃至 十五斗를 增收하여, 그것으로 종래의 土貢을 모두 京貢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종래의 토공이란 요貢의 형태로, 각지방의 토산물을 받아들이던 것인데, 이것을 그만 두는 대신, 그 貢物의 가격에 상당하는 大同米를 京貢主人에게 주어, 貢人으로 하여금 모든 물품을 구입케 한다는 것이다. 「祭享·御供·및 諸般 經用의需要」를 從來의 「요貢의 형태에 의한 收取」로부터 「購買의 형식에 의한 調達」로 전환시킨 것이다.

다만 이 「購買의 形式」이 정부 자신의 직접적형식이 아니고 貢人의 介在를 필요로 하는 간접적 형식이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구매의 가격을 「貢價」라고 불렀으며 貢價는

대체로 大同米를 「作錢」하여 화폐로 지불하는 것이었다. 貢價는各司에 주는 것과, 「各塵·各契」에 주는 것이 있는데, 塵은 商塵이며 「契」는 「貢契」이었다. 貢契는 곧 貢人길드였다. 各塵·各契에 주어졌던 貢價의 年間總額이 얼마나 되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正宗朝 戶曹 일년간의 지불된 「別買」의 貢價를 봄으로써 그 일단을 살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의 도표는 1778년(정종2년)에 各塵·契의 別買貢價다. 別買란 各塵·契가 元貢의 貢額以外에 달리 필요에 따라 「進排」하는 것인즉, 貢價의 일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各塵·契 別買

塵·契名	物 種	價 錢
立塵	匹緞·초·絹等	一萬六百兩
綿紬塵	上紬·經用綿紬·禮單綿紬等	六千二百七十六兩
苧布塵	二十升白苧布·八升白苧布等	一千五百八十六兩
紙塵	監試落幅紙	四百三兩
鉢里塵	鎗鐵·鑄鐵等	三千二百四十一兩
狗皮契	進獻水貂皮·大鹿皮·中鹿皮·小鹿皮·進獻豹皮·禮單豹皮·禮單虎皮·獐毛等	一萬二千三百五十六兩
黍皮契	進獻黍皮·各色黍皮等	四千一百八十八兩
唐藥材契	龍腦·小腦·甘松·零陵·菴朮·草草·八角·丁香·三乃子·白檀·沈香等	二千九十一兩
彩色契	唐朱紅·唐粉·大碌·石碌·唐黃丹·二青·三青·唐銅碌·石紫黃同黃·倭朱紅·片皁脂·荷葉·深重青·深黃·大青·回回青·皮金等	二千八百五十五兩
牛黃契	牛黃	三千兩
染契	入染	五千三百八十二兩
車契	輸運車	七千二十兩
馬契	輸運馬	一萬九千兩
葛契	生葛	五千四百五兩
몬皮契	胡몬皮	一千七百四十兩
毛物契	赤狐皮·山貂皮等	三千四十四兩
芎芎末契	芎芎末	一百六十兩
修理契	楮注紙·各張厚油紙·四油菴等	八百兩
外都庫	大不等·中不等·小不等·樓柱·宮材·材木·長松木 豆里木· . . . 中條里木·小條里木等	一萬八千六百四十兩
床塵	毛狗皮	三百八十一兩
綿花契	內入綿花·帛衣綿花等	三千五百七十三兩
金契	貼金·泥金·泥銀等	四千二百兩

塵・契名	物 種	價 錢
鄉絲契	白鄉絲	二千八百四十兩
牛毛氈契	牛毛氈	一百九兩
紙油絲契	厚白紙	一千二百兩
銅絲契	大銅絲・中銅絲・細銅絲・正鐵大絲・正鐵細絲・錫絲等	八百七十七兩
昌塵	各色牛皮・各色熊皮等	一千五百五十二兩
生雉塵	雉尾羽	一百四兩
		合・折錢 十一萬三千六百三十九兩

이 도표를 一覽하면 貢價의 支拂對象이 얼마나 많은 物種에 걸쳐있었던가를 알 수 있으며 또 이 지불액이 元貢 그것을 가산해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액수에 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想到할 수 있는 것이다.

却說, 이 物種속에 갖가지 수공업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세심히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祭享・御供・及諸般經用的 需要」중, 수공업제품에 관한 한, 결정적으로 專屬工匠의 요역노동에 의존했던 왕실과 政府各司가 이제 주로 貢價, 즉 돈을 주고 구입해 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工匠에 관한 一例로 冶匠을 들어 말해왔거니와, 여기서도 冶匠의 제품을 들어 一例를 보기로 한다.

舊例, 宗廟社稷各陵寢諸上司所用水鐵器, 本曹, 卜定海西而進排, 詳定後, 自本道其價米 輸納宣惠廳, 定貢人出給, 使之擔當備納, 凡十一種之器(續大典, 工典 工匠水鐵匠人)

즉 舊例에 宗廟・社稷・陵寢・其他諸上司의 所用된 水鐵器를 工曹에서 황해도의 貢物로부터 바치는 價米(貢價)를 貢人에게 주어, 납품을 담당케 했다는 것이다. 그 水鐵器의 종류는 11종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貢人이 다시 그 돈으로 직접 생산자인 冶匠에게 제품을 써서 정부에 바쳤던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여기 이르러, 우리는 李朝政府가 「工匠成籍」을 폐지할 수 있었던 현실적 가능성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걸음 나아가 李朝政府가 「요골의 形態」로부터 「購買의 形式」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大同法과 均役法은 모두 농민의 저항의 결과의 산물이었다. 「貢」과 「身布」의 가혹한 誅求는 국각기강의 문란과 함께 度を 가하였고 이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逋亡」으로 표현

되어 「黃口白骨」「族微隣徵」의 처참한 현실속에 농촌을 갈수록 황폐시켰고 李朝政府를 해결할 수 없는 고뇌에 빠뜨려 놓았다. 李朝政府는 심각한 財政權을 타개하기 위하여 「貢」의 철폐와 「身漙」의 경감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彌縫策이 大同法과 均役法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工匠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일 리 없었다. 이미 公役에 노동을 강요당하고 눈꼽만한 이득도 「收稅」로써 완전히 吸取돼버린 공장들은 怠業과 粗製로써 이에 반발하였고 국가는 새로이 법을 제정하여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造瓦濫惡, 不如法者 重論(經國大典 刑典 雜令)

銀錫論銅器皿, 并刻斤兩及造作年月日(同上)

咨文表紙 주紙匠人, 初次杖八十 每次加一十 至杖一百而止(續大典, 刑典 雜令)

未成才人, 定限傳習, 而不勤者, 并與訓誨匠人, 依違令律論(同上 小註)

頒賜冊子, 粧奩不如法, 則校書館掌務官 論以造作不如法之律, 供奉御用之物, 加二等(同上)

經國大典에 규정된 법에 다시 여러 가지 법이 續大典에서 다시 추가된 것은 공장들의 반발에 대한 국가 권력의 대응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법과 권력으로 타결을 짓지 못한 이 矛盾의 누적은 결국 「요役勞動的把握方式」의 지양만이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續大典의 편찬으로부터 겨우 39년이 지난 大典通編에 「工匠成籍」의 폐지가 확인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공업자가 왕실과 정부各司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적 생산자의 입장에서 貢人의 요구를 받아 생산하게 된 것이 18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수공업의 획기적인 전기인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注文生産」인 것이다. 貢人은 소비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주문자가 되고 수공업자는 이 주문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재 자료는 貢人의 공급에 의한 것이 많을 것이며 수공업자 자신의 것도 있겠거니와, 어떻든 수공업자의 노동의 보수는 혹은 화폐 혹은 現物로 지불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제품은 貢人을 거쳐 소비자인 정부에 바로 인도될 뿐이오 아직 시장으로 出廻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품 생산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의 보수로 얻어가진 화폐로써, 도는 現物을 佛賣하여 스스로 원료 또는 생산용구를 사게 될 경우, 여기에 비로소 상품유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자연경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수공업자들

은 서서히 「市場」생산으로 주문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剩遺된 원료를 제품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購得한 원료로써 주문생산의 여가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것이다. 이것이 상인의 눈을 끌며 드디어 상품으로의 판매의 길이 널리 열려졌던 것이다. 漢京識略 市廛에서 당시 수공업제품을 판매하는 商廛을 대강 추려보기로 한다. 먼저 無分各廛을 본다.

廛名	所在地	販賣品
雜廛	惠政橋傍	雨傘・編箔・脂炬等 雜物
黃草笠廛	鍾樓傍	新郎所着黃草笠
氈笠廛	內廛, 有廛橋 外廛, 敦義門外	牛毛廛笠
刀子廛 (方物廛)	鍾街上	小粧刀, 盒, 婦人佩晞, 金銀指環等
粉廛	內廛, 鍾街 外廛, 西小門外	肢粉
雜鐵廛	市中 各處	各色鐵物
漆木器廛 櫥廛	廣通橋	各樣漆木器・櫥櫃(必有三四層, 以文木製 或以色紙塗)
木器廛	上廛, 六曹前 下廛, 梨峴	木盤・杻籠・기・계等物
磁器廛	鍾街及南大門外	磁器
馬廛 (馬床廛)	廣通橋	馬鞍諸具
繩鞋廛	市中各處	生熟麻鞋・稿草鞋
鞋底廛 (昌廛)	笠廛洞	牛溫鞋底
箭鏃廛	東大門內	各樣箭鏃

다음 다시 有分各廛을 본다.

有分各廛

塵名	所在地	販賣品
綿塵(立塵)	鍾街	中國錦緞
綿紬塵	鍾街	土產綿紬
綿布塵	鍾街	土產綿布
布塵	鍾街	土產麻布
苧布塵	鍾街	苧布·黃苧布
青布塵	鍾街	中國三升布·羊帽子
紙塵	鍾街	各色各紙
床塵	禁府望門·壽進坊等 九十三處	皮物·黃蠟·鄉시·書冊·休紙等
鑪器塵	鍾街	鑪鑄器皿
眞絲塵	禁府傍	各色唐·鄉絲·纓帶·組塵之屬
茵席塵	壽進坊	龍鬚席·案息等物
체계塵	內塵, 廣通橋外塵, 西小門外	婦人首회피체
烟竹塵	市中各處	各色烟竹·烟盃
匙箸塵	內塵, 鍾街外塵, 南小門外	鑪匙箸
鐵物塵	市中各處	各樣鐵物

無分各塵과 有分各塵의 수공업제품을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가 느껴진다. 無分各塵에 주로 도시수공업제 小商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有分各塵에는 지방산 綿·布 등 직물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해 있고 無分各塵의 상품이 도시 서민층의 기호와 소비에 부응하는 것임에 반하여 유분각전의 것은 대체로 귀족 관료층을 상대로 중국 고급직물(錦緞·三升布) 및 기타 物貨를 공급하거나, 중국에 바치는 정부의 歲幣 方物의 막대한 물자(토산면직물기타)를 進排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양과 규모에 있어서 有分各塵이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귀족·관료층과 넓은 의존관계에 始終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無分各塵은 시민생활의 요구에 출발한 새로운 小商品들을 등장시켜 「수공업의 생산적 방향」을 반영시키고 있는 점에서 매우 전망적이었던 것이다.

李朝末에 저술된 東國輿地備攷에 「匠房」이 列記되어 있다. 「匠房」은 상품생산의 萌

芽의形態下에 있어서의 도시수공업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술년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18세기의 수공업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겠으므로 여기 그것을 옮겨 놓기로 한다.

〔匠房〕

金房	在各處, 又有金箔家
銀房	都家二, 一在百木麿都家南, 一在內魚物麿北 香徒井洞
玉房	在各處, 賣玳瑁等屬
豆錫房	都家, 在月乃麿南
綾羅房	在口山樓, 又在各處
周皮房	造鞍子等屬, 都家, 在掌樂院越邊
弓房	內房, 在都摠府北, 外房, 在馬麿橋
矢房	亦有內外房, 又在各處
紗帽房	在各處
角帶房	在各處
刀子房	在各處
眼鏡房	在各處
石鏡房	在各處
毛衣房	在各處
筆房	在各處
笠房	在各處
烟竹房	在各處

(東國輿地備攷卷二)

이들 匠房은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른 점도 있다. 銀房과 豆錫房은 都家が 있는 반면, 玉房은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玉房이외에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矢房이하의 匠房들이 모두 「在各處」라 하여 미약하나마, 소상품 생산자들의 사이에 경쟁이 생기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3. 文人 知識層의 生活

A. 文人들의 生活과 그 周邊

여기 문인 지식층이라고 한 것은 前稿(實學派의 문학)에서 말한 바 「士」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士」의 중에도 學者型·文人型의 두 타입이 있거니와, 여기서 말한 문인 지식층이란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 자라난 燕岩一派를 가리킨 것이다. 특히 지식층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山林學者나 江湖隱逸者流와는 달리, 끝내 도시에 있으면서, 그러나 상인·수공업자와 구별됨은 물론, 귀족·관료적 인간도 아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비록 「知識」 그것이 상품화될만큼 사회적 분업도 발달된 시대는 아니지만 어느 의미로 보아 文筆로써 생활을 삼고 있던 一集團으로 특징 지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다음 그들의 서울에 있어서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生長 및 거주지를 조사해본다.

燕岩(1737~1805)은 城南朴氏의 名門이며 仕宦家의 출신이었으나 그의 기록에 臣, 家世淸貧, 素無田園 生長輦轂之下 目不辨菽麥……稍長 徵逐儒士, 未嘗與野人佃客相接 及中歲落拓, 始有志歸農 求所謂農家者流而抄錄之然 實無田可歸 特硯田而筆耕而已(燕岩集卷之十六 進課農小抄文)

라고 한 바와 같이 집이 청빈하여 田莊이 없었고 서울(輦轂之下)에서 生長하여 菽麥을 분별치 못할 만큼 농사에 아는 바 없었는데 중년이후에 살길을 위하여 歸農의 뜻이 있었으나 돌아갈 農士가 없어 오직 서울에서 硯田筆耕 卽 文筆生活을 영위해 왔을 뿐이었다.

그의 舊宅은 灌泉이었다. 그가 후일 金川 燕岩峽에 살면서 친구인 開城留守 俞士京(彦鎬)과 開城 梁氏別墅에서 相逢하여 一夜를 같이 즐길 때 청다운 옛 추억을 더듬어 何如夜宿摩訶衍時, 獨無白華庵比丘緇俊參禪, 小集 似灌泉, 而吾輩幾時俱白頭, 灌泉不啻漢陽白門舊宅, 而歸自楓嶽 小集於此 不啻時年二十九 少士京七歲 兩빈已有五六莖白(燕岩集卷之三 孔雀館文稿 琴鶴洞別墅小集記)

라고 한 것을 보면 灌泉은 西大門쪽에 있는 洞里이며 燕岩이 27세경에 살던 舊宅이었다. 그러나 3~4년후에는 大寺洞(塔洞) 부근인 桂生洞에 옮겨 살았던 것 같다.

大寺洞, 栗谷舊居 卽 申相면家云 桂生洞 卽 濟生院也 有李東皐舊第, 朴燕岩趾源唐(舊?)家(東國輿地備攷卷之二 基址)

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 燕岩과 가장 가까운 親交였던 惠風(柳得恭)·炯庵(李德懋)·楚亭(朴齊家)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세 사람은 모두 庶孽出身으로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아 출세의 길이 막혀져 있었던 사람이었다. 한때 正宗王의 知愚를 받아 奎章閣의 檢書官으로 발탁되기도 했으나 왕은 결코 그들을 중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李德懋·朴齊家輩 文體 全出於比官小品 以予置此輩於內閣意 非予好其文 而此輩處地異他 欲以此自標 予實俳畜之(弘齊全書卷百六十五 丁巳年, 李始源錄)

라고 한 바와 같이 왕은 그들의 문장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처지가 남과 같지 못함을 동정하여 廣大처럼 기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실로 侮蔑이었다. 그러나 燕岩은 그들의 奎章閣 취직을 무척 다행하게 여겼다. 그가 湛軒(洪大容)에게 보낸 편지에

炯(李德懋) 楚(朴齊家)輩, 遷喬, 可謂奇矣, 盛世抱珍, 自無遺捐, 從此得霑微祿, 足以不死, 安可責人如枯蟬抱木, 竅蚓飲泉而已哉(燕岩集卷之三 孔雀館文稿 答洪德保書第三)

라 하여 庶出인 그들이 微祿을 얻어 굶어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을 「可謂奇矣」라고 驚喜하였다. 한편 다른 의미의 걱정이 없지도 않았다.

三人(惠風·炯庵·楚亭) 見御, 巧湊一團, 其平生 遊居也同, 志趣也同, 故 自中猜怨頗多, 而近者尤甚云, 無足 귀者(同上)

라 하여 세 사람이 평생의 遊居를 같이하고 志趣가 같은데, 이제 一團이 되어 한 자리에 登庸을 봄으로 종전의 猜怨이 근래에 尤甚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멸과 猜怨속에서 燕岩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同志愛的結合은 보는 이의 이歎을 일으킬 정도였다. 그들은 고독하지 않았다. 사상의 일치와 意氣의 相投는 그들을 천고에 없는 우정으로 무르녹게 하였다.

惠風은(1748~1807) 校書館洞에 오래 살았다. 그의 次子 柳本藝의 기록에 校書館洞, 舊時 校書館, 在此故, 亦稱芸洞……昔於正宗朝, 吾家, 久居此洞, 先君, 以古芸, 爲堂號, 以此也(漢京識略卷之二 各洞 南部校書館洞條)

라 하여 校書館洞은 일명 芸洞이며, 惠風이 古芸이란 堂號를 가진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楚亭(1750~1806)의 生長地는

余年十一歲 庚辰, 先君歿後 搬居于墨洞, 又移于筆崖, 又居于墨 再入筆, 五六年之間, 流落殆盡(貞兪集文集卷一 序, 閱幼時所書孟子서)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주로 남산밑 筆洞과 墨洞등지였다고 생각되며 또 다른 기록에 於義洞……南將軍怡 家基, 在此洞, 卽今之朴貞兪第也, 庭有猗大盤松, 擎以三十二柱, 名曰御愛松, 此松, 卽英廟朝丁亥 趙江陵鎮世所種也, 以種松傳名於後世 亦一奇書也 正宗朝 展拜于景慕宮 後爲觀文禧廟基址 偶然歷臨于此松下 褒美之 遂賜御愛松之名 人皆榮之(漢京識略卷之二 各洞 於義洞條)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뒤에 駱山쪽 於義洞(느릿골)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御愛松은 正宗王의 歷臨을 입어 楚亭의 집의 큰 자랑이 되었으며, 南公轍을 爲始하여 많은 문인들이 詩로써 찬미하였고 楚亭도 詩를 지을 때 즐겨 이 소나무를 詩料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서울 城中에 나서, 자라서, 서울을 무척 사랑하였다. 楚亭의 글에

……北望道峯插天, 靡靡而若馳, 白嶽明媚, 총籠而映發, 宮闕志崔嵬, 街市之往來, 北韓弼雲之雲, 城郭隱現滅沒於指顧之中, 余舉而歎曰佳哉, 其鬱鬱乎, 余嘗周遊乎城中, 歷覽麗羅子之故都, 涉太白金剛之墟矣 其山水之壯麗文明, 未有能遠過之者 雖有林壑泉石之觀, 其何以捨此而他求乎(貞兪集 文集卷一 序, 送李定載往公州序)

라 하여 서울의 山川氣象과 아름다운 眺望을 말하고 平壤·慶州의 故都和 太白·金剛의 명산이 다 서울보다 나은 데가 없다고 하였다. 저 산림과 江湖를 찾아가면 林壑泉石의 觀賞이 있으나, 서울을 버리고 만데 구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王城, 治化之所出, 四方之所輻湊, 其仕宦閥閱之族, 人物樓臺舟車貨財之盛, 與夫親戚友朋文獻之徵, 悉聚於此, 而況吾與子生長之地, 而步屐, 慣於阡陌, 風景, 存乎夢寐, 則顧何忍一朝去之而去(同上)

라 하여, 서울은 정치·敎化의 本源地, 그리고 인물과 부와 모든 문화의 집중지이며, 그들의 「生長之地」로서 阡陌·풍경이 보섭과 夢寐間에 스며들어 차마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적 분위기속에서 잔 뼈가 꺾어진 그들은 도시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종래의 李朝 人士들이 걸핏하면 산림과 江湖에로 懷相을 달리던 것에 비하여 무언가 生理가 달랐던 것 같기도 하다.

燕岩이 한때 서울을 떠나, 燕岩峽中에서 9년동안 辛勤을 다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은 湛軒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弟之營一邱一壑 今已九年之久, 水宿風餐 手握兩拳, 心勞才拙, 何所成就 祇有石田數頃 茅屋三間……山廻水複, 四絕村閭 出大路七八里, 始聞鷄犬自去秋, 所以保聚隣戶者, 不過三四, 皆순衣鬼面, 조추감개, 專事埋炭, 不治農業, 無異溪豆洞蠻, 虎豹之爲隣 생오之與友, 其險迕孤絕如此, 而心기樂此, 無與爲易(燕岩集卷之三 孔雀館文稿, 答洪德保書第四)

이라 한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그가 洪國榮의禍를 파하여 이 無人絶峽속에 石田數頃한 茅居三間을 마련하고 애써 隣戶三四를 모이게 했으나 모두 순衣鬼面으로 溪豆洞蠻과 다름없는 술(炭)꾼들이었다. 그는 「心기樂此」라하여 이 峽中生活을 즐기고 있는 듯이 말했으나, 그것이 그의 本懷가 아니었다.

當事善規, 則雖牧猪之奴, 固我之良朋, 見義忠告, 則雖采薪之僮, 亦吾之勝友, 以此思之, 吾果不乏友朋於世矣, 然而牧猪之奴, 難與參詩書之席, 而采薪之僮, 非可치 啻讓之列, 則면仰今古, 安得不鬱鬱於心애(同上 第三)

라 하여, 牧子 樵童이 좋은 벗이 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러나 詩書禮讓 卽 문명의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牧子 樵童과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燕岩은 필경 燕岩峽中에서 牧子 樵童을 벗삼아 일생을 마치지 못하고 그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는 「親戚友朋文獻之徵」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楚亭의 말과 같이 그들은 서울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에 있어서의 그들의 友朋의 樂은 참으로 즐거웠다. 후세 李建昌의 詩에 「難道友朋非眷屬, 倒應城郭勝江湖」라고 한 바와 같이 그들은 友朋을 가족과 같이 여겼으며 이러한 友朋의 모임은 도시(城郭)에서만 가능하므로 시골(江湖)보다 도시(城郭)가 좋았던

것이다. 燕岩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友朋의 樂은 「白塔清緣」의 시절이 그 대표적 시기였다. 白塔은 지금의 탑골공원의 塔이다. 燕岩을 爲始한 一代의 俊乂들이 한때 塔을 중심으로 隣里를 이루고 살았다. 楚亭의 기록에

環城而塔爲中焉，遠望鎭山，若雪竹之병苟者，圓覺寺遺址也，往歲戊子己丑之間，余年十八九，聞朴美仲(燕岩의 字)先生 文章超，有當世之聲，遂往尋之于塔之北……當是時也，炯庵之扉，對其北，洛瑞(李書九)之廊，峙其西，數十武而爲徐氏(常修)書樓，又折而北東，爲二柳(琴·得恭)之居也，余乃一往忘返，留連旬月 詩文尺牘，動輒成帙，酒食徵逐，夜以繼日，(貞兪集文集卷一，序，白塔清緣集序)

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城 한 가운데 자리잡은 인순한 塔의 구조는 멀리 바라보면 雪竹의 竹筍이 솟아난 듯한데, 塔의 북쪽에 燕岩의 집이 있고 다시 그 북쪽에 炯庵의 사립문이, 그리고 그 서쪽에 洛瑞의 다락이 있었으며 거기서 數十步를 더 가서 徐氏의 書樓가 있고 그 북동쪽으로 꺾어져서 二柳의 居所가 있다고 하였다. 이때, 최연소자인 楚亭이 처음 燕岩을 찾아가서 그 부근에 여러 인사들과 一面如舊로 詩文과 酒食을 즐기면서 열흘이고 한달이고 돌아올 것을 잊었었다는 것이다. 그가 탑골을 얼마나 좋아했던 가를 다음 구절로써 알 수 있다.

嘗於娶婦之夕，取家馬，解鞍而騎之，獨從一奴出，時，月色滿道，從梨峴宮前鞭馬西馳，至鐵橋酒家飲，鼓三下，遂盡歷저朋家，소塔而出，當時好事者，比之陽明先生訪鐵柱觀道人事(同上)即 新婚草野에 처가에서 빠져나와 月色 가득찬 大路에 말을 달려, 梨峴宮 앞을 지나 鐵橋酒家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깊은 밤에 여러 벗들의 집을 거쳐 塔을 돌아 나왔다는 것이다.

塔의 북쪽·동쪽에 모여 살았던 이 인사들은 모두 후세에서 「北學派」로 불리는 文人의 一團이며 이 論稿에서 말한 바 利用厚生學派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개 중국 북경을 遊覽하고 왔으며 당시 乾隆文化 특히 진보된 物質生活을 본떠고 배울 것을 열심히 주장하는 분들이었다. 게다가 年使를 따라 해마다 왕래하는 譯官·상인들은 북경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었다. 한 자리에 둘러 앉아 詩酒를 즐기는 尋常 酬작의 際에도 화제는 자주 「燕市」로 옮겨가고 論議의 초점은 한상 「利用厚生」에 관한 것이었다. 燕岩이 楚亭의 北學議에 序하면서

余自燕還，楚亭，爲示其北學議內外二篇 盖楚亭，先余入燕者也，自農蠶畜牧城郭宮室丹車 以至瓦椽筆尺之制，莫不目數而心較(中略) 試一開卷，與余日錄，無所齟齬，如出一手，(中略)，의，此豈徒吾二人者，得之於目擊而後，然哉，固嘗研究於 雨屋雪점之下 抵掌於酒爛燈타之際，而乃一驗之於目爾(北學議 序，貞集附)

라 하여, 熱河日記와 北學議의 理論 내용이 너무나 相似하여 한 사람의 손에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중국문화를 목격한 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평일에 雨屋 雪 의 밑에서 같이 연구했고 酒爛 燈타할 무렵에 함께 抵掌談討를 해오던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들의 利用厚生學은 이와 같이 雨雪이 뿌리는 서울의 지붕밑, 酒後 燈前에서 공동의 연구와 談討로써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들의 주변에는 당시 서울의 각계 각층의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이 여러 계층의 인사들과 접촉·교섭속에 일상화되어 나갔다. 白永叔이 麒麟峽으로 들어 갈 때 燕岩과 楚亭이 각각 송별의 序를 지어 주었거니와 楚亭의 글에

……永叔，早知名於時，結交遍國中，上之爲卿相牧伯，次之爲顯人名士，亦往往相推許 其親戚鄉黨婚姻之誼，又不一而足，而與夫馳馬習射擊일拳勇之流，書畫印章博奕琴瑟醫師地理方技之倫，以至市井 亨輿耕漁屠販之賤夫，莫不日 𨔵於路而致 𨔵焉，又踵門而至者 相接也，永叔，又能隨其人而顏色之 各得其歡心(貞兪集文集卷一，送白永叔麒麟峽序)

라 하여 卿相·牧伯·顯人明士의 상류사회로부터 馳馬·習射·擊일·拳勇의 閑良들과 書畫·印章·博奕·琴瑟의 藝能·풍류객과 의사·地理師와 市井商人·官廳下人·耕·漁·屠·販의 雜賤에 이르기까지 모두 結交致疑의 상대가 되었던 것을 말하였다. 이것은 白永叔 개인의 취미가 아니고 燕岩一派의 생활여건이었다. 위에 말한 閑良이란 金弘淵과 같은 자가 그 예이다.

金乃閭者，盖閭里間浪랑우閭之稱，如所謂일士俠客之流，方其少年時 善騎射 中武科，能力扼虎，挾兩妓，超越數인牆，不肯碌碌求仕進，家本富厚，用財如糞土，傍蕃古今法書名畫일琴彝器奇花異卉，遇一可意 不惜千金，駿馬名鷹，動在左右(燕岩集卷之一 烟湘閣選本 髮僧庵記)

라 한 바와 같이, 金弘淵은 富豪出身의 「일士俠客之流」로써 돈 쓰기를 糞土와 같이

하여 古今書畫·일·琴·골동품·奇花異卉·駿馬名鷹을 보면 千金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燕岩은 그가 落拓한 후에 髮僧庵記를 지어 그의 人間을 기념하였다. 그밖에 서울 市巷중에 온갖 藝能·風流客이 있었다.

燕岩의 金神仙(弘基)傳에

尹生言, 嘗聞弘基家西學洞, 今非也, 乃其從昆弟家, 寓其妻子, 其子言……父友, 在體府洞, 其人, 好酒而善歌, 金奉事云, 樓閣洞金僉知, 好碁, 後家李萬戶, 好琴, 三清洞二萬戶, 好客, 美垣洞徐哨官, 毛橋張僉事, 司僕川邊之丞, 俱好客而喜飲, 里門內趙奉事, 亦父友也, 家蒔名花, 桂洞劉判官, 有奇書古일, 父常遊居其間……聞金多在倉洞會賢之坊, 且董關·梨峴·銅峴·慈壽橋·社洞·壯洞·大陵·小陵之間, 嘗往來遊居, 然, 皆不知其名, 獨倉洞, 吾知之……吾聞長暢橋林同知, 喜飲酒, 日與金角(燕岩集卷之八 放경閣外傳)

라 한 바와 같이, 술을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體府洞의 金奉事, 바둑을 좋아하는 樓閣洞의 金僉知, 그 뒷집에 거문고를 좋아하는 二萬戶, 손(客)을 좋아하는 三清洞의 二萬戶, 역시 손(客)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美垣洞의 徐哨官·毛橋의 p장첨, 司僕川邊의 池丞, 집에서 名花를 가꾸고 있는 里門內의 趙奉事, 寄書와 古일을 가지고 있는 桂洞의 劉判官, 술 잘마시는 長暢橋의 林同知 등등이 그 예이다. 燕岩은 神仙의 별명을 가진 金弘基를 만나자고 겸人尹某를 시켜 위에 적은 여러 사람들을 歷訪케 하였다.

이와 같은 藝能·風流客의 외에 天下國家를 經綸할 志士도 있었다. 墨寺洞(墨積洞)의 許生과 같은 사람이다. 燕岩이 지은 玉匣夜話의 「許生」은 가공적 인물이 아니었다.

墨寺洞, 有李東岳安訥故宅……又昔有許生 隱居此洞, 家貧好讀書, 頗有事蹟, 朴燕岩, 爲之立傳(漢京識略卷之而 各洞 南部 墨寺洞條)

이라고 한 것을 보면 許生은 그의 資本主 卞承業과 함께 실재한 인물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文人의 交遊중에 직접 商販에 종사하는 이도 있었다. 燕岩은 資本主와 商販者의 중간에서 상업자금을 주선했을 수도 있었다.

以力救人曰俠, 以財惠人曰顧, 顧爲名士 俠猶著傳, 兼俠與顧曰義……今俊也, 祖括 親友側席 當食下모之時也……足下, 匍匐而救之(燕岩集卷之五 映帶亭인墨 尺

牘 與中一)

이것은 難境에 빠진 士俊(商販者)을 위하여 資本主 中一에게 資金援助를 해줄 것을 勸告한 편지요.

足下, 予士俊百金而爲販, 何其少予也 將見士俊空手而歸, 其時 足下 勿구僕不言也
(同上 之二)

이것은 자금이 소량밖에 供與되지 않아 資本主에게 再考를 촉구한 편지다. 百金의 적은 자금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필경 실패하여 빈손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이다. 許生이 卜承業에게서 즉석에서 萬金을 얻어, 도처에 대성공으로 5년내에 百萬의 富를 축적했다는 燕岩의 소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한편 燕岩은 자기의 사생활을 적은 기록에

…… 踰居, 無一念在意, 時得鄉書, 但閱其平安字, 益習疎畱, 廢絕慶조, 或數日不洗面, 或一句不啖巾, 客至, 或默然清坐, 或販薪賣瓜者過, 呼與語孝悌忠信禮義廉恥款款語 累數百言(燕岩集卷之三 孔雀館文稿 主素玩亭夏夜訪友記)

라 하여, 不洗面 · 不啖巾하는 疎放한 자태로써 販薪 · 賣瓜하는 장사치들과 더불어 정답게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洛瑞(李書九)의 夏夜訪友記에

季夏之弦, 步自東隣, 訪燕岩丈人, …… 入其門, 丈人不食, 已三朝矣, 方跣足解巾, 加股房籠, 與廊曲賤隸, 相問答(同上 附)

라 하였고 燕岩은 이에 대하여 해설에

時余果不食三朝, 廊隸, 爲人합屋, 得고直 始夜炊, 小兒妬飯, 啼不肯食, 廊隸怒, 覆盂與狗, 惡言리死, 時, 不녕飯, 旣困臥, 爲舉張乖崖守蜀時斬小兒事, 以譬曉之, 旦曰不素教, 反罵爲, 長益賊恩(同上)

라 하였다. 燕岩은 행랑 賤隸와도 간격없이 도리를 얘기하고 말벗을 삼았던 것이다. 가죽을 廣州로 보내고 혼자 서울집에서 여름을 지내던 燕岩은

獨有一婢守舍, 忽病眼, 狂呼棄主去, 無供飯者, 遂奇食廊曲, 自然款狎(同上)

이라 하여 行랑사람에게 寄食하면서 自然 서로 款狎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인들의 생활과 그 주변을 통하여 도시적 사회의 단면도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생활환경은 문인들의 사상을 性格지우게 되었다. 문인의 사상은 아카데미즘의 권위를 이룩

하러 들지는 않았다. 학문적 명제도 오로지 일상생활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현실과 생활에 卽한 실용적 학문—그것이 利用厚生學이었다.

B. 都市改造의 意慾과 商工業獎勵論

서울에서 나서 자라서 서울을 사랑하던 그들도 막상 도시로서의 서울의 상태를 살펴 볼 때, 특히 선진적인 중국의 북경과 비교해 볼 때 그 빈약은 말할 나위가 없는 형편이었다.

이리하여 도시개조와 상공업의 獎勵가 利用厚生學의 절실한 주장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星湖學派—經世致用學派가 토지분배와 농촌사회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燕岩學派가 상공업의 장려와 도시개조를 주장한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대조이었다.

楚亭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비교하여

今鍾閣十字街 市樓連接者, 不滿一里, 中國所過村店 率皆衣被數里, 又其委輸之盛 品目之多, 皆全國之所不及, 非一店之富於國也, 通與不通之故也(北學議內篇 內井)

라고 하였다. 우리 서울에는 중심지인 鍾路十字街에 상점 건물들의 連接이 一理에 차지도 못한 형편인데 중국에는 시골의 점포가 數리에 뻗쳐있으며 그 상품의 집산의 번성과 품목의 다양성이 우리 전국의 미치지 못할 바라는 것이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中國, 無京外之別, 其大都會, 如江南吳蜀民越之遠, 而其繁華文物, 反勝於皇城, 我國都城數理之外, 風俗, 已有村意(北學議外篇, 農蠶總論)

라 하여,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구별이 없이 대도시가 발달되어 江南吳蜀民越과 같은 먼 지방의 도시가 그 변화문물이 수도 북경의 凌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城 밖에 數理만 나가도 벌써 「村」다운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일반서민의 생활수준도 매우 低度에 속하는 것이어서 한 예를 들면

中國邊裔之女, 無不傳粉插花, 長衣繡와, 未嘗見其 有跣足焉, 我國都市之少女, 往往赤脚而不衣, 着一新衣 衆已矧矧然疑 其爲娼也(同上)

라 한 바와 같다. 즉 중국에는 邊境地方의 여자들도 긴옷 꽃신으로 몸단장을 잘하고 한 더위에도 맨발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도시의 소녀가 赤脚(웃이 짧다는 뜻)을 들어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혹시 새옷차림으로 나오면 벌써 보는 사람의 눈들이 쏘려,

창녀인가를 의심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일반서민뿐 아니라, 양반 사대부들도 생활이 지나치게 儉朴하고 취미도 단조로와 물건을 싸들이는 경향이 대단치 못하였다. 다시 한 예를 들면

嘗入一書肆，見其主人，疲於買賣，文簿暫時無隙，我國之書來，挾一書，遍歷士大夫家，往往數月而不訖(北學議內篇，古中書畫)

라 한 바와 같다. 북경에서 어느 서점에 들렀을 때, 그 주인이 賣買에 疲勞할 지경이며 장부에 적기가 바빠, 잠시의 틈도 없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책장수가 책 하나를 들고 양반의 집을 두루 다녀, 數月이 되도록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天下可寶之物，入吾地則皆賤，三代之器，名賢之眞蹟，莫得以其價，至於筆墨香茶書冊之屬，價常半減於中國，此皆士大夫不好古之故也(同上)

라 한 바와 같이 천하의 보배로운 물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상품으로 가치가 아주 천해질 수 밖에 없었다. 殷周의 古器와 名賢의 眞蹟이 제값을 받을 수 없고 筆墨·香·茶·書冊의 等屬의 가격이 중국에 비하여 항상 半減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現實을 앞에 두고, 비판적이며 진취적이었던 一團의 문인·지식분자들은 밖으로 중국에 가서 얻어온 견문을 실지에 적용하려는 정열과 안으로 正宗王의 右文政策에 의한 문화부흥의 機運을 협찬하려는 의도하에서 그들 일류의 견해를 吐露한 것이 「熱河日記」 「北學議」 등의 저술이었다. 이 두 저술 중에서 전자는 기행문의 체제가 되어있고 구체적 이론은 후자에서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수도 서울의 개조를 위한 의욕적 구상은 종로상가의 개조에 집약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楚亭이 樊庵(蔡濟恭 1720~1799)의 의견을 인용하여

蔡判書曰 今鍾樓北街，少狹，欲闢之使齊 令市人，各置樓號，大書特筆，本局，自置發賣慶尙線布南原幸康扇紙江羅人蔘等字 自興仁門，至崇禮門，一新其制，豈非大快(北學議內篇 市井)

라 한 것이 그 一端이다. 鍾閣北街의 조금 비좁은 곳을 다른 곳과 동일한 폭으로 넓히고, 商人(市人)들로 하여금 大書特筆로 각기 屋號(樓號)를 붙이되 「慶尙線布」「南原·平康扇紙」「江陵·羅州人蔘」등등의 식으로 상품을 揭示케 하여 東大門으로부터 南大門에 이르기까지의 일대의 市街의 규격을 一新하자는 것이다.

다음 시내 도로에 관한 얘기를 보면

今我國，修道，皆括地皮而新其色，實不能平數步，又포石不平，략학易跌（北學議內篇 道路）

이라 하여, 도로를 수리한다는 것이 겨우 지면을 긁어 그 색깔을 새롭게 하는 정도이지 실은 數步도 평평하게 해놓지 못한데다가 돌을 깔아 둔데가 고르지 못하여 거니는 사람이 자빠지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閭閻小民，開塵賣買，名曰假家，初不過如楣蘆 可移而入，漸汚之築之，遂至奪路，而種樹於門前，人馬相逢，往往狹不可行(同上)

이라 하여 閭閻집 小民들이 가게를 열자 점차 길을 침식하여 골목을 비좁게 만들고 어떤 곳에서는 人馬의 통행조차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의 도로사정은 훨씬 후에 외국인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1880년대 에 서울에 왔던 미국인 「깰모어」의 기록에

……서울에는 세계의 넓은 길밖에 없음을 알 것이다……다른 길에는 노점과 가게들이 나와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牛車가 다닐만한 좁은 길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어느때 이 노점들이 철거되어 그전에 만들었을 때 대로의 길 넓이를 본 일이 있었다. 다른 길들은 좁고 골목이 많고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걸어가게 되어있다. 자세히 보면 처음에 길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길 양옆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조금씩 길로 침색해 와서 집을 자꾸 내려서 짓고 占有者의 권리를 얻어가지고 제맘대로 내버려두어졌으므로 필경 公路를 점유하고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길이 좁고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탄 사람 혼자서도 지나기 힘들어서,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안장을 잘 쏘아가지고 조심성스럽게 가야한다(郷土서울 제2호 수도서울 趙容萬 譯)

라고 한 것은 위의 楚亭의 말과 너무나 같다. 그야말로 如出一手이어서 꽤 흥미가 있다. 楚亭은 이에 대하여

夫途道達街，皆有步數，律有街巷侵占添造房屋之文 此法當糾飭(北學議內篇 道路)라 하여, 途·道·達·街의 各種의 길이 다 일정한 폭(步數)이 있는 것이고 律文에도 「街巷侵占」「添造房屋」에 관한 條目이 있으니 이것은 법을 발동시켜 시정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의 거리와 골목이 불결한 것을 지적하여

城中之糞，收之不盡，臭穢滿路，川橋石築之邊，入乾累累，非大霖雨則不洗，犬馬之矢，恒被人踏，田疇之不易，此可推矣 糞既有餘，灰則全棄於道，風稍起，目不敢開，轉輒飄搖，以至萬家之酒食不潔，人徒咎其不潔，而不知實起於棄灰(北學議外編，糞)

라고 하였다. 즉 城中의 人糞이 되는데로 내버려져, 더러운 냄새가 길에 가득 차있고 川橋 石築의 가에 乾糞이 무더기로 쌓여 큰 비가 아니면 씻어내릴 수 없는 상태이며, 개와 말의 똥이 항상 사람의 발밑에 밟히는 정도이니 농토가 잘 가꾸어지지 않는 것을 알겠다는 것이다. 人糞을 쓰지 않는 형편이며, 재(灰)는 그대로 길에 버리게되어 바람이 조금만 일어도 눈을 뜰 수가 없고 萬家の 酒食까지 불결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 불결을 탓하면서 그 원인이 재를 버린데 있는 것임을 모른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夫鄉村，人少故，欲求灰，而不可多，今城中一歲之灰，不知其幾萬斛，反棄之不用，是與棄幾萬斛穀同也。(同上)

라 하여, 城中 1년간의 재가 幾萬斛이 될 지 모를 많은 양인데 그것을 버리고 사용치 않는 것은 幾萬斛의 곡식을 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기탄하고

又律有污穢之溝，通於道傍者，杖，水則不禁之文，秦法，棄灰者 死，此雖商君之酷要亦出於力農之意，今之有司，不可以不禁，監於農而潔於國，一舉而兩善 具焉(同上)

라 하여, 律文에 污穢物을 도로곁에 흘려내린 자는 杖刑을 준다는 條目이 있고 秦法에 재를 버리는 자는 死에 처했다 하니, 이것은 비록 商君의 酷法이나, 요컨대 농사에 힘쓰는 뜻에서이라, 지금의 관계당국자는 똥과 재를 버리는 것을 금해야 마땅한 것이니 농사에 보탬이 되고 나라의 모습이 깨끗해져서 一舉兩得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와 같이 권력이 법의 발동에 의하여 도시개조 생활개선을 강력히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 정책으로 상공업의 장려해야 한다고 重言復言 거치지 않았다.

상공업장려론은 利用厚生學派의 사상구조의 大幹에 속하는 것임으로 利用厚生學의 전반적 연구와 함께 他日의 과제로 미루어 두고, 여기서는 우선 「都市」와의 관련에서 그

一側面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앞서 인용한 바 있거니와, 楚亭은 우리 종로상가보다 중국의 시골 점포가 더 번창하며 상품의 양과 종류가 우리 전국의 미치지 못할 바라고 말하고 그것은

非一店之富於國矣，通與不通之故也

라 하여 중국의 一村店이 우리 전국보다 富한 것이 아니라 「流通」이 되고 안되는데 그 까닭이 있다는 것이다. 燕岩도 당시의 경제실정을 말하면서

「朝鮮，舟不通外國，車不行城中，百物生于其中，消于其中(熱河日記 玉匣夜話 許生)

이라 하여, 舟車의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고립적·봉쇄적 자연경제속에서 모든 산물은 상품으로 轉化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란 것이다. 여기 상업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楚亭은 일반 儒者들의 상업관을 攻斥하기를

我人，創見中國市肆之盛，而曰專尙末利，此知其一，未知其二者矣，夫商處四民之一，以其一而通於三，則非十三不可，今夫人，食稻而衣錦 則其餘，皆爲無用之物矣，然而不有無用之用，以濟其有用，則所謂有用者 舉將偏而不流 單行而易敝也，故，古昔聖王，爲之珠玉泉幣之等，以輕而敵重 以無而資有 復爲之舟車，以通其險阻，猶恐千里萬里之遠，有不能至者焉 其博施也 如此(北學議內篇 市井)

라 하여, 상업의 의의와 상업발전을 위하여 화폐를 만들고 舟車를 사용한 古聖王의 先例를 말하고

今我國，方數千里，民戶，非不多也 土產，非不備也，山澤之利，不盡出，經濟之道未盡善也，日用之事，廢而不講，見中國之宮室車馬丹青錦繡之盛，則曰奢侈已甚(同上)

이라 하여 우리나라는 수천리 疆土에 民戶가 많지 않는 바 아니며, 土產이 具備치 않는 바 아니건만, 山澤之利 卽 自然資源의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경제의 方策이 옹계 세워지지 못한 채, 日用之事를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국의 宮室·車馬·丹青·錦繡의 화려함을 보면 「奢侈가 지나치다」고 비난할 뿐이란 것이다. 그는 왕에게 올린 「所懷」에

今殿庭行禮之地，布其棲者 東西闕守門之衛士，衣木綿帶藁索而立 臣實恥之，不此

之計 而乃反毀閭巷之高門，捉市井之汚衫，憂馬卒之耳衣 不亦末乎(貞유集 文集卷三 丙午正月 二十二日 朝參時 所懷)

라 하여 宮庭의 行禮하는 곳에 섬피를 펴고, 東西關門의 衛士가 무명옷에 새끼띠를 매고 서 있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것은 생각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閭巷의 높은 가옥을 헐리고(원래 서울의 가옥들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높이의 척도가 규제되어있다) 시민의 호사스런 복장을 폐지하고만 있으니 本末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儒者들이 걸핏하면 「奢侈」를 금하고 「儉素」만을 주장하고 있지만 楚亭은 이에 대하여

中國，固以奢而亡，吾邦，必以儉而衰，何也，夫有其物而不費之謂儉，非無諸己而自絕之謂也 今國無採珠之戶，市無珊瑚之價 持金銀而入店，不可以買餅餌，豈其俗之眞能好儉而然歟，特不知所以用之之術耳(北學議內篇 市井)

라 하여, 중국은 「奢」로써 망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儉」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儉」이란 「있는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것」을 말함이지, 「자기에게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국내에 진주캐는 民戶가 없고, 시장에 珊瑚를 파는 자가 없으며 金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과 사탕을 살 수 없는 형편인데, 이것이 참으로 「儉」을 좋아해서 그런 것일까 다만 使用方途를 몰라서 그럴 뿐이란 것이다. 그는 이어서

不知所以用之，則不知所以生之，不知所以生之，則民日窮，夫財，譬則井也，汲則滿 廢則渴，故，不服錦繡，而國無織錦之人，則女紅衰矣，不嫌利器，不事機巧，而國無工匠陶冶之事，則技藝亡矣，而至農荒而失其法，商阜而失其業，四民俱困，不能相濟，國中之寶，不能容於域中，而入於異國，人日益富，而我日益貧，自然之勢也 (同上)

라 하여,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을 생산할 줄 모르게 되고 그것을 생산할 줄 모르면 국민은 더욱 빈궁해진다는 것이다. 錦繡를 입지 않으면 비단 직물이 생산되지 않을 것이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할 줄 모르고 機巧를 일삼지 않으면 陶器·鐵物·工藝品 등이 低劣해져서 마침내 공업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利民之用，厚民之生」을 목적으로 하는 利用厚生學派가 도달한 그 시대 최고의 이론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도시생활을 통하여 획득

한 귀중한 체험들로부터 온 것이란 점에서 더욱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맺 음

상업과 수공업의 새로운 동향을 보여준 18세기의 서울은 도시로서의 발전과 약진의 가능성 계기를 갖추었고 이것이 당시 서울출신의 문인 지식분자에게 자극을 주어 「利用厚生學」의 성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생활·의식·기분은 널리 도시서민층에 연결되어있으며, 유통위주의 경제론은 당시 소상품 생산자들의 「시장」확대와 욕구를 대변해 주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향토서울」 제17호 1963년도에 수록)

神化坊에 대하여

玄 昌 浩

一

李朝時代 漢城府의 行政區域은 中部 東部 南部 西部 北部의 五部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그 部の 아래는 坊으로 構成되어 있었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마는 그 坊數는 時代에 따라 다르며 一定치가 없었다. 太祖朝때에는 52坊 世宗朝와 成宗朝에는 49坊 英祖朝때에는 43坊 高宗때에는 48坊으로 되어 있었다. 즉 李朝初 以後 行政區域인 坊은 그 坊數에 있어서 增減이 있었고 變遷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李朝時代의 行政區域인 坊은 時代에 따라 變遷이 있었고 增減이 되었던 것인데, 그 增減變遷된 坊中에는 神化坊이란 坊名이 있었으니 이 坊名은 李朝初의 文獻에는 보이나, 李朝後期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李朝初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 位置에 對하여로 一言半句의 說明이 없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렇게 稀微하기 짝이없는 神化坊에 對하여 可能한 범위에서 그置廢와 位置問題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二

서울에 있어서 李朝初에 漢陽遷都가 있는 다음 처음으로 行政區域名稱이며 또는 地名이 되는 坊名을 定한 것은 太祖5年 (1396年) 이었다고 보아지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은 實錄의 記錄이 있기 때문이다.

令漢城府 建五部坊名標 東部十二坊曰 燕喜 崇教 泉達 彰善 建德 德成 瑞雲 蓮花 崇信 仁昌 觀德 興盛 南部十一坊曰 廣通 好賢 明禮 大平 薰陶 誠明 樂善 貞心 明哲 誠身 禮成 西部十一坊曰 永堅 仁達 積善 餘慶 仁智 皇華 聚賢 養生 神化 盤石 盤松 北部十坊曰 廣化 陽德 嘉會 安國 觀光 鎮定 順化 明通 俊秀 義通 中部八坊曰 貞善 慶幸 寬仁 壽進 澄清 長通 瑞麟 堅平 (太宗實錄 5年 4月 丙午條)

위의 實錄記事는 漢城府로 하여금 五部坊名標를 세우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때 坊名의 標札을 세웠다는 것이고 坊名을 定하였는 記事는 아니다. 그러나 이때는 太祖3年 10월에 漢陽遷都가 있고서 約1年半의 時日 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더구나 遷都當時에 있어서 漢陽府는 조그만 寒村에 지나지 않았고 遷都된 後에야 비로소 松都로부터 官民이 移住하였다는 것과, 또한 遷都後1年半이란 期間에 있어서 都城의 築成이 있었음으로서 漢城府의 境域이 確定되었을 뿐더러, 景福宮 宗廟 社稷壇을 비롯하여 其外 官署等의 位置가 결정되고 그 建築들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太祖 5年 以前에 있어서 坊名을 결정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 都城이 築城된 것은 그 始役이 太祖 5年正月에 있었고 그 役事가 끝난 것이 同年 9月이었는데 當時의 都城이란 勿論 王都 防備란 軍事上의 理由에서 그것을 築造한 目的이 있었던 것이지만, 一方 都城을 設定하는데 있어서도 都城의 基地는 漢城府의 基本區劃線을 이루는 것이니 그 都城의 基地가 決定되기 以前에 五部和 坊의 區域과 境界가 決定되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都城의 築造는 太祖5年正月에 시작되었고 同年9월에 從事가 끝났다고 하였거니와, 五部坊名標가 세워지게 된 것은 都城의 役事가 始役하여 折半쯤 工事時日이 지난 다음에 세워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都城의 役事가 始役되어 都城의 基地가 完全히 確定된 다음인 太祖5年4월에 五部坊名標가 樹建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五部坊名標가 세워지기 以前에는 五部和 各坊의 區域이 決定될 時期가 아니었으므로 五部坊名이 定한 것도 坊名標가 세워진 太祖5年4月 였다고 보는 바이며, 이때 實錄에 部名과 坊名이 비로소 表記되어 있는 것도 이때 部名과 坊名이 決定된 때문이었다고 보는 바이다. 즉 漢城府로 하여금 五部坊名標를 세우게 하였다는 것은 이때 五部坊名이 定하여졌기 때문에 그 名標를 세워서 部民에게 知得케하기 爲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坊名이 定하여진 것은 太祖5年4月 무렵이 되는 것이다. 이때 漢城府의 行政

區域은 5部 52坊으로 되어 있었다.

東部	12坊
南部	11坊
西部	11坊
北部	10坊
中部	8坊
計	52坊

이와 같이 서울의 行政區域名이 처음 定하여진 것은 太祖5年4月이었으며 그때 定하려진 坊名과 坊數는 前掲한 바와 같거니와, 其後에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나는 五部の 坊數는 49坊으로 되어 있고, 部別의 坊名은 다음과 같다.

東部—崇信 連花 瑞雲 德性 崇教 燕喜 觀德 泉達 興盛 彰善 建德 仁昌 (12坊)

南部—廣通 好賢 明禮 大平 薰陶 誠明 樂善 貞心 明哲 誠身 禮成 (11坊)

西部—仁達 積善 餘慶 皇華 養生 神化 盤石 盤松 (8坊)

北部—廣化 陽德 嘉會 安國 觀光 鎮長 明通 俊秀 順化 義通 (10坊)

中部—澄清 瑞麟 壽進 堅平 寬仁 慶幸 貞善 長通 (8坊)

世宗實錄의 編纂은 文宗2年 3월에 始作하여 端宗2年 3월에 畢한 것이므로 大抵 世宗實錄 地理志도 그 무렵의 事實을 記錄한 것이라고 보아지는 바, 同 地理志에 登載된 五部坊名은 太祖5년에 처음으로 五部坊名이 初定된 다음 50餘年이 지나서의 그 變遷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太祖5년에 坊名이 처음으로 定하여졌을 때와 그 50餘年後인 文宗端宗年間 무렵을 말하는 世宗實錄 地理志에 登載된 坊名을 비교하여 본다면 西部管内는 다음과 같은 變遷이 있었다.

西部內의 坊名變遷表

太祖5年(1396年)	永堅 仁達 積善 餘慶 仁智 皇華 聚賢 養生 神化 盤石 盤松
文宗端宗年間(1454年)頃	仁達 積善 餘慶 皇華 養生 神化 盤石 盤松

즉 文宗端宗 무렵은 太祖年間과 比해본다면 11坊이 8坊으로 줄었으며 그 없어진 坊名은 永堅坊 仁智坊 聚賢坊의 3坊이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여기서 神化坊이란 이름은 太祖年間에도 있었고 文宗端宗年間에도 存置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神化坊이란 坊名은 漢城府 西部管內에 所在하고 있었고 太祖5년 以後 端宗年間에도 存置되어 있던 行政區域의 名稱이었던 것이다.

三

李朝初인 太祖朝에서 端宗朝에 이르는 時代에 있었던 西部의 神化坊은 그로부터 約 30년이 지나서 編纂이 된 東國輿地勝覽에도 그 坊名이 있었으니 그 記錄에 登載된 漢城府 西部內 坊名은 다음과 같다.

仁達 積善 餘慶 皇華 養生 神化 盤松 盤石

즉 成宗年間에 있어서도 文宗端宗 年間과 같이 西部는 8坊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坊名이 모두 같으며 神化坊이란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太祖5년부터 漢城府 西部內에 있었던 神化坊은 成宗朝까지도 그대로 存置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相當한 時日이 지나서 李朝末에 있어서 보면 高宗初年代에 編纂된 東國輿地備考에는 (1) 漢城府 西部內의 坊名이

餘慶坊 積善坊 仁達坊 養生坊 皇華坊 盤松坊 盤石坊 龍山坊 西江坊.

으로 되어 있어서 9坊이어서 成宗朝의 東國輿地勝覽에 比하여 神化坊이 없어지고 龍山坊 西江坊이 新設되고 있다. 즉 高宗初 무렵에는 이미 神化坊이란 坊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神化坊은 高宗初以前에 없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英祖年代의 제작된 都城地圖(市史編纂委員會所藏)에는

西部九坊 仁達 積善 餘慶 皇華 養生盤松 盤石 龍山 西江 舊又有 神化一坊 今不知所在 龍山西江則 舊所無 九十一契

라고 기록하고 있다. 英祖朝의 地圖에도 高宗初와 마찬가지로 9坊이며 그 坊名이 같으나 「舊又有 神化一坊 今不知所在」라고 있는 것이다. 英祖朝以前에 이미 神化坊의 坊

名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李朝初期에 있었던 神化坊이 없어진것은 成宗朝以後 英祖朝까지 사이였다고 할 것이나 좀더 나아가서 그 期間을 좁혀본다면 中宗朝까지도 神化坊은 存置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수가 있다. 그 이유는 成宗朝의 東國輿地勝覽이 그 後 中宗年間に 添錄수校하여 新增改版되었거니와 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神化坊이란 이름이 수校添錄됨이 없이 그대로 登載되어 있기때문이다. 즉 神化坊은 中宗朝까지도 存置되어 왔다고 볼 것이고 中宗朝以後 英祖朝까지 사이에 없어지었다고 할 것이다. (2)

李朝時代 漢城府의 行政區域으로 있었던 西部管內의 神化坊은, 太祖5年에 行政區域名이 制定되었을 當時부터 存置되어서 中宗朝까지 있었으나, 그 後 廢止되어 英祖朝에는 이미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四

지금까지 李朝時代 行政區域이 있던 神化坊은 李朝前期무렵 까지에는 있었으나 그後 廢止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 李朝 前期에 있었던 神化坊은 그 位置가 어디인가?

神化坊이 屬해 있는 西部는 時代에따라 坊數가 增減變遷이 있었지만은 世宗以後 成宗朝 무렵의 坊數는 8坊으로 되어 있었음은 前言한 바와 같거니와, 그 8坊의 區域을 現在의 位置에 比定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仁達坊—積善坊의 西便.

積善坊—景福宮의 西便.

餘慶坊—武橋洞西半 新門路—街南쪽 一帶.

皇華坊—貞洞 西小門洞北半 一帶.

養生坊—太平路二街西半, 西小門洞 南쪽 一帶.

神化坊—?

盤松坊—城外.

盤石坊—城外.

西部 8坊의 位置는 위에 表示한바와 같거니와 그 8坊의 位置로 보아서 西部의 區域을

推定하면 西部와 他部와의 境界는 景福宮에서 世宗路大路 武橋洞中央道路 市廳 太平路二街路를 거쳐 南大門에 이르는 線이 되며, 그 線의 西편이 西部의 區域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神化坊의 位置는 그 西部의 區域內에 所在하게 될 것이나 그 神化坊이 어디라고 確言할 수 있는 資料가 現在로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大體로 筆者의 생각으로는 西部의 神化坊은 現武橋洞近處 一帶가 아니었던가 본다.

筆者가 神化坊이 現 武橋洞 近處였다고 보는 그 理由의 하나는 神化坊의 位置가 李朝時代에는 서울의 中心部の 開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데서 그것을 말할 수가 있다. 즉 實錄에는

開川役告訖 自藏義洞口至宗廟洞口 文昭殿與昌德宮門前 皆以石築之 自宗廟洞口至水口門 以木作防築 作大小廣通・惠政及貞善坊洞口・神化坊洞口 等橋皆用石·····(太宗實錄12年2月庚午條)

라고 한 記事가 있는바, 여기서 神化洞口橋라는 이름이 보인다. 太宗12년에는 서울城內川을 처음으로 開鑿하여 開川을 造成한 工事が 있었고 이 工사와 더불어 大廣通橋 小廣通橋 惠政橋 貞善坊洞口橋 神化坊洞口橋 等 石橋가 築造되었었다. 이 工事は 처음으로 서울의 城內를 흐르는 川渠를 開鑿하여 개천을 축조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성내천에 있는 교량으로써 처음으로 전기5橋를 石築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 5교중에서 신화방동구교를 제외한 나머지 4橋의 위치를 보면

大廣通橋—이조후기에도 대광통교라고 하여 鍾樓南에 있음.

小廣通橋—이조후기에도 小廣通橋라고하여 大廣通橋南에 있었음.

惠政橋—이조후기에도 같은 교명이었으나 왜정때 福淸橋라고 개명하였고 광화문우체국 동편에 있었음.

貞善坊洞口橋—現단성사극장 앞에 있었고 이조후기에는 把子橋라고 하였음.

와 같은 것으로 모두가 당시 서울의 중심지에 소재하고 있다. 大小廣通橋는 이조시대 서울에 있어서 중심지로서 이름있는 鍾樓街의 그 바로 남쪽에 있었던 교량이며, 惠政橋는 이조초에 변화한 거리로 알려져있는 雲從街의 바로 西邊에, 그리고 貞善坊洞口橋는 창덕궁의 전면에 있어서 大闕의 입구에 있었던 것 —모두가 서울의 最要地에 자리잡고 있는 교량들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교량들은 주요한 지점에 있는 까닭에 당시 서울의 城

內橋梁들이 모두 木橋土橋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량은 특히 石橋로서 만든 것이었다.(3)

이와 같이 태종12년에 조성한 석교들이 이조시대 처음으로 만든 석교로서 그 지점이 모두 당시 서울의 最要地에 소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교량들과 동시에 축조한 神化坊 洞口橋도 이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역시 신화방동구교의 위치도 요지에 소재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神化坊 洞口橋는 신화방의 동구에 있는 교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神化坊의 동구에 있었음을 알 수 있거나와 神化坊은 서부에 속해 있었음으로 그 橋의 소재는 서부에 있거나 그 部에 접해있는 개천에 있었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부에 있는 교량으로는 이조후기에 해당하는 英祖朝의 都城地圖(市史編纂위원회 所藏)에는 松杞橋와 毛塵橋가 있으니, 이 兩橋 중 어느 하나가 이조초기에 있었던 神化坊 洞口교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前記 兩橋中에서도 요지에 있었던 것이 神化坊 洞口石橋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松杞橋는 現世宗路네거리의 서편에 있었던 교량으로서 毛塵橋보다는 요지 또는 중심지대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 더구나 석교는 조성되었던 태종12년은 태종5년 漢陽再遷都가 있는 뒤로서 태종은 창덕궁을 新創하여 그곳에 所御하고 있었음으로 松杞橋가 景福宮前西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요지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역시 松杞橋보다는 毛塵橋(이조후기의 所稱)가 요지이며 중심지로 볼 것이니 그것은 이조초에 서울에서 가장 변화하던 雲從街남쪽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태종실록에는 다음의 기사가 있다.

獐入崇禮門 經神化坊 見捕 書雲觀 請設百神解怪祭 禳之 不從. (태종실록13년5月 乙未條)

즉 獐이 남대문에 들어왔는데 神化坊까지 왔을 때 잡혔다는 것이다. 이 記事는 神化坊 洞口橋가 어디인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獐이 남대문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남대문을 통하는 도로를 지나서 城內로 侵入한것이 되는 바 남대문에서 성내로 통하는 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남대문로와 태평로의 두갈래 도로뿐이다. 그런데 남대문로는 이조시대에는 남부의관내였음으로 서부의 神化坊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태종13년에 獐이 入한 도로는 태평로가 될것인데, 이조시대의 그 도로는 현재

와는 좀 달라서 시청에서 세종로로 통하는 도로는 없었으며, 現 시청앞 지점에서 무교동을 지나 毛塵橋로해서 雲從街(現 종로一街)에 通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獐이 入한길은 남대문에서 무교동 방향으로 온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神化坊洞口橋의 위치는 自明하여 지었다고 할 것이니 무교동의 於口에 있는 毛塵橋와 그 위치가 符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조후기의 毛塵橋가 이조초기의 神化坊洞口橋였다면 神化坊의 위치도 추정할 수가 있다. 즉 이조초기의 神化坊은 毛塵橋 근처가 되는 것으로 현재의 무교동 근처 일대가 되는 것이다.

五

지금까지 이조초기에 漢陽府의 행정구역으로서 있었던 神化坊이 설치된 연대와 폐지된 연대 그리고 그 위치에 對하여 一考하여 보았다.

그것을 여기서 要約하여 본다면 神化坊은 태조5년 4월에 漢城府의 행정구역이 정하여 지었을 時 西部管內의 坊으로서 설치되었던 것이며, 이조후기에 있어서는 이미 폐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폐지된 연대는 成宗朝까지 神化坊이 存置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좀더 폐지된 기간을 좁혀본다면 大體로 中宗朝까지도 그 坊이 있었으나 그후에 폐지되어 英祖朝에는 이미 이 명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神化坊은 中宗朝에서 英祖朝까지 사이에 그 坊이 없어지었던 것이다.

다음 神化坊의 위치는 西部에 속해 있었던 것이니 그것은 現 무교동 近處一帶라고 比定하는 바이다.

(1) 東國輿地備考는 그 壇廟條에

靈星壇 今上二年 又設于東郊 惠化門外.

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景福宮……今上二年乙丑復重建.(宮闕條)

宗簿寺……今上二年 移屬宗親府.(革廢公司條)

등의 記事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冊이 高宗2年以後에 編纂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第宅條에는

延齡君第 在北部安國坊 卽 永安君洪柱元舊第 仁穆王后構賜貞明公主 宮室庭園 極其宏傑 爲城中甲第 今爲全溪大院君廟.

라고한 記事가 있다. 그런데 이全溪大院君廟는 安國洞에 所在하고 있던 것으로 哲宗 卽位年에 哲宗의 生父인 全溪大院君를 모신 廟로 建立되었으나 高宗6年에는 그 廟가 他處에 移奉되었으며 高宗16年에는 그 位置에 安洞別宮이 營建된 것이었다(서울特別市史古蹟篇 參照) 그러므로 全溪大院君廟는 哲宗卽位年 以後 高宗6년까지 存置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東國輿地備考의 記事中에 高宗2年까지의 記事가 있고 高宗6年에 安國坊에서 他處로 옮긴 全溪大院君廟가 그대로 安國坊에 있는 것으로 記錄되어 있음을 볼 때 東國輿地備考는 高宗2年以後 高宗6年之間에 編述된 것이 確實하다고 본다.

(2) 純祖朝에 編纂되었다고 보는 漢京識略에는 西部의 坊名으로서

西部在餘慶坊 所管八坊 曰仁達 曰積善 曰餘慶 曰皇華 曰養生 曰神化 曰盤松 曰盤石.

와 같이 記錄되고있다. 여기에도 神化坊이란 坊名이 보이므로 純祖朝에도 神化坊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東國輿地勝覽의 轉寫로 볼 것이며 이미 英祖朝의 地圖에「舊又有神化一坊 今不知所在」라 하였으니 漢京識略은 誤記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大小廣道橋 惠政橋 貞善坊石橋 神化坊洞口橋 등을 제외한 其外의 서울의 교량이 石橋로 된 것은 前5橋가 석교로 되어서 좀 시일이 지난 다음인 세종4년 무렵이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鄉土서울」 제24호 1965년에 수록)

貞洞俱樂部의 親露反日政策

金 源 模

머 리 말

I. 순락嬢과 貞洞俱樂部

II. 春生門事件 III. 俄館播遷

맺 는 말

머 리 말

1894년 7월에 일본은 東學亂 진압을 구실로 出兵, 8월 1일 선전포고를 발하면서 淸日 戰爭이 발발했다. 전쟁은 신흥 일본이 압도적 전승을 거두었고, 그 결과 일본은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金弘集 親日內閣이 구성(1894. 12. 17), 甲申政變 때 亡命政客 徐光範·朴泳孝·徐載弼 등을 귀국, 입각시키는 등 親日派가 정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친일파가 득세하자 이에 대한 反動勢力으로 한국 최초의 정치단체인 貞洞俱樂部가 발족했으니, 주로 親露·親美派 정객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단체가 결성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학자들은 春生門事件과 俄館播遷을 주도했던 정동구락부의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1) 최근 간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정동구락부'와 '춘생문사건' 등에 대한 기사를 종합 정리해 보면, 1894년 사교 및 친목 등 비정치적인 모임을 표방하고 설립된 단체라는 것, 貞洞派 관료가 중심이 되어 국왕

을 구출하고 친일정권을 타도, 신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春生門事件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 한국 최초의 정치단체인 貞洞俱樂部는 단순히 사교친목을 위해 결집된 비정치단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親日派세력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등장했고, 나아가서 親露反日政策을 뚜렷이 표방하고 활동한 한국 최초의 정치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정동구락부가 중심이 되어 민비시해사건에 대한 보복, 그리고 국왕구출과 친일내각 타도를 목표로 춘생문사건을 일으켰다는 것, 춘생문사건과 그뒤 俄館播遷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같이 정동구락부에 의해 추진된 연속적 거사라는 사실이다. 정동구락부가 국왕구출을 시도한 춘생문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2차 구출작전을 벌인 것이 바로 아관파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 정동구락부 정객들의 활동중심지는 정동 손탁양 私邸라는 것, 따라서 손탁양은 정동구락부의 정치활동을 배후에서 적극 주선하고 이를 도와준 막후인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동구락부 정객들은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治外法權의 貞洞의 손탁양 사저에 자유로이 모여 정치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貞洞俱樂部가 추진계획한 쿠데타(俄館播遷)는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바로 이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金弘集 친일내각은 전승국 일본이 발족한 내각이며, 일본이 적극 지지하는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동구락부는 이를 타도하고 국왕을 구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그동안 한국사에서 간과되어 온 정동구락부의 정치활동의 外交的 裏面史를 밝혀보고자 정동구락부가 춘생문사건과 아관파천까지 주동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따라서 손탁양이 그 배후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國王救出舉事(俄館播遷)가 성공했다는 기본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 손탁嬢과 貞洞俱樂部

일본은 1868년 明治維新을 단행한 직후 아시아대륙 침략의 첫 단계로 한반도를 정복 지배해야 한다는 이른바 征韓論을 수립했다. 이러한 대륙팽창정책에 따라 일본은 砲艦策略에 의해 무력적으로 朝日條規(1896)를 체결, 조선개항을 성취한 것이다. 조일조규 제1조에 "朝鮮國은 自主國과 平等한 權利를 保有한다." 3) 라고 명문화함으로써 일본은 국제법상으로 조선의 독립국지위를 승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

국 지위를 진정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한·청 간의 朝貢關係를 단절함으로써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반도를 정복·지배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일본은 일단 한반도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조일조규 체결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한 일본은 征韓論 具現의 첫 단계로 急進 親日開化獨立黨을 책동, 親淸事大黨을 제거함으로써 親日政權을 수립하려는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이것이 甲申政變이었다(1884. 12. 4) 그러나 袁世凱의 靑軍개입으로 三日天下로 실패, 정한론의 꿈은 일단 좌절된 것이다. 이때부터 청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약 10년간은 일본 세력은 후퇴하고 사실상 淸의 韓半島 支配期가 계속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국세력이 한반도에 버티고 있는 한 한반도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청국세력을 힘에 의해 추방함으로써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 군비증강에 광분했다. 때마침 東學亂이 발생하자, 일본은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대거 出兵, 淸日戰爭을 도발한 것이다. 전쟁은 신흥 일본의 압도적 전승으로 종식되고, 그 결과 전승국인 일본은 이제부터 청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선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전승은 조선의 독립보전에 암운을 던져주는 전조가 아닐 수 없다. 4)

일본의 전승으로 청국세력이 물러감에 따라 이제 한반도는 일본의 독무대가 되고 말았다. 일본은 재빨리 金弘集 親日內閣을 발족, 정치개혁을 단행한다는 구실로 甲午更張을 실시하면서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 침략위협에 직면한 조선정부의 親露·親美派 政客들이 취할 自救策이란 곧 以夷制夷策으로 제3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親露派세력의 중심인물인 閔妃는 러시아세력을 끌어들이어 일본의 침략기도를 저지하고, 조선의 자주독립권을 보전한다는 親露反日政策을 수립한 것이다. 이러한 친로반일정책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외교관이 곧 주한미국공사 시일(John M.B. sill, 施逸)과 러시아공사 웨베르(Karl Waeber, 韋貝)였다.

歐美派정객들을 중심으로 조선 최초의 정치세력이 형성되었으니, 그것이 곧 眞洞俱樂部(Chongdong Club)라는 排日的 정치단체였다. 시일·웨베르 등 美露 양공사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알렌(Horace H. Allen, 安連) 미국공사관 서기관, 뿔랑시(V. Collin de Plancy, 葛林德) 프랑스 공사, 르젠드르(Charles W. Legendre, 李仙(善)得) 고문관, 다이(William m. Dye, 茶伊) 군사고문,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Homer B.

Hulbert, 紇法), 고종의 典醫 에비슨(Oliver R. Avison, 芮斐信) 등이 가담했고, 내국인으로서는 주로 미국을 다녀온 歐美貞洞派 人物로서 李完用 · 李允用 · 李商在 · 尹致昊 · 李采淵 · 閔泳煥 · 李範晉 · 李學均 · 尹雄烈 · 玄興澤 등이었다. ⁵⁾ 이들은 주로 구미 각국을 다녀온 친로 · 친미파 인물로서 고종과 민비에 대한 忠君愛國사상이 투철한 勤王派로서 그 당시로서는 가장 영향력있는 정동파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帝政러시아는 1860년 淸露間 北京條約체결로 沿海州를 획득, 블라디보스톡(海參威)을 극동아시아 進出의 교두보로 확보했다. 이로부터 꾸준히 한반도에로의 팽창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大阮君의 鎖國攘夷政策에 밀려 주춤하다가 1882년 朝美條約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선과 국교수립교섭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1884년 7월 7일 朝露條約이 체결됨으로써 修交가 이룩된 것이다. ⁶⁾ 초대 주한러시아공사 웨베르는 1885년 10월 14일 조선정부와 批准書를 교환함으로써 朝 · 露間 정식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서울貞洞에 러시아공사관이 개설된 것이다. 그런데 웨베르는 서울 부임시 그의 가족과 함께 그의 처형되는 손탁(Antoinette Sontag, 孫澤, 宋多奇, 孫鐸, 1854? ~ 1925)양을 대동하고 내한한 것이다. ⁷⁾ 몸집이 배대한 獨身女,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게다가 英語 · 獨語 · 佛語 · 露語, 그리고 단시일에 익힌 한국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손탁양은 宮內府 外人接待 업무를 담당, 궁중출입을 하게 된 것이다. ⁸⁾

오늘날 德壽宮은 원래 月山大君의 私邸였다. 宣祖가 壬辰倭亂시 義州까지 蒙塵했다가 서울로 돌아오자, 모든 궁전이 회신되고 오로지 月山大君 私邸만이 남아있었는데, 선조는 이곳을 時御所로 정하고 거처를 정하면서 궁전이 된 것이다. 高宗이 俄館播遷 직후 러시아공사관에 약 1년간 피신하고 있는 동안 慶運宮 造成事業을 일으켜 1897년 2월에 移御함으로써 慶運宮이라 불렀고, 1907년 純宗이 卽位하면서부터 德壽宮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1896년까지만 해도 慶運宮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방치상태였다. ⁹⁾ 宮內府는 손탁양에게 미국공사관 서쪽에 인접해 있는 貞洞 수옥헌(漱玉軒)을 주어 정착하게 배려한 것이다. 손탁양은 방치상태에 있었던 수옥헌을 인수, 이를 수리한 후 그녀의 私邸로 정하고, 내부장식을 서양 실내장식으로 단장하였다. 1902년 7월 알렌이 俞箕煥 外部大臣에게 조회한 외교문서에 의하면, 漱玉軒이 손탁양 사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공사관 서쪽에 인접하고 있는 이 집은 皇室圖書館(Imperial Library)으로 이용되고 있다. 貞洞 漱玉軒 가지는 러시아 여인 손탁이 살고 있는 곳이다.(貞洞 漱玉軒 基地 俄女 孫澤所居之地).¹⁰⁾

이상의 외교문서에서 보듯이 손탁양은 漱玉軒을 그녀의 私邸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공사관측은 원래 미국공사관 서쪽의 이 수옥헌기지는 조선국왕이 1892년에 미국공사관에 下賜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¹¹⁾ 아 물론 조선정부의 궁내부는 이 수옥헌을 손탁양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漱玉軒은 英·露·美·佛 등 각국공사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외교의 중심지라는 것,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治外法權의 구역이라는 利點을 최대한으로 살려 손탁양은 그녀의 私邸를 한국정치외교의 社交場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리하여 貞洞俱樂部 인사들은 손탁양 사저에 모여서 정치외교활동을 벌였다. 이로써 손탁양 사저는 정동구락부의 활동무대가 된 것이다. 『德壽宮 宮闕誌』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重明殿 一名 漱玉軒인데 지금은 外人俱樂部 건물이다. 덕수궁 밖 미국공사관 서쪽에 위치하며 光武 8년(1904) 대화제가 발생하자, 황제와 황태자가 이곳에 피신하였고, 光武 9년(1905) 乙巳保護條約이 이곳에서 조인되었으며, 純宗이 昌德宮으로 移御하기 까지 이곳에 居接하고 있었다.¹²⁾

이상의 기록에서 外人俱樂部란 곧 貞洞俱樂部의 후신이다. 이리하여 손탁양은 慶運宮 소속 漱玉軒을 인수 마루바닥에는 독일로부터 특별 주문해 온 독일제 카펫을 깔고 실내장식을 西歐風으로 꾸몄을 뿐만 아니라 가구류·집기류 등도 서양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를 손탁양 사저(Miss Sontag's Place)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¹³⁾ 손탁양은 주한 각국 공·영사를 비롯하여 선교사, 상인, 그리고 정동구락부 인사들을 초청, 서양식 요리, 특히 그녀 특유의 프랑스요리와 커피 등을 만들어 대접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손탁양은 宮內府에 근무하면서 조선 궁중에 서양요리와 서구식 생활양식을 전해준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조선정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인을 위한 각종 연회와 만찬회를 그녀가 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高宗은 서양요리와 커피를 좋아했는데, 이로 인해 毒茶事件(Coffee Poisoning Plot, 1898. 9. 11)이 발생하기도 했다.¹⁴⁾

정동구락부는 시일·웨베르 등 미·로 양국 공사의 지지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비는 일본세력을 내쫓고 자주독립을 성취코자 이들 정동구락부 인사들에게 손탁양을 통해 하사금을 전달 격려를 아끼지 아니했다. 이와 같이 궁정의 민비와 정동구락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주고, 궁내부로부터의 정치자금 전달하는 매개체역할을 한 사람이 곧 손탁양이었다. 그러니까 宮內府가 지급하는 각종 운동자금은 모두 손탁양을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그녀는 일개 여성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녀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했다. 15)

민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동구락부가 노골적으로 親露反日政策을 표방하고 외교 일변지 정동 손탁양 집에서 排日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눈의 가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일본은 드디어 그 중심인물 민비를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이다. 민비만 제거하면 정동구락부는 저절로 와해된다는 계산이다. 이리하여 가장 호전적인 신임 三浦梧樓공사의 주도하에 표면상으로는 大阮君의 再執權 陰謀라 가장하고 訓練隊를 앞세우고, 壯士패를 동원, 1895년 10월 8일 그 악명높은 閔妃弑害事件(乙未事變)을 일으키고 말았다. 거사 직후 金弘集 親日內閣은 10월 10일 “王后閔氏를 폐야 庶人을 삼노라” 16) 라고 발표했다.

한 나라의 국모를 잔인무도하게 암살한 악랄한 弑害蠻行에 가장 분노를 터드린 외국인이 있다면, 그는 곧 시일공사와 알렌서기관이었다. 특히 알렌은 즉각 “이같은 廢庶人詔勅은 大君主께서 친히 내리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것은 親日內閣들이 조칙을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17) 이리하여 알렌은 서울주재 각국공사(일본공사 제외)의 外交團(Diplomatic body) 회의를 주재, 일본의 비인도적 만행을 규탄하면서, 그것은 곧 일본의 간악한 弑害隱蔽企圖라고 고발하는 이른바 列國共同政策을 채택했다. 18) 이 자리에서 미국공사는 5개조를 제시했으니, 즉 서울주둔 일본군을 감축할 것, 각국 군대가 공동으로 주둔할 것, 大阮君을 문책할 것, 시해사건에 관련된 관계대신을 처단할 것, 廢后된 민비를 복위할 것 등이었다. 19)

閔妃弑害事件 발생 전후를 통해 그 당시 조선에는 3대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 첫째, 建陽協會 세력인데, 이는 주로 온건개화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단체로서, 甲午更張을 주도한 집권관료파들이었다. 이들은 甲申政變 이래 미국에 망명해 있는 徐載弼·徐光範을 귀국시켰고, 徐載弼이 주도하는 독립신문 창간을 지원해 주었으며, 1896

년 1월부터 年號를 建陽, 국왕을 大君主로 格上시키는 등 反淸自主獨立을 표방하고 있는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1896년 2월 8일 발기위원 47명이 모여 建陽協會를 정식으로 조직했으나, 그 중심인물은 朴定陽·安敬壽·韓圭高·金嘉鎭·金宗漢·兪吉濬·金允植 등이었다. 20) 둘째, 貞洞俱樂部이다.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歐美貞洞派 세력으로서 排日的 성향이 뚜렷한 自主獨立을 표방하고 있는 親露·親美派 정치단체였다. 이들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한 방편으로 露·佛·美·英 등 각국공사와 긴밀한 친분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을 中立國으로 하는 이른바 中立化案을 수립하기로 했다. 셋째, 獨立派 官僚세력이다. 이들은 建陽協會나 貞洞俱樂部와는 관계없이 개화정책추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官僚派 세력으로서 그 중심인물은 南宮樞·吳世昌·宋憲斌·鄭顯哲·沈宜碩·방翰周 등이었다. 21)

상기 세 정치단체 중 親日세력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親露反日정책을 표방하고 형성된 정치단체가 바로 貞洞俱樂部로서, 대개 淸日전쟁 직후 일본의 전승과 1894년 12월 金弘集 親日內閣이 발족함과 동시에 생겨난 排日的 성향이 뚜렷한 정치단체였다. 뿐만 아니라 高宗과 閔妃는 侍臣을 貞洞俱樂部로 보내는 등 왕래하면서 下賜金을 주었고, 게다가 손탁양은 그녀 자신의 저택에서 정동구락부 인사들을 규합, 親露反日운동을 벌이는데 필요한 정치자금을 궁내부로부터 지급받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정동구락부의 세력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貞洞외국인마을(foreign community)에 있는 손탁양 저택에 모여서 외부의 감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약했다는 것, 美·露公使의 지원을 빌어 일본세력을 견제하고 內政改革을 주장하는 등 조선 최초의 反日親露的 정치단체를 결성하고 있었다. 22)

·貞洞俱樂部의 지도적 인물은 李完用이고, 그를 보좌하는 참모는 李商在였다. 23) 이들은 일찍이 初代 駐美全權公使 朴定陽 使節의 위싱턴 使行시 李完用은 參贊官이었고, 李商在는 書記官으로 駐美朝鮮公使館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는 親美派였다. 24) 청일전쟁 종식후 집권한 親日派에 대항하는 親露派 정객 李學均·李采淵·李範晉 등이 가세함으로써 貞洞俱樂部는 親美·親露 양파 人士들의 집결된 정치단체가 된 것이다. 25) 특히 忠君愛國과 自主獨立을 獨立協會에 흡수통합된 것도 이러한 정치이념이 공통했기 때문이다. 26) 알렌은 李完用의 自主獨立사상과 貞洞俱樂部에 대한 러시아공사의 적

극적 후원을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李完用은 미국을 다녀온 親美黨(Pro-American Party)의 領袖로서 항상 ‘독립, 독립’을 외치고 있다. 이같은 독립의 착상은 바로 러시아공사관에서 발생했고, 웨베르공사가 이를 적극 지원해 준 것이다.”²⁷⁾ 이렇듯 철저한 反日親露政策을 고수하고 있었던 李完用은 露日戰爭에서 일본이 전승을 거두자, 하루 아침에 糺수 親日派로 변신한 것이다.

閔妃弑害사건으로 坤位를 잃은 高宗은 울분과 비탄속에 빠져있었다. 비록 시해사건에 앞장선 훈련대는 해산되었지만 경복궁 주위에는 친 일본군이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어서 高宗은 감금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와 같은 신세였다. 이러한 감시를 받고 있는 高宗은 항시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高宗은 불면증에 걸리고, 심지어 毒殺의 음모를 겁내어 궁중에서 마련한 수라상을 일체 들지않을 정도였다. 그래도 안도감을 가지게 된 것은 다이 장군이 이끄는 侍衛隊의 궁중호위, 그리고 일본공사를 제외한 미·로·불·영 등 각국 공사와 미국선교사들의 입궐위문이었다. 高宗은 각국 공사나 미국선교사를 만나기만 하면 손을 붙잡고 눈물로 구출을 호소하고 있었다.

28)

한 나라의 국왕이 이같이 감금생활을 하고, 독살을 염려해서 궁중에서 마련한 수라상을 들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시일 미국공사는 선교사 언더우드를 통역으로 임명, 2, 3명의 선교사를 교대로 입궐, 국왕을 把守하게 했다. 외국인이 국왕을 把守하면 국왕을 암살하려는 시해계획을 방지할 수 있는 억지력(a deterrent influence)이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언더우드는 미·로 양 공사관과 언더우드집에서 만든 특별요리를 낫그릇에 담아서 주석상자에 넣고, 예일자물쇠(Yale lock)로 잠그어서 음식상자와 열쇠를 국왕에게 직접 전달했던 것이다. 러시아공사관에서는 손탁양이 직접 음식을 요리했고, 미국공사관서는 주로 알렌·언더우드부인이 수라상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만든 수라상을 담은 음식상자를 미·로 공사관으로부터 경복궁까지 운반하는 역할은 통역관 언더우드가 수행했다. 이리하여 高宗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이 좋은 수라상을 마음놓고 편안히 들게 된 것이다.²⁹⁾ 어느날 大阮君이 언더우드를 보고, “그 좋은 음식을 무엇때문에 전하께 드린단 말이요. 전하께서는 그런게 필요 없소. 나는 늙었소. 게다가 이가 빠졌으니 전하보다는 내게 그 음식이 필요하오.”라고 힐난할 정도였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고종의 수라상을 날라주는 일을 자진해서 맡아 수행했다. 30)

민비시해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義和郡³¹⁾이 언더우드집을 찾아와서 피신 보호를 요청했다. 의화군 뿐만 아니라 기타 친로파 인물들이 미국공사관이나 선교사집에 피신했던 것이다. 이는 미국인 소유의 집이므로 일본당국의 암살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피난정객들로 붐볐고, 이로부터 언더우드는 가짜 친일정부(Pseudo-Government)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32)

민비시해사건 이후 언더우드家에 피신한 義和君·尹雄烈 등 피난정객을 비롯하여 貞洞美·露 公使館에 피신한 정동구락부 정객을 보면, 미국공사관에 李完用·李允用·李采淵·閔商鎬·玄興澤 등 6명이고, 러시아 공사관에는 李範晉·李學均·金鴻陸·尹致昊 등 4명 이었다. 33) 알렌은 경복궁에서의 고종의 포로생활과 미국공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피난 정객들의 애처로운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고종은 문자 그대로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듯 자기(알렌)에게 의지하고 있고, 반일정객(정동구락부)들은 전심전력으로 자기에게만 의지하려 하고 있다." 34)

이리하여 알렌은 미국 선교사들을 교대로 入直해서 국왕을 把守하게 하는 동시에 알렌 부인 언더우드부인 아펜젤러부인 등이 대궐출입을하면서 수라상을 돌보게 했다. 미국공사관에서 이처럼 피난정객들을 보호해주자 본국 정부에서는 그것은 바로 미국의 對韓不介入 정책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피난정객 보호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올니(Richard Olney) 국무장관은 시일 공사에게 "한국 정치문제에의 개입은 귀하의 소관사가 아니며, 이는 금지된 사항이다." 35) 라고 對韓不介入정책을 촉구하면서, "피난정객은 그 나라 국법을 어긴 자들인데, 귀하가 공사관에 이들을 숨겨 둘 수는 없다." 36) 라고 譴責전문을 보낸 것이다. 그 당시 미국공사는 시일이지만, 서기관 알렌이 공사관업무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렌은 이같은 국무성 훈령을 무시하고 정동구락부 피난정객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II. 春生門事件

貞洞俱樂部의 정치적 당면과제는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국왕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정동구락부는 민비시해사건 직후, 日本의 訓練隊가 시해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규탄하면

서 金弘集內閣에 군제개편을 촉구했다. 그 결과 친일정부는 훈련대를 폐지하고(1895. 10. 30) 新陸軍을 編制하였으니, 宮城수비를 담당하는 親衛隊와 지방의 鎮撫를 담당하는 鎮衛隊 등 2種 각 2 大隊로 편제하고, 구훈련대 士官은 모두 새로 개편한 新陸軍에 이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³⁷⁾ 그러나 경복궁 내의 便殿을 중심으로 한 경비는 계속 다 이장군이 지휘하는 侍衛隊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다.

국왕은 하루 속히 이 지옥같은 경복궁으로부터 탈출, 안전한 정동 공사관마들로 피신하고 싶었다. 이에 고종은 위문차 입궐한 언더우드를 만나면 은밀한 내용을 적은 '密旨'(a tiny note)를 손바닥에다 전해주곤 했다. 이 밀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정동구락부에 보내는 것으로서 자신을 구출해 달라는 호소문이었다. 각국공사나 미국선교사 이외의 인물은 일체 대궐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경복궁과 정동구락부와의 가교역인 使者역할을 언더우드가 도맡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³⁸⁾

이제 정동구락부는 민비시해사건에 대한 복수토역(復讐討逆)의 기치를 내걸고 ³⁹⁾ 국왕을 구출하는 작전을 은밀히 수립하였으니, 이를 春生門事件이라 한다. ⁴⁰⁾ 거사일은 1895년 11월 28일 자정을 기해서 국왕을 구출, 러시아공사관으로 移御케 한다는 것이다. 國王救出舉事에 참여한 인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林最洙(侍從) · 李道澈(參領) · 李敏宏(正尉) · 李忠求(前委員) · 安敬壽(中樞院議官) · 金在豐(司計局長) · 李世鎮(司果) · 李載純(侍從院卿). 貞洞 美 · 露 公使館에 피신중인 피난정객 : 李範晉 · 李完用 · 李允用 · 尹雄烈 · 尹致昊 · 李夏榮 · 李學均 · 玄興澤 · 閔商鎬 · 金鴻陸 · 李采淵] · 南萬里 · 李用漢 · 李完膺 · 崔榮夏. 외국인 : 르젠드르 · 다이 · 닐스테드 · 언더우드 · 헐버트 · 에비슨. ⁴¹⁾

親衛隊소속의 中隊長 南萬里 · 李圭泓 등 수십명 장교가 거사에 가담, 親衛大隊長 (舊 訓練隊 隊長) 李軫鎬가 경복궁 안에서 內應하기로 약조하고 27일 오후 4시경 약 30명이 미 · 러 공사관으로부터 80발의 탄환을 지급받아 완전 무장하고 ⁴²⁾ 訓練隊에 일단 집합한 후 약 800명의 병정을 거느리고 三清洞을 거쳐 경복궁으로 진격하는데, 처음에는 建春門을 개문입궐하려 하자 여의치 않아 北牆門과 春生門 사이에 있는 궁궐담을 넘어 개문입궐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할까, 안경수가 外部大臣 金允植에 이 사실을 통고했고, 李軫鎬가 軍部大臣 魚允中에게 밀고함으로써, 李道澈 등 10여명이 현

장에서 체포되어 국왕구출작전은 무위로 끝났다. 43)

11월 27일 거사당일 尹雄烈은 아들 尹致昊에게 “오늘밤 충성과 인물이 친위대를 거느리고 경복궁을 침입, 이해를 받고 있는 국왕을 구출 해방시키겠다. 친일내각의 수중에 갇혀 있는 국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습격하며, 外國公使들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尹致昊는 즉각 전화로 美·露公使에게 거사사실을 통고하면서, 외국인을 동원 즉시 경복궁으로 입궐, 국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44) 사실 尹雄烈은 거사 전날밤 언더우드家 사랑방에 묵으면서 거사준비를 했지만 언더우드는 눈치 채지 못했다. 시일 공사가 윤치호의 보고를 받고, 시일공사와 알렌서기관은 즉시 국왕보호조치를 강구했다. 만일의 경우 제2시해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왕의 신변만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언더우드에게 즉각 입궐하라고 당부했다. 시일 공사는 경복궁과 미국공사관의 연락책임 및 통역담당 使者에 언더우드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시일 공사와 알렌 서기관은 본국 국무성으로부터 “절대로 한국의 정치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 한국의 피난정객을 보호하지 말 것” 등 견책전문을 몇 차례 받았기 때문에 미국공사관에서 직접 공식적인 개입은 곤란하다고 판단, 민간인을 동원 국왕보호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시일 공사는 언더우드에게 대궐출입증과 시일 공사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대궐문을 지키는 파수병에게 보이고 입궐하도록 조치했다. 이리하여 언더우드는 에비슨·헬버트 양복사를 대동, 경복궁으로 달려간 것이다. 45)

드디어 언더우드 일행은 권총을 휴대하고 대궐문에 당도했다. 언더우드는 파수병에게 시일 공사의 명함을 보이면서 입궐을 하려하자 파수병이 제지하고 말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아니요, 나는 지금 당장 지체없이 입궐해야겠소. 나는 미국공사의 요청을 받고 온 사림이 그 책임을 져야 하오. 그렇지 않으며 나는 지금 돌아가서 당신의 대답을 전해야겠소”라고 직행했다. 국왕은 무사했다. 국왕은 언더우드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이장군의 장교숙소에 대기하라고 하명했다. 이에 언더우드 일행은 침전 가까이 있는 장교숙소에 가서 사태발생에 대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46)

장교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닌스테드(F.J.H. Nienstead, 仁施德)는 만일의 긴급 돌발사태에 대비, 휴대하고 온 무기를 점검, 손질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언더우드와 에비슨은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어 손질을 했으나, 헬버트는 황급히 오느라

권총을 휴대하지 못했다. 이에 닐스테드는 자신의 권총을 험버트에게 빌려주었다. 이들은 무기를 닦고 기름도 칠고 장타한 후 탄띠를 속옷에 두르고 있었다. 이날은 추수감사절 전야의 달밝은 밤이었지만, 일기는 몹시 추웠다. 언더우드 일행은 성급히 오느라 모두 외투를 입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두 차가운 밤공기에 한기를 느껴 덜덜 떨고 있었다. 원래 조선 궁정법도에는 무기를 휴대하고 침전출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민비시해사건 후 고종은 이들 미국선교사들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무기휴대를 허용한 것이다. 47)

긴장의 한 순간이 지난 후 11월 28일 12시 子正 정각이 조금 지나자 드디어 총소리가 울렸다. 다이장군은 별떡 일어나 국왕 침전으로 달려갔고, 언더우드 일행도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다이의 뒤를 따라갔다. 국왕 침전 앞에 칼을 빼어 든 장교 몇명이 착검한 총을 교차시키면서 출입을 가로 막았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권총을 빼어 들고 칼을 제치면서 坤寧閣으로 들어갔다. 총소리에 놀란 국왕은 "외국인들은 어디 있느냐. 외국인들을 불러 오라"라고 외쳐 댔다. 언더우드 일행은 "여기 있습니다. 전하 저희들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침전안으로 들어가 보니 국왕과 世子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줄몰라했다. 국왕은 언더우드 일행을 보더니 안도감을 보이면서 선교사들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함께 있자고 말했다. 48)

경복궁 宮牆 밖으로부터 놀함과 고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총소리가 심야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에비슨 典醫는 장교숙소로부터 뛰쳐나올 때 너무나 흥분과 긴장속에 빠진 나머지 권총과 탄띠를 겉옷 밖으로 둘러찬 채 침전으로 달려와서 국왕 앞에 나타난 것이다. 침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에비슨은 御前에서의 무기휴대는 궁중법도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야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권총과 탄띠를 속옷 안으로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한 후 들어갔다. 국왕이 무기휴대를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알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침전까지 달려온 미국선교사를 문책하지 아니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49) 얼마 후 소란이 진정되자 국왕은 긴장이 풀리고 안도했지만, 피로감에 옥체를 가눌 길 없었다. 이에 에비슨은 국왕을 어린아이를 잠재우듯 모시면서 잠들게 했다. 국왕은 에비슨 곁에 그날 밤을 편안하게 보냈다. 50)

거사가 실패로 끝난 직후 金弘集총리를 비롯 각료들이 입궐, 국왕에게 즉시 다른 안전한 처소로 移御할 것을 간청했다. 국왕은 언더우드 일행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문

했다. 이에 언더우드는 “우리는 전하께 어떻게 하라고 조언할 처지는 아니나 이곳에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전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총리가 고종의 御手를 잡고 모셔 가려하자 국왕은 에비슨의 손을 꼭 잡았고, 군부대신 魚允中이 王世子를 잡아 王世子는 언더우드의 손을 잡고 버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弘集총리는 “외국인이 무엄하게도 국왕을 붙잡고 이어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통쳤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우리가 전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하께서 우리를 잡고 매달리고 있다. 총리대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主君을 붙잡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강요하느냐?”라고 반박했다. 결국 언더우드는 이야밤중에 국왕을 다른 곳으로 이어했다가 혹시 무슨 변을당할까 우려해서 그대로 침전에 머물게 하고 선교사들은 옆방에서 守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51)

거사당일(11월 28일, 음 10월 12일)은 공교롭게도 달밝은 밤이었다. 달을 정면으로 향한 침입자들은 대궐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볼 수 없었지만, 달을 등진 親衛隊군사들은 春生門 담장을 뛰어넘어 침입해오는 공격부대를 환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출대원들을 손쉽게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52) 결국 李軫鎬의 배신·밀고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申羽均이 春生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李道澈·南萬里·李敏宏 등을 무난하게 체포했고, 軍部大臣 魚允中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宣撫工作을 펼친 끝에 나머지 구출대원들은 거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逃散했으며, 貞洞俱樂部의 주요정객들은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美·露 공사관 또는 선교사 집으로 피신함으로써, 국왕을 구출하려는 春生門事件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53)

春生門事件 실패 후 親日內閣은 즉각 特別法院을 1895년 12월 30일에 개원(재판장은 張博) 주모자 林最洙·李道澈은 사형에, 李敏宏·李忠求·全佑基·盧興奎는 終身流配形에, 李載純·安敬壽·金在豐·南萬里 등은 苔一百,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54)

거사당일 尹致昊로부터 국왕구출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전통고를 받고 시일 공사는 알렌서기관과 함께 영국공사관으로 갔다. 거기에는 웨베르 러시아공사도 와 있었다. 그리하여 시일·알렌·웨베르·힐리어(Walter C. Hillier, 禧在明) 영국공사 등 네 사람은 사태대응책을 협의한 결과, 이번 사태는 순전히 조선의 내부문제이므로 외국공사관이 이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공식적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사태추이를 주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들 네 사람은 직접 경복궁 현장에 가되, 입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네 사람이 대궐문에 당도해 보니, 거사가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각기 공사관으로 돌아온 것이다.⁵⁵⁾

거사실패 후 미국공사관측은 미국이 춘생문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일본공사관측은 노골적으로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국왕구출작전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일 공사는 올니 국무장관에게 춘생문사건에 미국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시인하고 있다. “나는 오늘 11월 28일 발생한 春生門事件에 미국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날 저녁 미국인 3명이 경복궁으로 국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궐했다. 그들은 대궐출입증과 내 명함을 휴대하고 경복궁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밤 자정에 총소리를 듣고 국왕의 침전으로 달려갔다. 국왕은 미국 선교사들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이들 선교사는 주머니에 연발권총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했다.”⁵⁶⁾

春生門事件 발생 직후 일본언론은 즉각 “朝鮮侍衛隊가 王城에 亂入했으나, 訓練隊의 저지로 실패했으며, 이번 폭동에는 다이장군이 지휘하는 시위대가 관련되어 있다”⁵⁷⁾ 라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저팬 메일』(Japan Mail)지는 春生門事件의 주모자는 언더우드라고 擧名하면서, 美國관련설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⁵⁸⁾ 이와 같이 미국인이 春生門事件에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거사 전날밤 尹雄烈이 언더우드家に 머물면서 거사준비를 꾸렸다는 것, 둘째, 거사실패 후 역시 尹雄烈은 언더우드家に 피신했다는 것, 셋째, 尹致昊는 언더우드와 치밀하게 계획하여, 그의 아버지 尹雄烈을 斷髮·면도하고 털모자를 쓰고 선교사 옷차림으로 변장하여 仁川으로 탈출, 중국 芝부로 亡命시켰다는 것, 넷째, 언더우드는 閔妃弑害事件 이후부터 義和君을 자기집 사랑방에 숨겨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 다섯째, 거사당일 언더우드 자신이 헐버트·에비슨과 함께 경복궁 사건현장에 가 있었다는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다.⁵⁹⁾ 이와 같이 언더우드는 反日親露派의 정동구락부 정객들을 적극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당국으로부터 춘생문사건 주모자라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계『漢城新聞』에는 춘생문사건에 美·露 공사관원 뿐만 아니라 미국선교사가

가담했고, 실제로 대궐침입에 참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각 신문이 이같이 언더우드를 비롯하여 미국인 관련을 크게 보도하는 이유는 바로 정동구락부에 대한 보호 조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디까지나 국왕의 신변만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충정에서 행 동한 것일 뿐 다른 정략적 계획은 없었다. 그러기에 『뉴욕 헤럴드』지 서울특파원 코크릴 (John A. Cockerill)은 일본은 춘생문사건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민비시해사건을 은폐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신문 특파 원들의 그와 같은 기사를 믿지 않는다. 나는 여태까지 그들보다 더 극악무도하고도 비양심 적인 인간들을 본 적이 없다. 일본정부는 일본국내의 신문을 철저하게 검열하고 있기 때 문에 서울에서 발행하고 있는 『漢城新聞』에도 강압적인 검열과 탄압을 가했는지 모른다. 이 신문은 현재 조선재류 구미외교관들이 조선인에게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⁶⁰⁾라고 일본의 보도 검열통제를 고발하고 있다.

III. 俄館播遷

춘생문사건 직후부터 金弘集 親日內閣은 미국선교사들의 궁중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 기 시작했다. 사실상 시일공사는 본국정부로부터 “한국정치문제개입은 ‘外交訓令 64號’ 에 금지되어 있다”⁶¹⁾ 라는 對韓不介入訓令을 받고 있었던 만큼, 언더우드를 비롯하여 미국선교사들의 경복궁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었던 조선국왕은 마치 절해고도에 유폐된 幽囚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다만 민비의 侍醫였던 엘러스(Annie J. Ellers) 병커부인과 언더우드부인 그리고 독일인 손탁양이 국왕의 시중을 들면서 위로할 정도였다. 국왕은 언더우드가 입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가고 尹致昊에게 하문하면서 어서 빨리 입궐하라는 전갈을 전해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포로생활에서 金弘集·魚允中·李載冕 등은 더욱더 국왕에 게 방자무례한 행동을 서슴치 아니했다.⁶²⁾

드디어 金弘集 내각은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상투를 잘라버리는 斷髮令을 발표했다. 이 와 때를 같이해서 日本 廣島裁判所에서는 閔妃弑害 피고인 三浦梧樓 이하 48명 전원 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석방되었다.(1896. 1. 20). 한 나라의 國母를 암살하고도 피고인 전원을 무죄언도한 것은 전체 조선인들에게 反日 감정을 激發케 했다.⁶³⁾ 이리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국모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령 반대를 외치면서 義兵이 봉기하였는데, 그중에서도 春川에서 李昭應(친러파 李範晉係 인물)이 주도하는 의병이 규모가 가장 컸다. 심지어 춘천의병들이 서울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서울 장안의 인심은 극도로 흥흥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의 鎭衛隊 병력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마침내 서울 궁성을 수비하고 있는 親衛隊를 동원, 진압작전에 나섰다. 친위대 병력이 춘천으로 출동하자 수도 서울의 경비가 공백상태가 되고 말았다. 때마침 춘생문사건 실패 후 해외로 탈출중인 親露派 영수 李範晉이 비밀거국(귀국일자 미상), 국왕을 구출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웨베르 공사의 후원으로 李完用·李允用과 國王 播遷계획을 모의하게 된 것이다. 64) 앞서 춘생문사건에서는 미국이 적극 관여했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국왕구출작전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웨베르는 濟物浦에 정박중인 러시아 군함으로부터 러시아 수병 160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이동 배치했다. 65) 국왕을 러시아공사관으로 모셔오는 俄館播遷의 주동인물은 李範晉·李完用·李允用·安敬壽 등이고, 러시아공사 웨베르가 거사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거사계획을 수립하고, 1896년 2월 11일에 거사하기로 결정했다. 66) 드디어 李範晉은 거사요령과 절차를 적은 밀서쪽지를 內人편으로 宮女 金씨와 嚴尙宮을 통하여 국왕에게 전달했다. 생지옥같은 감금생활로부터의 해방을 학수고대하던 국왕은 경복궁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67) 이리하여 2월 11일 새벽, 러시아水兵 50여명은 정동 러시아공사관을 출발, 壯洞을 돌아 경복궁 神武門에 이르러 국왕의 가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왕과 왕세자는 女官服으로 변장하고 궁녀가 타는 輜輿를 타고 女官 20여명이 뒤따르는 가운데 神武門을 빠져나와 문밖에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水兵의 경호아래 정동 러시아공사관으로 탈출한 것이다. 68)

아관파천에 성공한 후 金弘集·鄭秉夏·魚允中 등은 흥분한 군중에게 打殺되고, 兪吉濬 등 친일파 30여명은 일본으로 망명함으로써 金弘集 親日內閣은 무너지고, 李範晉이 주동하는 親露內閣이 구성된 것이다. 69)

웨베르夫妻와 손탁양은 고종을 극진히 보살피 주었다. 특히 웨베르는 공사관 방 중 거실 1, 침실 1, 嚴妃의 방 1, 女官처소 1 등 방 4.5개를 특별 배정, 국왕의起居에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각 각료와 각국공사를 인견했을 뿐만 아니라 내

각은 러시아공사관 내의 別棟에 설치하고, 모든 政令은 러시아공사관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이제 러시아공사관은 국왕이 거처하는 별궁처럼 된 것이다. 이곳 貞洞 외국인마을(Foreign Community)은 美·英·露·佛 등 구미열강의 공사관이 마치 外屏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일본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治外法權 구역이라는 것 등 두 가지 사실로 이제 정동은 아관파천 이래 서울의 정치외교 및 사교상 중심지가 되었다.⁷⁰⁾

웨베르는 러시아공사관 수비병을 200명선으로 증강, 러시아공사관 수비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排日親露派 정객들만 출입하게 했고, 친일계 인사는 일체 출입을 통제했으며, 외국인으로서의 일본공사를 제외한 구미열강의 공사와 미국선교사들이었다. 어린 소년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러시아공사관을 출입했던 아펜젤러의 회고담에 의하면, 그 당시 러시아공사관 수비병은 러시아군 300명, 한국군 100명 등이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펜젤러 집도 역시 그 자신이 세운 培材學堂 건너편에 있었다. 아펜젤러에 의하면 러시아공사관에 머물고 있는 高宗의 수라상은 전적으로 손탁양이 전담해서 마련했는데, 주로 서양요리, 특히 손탁양 특유의 프랑스요리를 만들어 바쳤다는 것이다. 손탁양은 국왕에게 서양요리 뿐만 아니라 각종 공식 연회와 리셉션을 주관 그녀의 요리솜씨를 발휘했고, 이로부터 손탁양은 궁중연회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약 1년간의 아관파천 기간 동안 손탁양의 극진한 수라상 시중의 공로가 인정되어 고종은 손탁양에게 皇室所有 땅과 집을 하사하게 된 것이다.⁷¹⁾

이제 집권한 貞洞俱樂部 정객들은 손탁양 저택에 모여 손탁양의 프랑스요리를 들면서 각종 정치운동, 이권획득운동을 벌이게 되었으니, 손탁양 저택은 및 각종 이권을 교섭하는 로비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⁷²⁾ 아관파천 기간 중 각국의 이권획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96. 3. 29 京仁鐵道敷設權, 美國人 모오스(James R. Morse)

1896. 4. 17 平北 雲山金鑛採掘權, 美國人 모오스

1896. 4. 22 咸北 慶源·鍾城鑛山採掘權, 러시아인 니스첸스키(Nistchensky)

1896. 7. 3. 京義意鐵道敷設權, 佛國人 그릴(A. Grille)

1896. 8. 29 茂山 鴨綠江流域及鬱陵島伐採權, 러시아인 브리너(Jules Bryner)

한 나라의 군주가 남의 나라 공사관에 피난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국가의 체통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때마침 『독립신문』을 창간한 (1896. 4. 7) 徐載弼은 독립신문을 통해 국가의 체통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高宗의 還宮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이리하여 고종은 환궁을 하되, 경복궁으로는 절대로 환궁하지 않고 각국 공사관이 둘러싸고 있는 慶運宮을 수리해서 이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慶運宮은 成宗의 兄 月山大君 私邸였는데, 壬辰倭亂으로 宣祖가 義州까지 蒙塵, 1593년에 환도하면서 5대궁궐이 모두 兵火로 불타버리고 月山大君 私邸만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어서 선조는 이곳을 行宮으로 사용 侍御所라 칭했다. 光海君이 1611년 昌德宮을 중건, 이어하면서 이를 慶雲宮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慶運宮을 德壽宮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은 1907년 純宗이 즉위하면서 父王인 高宗의 장수를 비는 뜻에서 德壽宮이라 개칭한 것이다.⁷⁴⁾ 그런데 韓國 皇室侍醫로 근무했던 독일인 분쉬(Richard Wunch, 富彦士; 1901. 11 ~ 1905. 7)의 일기에 의하면 한국 최초의 서구식 호텔과 다방을 경영하였던 손탁양의 활약상을 소개한 중 아관파천시 高宗이 慶運宮 造成役事를 착수하면서 손탁양에게 공사의 일부 책임을 맡겼다는 것이다. 가령 宮廷 造景이라든가 새 궁궐의 실내장식 그리고 가구류와 가정집기 등에 이르기까지 손탁양에 의해 꾸며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종은 각종 궁궐 리셉션 외국 외교관들을 초대한 연회 등 제반업무를 손탁양에게 일임하였고, 손탁양은 프랑스식 요리를 장만하여 참석객들의 환심을 샀다는 것이다.⁷⁵⁾

맺 는 말

淸日戰爭에서 일본이 전승을 거두자 한국의 독립보전은 암담해졌다. 그 결과 일본은 金弘集 親日內閣을 발족, 한반도 지배권을 확립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親日派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親露·親美派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高宗과 민비를 중심으로 한 親露派 세력들은 러시아 미국 등 구미세력의 힘을 빌어 일본의 한반도 침략기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親露反日政策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親露·親美派 정객들을 중심으로 貞洞俱樂部가 결성된 것이다.

정동구락부가 언제 어디에서 결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規約 規則같은 것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동구락부는 친일집권세력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발족된만큼, 일종의 在野정치세력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는 排日的 정치단체였다. 정동구락부의 정치이념은 親露反日政策을 뚜렷이 표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러시아의 힘을 빌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보전하는 것이 정치적 至上目標였다. 그러니까 1894년 12월 17일 金弘集 親日內閣이 발족된 직후, 대개 1895년 年初에 정동구락부가 결성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다.

정동구락부의 구성원을 분석해 보면, 대개 미국 등 외국인 다녀온 진보적 구미파 인물이라는 것, 親日政客은 배제했다는 것, 忠國愛國사상이 투철한 勤王派 인물이라는 것이 공통적이다. 구성원을 보면 내국인으로는 李完用 · 李允用 · 李商在 · 尹熙烈 · 尹致昊 · 閔泳煥 · 李範晉 · 李學均 · 玄承澤 등이고, 외국인으로서 정동구락부를 적극 지원해준 인사로는 러시아공사 웨베르, 미국공사 시일, 서기관 알렌, 프랑스공사 뿔랑시, 고문관 르젠드르, 군사교관 다이 · 닐스테드, 미국선교사 아펜젤러 · 언더우드 · 헐버트 · 에비슨 등이었다. 여기서 일부에서는 徐載弼도 정동구락부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76) 이는 語不成說이다. 왜냐하면 徐載弼은 일찍이 甲申政變 실패로 10년간 미국망명 끝에 일본이 청일전쟁 전승으로 친일내각을 발족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선에 의해 귀국한 親日性向이 짙은 인사라는 것, 정동구락부 구성원에는 親日人士를 배제했다는 것, 정동구락부의 정치이념이 親露反日政策을 표방하고 있었다는 것 등이 그 이유가 되고 있다. 다만 정동구락부가 親日政權을 타도하겠다는 정치목표를 달성한 후(俄館播遷) 1896년 7월 2일 徐載弼이 주도하는 獨立協會에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을 한 것 같다. 77)

정동구락부가 발족한 이래 위로는 高宗과 閔妃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고, 밖으로는 미 · 로 공사의 후원을 입어, 막강한 정치단체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皇室과 정동구락부, 미 · 로 공사관과 정동구락부를 맺어주는 중개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손탁양이었다. 손탁양은 宮內府에서 外人接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동자금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貞洞 漱玉軒 손탁양 私邸는 정동구락부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治外法權의인 구역 貞洞 손탁양 사저에서 정동구락부 인사들이 자유로이

모여 정치활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민비를 중심으로 한 친로파 세력의 존재는 일본의 대한 침략기도에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그 중심인물 민비를 제거하는 이른바 閔妃弑害事件(乙未事變)이 발생한 것이다. 三浦梧樓 신임일본공사는 壯士패와 訓練隊를 앞세워 잔인무도하게 國母를 시해한 것이다.(1895. 10. 8). 그 결과 坤位를 잃은 高宗은 비탄과 울분, 불안과 공포속에 景福宮에 감금되어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는 포로같은 幽囚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제 貞洞俱樂部의 당면과제는 국왕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정동구락부는 미국공사 시일, 서기관 알렌의 적극 지원을 받아서 1895년 11월 28일, 민비시해사건에 대한 보복, 국왕구출, 친일정권 타도 등을 목표로 春生門事件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공사관 측은 본국정부로부터 “조선의 정치문제에는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는 이른바 “外交訓令 第64號”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⁷⁸⁾ 시일 공사와 알렌 서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정동구락부의 국왕구출계획을 적극 지원한 것이다. 미국 공사관측은 정동구락부의 피난정객들을 보호조치했다는 것, 거사당일 선교사 3명을 경복궁으로 파견, 국왕의 신변을 보호했다는 것, 거사실패 후 尹雄烈을 변장시켜 중국으로 탈출시켰다는 것 등이 바로 미국관련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제1차 국왕구출작전인 춘생문사건이 실패한 후 정동구락부는 제2차 구출작전을 은밀히 계획하게 되었다. 斷髮令 발표로 전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義兵봉기를 계기로 1896년 2월 11일 국왕을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하는 俄館播遷을 단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동구락부는 春生門事件, 俄館播遷을 연속 주도한 것이다. 春生門事件에서는 미국공사가 적극 후원한데 반하여, 아관파천에는 웨베르 러시아공사가 병력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거사가 성사된 것이다. 그 결과 金弘集 親日內閣이 붕괴되고 親露內閣이 발족된 것이다.

俄館播遷으로 정동구락부의 정치적 至上目標인 국왕구출, 친일내각 타도, 민비시해사건에 대한 보복 등이 실현된 것이다. 아관파천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선정부의 自主性 喪失을 들 수 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외국의 공사관에 피신해 있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국가의 체통에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존엄상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外勢依存의 악폐를 남겼다는 것이다. 自主的 개혁 정치집단이

주체적 힘에 의해 政變을 이룩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러시아와 미국의 힘을 빌어 일본 침략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셋째, 아관파천으로 각종 경제적 이권을 열강에게 할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열강의 對韓經濟的 侵略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아관파천은 露日戰爭 勃發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관파천으로 친로내각이 형성되고 이로부터 러시아의 한반도 지배기(1896. 2. 11 ~ 1898. 3. 12)가 개시됨에 따라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露日 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 檀國大 史學科 教授

- 1) 李基白, 『韓國史新論』(一潮閣, 1976)
 邊太燮, 『韓國史通論』(三英社, 1986)
 李瑄根, 『韓國史』 現代篇(震檀學會, 1968) pp. 684~685
-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권19(1990), pp. 741~742,
 「정동구락부」(趙恒來); 권22(1991) p.563, 「춘생문사건」(柳永益)
- 3) 『舊韓末條約彙纂』上(國會圖書館, 1964) p.9.
- 4) 金源模「清日戰爭前後期 美國의 對極東政策이 日本의 韓國侵略에 끼친 影響」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一潮閣, 1985) pp.135~169; 「美國의 親日政策이 日本의 韓國侵略에 미친 影響, 1880~1910」(『美蘇研究』創建號, 1987)
 pp.13~45
- 5) 文一平, 『韓美五十年史』(探求堂, 1975) p.232; 金道泰, 『徐載弼博士自敘傳』
 (수선사, 1948) p.215; 金源模, 「貞洞俱樂部와 春生門事件」(『一洋』1986년 5월 호) pp. 6~7.
- 6) 김원모, 「구한말을 주름잡은 러시아인들」(『한국인』 1991년 11월호) pp. 22~26.
- 7) 金源模, 「존타크호텔과 스트레이트의 悲歌」(『一洋』 1986년 6月號) pp.26~27.
- 8) Horace n. Allen, Korea Fact and Fancy, Being A Republication of Two Books Entitled "Korean Tales" and "A Chronological Index"(Seoul :

-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p.211, april, 1900.
- 金源模, 『近代韓國外交史年表』(檀國大出版部, 1984) p.174.
- 9) 李哲源『王宮史』(東國文化社, 1954) pp.88~94.
 - 10) 『舊韓國外交文書』(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卷12(美案 3)
pp.327~329, Allen to You Key Whan, July 16, 1902.
 - 11) U.S. Department of State,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Korea, 1883~1905(Korea Despatches), File Microcopies of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C. : No.134, vol. 13,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3, 1897.
 - 12) 李哲源, 앞의 책, p.99. "重明殿 一名 漱玉軒 今爲外人俱樂部 在現宮城外 美國大使館西 光武八年高宗及皇太子(純宗)避火災于此 光武九年 乙巳保護條約 調印之地 純宗常御之所(昌德宮移御前)小坡貞雄"; 『外人の觀たる朝鮮外交秘話』(朝鮮外交秘話出版會, 1934)pp. 199~200.
 - 13) Louis Graves, "Williard Straight at the Legation in Korea", Asia 20 (December 1920) pp.1079~1086.
 - 14) Allen, Korea : Fact and Fancy, p.206, September 11, 1898
金源模, 『近代韓國外交史年表』, pp. 165~166.
 - 15) 「1905~1907年 大韓每日新報吽噠事件」『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李光麟, 『韓國開化史의 諸問題』(一潮閣, 1986) pp.259~260; 『京城府史』(京城府, 1934) 卷1, pp.651~652.
 - 16) 『官報』(號外) 開國 504年 8月 22日 : 『高宗純宗實錄』中, pp.570~571, 高宗 32年 8月 22일條; 市川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 : 韓國王妃殺害事件』(原書房, 1981) pp.436~453.
 - 17) "Official Report on Matters Connected with the Events of October 8th", Korea Repository. 3(1986) p. 135; Horace N. Alle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K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p.275. "I cannot reco-

gnize this decree as coming from his Majesty”.

- 18) Frederick A. Mckenzie, *The Unveiled East*(London : Hutchenson and Co., Patternoster Row, 1907) p.154.
- 19) Jeffery M. Dorwart, "The Independent Minister: John M.B. Sill and the Struggle against Japanese Expansion in Korea, 1894~1897, "Pacific Historical Review, 44(November 1975) pp.485~502.
- 20) 『續陰青史』상, p.391, 建陽 2년 8月條.
- 21) 愼鏞廈,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81) pp.12~13, 82~84 ; 柳永烈, 『開化期の尹致昊研究』(한길사, 1985) pp.105~106.
- 22) 釋尾春菂, 『朝鮮併合史』(朝鮮及滿洲社, 1926) p.114 ; F. A.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N.Y.: E.P. Dutton and Co., 1908) p.38
- 23) 菊池謙讓, 『朝鮮雜記』(鷄鳴社, 1931) pp.177~178.
- 24) 金源模, 「朴定陽의 對美自主外交와 常駐公使館開發」(『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東洋學論叢』1984) pp.363~364.
- 25) 『京城府史』 卷1, p.663.
- 26) 柳永烈, 앞의 책, pp.105~106.
- 27) 金源模, 『알렌의 日記』 1897. 10. 14(壇國大出版部, 1991) p.185.
- 28)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Fleming H. Revell Company, 1918) pp.147~148.
- 29) Ibid. ; 『舊韓末秘錄(에비슨)』上(大邱大出版部, 1984) p.44
- 30) Ibid.,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N.Y.: American Tract Society, 1904) pp..155~156.
- 31) 義和君은 高宗의 둘째 아들 垺, 190년에 義親王에 봉해졌다.
- 32)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p.157 ; Clarence N.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N.Y.: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1962) p.299.
- 33) Allen, *Korea: Fact and Fancy*, p.194, October 8, 1895 ; 李瑄根『韓國史』現

- 代篇, p.684; Yun Chi-Ho's Diary(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1975) vol. 4, pp.104~105, December 13, 1895.
- 34) Allen to Jennie Everett, November 5, 1895, in the Allen MSS; 『日本の 한국침략사료총서』권21, (한국출판문화원, 1988) pp.290~294;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p.276.
- 35) Foreign Relations, pp.972~974, Olney to Sill November 11, 1895;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pp.279~280.
- 36) Dorwart, "The Independent Minister : Sill." pp.499~500.
- 37) 『大韓季年史』(韓史編纂委員會, 1971)上, pp.122~123. 高宗 32年 9月 13日條.
- 38)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p.155.
- 39) 『高宗時代史』卷3, p.1024, 高宗 32年 10月 11日條.
- 40) 일본측은 국왕구출작전인 春生門事件을 한결같이 '國王奪取事件'이라 일컫고 있다. 한 나라의 君主를 무슨 물건을 탈취하는 듯이 이를 비하해서 표기하고 있다. (『京城府事』卷1, p.637; 『朝鮮併合史』, 가.174).
- 41) 『韓國史』現代篇, p.684; 菊池兼讓, 『朝鮮王國』(民右社, 1896) p526.
- 42) 『京城府史』卷1, p.634; 『한국사』현대편, p.697.
- 43) 『續陰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60) p.383, 高宗 32年 을미 2月 10日條 『韓國史』現代篇, pp.684~685; 『新聞』集成 明治編年史』권9, (재정경제학회, 1936) pp.327~328.
- 44) Yun Chi-Ho's Diary, vol. 4, pp.93~94, November 27, 1895.
- 45)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pp. 159~160; "The Independent Minister: Sill", pp. 499~500
- 46) Underwood of Korea, pp.149~151; Fifteen Years Among the Knots, pp.161~162, 李哲源 『王宮史』, 高宗寢殿 坤寧閣, p.36.
- 47) 『舊韓末秘錄』上, pp.50~56.
- 48) Underwood of Korea, pp.149~151 :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pp.161~162.

49) 『舊韓末秘錄』上, pp.540~556.

50) 위의 책, pp.55~56.

51) 위의 책, pp.54~55.

52) 위의 책, p.53.

53) 李瑄根, 『韓國史』現代篇, pp.687~689; 『朝鮮併合史』, pp.174~175.

54) 『官報』開國 504年 11月 15日, 「裁判宣告書」.

55) Yun Chi-Ho's Diary, vol. 4, pp.94~96, November 28, 1895;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p.285; 『舊韓末秘錄』上, p.47.

56) Korea Despatches, vol. 12, Sill to Richard Olney, December 3, 1895.

57) 『新聞集成 明治編年史』卷9, pp.327~328, 「朝鮮侍衛隊 王城에 亂入」(11. 29 東朝).

58) Yun Chi-Ho's Diary, vol. 4, pp.101~102, December 9, 1895.

59) Yun Chi-Ho's Diary, vol. 4, pp.97~98, November 30, 1895; Fifteen Years Among the Top Knots, pp.164~166;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p.286; Underwood of Korea, pp.151~152.

60)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p.77.

61) U.S. Department of State, Papers Relating to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972~974, Olney to Sill, November 11, 1895;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pp.279~280.

62) 『朝鮮併合史』p.190; Yun Chi-Ho's Diary, vol. 4, pp.100~101, December 4, 1895.

63) Allen, Korea: Fact and Fancy, p.195, January 20, 1896.

64) 李瑄根『韓國史』現代篇, p.717, 726.

65) Allen, Korea: fact and Fancy, p.195, February 9, 1896.

66) 『朝鮮併合史』, p.175, 189; 『新聞集成 明治編年史』卷9, pp.373~375.

- 67)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p.175; Korea Despatches, Sill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ruary 11, 1896; Allen MSS., Allen to Heard, May 20, 1896; James S. Gale, Korean Sketches(Edinburgh and London, 1898) pp.208~209.
- 68) 信夫淳平, 『韓半島』(1901) pp.503~504; 『京城府史』권1, p.637. 一說에는 迎秋門이라고 주장하는 축도 있지만, 국왕의 침전인 坤寧閣과의 거리로 보아 神武門이 확실시되고 있다.
- 69) 『新聞集成 明治編年史』卷9, pp.375~383; 『京城府史』卷1, pp.637~639.
- 70) 『韓半島』pp.46~47; 『朝鮮併合史』, pp.178~179, 190~191;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p.38.
- 71) 「亞偏壁羅, 故李]太王 謁見記」, 『三千里』4권 10호(1932. 10); 『韓半島』 pp.504~505.
- 72) 『朝鮮併合史』, pp.219~220.
- 73) 奎章閣圖書 : 23179, 23180, 京仁間 鐵路合同 ; 奎章閣圖書, 雲山광約 ; 奎章閣圖書 : 23267, 23268, 鏡源鐘城兩處광山採掘權准許契約書 ; 奎章閣圖書 : 23321, 23322, 京義鐵道合同 ; 『京城府史』卷1, p.647 ; 金源模, 『近代韓國外交史年表』, pp63~75, 154.
- 74) 김영상, 『서울명소고적』(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8) pp.62~63 ; 『京城府史』卷1, pp.648~64.
- 75) 「高宗時代의 미공개 사진들」, 『週刊朝鮮』1991. 10. 20. pp.26~31.

76) 金道泰, 『徐載弼博士自敘傳』(首善社, 1948)) p.215.

77) 愼鏞廈, 『獨立協會研究』, pp.82~86.

78) Foreign Relations, pp.972~974, Olney to Sill, November 11, 1895 :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pp.279~280.

(「박영석선생회갑기념논총」下, 1994년에 수록)

서울 南山의 景觀 價値에 관한 研究

—朝鮮時代의 風流文學에 表現된 景觀관을 中心으로—

朴 明 子

漢陽大學校 環境科學大學院

目 次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第 2 章 서울 南山의 歷史的 背景

第 1 節 定都의 概念

1. 서울의 개관

2. 고려의 남경

3. 尊都의 동기

第 2 節 地形的 概念(風水地理의 概念)

1. 帝都의 조건

2. 서울의 入首

3. 서울의 穴星과 穴

4. 서울주위의 砂

第 3 節 都市景觀의 概念

1. 南山의 명칭과 연혁

2. 南山변천의 역사

第 3 章 風流文學의 景觀價値의 考察

第 1 節 서울 南山의 풍속적 位相

1. 南山과 民俗

2. 南山과 朝鮮時代의 人物

3. 南山과 敘景文學

4. 古代小說 許生傳속의 南山	
第 2 節 李荇의 風流觀	
1. 李荇의 생애	
2. 李荇의 自然觀	
3. 南山의 淸遊形態	
第 3 節 鄭以吾의 南山八詠	

第 4 章 現在 서울 南山의 都心景觀의 位相

第 1 節 南山의 自然環境	
1. 地形	
2. 動植物	
第 2 節 南山公園의 施設 現況	
1. 公園	
2. 各種施設	
第 3 節 南山의 景觀 構造 및 利用形態	
1. 景觀 구조	
2. 利用形態	
3. 南山公園의 受難史	

第 5 章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圖目次

도 2-1 人子須知의 紫微垣地形圖	
도 2-2 紫微垣서울地形圖	
도 2-3 衝千木星圖	

도 2-4	穴星圖.....
도 2-5	十二運星表.....
도 2-6	景福宮의 坐向
도 2-7	서울의 地形圖.....
도 3-1	도식화 해 본 옛 남산의 8경도
도 4-1	남산의 주요식물 분포도
도 4-2	남산의 현존 식생도.....
도 4-3	남산의 SKILINE 잠두산
도 4-4	남산 현황도

表目次

표 4-1	남산의 각 식생형별 분포면적
표 4-2	남산의 이용시설 현황
표 4-3	남산공원내의 기존건물 조서

第一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서울의 南山은 歷史的으로나 地形的으로나 景觀的으로 수도서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서울 시내의 어느곳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南山은 4계절을 통하여 自然景觀이 매우 수려할 뿐만 아니라 南山에서만이 眺望되는 一望無際의 壯觀을 吟味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의 陸標(landmark)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1960年代에 200萬에 불과하던 서울 人口가 30여년만에 1,000萬이 넘는 巨大한 灰色의 concrete 樹林都市로 변모하므로써 南山은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잠식되어, 오늘날 物理的 空間의 位相과 景觀的 價值機能의 回復이 중대차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이러한 시대적 현상과 軌를 같이하여 1990년 8월부터 南山의 제모습찾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 대해 造景學的인 측면에 입각하여 자연경관을 지극히 愛護했던 우리조상들의 南山에 대한 景觀관을 風流文學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紋景文學의 價值觀을 道出해봄으로써 올바른 都心景觀價值와 서울 南山의 位相을 진작시키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第 2 節 研究範圍 및 研究方法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 南山일원의 역사적 배경과 지형, 景觀적 位相을 고찰하고 南山의 풍류 문학에 나타난 適所空間을 통하여 시대적 풍류관을 도출하고 현재 南山의 景觀的 位相과 비교 검토하므로써 適所景觀의 재구현을 시도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서울 南山의 風俗的 位相
2. 李荇과 鄭以吾의 紋景文學의 價值觀의 調査 및 分析

第二章 서울 南山의 역사적 배경

第 1 節 定都의 概念

1. 서울의 개관

백제는 21대 蓋鹵王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熊津(지금의 공주)으로 옮길 때까지 120여년간 漢陽에 도읍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서울이 王都가 된 최초이고, 그후 고구려의 平原王도 일시 이곳에 도읍했다고 전해진다.

그후 신라를 거쳐 고려중엽부터 서울의 목멱산(木覓山 : 지금의 南山)에 궁궐을 지어 남경이라 칭하고 그 말엽에 이땅으로 천도할 뜻이 있었다. 조선조 태조가 개성에서 즉위하고 王師 무학의 말을 들어 천도의 뜻을 결심하고 白岳의 남쪽기슭에 궁궐(지금의 경복궁)을 지어 태조 3년 10월 1일 일관들과 함께 이전했다 定宗朝때 일시 개성으로 환도했지만, 태종 5년이래 5백년간 국도가 되었다. 성곽의 주위는 9,975 보이고 累石의 성벽이 있다. 그 높이 28척여이고 8개의 문이 있으며 절문 위에는 누각을 지었다. 준공까지 20여만명의 부역 인부가 동원되었다. 그리고 城內를 東西中南北의 5署로 구분하고 49방(坊), 340洞으로 나누어 당당한 國都의 형식을 갖추었다. 서울은 동경 126도 59분, 북위 37도 34분에 위치하고 북으로 白岳, 남으로 南山, 서로 仁旺, 동북으로 같은 여러 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성곽을 이루고 있다.

이 形勝을 이룬 산하를 살펴보면 북쪽으로 삼각산, 백악의 두산이 있다. 삼각산은 높이 636미터, 華山 또는 북한산이라고도 하고, 강원도 분수령에서 다가와 連峯疊岳이 구불구불 에워싸고 구부러져 楊州 西南을 이르켜 그 餘脈이 돌기한 산이다. 白雲, 國望, 仁壽의 三峯과 더불어 구릉속에 솟아나 흡사 세 줄기의 부용처럼 3개의 角을 이루어 三角이라 이름지어졌다. 국망봉은 萬景臺를 말하는데 만경이란 그곳에서면 산하가 만경처럼 들어온 데서 유래하고, 국망이란 이태조가 無學을 시켜 國都의 터를 선정케 했을 때 무학이 이대 위에 서서 살폈다는 즉 국도를 望相한데서 기인한다. 인수봉은 백운의 동쪽에 있으며 〈仁者樂山〉〈仁者壽〉란 뜻이다. 白岳은 일명 北嶽山이라고도 한다. 높이 143미터, 삼각산의 남쪽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面岳으로서 알려지고 삼각산 만경대에 돌출해 있으

며 흡사 모란꽃(목단화)이 필듯한 봉우리와 같다. 서울의 鎭山이며 그 산기슭에 궁궐이 자리잡고 있다.

남쪽에 솟아있는 265미터의 산을 남산이라고 한다. 終南山, 또는 木覓이란 별칭이 있다. 목멱이라고하는 것은 남산은 訓讀한 것이라고 한다. 즉 목(木)은 한국어의 [나무] 또는 남이고 멱(覓)은 岳의 音子인 산을 말한다. 最高峰을 蠶頭, 흔히 가을두(加乙頭)라고 칭하며 또 龍頭라고도 한다. 남쪽을 大雪馬峴이라고 한다. 즉 서울의 城內 案山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서울의 지리를 설명하여 <北據華山, 南臨漢水>라 했고, 같은 책에 실린 權近의 詩 <一水繞南流 三鎭北聳峯嶸> 또 정인지의 序에 <京道背負華山, 面對漢水, 形勝甲天下>라 했다.

漢水는 지금의 漢江이다. 멀리 북동쪽에서 흘러와서 남산의 남쪽을 감고돌아 남쪽으로 흘러가며 그 사라짐을 볼 수 없다. 백악과 인왕산 사이에서 발생하여 동쪽으로 흘러 도성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것이 開川 또는 청계천이 되고 백악, 인왕, 남산 여러 계곡의 물을 모아서 남쪽으로 3개의 물줄기는 中梁浦에서 한강으로 합류한다. 서울에는 開川이 궁궐의 전방을 북서에서 동남으로 돌아 명당수가 되고 한강을 북동에서 서남으로 남산을 돌아서 도성을 포옹하고 있다. 개천은 襟과 같고 한강은 帶와 같아 그야말로 山河襟帶 그대로이다.

이것을 개관하라면 서울의 지리는 풍수적으로 잘 갖추어진 국도로서 적합한 곳이다. 옛부터 수도로 선정된 것은 그다지 의아할 것이 없다. 국도의 두가지 조건인 생활의 방위 및 경제의 요소를 충분히 갖추었던가 아닌가는 잠시 그만두고 풍수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검토해 본다.

2. 고려의 남경

서울을 왕도로 정한 것은 고려의 숙종 元年(1096)때부터이다. 고려초에는 楊州라고 칭했던 것을 문종 2년(1043)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신궁을 짓고 離宮을 두었다. 그후 숙종원년 가을 7월에는 이땅에 국도를 천도해야만 한다는 설까지 나왔다. 이것이 서울을 국도의 후보지로 한 최초이다. 이 천도설을 衛尉承同正 金謂의 상소에서 발단이 되어 군신들이 동조함에 드디어 그해 4년 가을 9월에 숙종이 친히 이땅을 巡閱하기까지 진전되었다. 그

상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道詵記에 의하면 고려에 삼경이 있다. 松岳을 中京이라 하고 木覓壤(壤은 지의 의미, 즉 지금의 서울)을 남경이라 하며 평양을 서경이라 했다. 11, 12, 1, 2,월의 4개월간은 중경에서 살고 3, 4, 5, 6,월의 4개월은 남경에서 보내고, 7, 8, 9, 10,월의 4개월은 서경에서 보내면, 36개국이 조공을 바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 개국후 160여년이 되면 목맥양에 도읍을 정할것이라 했는데 지금이 꼭 그 시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중경과 서경을 있어도 남경이 없으니 비기에 따라 삼각산의 남쪽, 목맥의 北坪(平地)에 도읍을 정하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고려사』)

숙종은 宰臣 및 日官(天文陰陽官)에 명해서 남경 건설에 관해 논의케 하였고 그후 왕은 왕자및 왕후와 함께 삼각산에 친히 나아가서 가까운 양극에서 전도(奠都 : 도읍을 정함)의 땅을 감상했다. 이미 여러 신하의 결의가 있었고 왕이 친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서울을 남경으로 삼아 궁궐을 축조하는것은 시간문제였다. 처음에는 왕의 어의를 봉안하는 등 擬制的으로 행하고 있었으나 후에는 왕이 친히 겨울동안 이곳에 머물렀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선비기』에 의한 풍수적 신앙때문에 서울을 국도로 삼으려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한 뜻은 고려초기에서부터 이미 확실했던 것이다. 고려에서는 풍수상 도읍이었으나 조선조에서는 실제의 국도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풍수천년의 도읍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도(奠都)의 동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자 易世 천도의 전례에 따라 국도를 옮긴 것은 정치 정책상 득을 얻은 것이다. 이태조가 즉위하자 개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새롭게 李氏의 국도를 건설하려고 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고려 왕씨는 신라의 국도 경주에서 즉위하지 않았다. 왕씨는 조상때부터 풍수적으로 양호한 개성을 국도로 하여 즉위하였던 것이다. 옛국도를 버리고 새롭게 신도를 탐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李氏는 자신이 도읍을 정할만한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왕씨의 永業의 都였던 개성에서 즉위했던 것이다. 前朝의 구도에서 新政을 베푼다는 것은 策을 얻을것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이씨는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국도를 옮겨 새롭게 함과 동시

에 인심을 개혁할 필요를 느꼈음에 틀림없다. 이것이 천도의 한 동기이다.

第二節 地形的 概念 (풍수지리적 개념)

1. 제도(帝都)의 조건

한 국가의 제도가 되는 곳은 天子가 常居하는 京畿이며 만방의 추회가 되는 곳이므로 이곳으로부터 모든 행정령이 발령되서 전국을 다스리고 만백성을 어루만지고 거느리는 至尊地라 하니 제도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나 함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과 같이 요구조건이 되는 것이다.

첫째, 天星垣局에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正龍의 鐘氣된 곳이라야 한다.

세째, 국토의 中正을 得해야한다.

네째, 교통의 편리함을 득해야한다.

다섯째, 外侵으로부터 방어능력을 갖춘 곳이라야 한다.

이중에서도 첫째와 둘째는 반드시 부합되어야 歷年도 오래가고 국가가 흥성할 수 있다 하니 절대로 缺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된다 하겠다. 그럼 서울 도성이 이들 조건에 어떻게 맞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첫번째 천성환국에 부합되어야 한다함은 도성의 지형은 반드시 天象을 닮아서 형성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人子須知天星論』에 보면 天에서 星宿으로 분별되고 地에서는 山川으로 분류하여 氣는 地에서 행하고 形은 天에서 비취준다. 그러므로 天에는 象이 있고 地에는 形이 있으니 上下가 서로 기다리고 相意하여서만이 하나의 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였고, 寥金精의 『建都 入式歌』에는 帝都는 星垣에 합하는 것을 필요로 하니 紫微가 中天에 居하고 天市와 太微가 그 다음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은 다 帝坐가 있음이라 하였다.

人子須知의 『諸都論』에는 모든 建都는 正龍의 鐘氣된 바를 득하고 천성환국에 부합되어야 傳代가 많고 年歷도 오래간다 하였고 楊求貧은 山形은 비록 地上에 있으나 그 精光은 星次에 속하며 體와 魄은 地에 있으나 精氣와 靈光은 天에 달려 있으므로 星光의 眞精藝를 識得한 연후에 건설할 수 있으니 地는 학이라 하였다.

이밖에도 수많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한나라의 도읍지가 되려면 天地의 合成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天星에 비취진 서울의 局勢는 紫微垣局에 일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人子須知의 紫微垣 地形圖(도 2-1)와 필자가 작성한 지형도(도 2-2)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곧 서울특별시의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서울六白年史』 제 1 권에서 보는 서울의 지형도와(도 2-7) 함께 天星으로 자미원국에 正合됨은 누구나 직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의 조건은 서울 도읍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일 것이다. 都邑을 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가령 玄方의 北岳을 主山으로 하여 壬坐丙向을 놓았다는 것이다. 帝都는 南面을 하고 다스린다는 것 등을 모두 서울 都城을 紫微垣局으로 보고 이용한 것이다.

둘째로 正龍의 鐘氣된 곳이라야 한다함은 큰 산과 큰 물이 大會하여 형세적으로 장풍득수가 잘 이루어진 곳을 말하니 이는 말할 것도 없이 生氣를 많이 모아 놓은 곳을 말한다. 서울의 暎都가 그러하다.

풍수지리는 생명력인 生氣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方法論을說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나 굳이 축소하여 말한다면 지형지세가 水勢와 반역되는 곳에서 生氣가 모인다. 이를 “地理要逆”이라고 지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山이 물의 흐름을 반역하여, 겹겹이 가로 막아서 조밀한 형세를 이루면 바람을 잘 막아주어 기가 머무르게 된다. 또한 두 물이 합하여 山의 진행을 가로막으면 龍氣는 머무르게 되며 여러 가락의 물이 모이면 여러 山脈이 모이는 것도 되니까 많은 氣가 모인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많은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면 山脈이 멀리워서 크게 그친 것이니 많은 氣가 모일 것이고 주위의 산이 많아서 바람을 막아주면 모여있는 생기가 흩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큰 터가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수도 서울의 지세를 살펴보면 廣州山脈이 5 ~ 600리를 힘차게 뻗어와 한강과 임진강의 交合으로 크게 결속시키고 大盡하니 大幹龍의 正結處로 양질의 生氣를 모은 곳이며 장풍득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곳이라 하겠다. 많은 지리書에 지적하기를 “眞龍과 眞應水가 回抱하는 곳에는 반드시 眞穴을 結作하는 법이라”하였다. 분명히

서울은 하늘이 所結한 도읍지요 神이 만든 걸작품임에 틀림없으며 또 실험적으로도 국토의 中止를 잃지 않았고 교통의 중심됨은 물론 射貨와 交步가 교차되는 大明堂의 요건을 고루 갖춘 곳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周易을 비롯한 각종 地理書에 이르기를 “天地도 全功이 없고 聖人도 全能이 없다”하였으니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음을 말한 것이다. 서울이 좋다한들 어찌 완전하고 영원하기만을 바라겠는가 서울터가 지니고 있는 결함을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첫째, 도봉산이하의 入首가 德을 갖추지 못하였고 粗惡하여 참암한 煞氣를 띠었다. 이는 타협과 용서가 모자라며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려야 하는 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到頭峯인 北岳이 한쪽으로 偏側한 것은 道德 정치가 아닌 左道 정사가 성행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군주와 백성들 사이에 불신이 있는 것을 말해주는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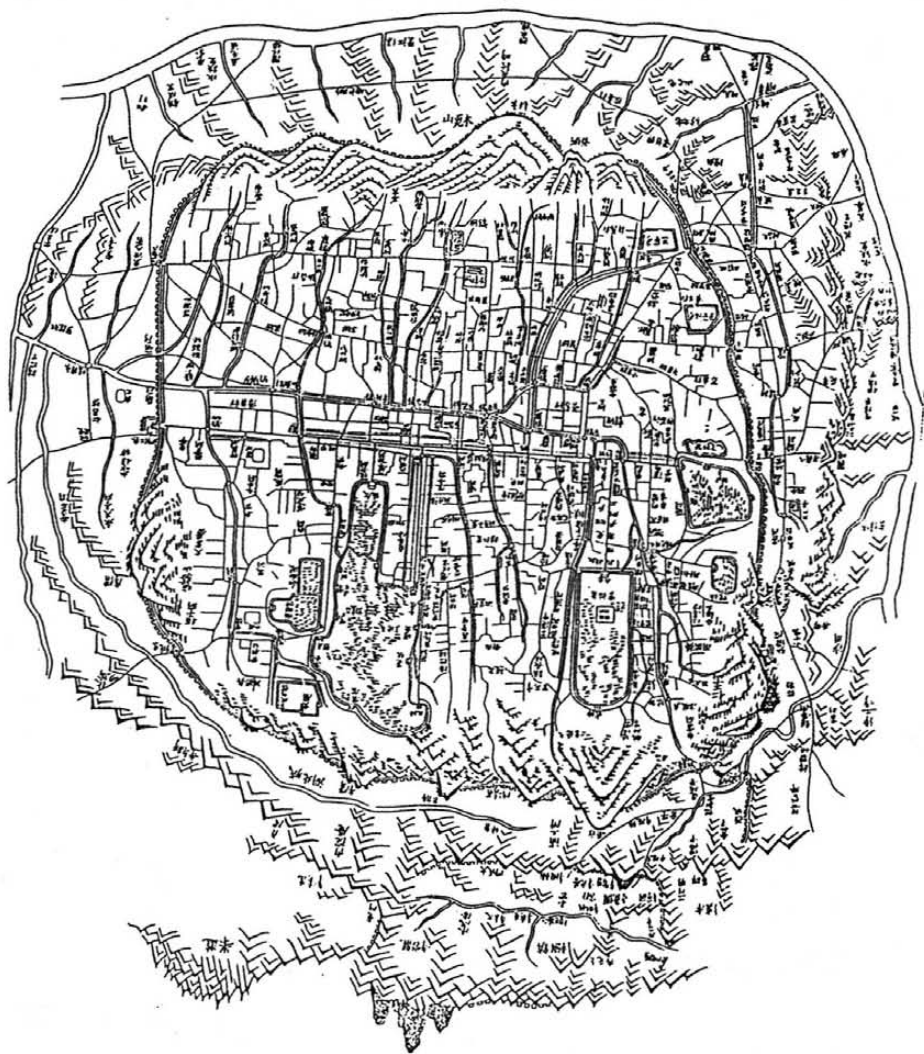
세째, 內白虎인 仁旺山이 지나치게 가깝고 높은데다 험한것은 右將이 主人을 능멸하는 상이다.

네째, 內白虎너머로 西北이 허한 것은 將帥는 유능하나 이를 따르는 兵卒이 모자라 고 군분투하는 상이라 하겠다. 煞은 武이며 煞伐함이 있는 곳에는 해학이 모자라 대화함에 타협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入首의 雄偉함은 끈기있는 저력의 상징이며 入首의 많은 문필은 지식이 많은 일등국민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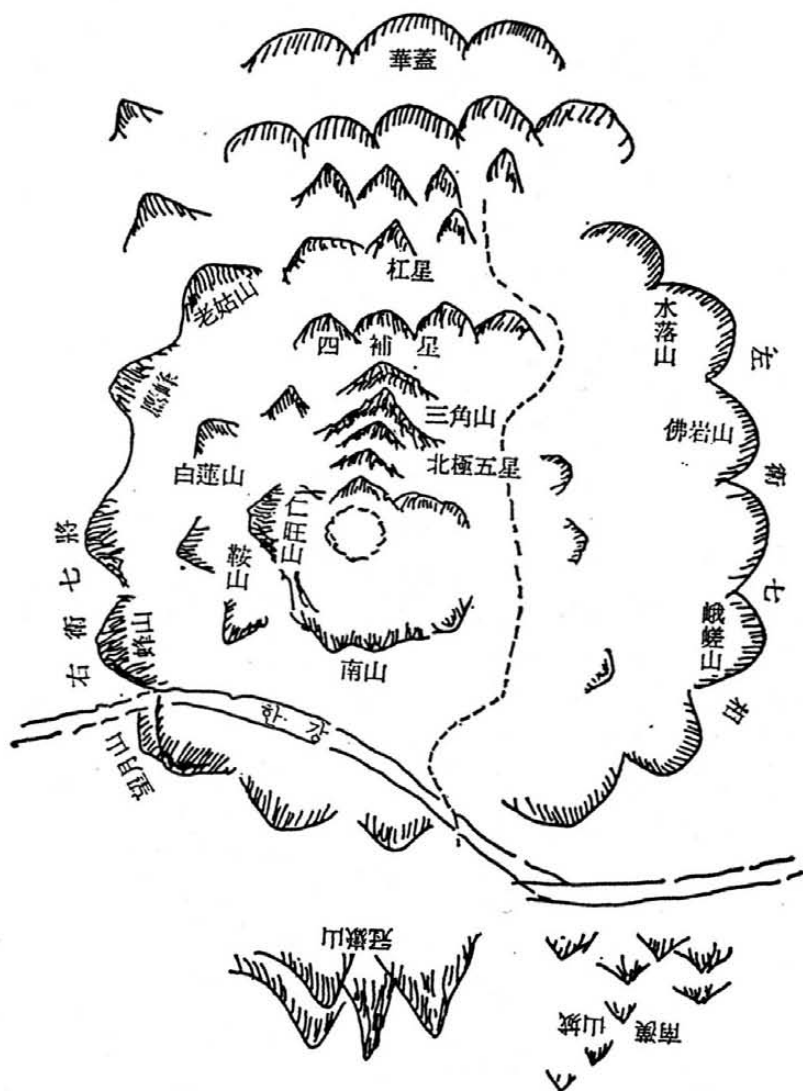
상서에 “君子는 奪神功하고 改天命함이니 全承生氣文理로 衰變爲旺하고 易禍爲福하여 功在神이어든 奪之自我하고 命在天이어든 改之自我하라”하였으니 결함이 발견되면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이용을 함으로 凶을 福으로 바꿀수 있고 神의 저주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地理는 본시 이용하는데 묘가 있는 것이다. 天地에는 靈力은 있으나 마음(心性)이 없고 인간은 偉力은 모자라지만 마음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天地一家를 작용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도 2-1) 人子須知의 紫微垣地形圖



(五 2-2) 紫微垣星圖地形圖

2. 서울의 入首

수도서울을 도읍지로 結作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入首이다. 入首라 하면 크게 도봉산으로부터 북악산까지를 통틀어 말할 수 있으나 엄밀히 天星과 대조하여 분석해 보면, 도봉산을 小祖山으로 하고 삼각산을 父母山으로 하여 북악산을 穴星으로 하고 북악산 아래로 이연한 곳 즉 경복궁 창경원 등 西大門內를 穴이라 구분할 수 있다. 송추고개에서 마지막으로 過峽을 놓고 主脈이 남쪽으로 뻗어나가 크게 치솟은 산이 도봉산이다. 도봉산이 아들산(도는 신하)인 삼각산의 위용에 눌리므로 祖業격인 격인 고려 왕조를 잊지 못하고 새로운 왕조의 도읍터로 결정된 것이다.

도봉산 이하로 서울의 入首는 大幹龍인 廣州山脈이 大盡하는 곳에서 氣를 모으고 크고 사납게 일어난 산으로 웅장하고 長遠한 규모와 함께 煞氣가 등등하여 四衛의 산을 모두 굴복시키는 위용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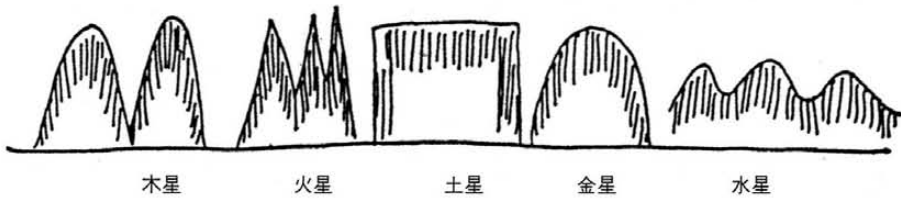
이 억세고 무서운 기세에 주위의 어떠한 산도 감히 대적하고 거역할 의사를 갖지 못하며 모두 이 산을 향하여 揖하고 있다. 20여리나 되는 入首山脈 대부분이 岩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산중에 산재하고 있는 奇岩怪石은 수만의 物形을 갖추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龍이 昇天하는 형상이라 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거북이, 호랑이, 天馬, 仙女의 모양을 갖춘 크고 작은 갖가지 형상들이 있다. 도봉산 정상근처에 있는 五峰山이 있는데 五虎將帥로 보는 이도 있고 五仙이 바둑을 둔다 하기로 하며 五聖이 모여 도덕을 강론한다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吉祥임에는 틀림없다.

五峰山에서 牛耳峴(소귀고개)를 건너 높이 솟은 三峰은 三角山으로 白雲臺, 仁壽峰, 露積峰 등 三峰을 말한다. 서울 入首脈가운데서 가장 높은 三角山은 主氣를 鐘聚한 곳으로 穴로서 볼 때도 父母山에 해당하나 그 모양이 각아 지른듯한 거대한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가까이서 보면 간담을 서늘게 만든다.

李重煥은 『택리지』에서 이 산을 가리켜 『衝天木星』(도 2-3)이라 하였다.

地理家들은 산의 모양을 五行의 性情에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중환은 三角山이 부분적으로 기둥처럼 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金木水火土의 五星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五神(星 또는 誠이 다 모인 산이다. 이는 서울 都城을 하나의 紫微垣局으로 볼 때 主宰處인 北極五星이 이 入首에 紐連되어 있기 때문에 天象과 지

(도 2-3) 人子須知를 포함하여 모든 地家書에 “本은 條達이니 直에서 象을 취하고 火는 炎焰이니 銳에서 象을 취하고 土는 厚重이니 方에서 象을 취하고 金은 周堅이니 圓에서 象을 취하고 水는 流動이니 曲에서 象을 취한다 하였다.



형이 일치한 것으로 크게 보인다.

이와 같이 서울의 入首는 위로는 天星에 통하고 아래로는 地理의 形勝을 달한 名山에 해당된다. 三角山의 山神은 영험하여 비는대로 다 들어준다고 하여 이 산어디에서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굿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옛날부터 쉽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목적은 다르지만 서울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맑은 물과 숲을 찾아 끊임없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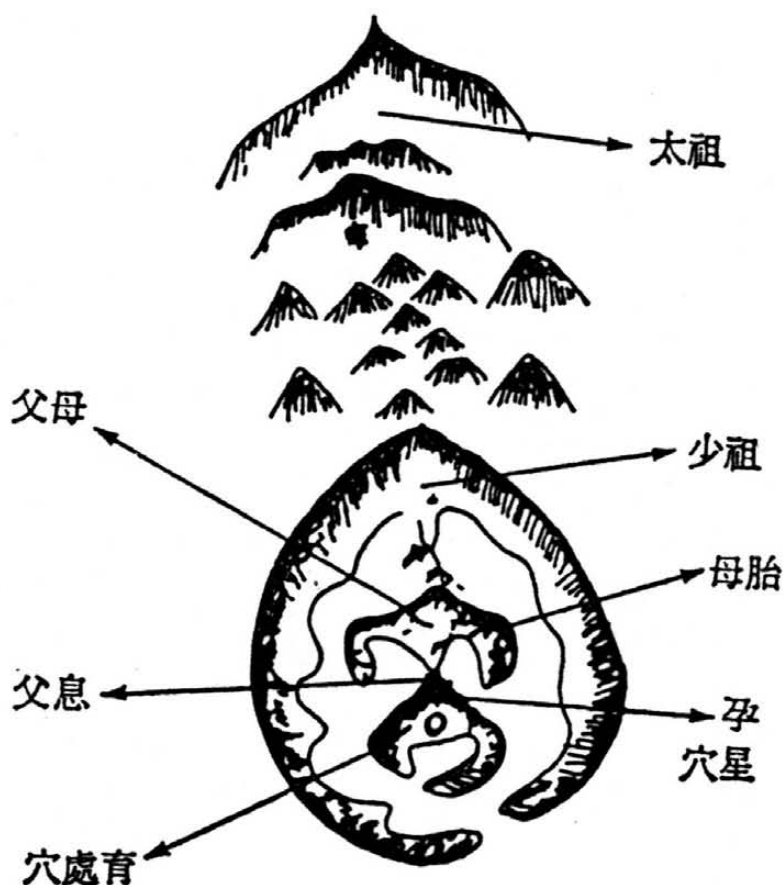
서울이 천하에 으뜸가는 大明堂이라고는 하나 어찌 결함이 없겠는가 龍이란 본래 먼 後龍에서는 粗惡할 수 밖에는 없으나 結穴處인 入首에서부터는 強力해도 德을 잃지말아야 하며 柔軟하되 放蕩하지 말아야하며 稠密하되 逼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의 入首는 粗惡하고 峻急한데다가 강력함이 지나쳐서 극도의 煞氣를 띠었고 주위의 砂水는 主龍과 벗이 되어주지 못하니 君主가 백성을 교화시키지 못하고 무력통치를 자행하므로 德을 잃으니 백성으로부터 받기쉬운 상이다. 煞은 武니 武人통치가 主宗을 이루고 不側한 煞龍은 不則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여 군주가 바뀔 때마다 피를 많이 흘려야 하는 결함 또한 안고 있다 하겠다.

仁子須知에 『大地는 無逢煞이면 不發이라』하니 서울이 큰자리가 되었음은 그러한 煞을 띠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마땅히 그 특수성에 알맞는 活用法으로 大煞은 피하고 中煞은 制하고 小煞은 나를 돕도록 회유시키는 妙策이 따라야 할 것이다.

3. 서울의 穴星과 穴

사성이란 穴을 보유하고 있는 主山을 말한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머니의 子宮이라

할 수 있다. 정릉에서 평창동을 연결하는 북악터널이 마지막 過峽(이곳은 結咽이라 함이 옳다) 結咽 후로 南山과 仁旺山을 제외한 모든 山은 穴성에 해당한다. 거대한 광주산맥의 기운을 모태시키는 곳이 북악산이다. 穴星인 북악산은 東으로 미아리고개를 지나 종암동 균청서 끝나고도 한맥은 서쪽은 北岳主山을 일으켰으니 이곳까지가 서울의 穴星이다.



(도 2-4) 「穴星圖」(風水地理 里程表에서 引用)

서울의 穴이라 함은 특별히 지칭하지 않는 한 좁게는 正龍의 主氣를 받는 正受穴을 말함이니 경복궁이 된다. 넓게는 四獸內를 모두 穴로 말할 수 있고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서울 전역을 다 포함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대개 地理의 龍穴說은 天造地說로서 생성된 自然의 妙인 것인만큼 처음부터 一毫의 勉強性도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꾸밈이 있었다면 오늘날까지 2천여년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참된 조화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궁궐터 하나를 結作하기 위하여 5 - 600리 먼길을 非常한 造化로 달려나와 生氣를 모아놓고 서리고 앉으니 이른바 上通天象하고 下達形勝한 理致의 모임이라 하겠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정도전, 무학 등의 조언을 들어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新宮은 前朝의 宮址보다 앞으로 더 내려서 壬坐丙向으로 築造하였으니 지금의 경복궁이 그 곳이다. 이때부터 서울 都邑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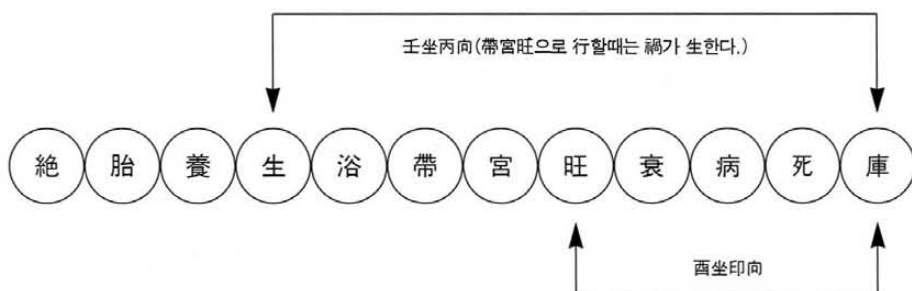
坐向에 대하여는 도읍 당시부터도 是非가 많았으며 정도전과 무학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정도전은 國都이므로 北岳을 主山으로 하여 壬坐丙向으로 놓아야 한다고 하였고 무학은 仁旺山을 主山으로 하여 酉坐卯向을 주장하였다. 이를 이태조가 壬坐丙向으로 결정하였는데 무학은 탄식하기를 "신라 名僧 의상대사의 山水비기에 의하면 도읍터를 정할때에 중의 말을 들으면 國運은 연장할 것이나 만약 正氏 성을 가진 자가 나타나 시비를 하면 五代 안가서 찬탈의 화가 생기고 200년 內外에 外亂의 厄을 입는다"고 하였으며 또 "이 비기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틀린 바가 없었다"고 하였다 하니 坐向논쟁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 말해주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상 적중되었음을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럼 無學의 酉坐卯向과 鄭道傳의 壬坐丙向에 대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오늘날의 시각과 風水地理學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北岳主山の 壬坐丙向 -

- ① 主幹龍의 正受穴이며 正結處이다.
- ② 紫微星垣의 北極尊星이 正南向이며 北岳山까지가 그 北極五星圈에 든다.
- ③ 君主와 朝廷은 南面을 하여야 이상적이며 先例도 그러하였다.

- ④ 內水口가 先天局 生向이며 外水口 漢江은 後天局 旺向이므로 年代가 오래 간다.
- ⑤ 宮터가 子坐午向局이나 內水口 辰方이 黃泉煞이 되므로 壬坐丙向으로 하였다.(現在는 子坐午向이다).
- ⑥ 主山이 粗惡하고 기울었으며 煞이 많고 白虎는 강하나 靑龍이 빈약하여 左道政事가 성행하므로 백성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 ⑦ 궁궐은 낮는데 白虎인 仁旺山이 가깝고 높아서 위압하므로 無에 의한 煞을 피할 수 없다.
- 仁旺山을 主山으로 한 酉坐卯向 -
- ① 主龍의 正受穴이 아니고 偏受穴이다.
- ② 紫微垣局의 北極五星을 벗어난다.
- ③ 左右龍虎山이 비교적 고르므로 벽살된다.
- ④ 後天局旺向이 되며 漢江이 朝水하므로 年代는 짧으나 國運이 왕성하다.
- ⑤ 黃天煞의 걱정이 없고 左右(文武)의 세력이 비교적 고르다.



(도 2-5) 楊求貧의 進神水法 및 청낭경·평사옥척경·地理五訣 등에 “水盡於四庫”라 하였으니 水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곳이 庫地이다. 곧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壬坐丙向은 九宮位가 되고 酉坐卯向은 五宮位 밖에 안된다. 따라서 따라서 壬坐丙向이 거의 두배 가량이나 年代가 길어진다. <十二運星表>

대략 이런 정도의 차이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서울은 紫微垣의 北極星이 正南面(子坐午向)을 하고 있으므로 정도전의 주장이 당연한 正論이라고 보인다. 다만 몇가지 피할 수 있었던 煞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섭섭한 것이기는 하나 한국가의 國道를 도모함에 있어서 작은 피해를 문제삼다가 大器를 그릇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坐向에 대하여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하여 모든 기록이 경복궁이 壬坐丙向으로 건축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현재 경복궁은 子坐午向으로 되어 있다. 壬坐丙向과 子坐午向의 차이는 15도인데 이만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로 찾아 보았다.

첫째는 불에 타 없어진 경복궁을 중건 증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번째는 大局을 경영함에 天星을 따라 子坐午向을 놓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黃天煞과 당시 天子國이라는 中國을 의식하여 壬子丙向으로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번째는 경복궁은 낮고 卑濕한데 南山은 높으니 南山을 正向하는 것을 피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仁子須知를 비롯하여 모든 地理書에 朝案論을 보면,

첫째, 案山은 低小하여야 마땅하며 外陽朝對의 山脚만을 가리어 朝山 밑으로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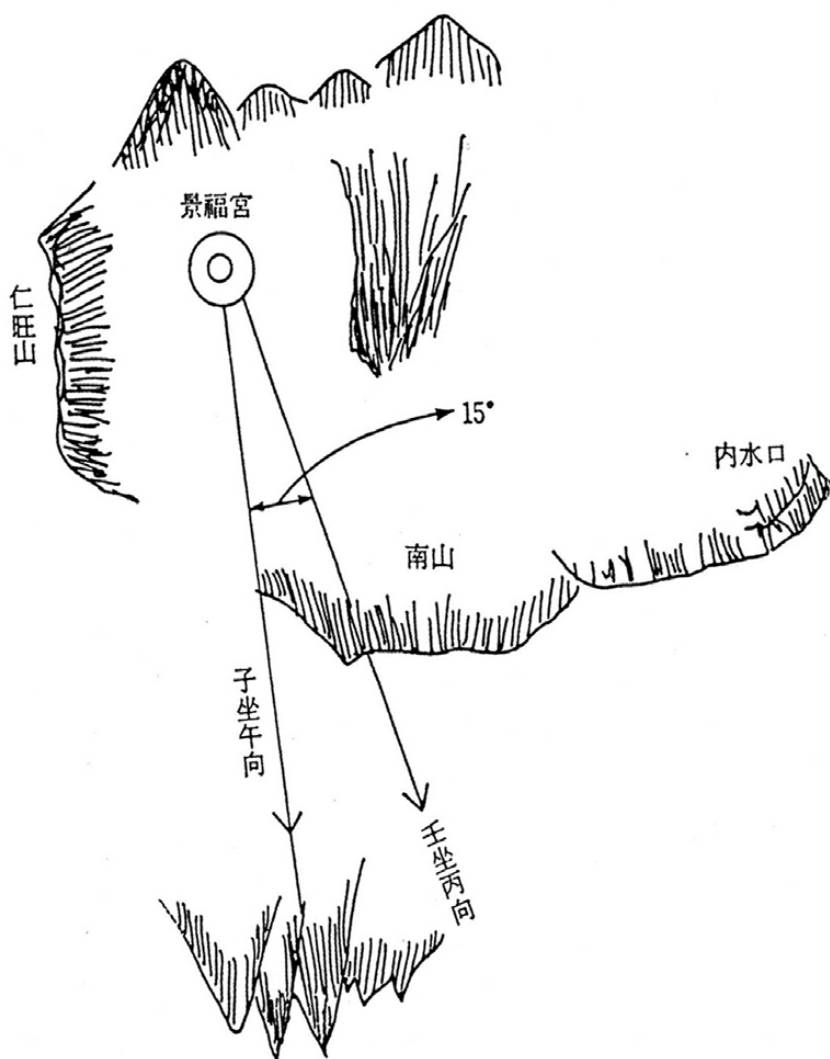
둘째, 遠朝는 衝天함이 두렵지 않으나 近案이 過腦함은 더욱 싫어한다.

셋째, 四獸가 너무 높아 穴을 누르면 고용인이 주인을 능멸한다.

네째, 案山이 逼迫하면 사람이 凶頑하고 가까우면서 穴보다 높으면 下剋上하니 不可하다 등은 경복궁의 坐向차이를 추측케 한다. 도(2-7)과같이 壬坐丙向은 案山이 높고 案山을 벗어난다.

4. 서울 주위의 砂

砂란 성 大局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주는 모든 산을 총칭하는 말이다. 보이거나 안보이



(도 2-6) 景福宮의 坐向

원의 360°를 24方位로 平分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正北에서 西쪽으로 7.5°, 南쪽으로 7.5°를 합한 15°가 子方이 된다. 그러므로 正北으로부터 西쪽 7.5° 되는 점이 基點 0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또는 어느쪽에 위치하거나 구애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가깝게는 四獸인 左靑龍, 右白虎, 後玄武, 前朱雀을 비롯하여 멀리는 來龍 주위의 산을 포함하여 강화도 개성 京畿地方의 모든 산이 모두 해당된다. 京畿란 말은 본시 畿甸과 같은 뜻으로 서울의 뜨락 도는 都城의 관문을 지칭하는 것이니 그 안에 있는 모든 山은 다 서울 作局形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砂中에서도 四獸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니 穴에서 가장 가까우므로 吉凶禍福에 직접 간여하여 應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四獸를 보는 기율은 나(穴)로부터 보는것이다.

크게 보아서 서울의 靑龍은 左衛七相脈인 峨嵋山에 이르는 脈이며 白虎는 右衛七將인 望月山脈이 된다. 그러나 경복궁을 중심으로하여 작게보면 삼청공원에서 한국일보사 근처까지 이르는 脈이 內靑龍이 된다. 白虎는 仁旺山이 內白虎인셈인데 너무나 강력한 것이 흠이다.

창덕궁을 기준으로 본다면 삼청공원에서 한국일보사 근처로 내려오는 脈이 내백호가 될 수있는데 서울의 眞穴은 사실상 이곳이라 할 수 있다. 창덕궁 근처에 앉아서 보면 인왕산이 두렵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德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主宮인 경복궁을 이곳에 하지 않은것은 案山이 높히 보이고 樂山이 벗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內靑龍은 모두 낮고 柔順한데 비하면 內白虎는 높고 강력하여 宮이 눌린다는 것이 특징이다.

內白虎砂인 仁旺山에서 서쪽으로 分出한 한脈이 鞍山(母岳)인데 이산은 白蓮山과 함께 외백호인 셈인데 여기서는 외백호라기보다는 仁旺內白虎를 보조하는 曜星임과 동시에 서울의 下手砂들이라고 함이 무방하다. 왜냐하면 내백호인 인왕산이 이들 산보다 높으며 인왕산만으로도 너무나도 강력한 백호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던간에 이 산군(山群)들이 서울을 존귀한 도읍지로 작국(作國)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산들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실질적인 외백호맥인 망월산맥(右衛七將)은 낮고 내백호인 인왕산군이 높는데 반대로 망월산맥이 높고 내백호인 인왕산맥이 망월산 정도로 낮게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 것이다.

인왕산 모악산 백연산이 조밀하게 작국하니 한양도읍 당시 하류는 모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그밑에다 궁터를 앉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곳은 水口가 허하고 抵砂들이 順

水하여 朝山과도 배합되지 않는 곳이다. 더욱 안되는 것은 天星에도 맞지 않으므로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 것 같다.

인왕산에서 남으로 뻗은 主脈은 한강을 역수(逆水)하며 빙돌아 南山을 이르켜 案山을 만들었으며 餘氣는 더 나아가 사근동 근처에서 서울의 內水口를 만들고 끝났다. 案山이란 본시 귀인(貴人)앞에 놓여 있는 床과 같은 것으로 결재 등 다목적의 용도 등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곱고 부드러워야 좋다. 따라서 너무 높거나 거칠어도 안되는 것 인데 서울의 경복궁에 비하면 다소 높고 가까운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불리한 점은 案山너머로 한강이 너무 가깝게 흐르며 官星과 枝脚을 모두 자르고 흘러가는 것은 모두 축박한 상이니 도성안의 정사가 안정되지 못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案山은 天星으로 말하면 天床과 四貴人이 되는데 天床이 잘못되면 君主가 失位한다 하니 이는 고용인이 주인을 알보고 능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무(玄武)는 主山 또는 도두봉(到頭峰)으로도 표현하는데 서울의 북쪽으로 近屏이 되는 산이니 북극오성과 자하문고개에서 미아리고개 근처산까지를 이어 주는 산맥이 모두 포함된다. 이산에서 入首산맥의 怒氣를 순화시켜주었으나 그래도 많이 미흡하다. 현무란 본시 속임수와 도둑 은폐 등을 상징하므로 현무가 아름답지 못하면 군주가 도덕정치를 하지 못하고 폭정으로 흐르기 쉽다. 또한 간신들의 아첨과 백성들간에는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된다. 남대문쪽에서 바라보면 북악산이 동으로 기울었음을 볼 수 있는데 玄武主星이 기울면 더욱 그러하다.

또 天門은 물이 오는 방향을 말하니 활짝 열려 넓으면 항상 지혜된 福德을 공급받아 좋을것이고 地戶는 물이 나가는 方位를 말함이니 한강 하류쪽이 되는데 굳게 굳게 잠겨서 內氣를 누설시키지 말아야吉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그 반대다. 팔당댐 쪽은 조밀하게 잠겼고 하류쪽은 흰히 트였으니 소비가 지나치고 낭비가 많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水口로 보면 戌方眞水口의 運氣가 다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서울은 소비의 도시와 쾌락의 도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협소하기는 하지만 南山이 大江을 逆으로 進田筆이 되었으므로 內氣만은 잠근 것이 되어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는 象이 된다.

第三節 都市景觀의 概念

1. 남산의 名稱과 沿革

① 명칭

남산이라는 칭호는 이씨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하고 나서부터 남쪽에 있는 산이라고 지칭하게 되었고 그이전에는 引慶山이라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이나 『漢京識略』에 보면 남산은 목멱산 또는 인경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밖에도 우리말로 마뫼라고 하기도 하고 終南山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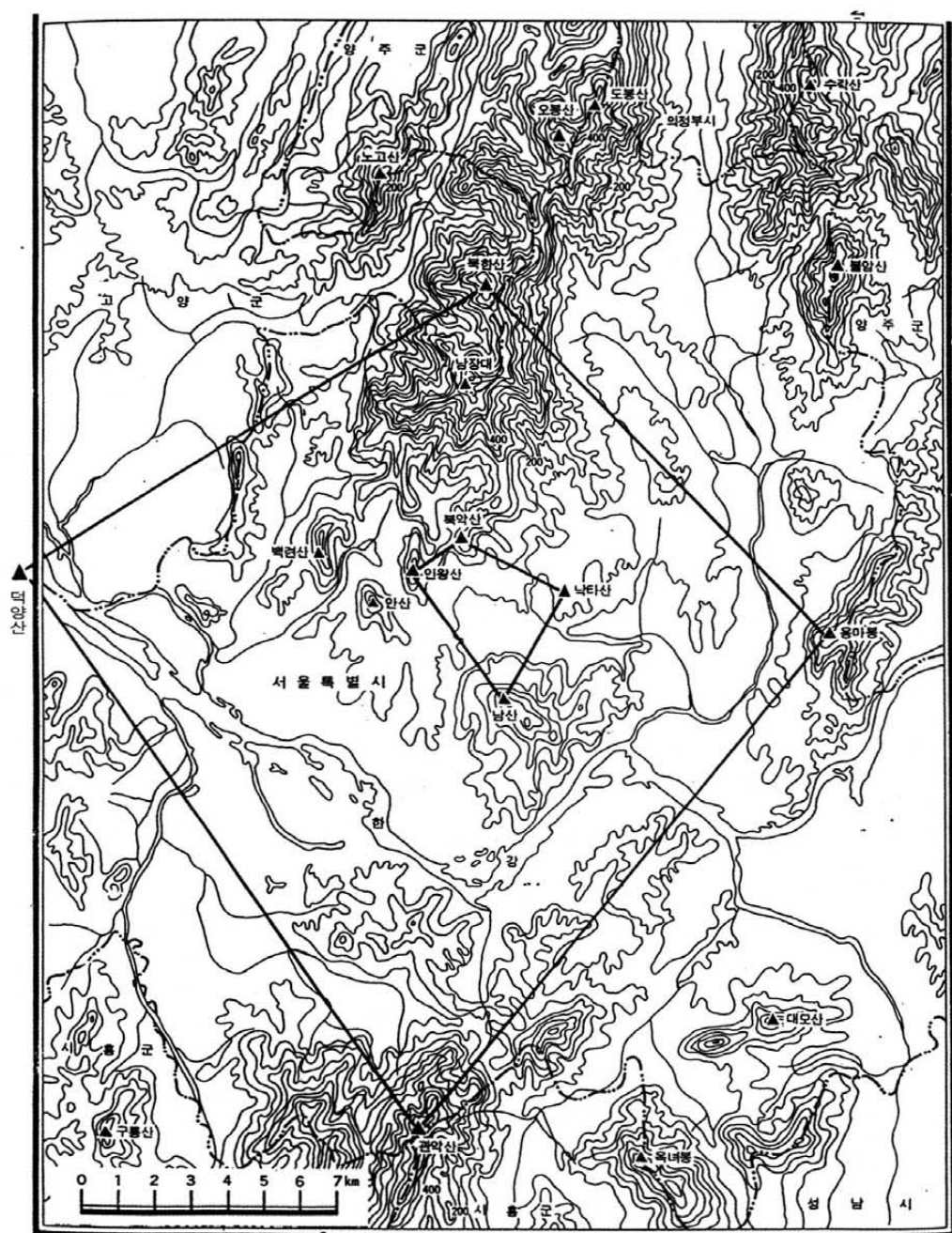
그러면 이 木覓 또는 引慶 등의 명칭은 본디 무엇을 의미한 것이었던가. 木覓에 대하여, 湖岩 文一平은 이를 『마뫼』즉 南山의 뜻이라 하였다. 『마』는 南쪽을 의미하는 우리말이요 『뫼』또는 『메』는 山의 우리 말이니, 木覓은 곧 이 南山이라는 우리말 『마뫼』의 漢字音記라는 것이다. 그리고 引慶 또는 列慶에 대하여 李丙燾博士는, 전에 南小門이 있던 곳을 『버티고개』라 부르고 그 『버티고개』를 漢字로 『負兒峴』으로 적은 사실 등을 들어서 負兒峴은 곧 우리말 이름 버티고개의 漢字表記이며 그 『버티고개』의 『버티』는 곧 『日出山』, 『光明峴』을 의미하는 말로 보고, 『仁慶山』또한 이 『버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정확한 것은 再考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南山의 異名으로 『木覓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山위에 木覓神祠가 있었던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즉 太祖 4년(1395) 12월에 北山인 白岳山神을 鎮國伯, 南山의 山神을 木覓大王으로 封爵하여 國家에서 제사를 받들게 하니 木覓大王을 奉祀하는 사당을 木覓神祠, 이 神祠가 있는 山을 『木覓山』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② 연혁

南山은 서울특별시 中區와 龍山區 경계에 있는 산으로 북쪽의 北岳山, 동쪽의 駱山, 서쪽의 仁旺山과 함께 서울의 중앙부를 둘러싸고 있는 內四山 중의 하나이다. 朝鮮太祖 이성계가 漢陽을 도읍으로 정하였을 때 南山은 풍수지리설상 案山 겸 朱雀에 해당되는 중요한 산이었다.

都城은 內四山의 능선을 따라 축성되어 지금도 남산 능선에도 성곽의 일부가 남아 있다.



(도 2-7) 서울의 地形圖

1934년 한양천도 이전까지만 해도 南山은 한갓 작고 평범한 외곽에 지나지 않아 引慶山이라고 불리었지만 朝鮮의 도읍지로 되면서 환한 照明을 받으며 歷史의 무대 위에 올려졌다. 조선 정부는 남산을 남쪽의 외적을 막는 자연의 방패로 삼아 太祖 5년(1396), 1월에 1차로 11만여 장정을 동원하여 18KM의 都城을 쌓고, 다시 2차로 그해 8월에 8만여 장정을 동원하여 보수했다. 1차 축성 때 東小門에서 崇禮門까지는 경상도 장정들이 공사를 맡았고 남산의 성곽도 이들이 쌓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太祖 4년(1395) 12월에 南山의 山神을 木覓大王으로 奉爵하여 국가에서 春秋로 제사를 지내고 가뭄이 심해도 祈雨祭를 지냈던 만큼 南山은 서울을 지키는 神을 모시고 외적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都城을 쌓아 방패 역할을 하였다.

都城을 築造한 외에도 남산은 朝鮮初 太宗 6년(1406) 12월부터 甲午改革때부터 500년간 國防의 중요한 시설인 5개의 烽燧臺가 설치되어 全國의 烽燧를 받아 國境과 海岸의 이상 유무를 兵曹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南山은 內山이므로 朝鮮王朝가 천도한 뒤부터 자연보호에 주력했다. 太宗 15년(1415) 4월에 서울 주변의 산에 송충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심하자, 漢城府에 命해 송충이 驅除에 나서도록 하고 이때를 전후하여 四山의 管理를 엄하게 하였다.

『慶國大典』에 보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工曹에 속해 있었는데 四山의 入山禁止표를 세우고 伐木과 採石 등을 금하였다. 兵曹에서는 나무를 재배하고 가꾸는 감역관과 산지기를 채용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에 따라 南山 등 四山에는 소나무가 무성하였고 갖가지 짐승들이 살고 있었다.

南山의 소나무는 國初부터 푸르게 자라고 있었으니 高麗時代에는 南山을 중심으로 人家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탓이었다. 그러나 世祖말기가 되면서 상당히 헐벗어 갔다.

國初부터 南山은 국가의 금지구역으로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악한 무리들이 낮에도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마구 베어 먹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가니 四山의 松木이 온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政府에서는 南山뿐 아니라 다른 山에 대하여도 더욱 엄중하게 松禁을 실시하였다.

한편 四山 중에서도 주위의 풍경이 아름답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어진 것은 南山이었다. 그것은 다른 三山이 모두 石山이고 경사가 급한데 반하여, 南山은 비교적 登

攀의 길이 좋고 또 주위가 樹林으로 둘러싸여 사시절의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南山에는 登攀 遊覽하는 사람이 항상 끊이지 않으며 山間溪谷의 그윽한 곳을 찾아 仙界 淸遊를 즐기기도 하지만, 대로는 山頂에 올라 都城의 전모는 물론 南·西方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漢江의 長流를 굽어보고, 西·北·東 三面으로 都城을 둘러싼 원근의 山岳을 眺望하면서 浩然의 기개를 가져보기도 하였다. 1890년의 선교사업을 했던 조지 길모어라는 미국인도 그 기행문에 『南山은 시민들의 쉬는 놀이터로 쓰인다』고 적었다.

더구나 端午節같은 서민의 名節이 되면 都城의 장정·소년들이 南山 중턱, 잔디로 덮인 藝場 등지에 雲集하여 씨름대회를 가지던 것도 盛事가 아닐 수 없었다. 매년 端午節이 되면 서울에서는 이 南山北麓의 鑄字洞 막바지와 外南山의 南壇 옆 錄莎場 및 北岳下 神武門 밖이 대회장소로 되어 유명하였으니, 역시 勝地 名所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남산 변천의 역사

朝鮮時代 外侵의 防壁으로 삼았던 南山은 오히려 外敵의 駐屯地로 변모했다. 1592년 壬辰倭亂을 일으킨 日本軍은 서울을 無血占領하고 北村의 궁궐과 官衙·住宅들을 焚蕩 약탈한 뒤 中區 藝場洞의 倭城臺 부근(南山의 北麓 일대)을 留陳地로 삼았다. 즉 倭將 增田長盛의 군대 1,500여명이 留陳하면서 倭城을 쌓았으므로 그 遺址가 남아 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300여년이 지난 19세기말, 開港이 되면서 外來文物이 수입되고 日帝의 세력이 首都 서울에 밀려 들면서 南山은 또다시 日本軍의 軍靴에 짓밟히게 되었다.

1894년 東學農民의 봉기를 구실로 朝鮮에 파견되었던 淸·日軍은 일단 農民軍이 全州城에서 해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淸이 朝鮮 內政改革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日本의 제의를 거절하자, 日本은 서울의 南山 등에 군대를 주둔하고 砲臺를 설치하여 王宮을 포적으로 삼고, 단독으로 朝鮮의 내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日本公使 大鳥圭介는 예정된 방침대로 조선의 內政改革을 추진하라는 外務大臣의 訓令을 받고 1894년 6월 1일에 5個條의 內政改革案을 제시했다. 日本측의 強迫하에 朝鮮政府는 이 問題를 淸측과 상의하는 한편 부득히 內務督辦 申正熙, 同協辦 金

宗漢 및 曹寅承 등을 委員에 임명, 파견키로 하였다. 또한 6월 6일에 高宗은 傳敎하여 積弊를 쇄신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 내지 영향에 의한 改革이 아니라, 自主的으로 內政을 개혁한다는 獨立國家로서의 위신을 세워보려는 의도에서 취해졌던 것이다. 日本측은 朝鮮政府가 자주적 개혁의 의도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가 자기들의 內政改革案을 거부할 경우 兵力을 동원, 王宮을 포위하고 강압적으로라도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했다. 이와같은 日本측의 강압적인 위협하에 6월 8일 南山 老人亭에서 會晤를 가졌다.

이 『老人亭 會談』 내용은 日本側이 우리 內政 간섭을 위한 強迫으로 나왔던 것이니만큼 끝내 決裂되자, 暴力을 행사한 日帝는 군대를 동원하여 王宮을 침범하고 위협하여 결국은 甲午更張의 被動的인 開化制度 시행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1884년 甲申政變 이후 日本公使館을 南山 아래 忠武路 (1893년 藝場洞 2번지로 이전)로 옮긴 이듬해부터 日本人들이 진고개(泥岬) 일대에 집단으로 거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봄·가을의 야외모임을 갖게되면 으레 南山 기슭 평평한 잔디밭에 모였다. 그 까닭은 壬辰倭亂 때 日本軍이 이곳에 주둔하여 『왜장이』 또는 『왜장터』고 불리었으므로 『倭城臺』라고 이름을 붙여 그들의 聖域처럼 여겼다. 그러나 『왜장터』라는 명칭은 朝鮮時代에 營門軍卒의 무예 연습장이어서 藝場이라고 부르던 것이 음이 轉化되어 『왜장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高宗 29년(1892) 3월 17일 日本公使는 朝鮮政府와 교섭하여 1ha의 땅을 公園을 세울 것을 목적으로 永賃借地化했다. 이해 7월 日本 거류민들은 이를 倭城臺公園이라 명명하고 각종 시설을 갖춰 갔으며 1898년 11월 3일에는 이공원에 南山大神宮(후의 京城神社)을 세웠다.

그리고 이른바 甲午·乙未年의 두 차례에 걸친 제도개혁을 통하여 우리 내정 간섭에 공공연히 손을 댈 기틀을 마련한 日帝는 政治, 經濟, 國防 등 각 방면으로 침략행위를 거듭하여 光武 8년(1905)에는 다시 『乙巳條約』으로 우리의 自主權을 빼앗고 南山倭城臺(지금 藝場洞)에 統監府를 설치하며 日本의 老櫓한 政治家 伊藤博文이 統監으로 와서 완전 侵奪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統監府가 설치되고 나서 그 이듬해인 1906년초에 발족된 京城理事廳(후의 京城府廳)은 藝場洞 2번지에 자리잡은 뒤 南山 北麓 일대를 그들이 장악하기 위해 8월 15일자

로 京城公園이라 명명하고 理事廳令으로 규제했다. 이어서 日本居留民의 수가 증가하자 日本人은 현재 南山植物園자리에서부터 南大門에 이르는 南山 西北麓 일대(회현동 1가산 1번지 일대) 30만坪의 땅을 韓·日人 공동의 공원으로 추진하여 隆熙 2년(1908)초에 永久無傷貸與 받기에 성공하고 그해 봄부터 각종 시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正式開園한 것은 1910년 5월 29일로 이 開園式에 高宗은 勅使를 보내 치하하고 漢陽公園이라고 명명하였다.

1910년 8월 29일에 강제로 韓·日合邦을 체결한 日帝는 南山(藝場洞 8번지 위치)의 統監府를 總督府로 고친 뒤 世宗路 1번지로 이전한 1926년 10월 1일까지 16년간 식민지 통치에 본거지로 삼고, 藝場洞 2번지의 前日의 日本公使館 건물을 統監官邸, 總督官邸로 삼다가 1939년에 靑瓦臺 자리로 이전했다. 그리고 藝場洞 2번지 『한국의 집』일대는 京城理事廳이 자리했다가 후일 政務總監官邸로 사용했다.

日帝는 1907년에 丁未7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韓國군대를 해산하고 나서 1908년 10월 1일 龍山에 주둔하고 있던 朝鮮駐 답軍司令部로 고쳤다.

1916년부터 日帝는 南山 전체를 公園化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동쪽의 裝忠壇, 남쪽의 城郭 밖, 漢陽公園, 倭城臺公園을 포함하는 大森林公園計劃이었다.

그리하여 1918년 朝鮮神宮을 현재 南山植物園 일대에 건립하기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漢陽公園을 폐쇄하였다. 이 神宮은 1925년에 완성되었는데 이때 南山 頂上에 세워진 國師堂은 헐리어 仁旺山 서쪽으로 옮겨갔다.

日本居留民의 守護神을 모신 京城神社는 1898년 倭城臺公園에 세웠다가 1928년에 확충하였는데 이에 따라 南山은 日本人은 물론 韓國人을 강제로 參拜시킨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南山에는 朝鮮神宮과 京城神社 외에도 倭城臺公園에는 乃木神社, 稻荷神社등이 자리잡고 있었으나 光復 후에 철거되었다.

그 밖에도 南山에는 日帝때 南山洞3街에 東本願寺, 藝場洞 8번지에 恩陽記念科學館(總督府廳舍건물), 稅務監督局이 자리잡고 있었고, 南山頂上의 八角亭 자리에는 國旗揭揚臺를 설치하였으며 1927년에 伊藤博文의 菩提寺인 博文寺를 新羅호텔 자리에 짓기 시작하여 1931년에 완공시켰다.

한편 光武 4년(1900)에는 高宗皇帝가 抗日의 뜻으로 南山 東麓, 前日의 南山營이

있던 자리에 裝忠壇을 세웠는데 이 壇은 壬午軍亂과 乙未事變 殉國한 大臣 및 將兵들의 忠魂을 제사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碑石도 세워 놓았다.

그런데 1916년에 日帝는 南山을 大森林公園計劃을 하면서 裝忠壇을 公園으로 편입시킨 뒤 1919년 6월부터 公園施設을 시작하였다. 이 곳에는 上海事變때 결사대로 戰死한 日本軍人の 肉彈勇士銅像을 세워 놓기도 했다.

그 뒤 1940년 3월 1일자로 朝鮮總督府는 藝場洞 일대 34,800㎡ 평방미터를 南山公園으로, 裝忠洞 2街 일대 418,000 ㎡를 裝忠壇公園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한편 朝鮮末부터 8.15光復 때까지 韓國에 이주해 와 서울에 자리잡은 日本人 대부분은 南山기슭의 會賢洞, 南山洞, 忠武路, 筆洞, 裝忠洞, 墨井洞 등에 거주함으로써 南山山麓을 훼손하였다.

光復이 되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越南民과 避難民의 증가로 南山山麓은 이들의 임시 주거지화 하여 이른바 龍山洞에는 『解放村』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광복이 되자, 日帝의 寺刹이던 東本願寺 博文寺 光雲寺 등 寺刹은 철폐되었으며 京城神社자리에는 崇義女學校가 자리잡게 되었고 현 분수대 앞에는 伊藤博文을 사살한 安重根의사의 동상이 1959년에 건립되었으며, 이듬해에는 裝忠壇 윗쪽 日本寺刹 부근에 李漢應烈士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 앞 계곡 하류에는 水標橋를 옛 모습 그대로 옮겨 보존하였다. 또 龍頭峯 서쪽 山麓, 日帝 때의 朝鮮神宮 자리에는 1956년 光復節을 기하여 李承晩大統領의 동상이 건립되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南山 上峯에 우남정을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 4.19義舉를 계기로 李承晩 동상과 우남정이 철폐되었으며 그 뒤 白凡 金九의 동상이 南山 광장에 들어섰고, 또 南山市立圖書館 앞에는 茶山 鄭若鏞의 동상이, 그리고 茶山の 동상 왼쪽 아담한 언덕 비탈에는 素月 金廷湜의 동상이, 그리고 전일의 國立中央圖書館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아늑한 곳에는 小波 方定煥의 동상이 세워졌으며, 그 밖에 어린이회관을 비롯하여 식물원, 분수대 등의 1960년대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회관이 어린이대공원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 건물은 1975년 부터 小公洞에서부터 이 곳으로 옮겨온 국립도서관으로 사용하다가 반포동으로 이전했다.

南山은 지금도 孔明谷으로 불려지는 부영바위약수와 厚岩藥水 龍岩藥水 壽福泉 不老

泉 등 샘이 있어 물맛이 좋으며, 계곡마다 그윽하고 샘물이 차서 시민들의 피서는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는 1955년 7월 11일 南山公園을 종래 348,00㎡에서 1,256,000㎡로, 장충공원을 418,00㎡에서 699,500㎡로 확장하였는데 이는 부근 일대의 보안림을 편입한 것이다. 이어서 1957년 9월 30일 내무부 고시로 남산공원의 남쪽 16,600㎡를 외인주택 50호 건립을 위해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 1958년에는 이승만대통령이 남산공원 동쪽 27,000㎡의 부지에 東國大學을 건립하도록 허락했으며 이 부지는 1965년 8월 31일에 公園用地에서 해제되었다. 한편 1959년 3월 12일에는 內務部에서 南山公園으로 명칭을 고쳤다.

5·16직후인 1962년 7월 30일 裝忠壇公園用地中에서 122,700㎡가 해제되어 自由센터와 타워호텔이 건립되었고 같은해에 한국삭도(주)에서 케이블카를 설치, 운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3년 4월 16일 裝忠壇公園用地 10,800㎡가 다시 해제되어 中央公務員教育院이 세워졌다가 東國大學校 부지로 이관되었다.

1964년 12월 10일에는 市立南山圖書館의 5층 건물이 세워지고 1968년 11월 22일자로 8,440㎡의 공원용지가 해제되어 在鄉軍人會 건물이 들어섰으며, 이해 12월에 南山植物園이 개관되어 1971년에 증축 개원되었다. 1970년에는 6월 18일에 南山 남쪽 중턱에 16층·17층 2개棟의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大韓住宅公社에서 건립하기 시작하여 1972년에 완공됨으로써 南山의 景觀을 크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1973년 10월 17일에는 장충단공원 남쪽 기슭에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60,000㎡의 공원용지 위에 세워졌다. 이로써 장충단공원은 1984년 당시 418,000㎡에서 297,000㎡로 축소되었는데 1984년 9월 22일에 建設部에서 장충단공원을 남산공원의 일부로 흡수 합병함에 따라 남산공원의 면적은 2,971,000㎡로 늘어났다.

江南의 개발과 함께 南山은 교통의 장애가 되어 왔으므로 중구 필동과 용산구 한남동 사이의 제1호터널이 개토되고,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장충동을 연결하는 제2호터널이 1969년 5월에 기공하여 1970년 12월 4일에 개통되었다. 이어서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회현동을 잇는 제3호터널이 1976년 5가 14일에 기공되어 1978년 3월 31일에 개통되었다.

서울의 명물로 손꼽는 서울 타워는 남산 정상에 세워져 있다. 이 탑은 236.7m로 1975년 8월에 완공되었으나 1980년 10월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第三章 風流文學的 景觀價値의 考察

第 1 節 서울 南山의 風俗的 位相

1. 南山과 民俗

① 國師堂(木覓神祠)

국사당은 太祖 李成桂와 護身神將을 모시고 있는 堂이다. 朝鮮朝 태종 때 三神이 天神, 山神, 水神과 李太祖, 無學國師, 여러 護身神將을 모시고 國師堂이라 命名했다. 후에 崔瑬 將軍 및 나라의 諸君神과 君雄, 別相 등도 모시게 되었다.

이곳은 東의 覺心寺, 西의 구과발, 南의 雨水峴 등 세곳의 國巫堂 대표자인 三大 萬神들이 모여서 侍奉하고 國奉民安을 기원하던 堂이다.

이 당은 원래 南山의 팔각정 자리에 있었으나 日帝때 日人들이 남산에 자기네의 神宮을 세우기 위해 허물자, 한국인들이 1925년 7월에 仁旺山 중턱의 현지에 옮겨다 세웠다.

현재는 여러 곳의 巫堂들이 이곳에 와서 내림굿과 治病굿, 財數굿 등을 하고 있다. 국사당의 建築 樣式은 3칸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후에 양쪽에 한간씩 날개를 달았다.

국사당 건물과 국사당 안에는 巫神圖 28점이 모셔져 있는데 民俗資料로 지정되어 있다. 28점의 巫神圖 중에 12점은 조선 仁祖 때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6점은 高宗 때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堂 內部에는 무신도를 정면 벽에 9, 왼쪽 벽에 3, 오른쪽 벽에 3, 모두 15神을 모시고 있다.

목멱산은 우리말로 마뫼산으로서 산 위에 木覓神祠가 있기 때문에 불리어진 것이다. 조선초에 태조 이성계는 한양에 도읍한 다음 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북악산과 남산에 山神을 모셔 놓았다. 그러므로 남산의 산신을 제사하는 목멱신사를 지었으므로 산이름도 목멱산이 된 것이다.

이 목면신사는 남산 정상 of 동쪽 넓은 터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흔히 國師堂이라고 칭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말 고종 때까지 매년 봄 가을 두 번 제사를 지내다가 폐지하니, 이 사당은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 때(1925) 일본인에 의해 이 사당이 헐리자 우리

민족은 현판과 사당 일부를 인왕산 서쪽 기슭 선반위(禪岩) 아래 옮겨 지어 국사당의 명맥을 잇고 있다.

② 씨름

朝鮮時代에도 씨름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수 있다. 『朝鮮王朝實錄』과 『東國歲時記』·『京都雜誌』·『開城志』·『於于野談』등에 씨름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에 언급된 씨름은 모두 서울에서 시행된 씨름경기를 기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서울에서의 씨름경기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다.

먼저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서울에서의 씨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두 使臣이 木覓山(남산)에 올라 도성과 한강을 굽어보고 말하기를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고 활을 쏘고 力士들에게 씨름을 시켰다.

두 使臣이 木覓山에 올라가 力士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였다.

刑曹에서 아뢰기를 중 常廳이 梁卜山과 더불어 서로 씨름을 하다가 卜山이 죽으매 律에 의하면 마땅히 絞形에 처할 것이라 하므로 명하여 한 等を 감하고 장례비를 감당하게 하였다. 『京都雜誌』 5月 端午條에는 서울의 소년들이 南山 기슭에 모여 서로 씨름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대하고 구부려 각각 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상대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은 다음 일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번쩍 들어 매어친다. 여기에는 內局·外局·輪起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인이 이를 본받아 高麗技 또는 요 咬(liao chiao)라 한대라고 하였고 『東國歲時記』 5月 端午條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젊은이들이 南山의 倭場이나 北嶽山의 神武門 뒤에 모여 씨름을 하여 승부를 겨룬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자의 오른다리를 잡은 후 일시에 일어나며 상대자를 번쩍 들어 매어친다. 그리하여 밑에 깔리는 자가 지는 것이다. 內局·外局·輪起 등 여러 자세가 있다. 그 중에 힘이 세고 손이 민첩한 자가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기는 사람을 部結局이라 한다. 중국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그것을 고려기라 하기도 하고, 또 요 咬라고도 한다.」

이상의 기록들은 모두 서울에서 있었던 씨름경기를 말해주고 있지만 단오날에는 서울·

지방 구별없이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고 한다. 또 중국인이 이를 본받아 高麗技 하였던 함은 씨름 그 자체보다도 우리나라 씨름의 여러法式이 중국으로 전하여 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③ 南廟

舍堂洞 180-1번지에는 南廟가 있다. 이 南廟는 원래 龍山區 조동 1가 9번지(현 남대문 파출소 뒤)에 있었는데 1913년에 總督府에서 中國人·日本人·韓國人에게 개인 경매를 붙이자 지금의 關聖廟維持財團理事長인 徐東鎭의 아버지인 徐泰成이 사들여 개인소유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후 1950년 6·25동란으로 파손되고 작은 殿閣 한 채가 다 행히 남아 있던 것을 重建하였다. 한때는 (1955 ~ 1956년경) 이 자리가 우남회관 제1후보지로 選定되어 당시 大統領에게 泰成翁이 읍소하여 취소되었다고 한다.

南廟를 舍堂洞 180-1번지로 옮긴 것은 1979년 1월이다. 현재는 총평수 400평에 건물이 모두 4棟이다. 그중 顯聖殿(正殿)이 47평이며 아랫堂이 6평 정도이고 그 밖에 조동의 1棟을 옮겨 復元한 것과 官舍1洞이다.

顯聖殿 중앙에는 關王의 塑像이 奉案되었으며 좌측에는 張飛·趙雲·王甫를 비롯해서 日月星辰·七星·五方神張 등 土俗神의 畫像이 奉案되었고, 우측에는 諸葛孔明·周倉·關平·趙雲 그리고 崔瑩과 마부의 畫像을 奉案하였으며, 우측 正面에 옥천대사의 畫像이 奉案되어 있다.

祭儀는 儒禮式으로 正朝·驚蟄·清明·5월 13일(陰：南廟 창건일)·6월 24일(陰：誕辰日)·秋夕·霜降祭·忌辰祭(10월 19일·12월 6일)·冬至祭를 지내며 특히 창건일과 탄신일은 樂士를 초치하여 致祭한다고 한다.

이 南廟는 宣祖 31년(1598) 4월에 明의 遊擊將 陳寅이 壬辰倭亂에 關羽의 靈이 나타나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가 머물러 있던 南山 기슭에 廟를 세우고 그 안에 關羽와 周倉의 肖像을 모시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6·25동란 때 全燒된 것을 1957년에 再建한 바 있으나 정문이 되는 그 形蹟만 남기고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당시 關羽의 魂靈이 나타나 도와 주었다는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면, 南大門에서 갑자기 神將이 일어나 倭將 小西行長의 대군을 격파하고 돌진하던 중 東大門에서 小西가

白馬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뿌리자 신장이 쓰러졌다고 한다. 床차림에서 날고기(돼지등)를 그대로 쓰는 것은 여기서 연유된다고 한다.

④ 風水地理

南山은 풍수지리설상으로 案山에 해당하는 중요한 산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王 3년(1394) 漢陽에 奠都하였을 때 國都의 主山을 白兵(北兵)으로 삼아 그 밑에 明堂을 구하여 新宮 즉 景福宮을 경영하였는데, 이 때 南山은 풍수지리상으로 案山에 해당되었다.

남산에는 無學大師가 단 하나 있는 복구형 明堂이라고 잡아 놓은 穴處가 있다. 집터로는 두개인데 그것은 거북이의 왼쪽과 오른쪽 눈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會賢洞인 駝駱洞에 있다.

이 산은 그 形局이 누에의 머리 모양이라 蠶頭山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잘 알다시피 누에는 뽕 잎을 먹고 산다. 그래서 南山의 地德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뽕 잎을 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남산이 맞바로 보이는 漢江 건너 沙坪里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그후 이곳의 지명은 잠실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혹은 永東과 浮里島에 누에에 먹일 뽕나무를 심게한 蠶室리가 두 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蠶室洞(松坡區), 蠶院洞(瑞草區)으로 나누어 부르게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2. 남산과 朝鮮時代의 人物들

남산은 이태조가 서울을 500년 도읍지로 정한 이래로 서울의 한복판에 존재하여 서울시민의 모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거 지역으로서의 남산을 살펴보면 兩班계급의 권문세가들이 北岳 斜面 궁궐 주위에 모여 살았음에 비하여 南山의 북사면은 주로 하급관리들이라든가 양반자손이기는 하나 가난하고 벼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남산에서 흐르는 細流가 淸溪川으로 모아지고 靑學洞 등 골짜기마다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處士의 생활을 하는 文人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물론 권문세족들도 거주하기도 하였지만 벼슬을 떠난 선비들이 만년에 이곳에 정자를 짓고 시와 풍류를 짓고 詩와 風流를 즐기는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東萊鄭氏·淸州韓氏·豐壤趙氏 등의 정

승·학자 등이 世居하기도 하였다.

남산을 중심으로 하여 南山기슭에서 출생하거나 거주하였던 人物을 열거해 본다.

① 姜世晃 1712(숙종 38) ~ 1791(정조 15)

漢城府判官을 거쳐 漢城府判尹에 오른 서화가 姜世晃의 자는 光之요, 호는 豹庵·豹翁 또는 별칭 紅葉尙書라고도 하였으며, 본관은 普州로 判中樞府事 銳의 아들로 서울 會賢洞 南山기슭에서 태어났으며 이곳에 紅葉樓를 짓고 살았다.

아버지와 외조부 趙威鳳이 글씨를 잘 썼으므로 그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고 또 그림을 잘 그리었다. 1772년(英祖 48) 61세때 비로소 英陵參奉이 되고 이듬해에 사포서별제를 거쳐 1776년(英祖 52)에 漢城府判官이 되었다. 이때 65세의 나이로 耆老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1778년(正祖 2)에 兵曹參知가 되었다. 이때에 또 文臣庭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南陽府使가 되었다가 1783년(正祖 7) 9월 1일부로 漢城府判尹에 임명되었다.

그 후 戶曹의 參判을 지내고 70세에 耆老所에 들어갔다. 선생은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서 1784년 千秋副使로 청나라 北京에 갔을 때 그의 서화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돌아와서 正憲大夫에 올랐다.

선생은 스스로 칭하기를 “王羲之의 글씨, 顧愷之의 그림, 韓退之의 글, 杜牧之의 시를 나 光之는 겹쳤다”하여 자신을 합쳐서 五之라고 하였다. 선생은 글씨에 있어서 왕희지·王獻之·米芾 등의 글씨체를 본받았고 篆書·隸書를 비롯한 각체에 모두 신묘하였다. 특히 그림에 있어서 山水·四君子 등에 뛰어났다.

石北 申光洙의 〈光之 姜世晃에 붙임〉시를 통해서 선생의 면모를 알 수 있다.

〈광지의 칭찬이 온 서울에 자자하네.
“삼절의 풍류가 한 시대를 놀렸다”고
백발에다 가난이라 속된 세상 비웃으며
주현 소리 서글쁘니 벗님이 서러워라.
어느집 눈이 내려 그림 새로 열렸느냐

長安藉藉說光之
三絕風流倒一時
白髮家貧衰俗笑
朱絃歲暮故人悲
誰家雪後新開畫

성남에서 어젯밤 함께 시를 지었구려
 재주 높단 이름만이 세상을 휩쓸세라
 궁해빠진 이 마음을 너도 응당 알을테니

昨夜城南共賦詩
 莫遺才名虛滿世
 窮途比意彌應知

시·서·화 三節 중에서 선생의 시는 중국의 陸遊를 본받았으나 독자적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선생의 시호는 憲靖이다.

저서에 〈豹庵集〉이 있고, 작품에 그림 〈蘭竹圖〉 〈墨竹圖〉 〈驪背覓句圖〉 〈山水圖〉 〈飛瀑圖〉 〈松竹嘯丹圖〉 〈溪山初晴圖〉 〈風雪過橋圖〉 〈蓮花圖〉 등이 있다.

② 權 擘 1416 (태종 16) ~ 1465 (세조 11)

附 朴永元 1791(정조 15) ~ 1854(철종 5)

조선시대 문신으로 南山기슭 藝場洞 2번지에 鹿川亭을 짓고 살았다. 이곳은 조선초 無學大師가 터 잡은 곳이라 하며, 이 터에 世祖 때 文臣이 권람이 거처하였다. 그 서쪽 아래에는 石泉이 있는데 世祖가 권람의 집에 행차하였다가 그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에 御井이라 하였다 한다.

그 위에는 素凋堂 옛터가 있는데 후에 後凋堂이라 하였다.

哲宗 때의 名臣인 梧墅 朴永元이 시냇물 흐르는 언덕 위에 정자를 지어 4계절의 풍경을 관상하기도 하였으나 高宗 때 乙巳條約에 의하여 統監府가 설치되고 伊藤博文이 통감으로 와 있으면서 새로 정자를 짓고 「緣泉亭」이라 하였다. 그 후 이곳은 國軍聯合參謀本部가 자리잡기도 하였다.

권람의 자는 正卿, 호는 所閑堂, 본관은 안동으로 찬성사 近의 손자요 찬성 題의 아들이다. 문종 즉위년의 식년문과에 장원하여 감찰을 거쳐 이듬해 校理로서 「역대병요」를 함께 편찬하던 수양대군과 뜻이 통하여 그의 참모가 된 뒤 楊汀 등 무장을 포섭하였다.

단종 1년 김종서 등을 제거하는 계유정난 때에 앞장서서 정난공신 1등으로 우부승지에 특진되었으며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이조참판에 발탁되었다.

이어 좌익공신 1등으로 예문관 대제학이 되고 吉昌君에 봉해졌다. 세조 4년에 수찬관으로 「국조보감」을 편찬하고 우찬성에 승진, 1459년에 좌찬성, 우의정을 거쳐 1462년에 좌

의정에 올라 이듬해 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활을 잘 쏘고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횡포가 심하고 많은 축제를 하여 여러번 탄핵을 받았다. 세조묘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翼平으로 저서는 所閑堂集이 있다.

朴永元의 자는 聖氣, 호는 梧墅, 본관은 高靈, 禮曹參議 鐘淳의 아들이다. 1813년(순조 13) 司馬試를 거쳐 1816년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 注書로서 經筵官이 되었고, 1837년(헌종 3) 實錄 校讐堂上, 이어 호조판서, 1846년 進駕 兼 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 國朝寶鑑纂輯廳 校正堂上 등을 지냈다. 1848년(헌종 14) 洋船의 출몰로 동해안 지방의 민심이 소란해지자 함경도 관찰사로 특임되었고 1851년(철종 2) 우의정이 되어 實錄廳 摠裁官을 겸했으며, 이듬해 좌의정, 이어 判中樞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文翼.

③ 金尙容 1561(명종 16) ~ 1637(인조 15)

김상용은 그의 외가집인 會賢洞 1가 14번지에서 태어났으며 종로구 청운동 52번지 일대의 白雲洞 즉 淸風溪에서 살았다.

공의 字는 景擇이요, 호는 仙源 혹은 楓溪요, 본관은 安東이다. 克孝의 아들로 中宗 때의 영의정 守夫 鄭光弼의 손자인 우의정 林塘 惟吉의 손주 사위로 천성이 돈우하여 인정이 두텁고 항상 남에게 겸손하여 몸과 마음을 삼갔다. 또한 용모도 온화하고 준수하여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여도 덕있는 군자임을 느끼게 하였다. 일찌기 牛溪 成渾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82년(宣祖 15)에 진사가 되고 1590년 增廣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校閱에 등용되어 相臣 鄭澈, 判書 金瓚의 從事官으로 있었다. 兵曹佐郎 正言 修撰 應教 등을 역임하고 임진왜란 중에는 元帥 權律의 종사관으로 호남지방을 드나들었다. 1598년(宣祖 31)에 承旨가 되어 이해 겨울에 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다. 이듬해에 귀국하였다. 그후 大司成을 거쳐 定州·尙州牧使를 역임하고 광해군 때에 都承旨 大司憲 刑曹判書를 지냈다. 1623년 仁祖反正 후로는 집권당인 西人의 한사람으로 判敦寧府事를 거쳐 禮曹 吏曹判書를 역임하고 1627년(仁祖 2) 丁卯胡亂 때는 留都大將이 되었다. 1630년 耆老所에 들어가 老齡으로 관직을 사퇴하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고 1632년(仁祖 10)에 우의정에

임명되자 거듭 사임할 것을 청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1636년 丙子胡亂 때 공은 임금의 명에 따라 原任大臣의 몸으로 宗廟와 社稷壇의 神主와 世子妃 元孫 등을 모시고 江華로 피난하여 그곳을 굳게 지키다가 다음 해 정월에 믿었던 강화섬도 함락될 위기에 빠지자 남성 성문 다락에서 장렬한 절개를 기하여 盡忠殉國하였다. 그 최후는 참으로 비장하기 그지 없었다.

공은 강화섬이 바야흐로 함락될 위기에 직면하자 무거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南城 성문 다락에 올라 몸종에게 옷을 벗어 주면서

“이 옷을 집에 전하여 장사지내게 하라”

하고 다른 모든 종들도 달래어 옆을 떠나게 하였다. 그러나 庶孫子인 壽全과 중 한 사람만이 종내 그 옆을 떠나지 않아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던 공이 담뱃대에 불을 붙여오게 하여 미리 문 앞에 문어둔 화약에 불을 댕기었다. 그 순간 뇌성벽력같은 벼락 소리가 터지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가 싶더니 문루가 온통 산산조각 사방으로 흩어지니 77세의 노인인 공의 몸도 가루가 되고 말았다.

강화의 忠烈祠, 楊州의 石室書院, 尙州의 西山書院, 安邊의 玉洞書院, 定州의 鳳鳴書院에 제향, 시호는 文忠이다.

저서에 <仙源遺稿> <讀禮隨抄>가 있고, 글씨 작품에 <崇仁殿碑篆額(平壤)> <郡守 張麟禎碑 篆額(風德)>이 있다.

④ 金尙憲 1570(선조 3) ~ 1652(효종 3)

조선시대 문신으로 회현동에 태어났다. 자는 叔度, 호는 淸陰으로 상용의 동생이며 尹根壽의 문인이다. 선조 29년 정시문과에 병과, 광해군 즉위년 문과증시에 을과로 각각 급제하여 정언·교리·직제학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7년에 지은 「공성왕후책봉고명사은전문」이 왕의 뜻에 거슬리어 파직되었다.

서인으로 인조반정에 가담하지 않은 청서파의 영수로서 인조 2년에 다시 등용되어 대사간·도승지·대사헌·대사성·대제학을 거쳐 예·공·형·이조의 판서를 역임했다. 병자호란 때 예조판서로서 척화를 주장한 탓으로 이듬해 강화되자 파직되고, 1639년 청나라에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을 반대하는 상소를 하여 이듬해 瀋陽으로 잡혀

갔다. 1642년에 의주에 돌아왔으나 다시 잡혀가 1645년 석방되어 귀국후 좌의정·영돈령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승명파로 절의가 있어 신망을 받았다.

효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文正으로 저서에 〈野人談錄〉 〈風岳問答〉 〈南漢紀略〉 〈讀禮隨抄〉 〈清陰集〉 등이 있습니다.

⑤ 金 堉 1580(선조 13) ~ 1658(효종 9)

附 金錫胄 1634(인조 12) ~ 1684(숙종 10)

남산 기슭인 中區 會賢洞 2街는 孝宗 때의 名臣인 潛谷 金堉(1580 ~ 1658)때부터의 世傳之基로서 숙종 때의 大臣이 淸城府院君 金錫胄(1634 ~ 1684)가 이곳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얼굴모양이 호랑이와 비슷하여 「호랑이는 산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그 집의 樓를 「在山樓」라 이름하였다 한다.

담 밖에 老松 한 그루가 있는 것은 淸城이 손수 심은 것이었다고 하며 또 열아홉구비 치는 폭포가 있고 밑에는 샘물이 있어 물맛이 매우 차고 좋았으며 우물 동쪽 돌벽에 「蒼壁」이라 새겨져 있었다 한다.

金堉의 자는 伯厚, 호는 潛谷, 호는 晦靜堂, 본관은 淸風으로 興宇아들이다.

1605년(선조 38) 司馬試를 거쳐 1624년(인조 2) 增廣文科에 甲科로 급제, 이듬해 持平, 이어 文學, 直講 등을 지내고 1636년(인조 14) 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38년 충청도 관찰사, 이듬해 同副承旨·대사성·부제학 등을 거쳐 1643년(인조 21) 漢城府 右尹·都承旨가 되고, 昭顯世子가 瀋陽에 볼모로 잡혀가자 輔養官으로 수행, 귀국하여 右副賓客이 되었다. 1645년 觀象監 提調, 이듬해 謝恩使가 되어 청나라 북경에 다녀온 후 1649년(효종 즉위) 대사헌을 거쳐 우의정이 되고 이어 謝恩 兼 冬至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와서 1650년 大同法 실시문제로 金集과 논쟁하고 퇴직, 領中樞府事로 전직되어 進香使로 또 청나라에 다녀왔다. 고령을 이유로 사직했다가 이듬해 實錄廳總裁官이 되어 〈仁祖實錄〉의 편찬을 맡아보았고, 다시 이 해에 우의정, 1652년 좌의정, 1654년(효종 5) 領敦寧府事, 이듬해 영의정이 되었다. 경제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어 앞서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중 백성 수탈의 방법이었던 貢物法을 폐지, 米布로 대납하는 大同法을 충청도에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가 실패했으나, 마침내 1651년에는

충청도에, 1657년에는 전라도 沿岸지방에 이를 실시케 했다.

또한 관상감 제조로 재직중에 韓興一이 구해온 서양의 새로운 曆法〈新曆曉式〉을 보고 당시 4백년래 사용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구식 역법을 개정하자고 건의하여 1653년 부터 時憲曆이라는 새 역법을 시행, 4時節의 변화를 일상생활에 맞추어 적용하게 했다.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수레를 제작, 종래 말(마)로만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던 불편을 제거 했고, 灌溉에 水車의 사용을 주청하여 1644년 황해도·평안도에 실시케 했다. 한편 1651년 常平通寶의 주조를 건의, 서울·서북지방에 유통케 했고, 丙子胡亂(1636)으로 소실된 활자를 새로이 제작, 많은 서적을 간행하게 했다. 그의 경제학은 實學의 元祖인 柳馨遠에게 큰 영향을 끼쳐 실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兵略·卜靈·律曆에 정통했다. 開城의 崇陽書院, 加平의 潛谷書院, 江東의 淸溪書院에 祭享되었다. 시호는 文貞, [蕃書] 皇明紀略, 己卯錄, 類苑叢寶, 松都誌, 潛谷筆談, 潛谷遺稿, 救荒할要, 壁瘡方, 黨籍內外世譜, 八賢傳, 種德新編, 海東名臣錄, [編書] 國朝名臣錄, 類花叢寶, 唐三大家詩全集

金錫

胄의 자는 斯百, 호는 息庵, 본관은 청풍으로 영의정 堉의 손자요, 병조판서 佐明의 아들이다. 효종 8년에 진사가 되고, 현조 3년 증광문과에 장원하여 典籍·이조좌랑 등을 지냈다. 서인 중의 漢堂으로 山堂을 숙청하고 수어사·도승지 등으로 특진되었으며 1680년 許積 등 남인세력을 추방한 공으로 保社功臣으로 청성부원군에 봉해졌다. 1682년 우의정으로 호위대장을 겸직하였고,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서인의 소장파로부터 반감을 사서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열하는 원인의 하나를 제공하였다. 숙종 15년 己巳換局으로 공신호를 박탈당했다가 후에 복구되었다. 숙종 묘정때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文忠으로 저서에 〈息庵集〉〈海東辭賦〉 등이 있다.

⑥ 나홍좌 1649(인조 27) ~ 1709(숙종 35)

지금 남산국민학교가 있는 부근의 마을을 흔히들 「나대장골」이라 불러오는데 이것은 大將 羅弘佐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으로 약하여 「羅洞」으로 쓰기도 하였다.

羅弘佐의 본관은 安定, 자는 濟伯, 증조부는 참의 萬甲, 아버지는 星遠이며, 어머니는 동지중추 權順昌의 딸이다. 宋凌吉의 문인이었으나 무예를 닦아 선전관을 비롯하여 總府都事·훈련원정을 거쳐, 1685년(숙종 11) 내금위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풍기를 문란시켰다고 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僉樞·훈련도감 증군·훈련대장겸 총관총융사를 거쳐 훈련도정 겸 주사당상이 되었다. 1699년 어영대장을 거쳐 한성좌윤에 임명되고 이듬해 포도대장이 되었다. 외직으로는 中和府使·서흥현감·봉산군수·礪山討捕使·숙천부사·춘천방어사·정주목사·해미현감·영흥부사·함경남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삼도통제사에 제수되었다. 1699년 노·소론간의 대립으로 科獄이 일어나자 이듬해 포도대장으로 과육을 안치하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무고를 입고 龍川에 유배되었다.

1703년에 金昌集 등 대신들의 변론을 통하여 풀려나서 춘천방어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후 수원방어사에 부임하였으나 곧 사직하였다. 인품은 충효가 돈독하고 식견과 도량이 넓고 淸約簡嚴하였으며, 특히 聽訟이 공평하고, 지방의 황폐한 곳을 잘 다스렸다.

⑦ 南在 1351(충정왕 3) ~ 1491(세종 1)

조선 초기의 賢人이며 名政丞으로 알려진 龜亭 南在(1351 . 1419)는 晩年을 南山 북쪽 기슭에 龜亭에 짓고 살았다. 집 근처에 바위가 있어 그 모양이 거북을 닮았으므로 龜巖(一名 槽巖)이라 하였는데 이를 따서 그의 雅號를 龜亭이라 하였다.

南在는 李太祖의 潛邸時 친구로서 아량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數學에 능하여 「南算」이라는 칭호를 듣기도 하였다.

처음 이름은 謙이었는데 太祖가 朝鮮을 세울 때 피하고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람을 시켜 여러 곳을 물색하여 찾고서는 그가 살아 있음을 기뻐하여 이름을 在로 下賜하였다 한다.

南在의 자는 敬之, 호는 龜亭, 본관은 宜寧, 檢校侍中 乙蕃의 아들, 李穡의 문인, 進士試에 합격한 후 左副代言을 지내고 아우 闇과 함께 李成桂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웠다. 1392년(태조 1) 포상을 피하여 은거했으나 태조에게 처소가 알려져 在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開國功臣 1등으로 中樞院 學士겸 대사헌이 되었으며, 宣城君에 봉해졌

다.

判中樞院事·參贊門下府事를 거쳐 1396년 都兵馬使로서 쓰시마도(對馬島)를 정벌했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에 아우 은이 살해됨과 함께 잠시 유배되었다가 혐의가 없어 다시 풀려나와, 1400년(태종 즉위)世子 師傅가 되었다. 후에 경상도 都觀察使·議政府 贊成事를 거쳐 우의정에 이르러 府院君에 進封, 1416(태종 16) 영의정에 올랐다. 경제에 밝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算數에도 능하여 당시 南山이라 불렸다. 태조의 廟庭에 配享, 시호는 忠景, 著書로는 <龜亭遺稿>가 있다.

⑧ 朴承宗 1562(명종 17) ~ 1623(인조 1)

광해군 때 인목대비를 구하고 자결한 영의정 朴承宗의 第宅과 읍白堂은 중구 예장동 2번지 後凋堂의 동쪽 기슭에 있었다.

朴承宗의 자는 孝伯이고, 호는 退憂堂으로, 본관은 密陽이다. 兵曹判書를 지낸 啓賢의 손자이고 知敦 安世의 아들이다. 1585년(宣祖 18)에 進士가 되고 이듬해에 別試文科에 兵科로 급제하였다.

1589년에 奉敎가 되고 이어서 知製敎·兵曹正郎을 지내고 1600년(宣祖 33) 冬至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4년에 副提學이 되고 1607년(선조 40)에 兵曹判書를 역임, 1610년(光海君 2)에 刑曹判書에 이어 判義禁府事가 되었다.

이때에 간신배들에 의해서 宣祖 임금의 繼妃인 仁穆大妃를 폐하자는 이른바 廢母論이 일어나자 공은 이를 극력 반대 공격하였다. 그러나 趙稷 등이 上疎하여 도리어 여러해 동안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건만 백가지로 대비를 감싸고 구호하였다.

1618년(光海君 10)에 右議政 겸 都體察使에 이어 좌의정이 되고 이듬해에 영의정이 되어 密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이 즈음에 아들이며 李爾瞻의 사위가 되는 自興의 딸이 世子嬪이 되었기에 봉작을 받은 것이다.

1623년에 仁祖反正이 일어나자 아들 자홍과 함께 조상이 묻힌 先山으로 달려가 선조 묘 앞에서 목매달아 함께 죽었다. 이 세상을 이별하는 글을 옷자락에 쓰기를 "임금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 계신 先王을 뵈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으로써 하늘과 땅 그리고 鬼神에게 죄를 뵈니다."하였다.

공은 죽은 직후에 한동안 가산을 몰수당하였고 또 관직도 追奪되었으나 뒤에 伸冤되어 肅愍公이란 시호까지 받았다.

國婚을 맺은 부원군의 몸이며 증경 영의정으로서 한결같이 임금을 간하여 인목대비를 구호하였으면서도 인조반정에도 자기의 행세를 자랑삼아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임금을 바르게 보필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도 군신의 대의를 지키는 마음씨로 스스로 자결한 공의 그 義氣를 후세 사람들은 우리러 칭송하여 마지 않은 듯 <漢京識略>과 <東國輿地備考> 各洞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즉 앞 기록에는 “南部 南學洞에 南學이 있고 「박승중」의 옛집이 있는데 「읍백당」이라 한다”하였고, 「여지 비고」에도 “남부 「박승중」의 집은 樂善坊에 있는데 別園이 後凋堂 동편 기슭에 있다. 광해 때에 인목대비께서 서궁에 유폐되어 계실 때 서궁은 성 서쪽 白岳山 아래에 있었으므로 서궁을 향해서 집을 짓고 그 堂號를 「읍백」이라 扁額을 달았다. 무릇 서궁을 바라보며 손모아 절한다는 뜻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에 대한 후세인들의 평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⑨ 朴闇 1479(성종 10) ~ 1504(연산군 10)

천재 시인으로 그가 살고 간 당시에 있어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 詩壇의 제1인자로 평가받은 朴闇은 자는 仲悅이고 호는 淸翠軒으로 본관은 高靈이다. 漢城府判官을 지낸 聃孫의 아들로 漢城 南部 長興洞 곧 지금의 中區 會賢洞에서 나서 그 곳에서 살았다. 특히 靑鶴洞에서 李荇과 더불어 시와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

15세 어린 나이로 문장에 능하여 二樂亭 申用漑의 눈에 들어 그의 사위가 되었다. 1495년(燕山君 1)에 進士가 되고, 이듬해 18세로 式年文科의 兵科로 급제하여 湖堂에 뽑혀 賜暇讀書를 하였다. 그후 承文院에 발탁되었다가 弘文館의 正字·修撰을 역임하고 5년동안 經筵官으로 있었다. 일을 당하면 반드시 말을 서슴치 않음에 임금이 그를 꺼리고 宰相들도 또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일찌기 홍문관의 관원들이 서쪽 邊方에 성을 쌓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고 논하여 權臣의 뜻을 거슬린 끝에 訊問을 당하였다. 박은은 부모를 뵈려고 지방에 갔다가 조정에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 곧 그날로 신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진술하여 疎와 답자를 날마다 서너번씩 올렸다. 이때의 글발이 모두 격렬하였다. 10일이 지나도 그의 소가 그치지 않자 같은 반열에 있는 동료들이 모두 두려워 하였다. 이에

박은은 분명히 말하기를,

“災禍와 복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있으리오. 신하로서 할 일은 忠誠이니 나의 도리를 다 하다가 재화를 당한다 해도 두렵지 않다.”

하며 더욱 힘써 간하였다. 연산 임금도 마침내 그의 소를 들어 주었으므로 바른 말 잘한 다는 명성이 조정에 떨치었으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柳子光이 음험하고 간사한 인간임을 남김없이 글로써 준열하게 임금께 아뢰고 또 成俊과 李克均이 유자광에게 아첨하는 사실도 글로 올리자 성준 등이 크게 노하여 조정에 나아가 그를 訊問하기를 청하고 다른 일로써 모함하여 옥에 갇히고 관직도 파면되었다. 이로부터 스스로 세속사람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고 山水間에 방황하며 글과 술로서 스스로를 즐기었다. 술이 취하면 문득 붓대를 잡아 문장을 썼는데 모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지라 사람들이 “참으로 천재이다. 동방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만한 작품이 오래도록 없었다”며 칭송하여 마지 않았다.

1504년(燕山君 10)에 知製敎에 임명되었으나 연산 임금이 지난날 무절제하게 사냥하며 백성들을 괴롭힌 사실들을 홍문관에서 간한 사실을 들추어내서 먼저 그러한 의론을 꺼낸 혐의를 박은에게 둬 그해 4월에 東萊로 귀향갔다가 뒤에 서울 옥에 옮겨져서 심한 고문을 받고 급기야는 死刑을 당하였다. 이때 나이 27세였던 바 죽음에 이르러 하늘을 쳐다보고 세번 크게 웃었다. 1506년(中宗 元年)에 신원되어 都承旨에 追贈되었다.

음취헌 박공은 정신과 골격이 맑고 눈과 눈썹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일찌기 千秋使를 따라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音韻을 묻자 중국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것을 만만히 보았다가 작품을 보고서야 정작 놀라면서,

“기특한 재주로다. 기특한 재주로다”며 재삼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음취헌유고가 전하는 중에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애송되는 시로서

봄하늘 음산한데 새들 지저귀고	春陰欲雨鳥相語
늙은 나무 무정코너 바람이 없네	老樹無情風自哀
바다의 저 안개 비가 되어 내리고	海氣作霧仍成雨
새찬 파도 하늘까지 바람을 이네	浪勢翻天自起風

의 칠언 절구가 있거니와 서울의 명소를 읊은 「잠두봉시」 두 수와 「大隱岩 시」도 전한

다. 저서로 <읍취헌유고>가 있다.

⑩ 朴趾源 1737(영조 13) ~ 1805(순조 5)

근세 實學派의 대표적 실학자이며 소설가인 朴趾源은 1737년(英祖 13)에 서울 종로구 桂洞(桂生洞)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선조 임금의 부마인 錦陽慰 미의 五世孫이요 知敦 寧府使 弼均의 손자요, 師念의 아들로 자는 仲美요, 호는 燕岩이요, 본관은 潘南이다.

선생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16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결혼하여 처삼촌인 李 君文에게서 글을 배웠다. 이때부터 오로지 학문에 전심하여 학문 전반에 걸쳐 그 연구가 깊었다. 나이 30세에 敎學者인 담헌 洪大容과 함께 종래의 陰陽五行說을 부정하고 氣 火說을 주창하므로 地一轉 곧 지구가 한바퀴 돌면 하루가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는 서양보다도 앞선 발견이었다.

1777년(正祖 1)에 恒齋 洪藥性和 교분이 두텁다 하여 당시의 權臣인 洪國榮으로부터 僻派로 몰리어 신변에 위협을 느껴 金川 燕岩峽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더욱 독서에 전심 하였다. 1789년에 삼중형인 朴明源이 進賀使가 됨에 따라 청나라에 가서 小卿 趙光連·왕민호 등과 만나 담론하며 중국인들의 利用厚生하는 실생활을 보고 그후로 더욱 실 학에 뜻을 두어 저 유명한 <熱河日記> 26권을 저술하였다.

1786년에 임금의 특명으로 繕工監 監役이 되고 1789년 司僕寺主簿가 되고 이듬해에 義禁府 都事·齋陵令이 되었다.

1791년(正祖 15)에 漢成府判官이 되었다가 安義縣監이 되고 1797년에 목川都守가 되었다. 이듬해에 왕명으로 農書, 課農小抄, 限民名田義 2권을 撰進하여 임금의 칭찬을 받았다. 1800년(純祖即位年)에 襄陽府使가 되었다가 이듬해에 65세로 나이 많음을 핑계로 그만두었다.

선생은 담헌 홍대용과 더불어 地一轉을 알아내었는 바 청나라의 조광련·왕민호 등과 담론할 때 이 “지일전”설을 주창하여 한창 황금의 文運을 자랑하던 청나라의 儒學子들을 도리어 놀라게 하였다.

선생은 英祖·正祖년간에 있어서의 北學派의 영수로서 과감히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선생은 글에도 특히 뛰어나서 李德懋·柳得恭·朴齊家·李書

九 등이 우러러 스승으로 여겼다. 선생이 쓴 〈熱河日記〉는 당시 보수파인 觀念學者들로부터 稗官者流니 僞學者니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으나 선생은 그 저술 속에 정치·경제·병사·천문·지리·문학 등 각 방면에 걸쳐 청나라의 새 文物을 서술하여 그곳의 實學思想을 소상히 소개하였다. 또 10편에 달하는 한문 소설은 독특한 諧謔으로써 고루한 양반, 무능한 위정자를 풍자하는 등 독창적인 事實의 문체를 다루어 문체 革新의 표본이 되었다.

근대 開化黨의 元祖라 할 수 있는 고종 때의 右議政 환재 朴珪壽는 바로 선생의 손자다. 선생은 사후에 나라로부터 正卿大夫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文度이다.

⑪ 尙震 1493(성종 24) ~ 1564(명종 19)

남산 기슭 南創洞에 얼마 전까지 尙洞이란 지명이 전하고 있었다. 이는 한성부 판윤을 지낸 尙震이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었던 것이다. 상진의 자는 起夫요, 호는 松峴·泛虛齋요, 당호는 嚮日堂이요, 본관은 本川으로 찰방 普의 아들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의기가 강하고 작은 일에 거리낌이 없어 열살 전후에는 즐겨 활쏘기를 잊지 않았다. 같은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고는 글읽기에 분발하여 다섯 달만에 글 뜻을 통달하고 10개월 후에는 글이치에 막힘이 없었다.

1519년(中宗 14)에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史官으로 뽑혔다. 校閱 벼슬 때 고향에 내려갔다가 아버지가 소 두마리로 밭에 쟁기질 하는 것을 보고 “어느쪽 소가 더 낫습니까?”고 물었던 일이 있었다. 이때 아버지는 아무 대답을 않더니 비밀히 “짐승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 실인즉 나이 어린 놈이 낫더라”고 말함에 공은 “진정 아버님께 서는 명예같은 것을 탐내지 않으시는 隱君子입니다”고 사과드리고 그후로는 삼가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항시 남에게 꺼리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

1526년(중종 21)에 禮曹左郎으로 聖節使의 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528년 侍講院 弼善이 된 뒤에 掌令·文學·承文院校理를 거쳐 執義·應校를 지내고 1533년(中宗 28)에 司諫·副提學을 거쳐 大司諫에 올랐다.

1535년 同副承旨가 되고 1537년(中宗 32)에 形曹參判이 되었다. 이듬해에 京畿道 觀察使·大司憲을 거쳐 1541년(중종 36) 9월 27일자로 漢城府判尹이 되었다.

그후 戶曹와 兵曹의 判書를 지내고 1543년에 工曹判書·知敦寧府事를 역임하였다. 이듬해에 중종 임금이 돌아가시자 知春秋館事로 〈中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후 判義禁府事로서 知經筵事を 겸했고 1545년(仁宗元)年)에 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이듬해 明宗이 즉위하자 다시 우찬성에 보직되었다가 병조판서를 거쳐 右議政이 되고 1551년(明宗 6)에 좌의정, 1558년(明宗 13)에 領議政에 올랐다.

이 때에 어느날 임금께서 대궐 뒤 御苑에 납시어 모든 신하들이 받들어 모신 자리에서 술을 내리셨다. 공은 평소에 술을 못마시는 터라 하사하신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임금께서 좌우 신하로부터 공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음을 아시고 下敎하시기를 “대신이 길가에 쓰러져 있으니 미안스러워 어찌 자나가겠는가, 장막으로 가리게 하여라”하시고 帳幕을 둘러 보살피게 한 다음 덩이 지나갔다. 이에 공은 나이 71세라 관직을 내어놓고 물러났다.

1563년(明宗 18)의 일이었다. 그러나 致仕는 허용되지 않고 領中樞府事에 전임된 후 耆老所에 들어가 柎杖을 하사받았다.

인품이 관후하고 인자하여 15년동안 大臣으로 임금을 보좌하는 중에 朝野의 신망이 두터워 모두 名相으로 우러러 보았다. 1564년(명종 19)에 향년 72세로 세상을 떠남에 임금님께서 〈노덕대신을 애도함(悼老德大臣)〉이란 題를 내고 시를 지어 조상께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도 공이 얼마나 무게있는 인물이었던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선조 말까지만 해도 지금 南大門路 3가 일대를 尙洞이라 하였는바 〈漢京識略〉 各洞 편에 〈尙政丞洞 在崇禮門內路傍 英宗動駕 過此路傍時 掖隸 例爲唱告洞名 則上 爲 軾而過〉하다 한 것으로서도 상정승동이 남대문 안 길가의 동네였음을 알 수 있다. 상정승동의 범위는 대체로 지금의 南大門路 3가와 太平路 2가·北倉洞·南倉洞에 걸쳤던 것으로 英祖께서 거둥하실 때 宮庭下輩들이 준례대로 “상 정승 골이요 ~”하고 의자 덩 안에서 손수 몸을 굽혀 경의를 표했다고 하니 18세기까지도 동리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공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숭앙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상정승동이 언제부터 상동으로 약칭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도 새로나백화점 자리에 尙洞敎會가 남아 내려 오고 있다. 공의 시호는 成安이다.

⑫ 沈綱 1514(중종 9) ~ 1567(명종 22)

남산기슭 會賢坊의 分戶曹 앞에 沈綱의 집이 있었는데, 宣祖가 義州의 몽진에서 돌아와 보니 궁궐·종묘가 모두 불타버리고 없었으므로 부득이 이 집에 神主를 맡기었다 한다. 沈綱의 자는 伯柔, 본관은 靑松, 영의정 連源의 아들, 명종의 장인, 義謙의 아버지이다. 1543년(중종 38) 進士試에 합격, 陰補로 活人署 別坐가 되고, 1546년(명종 1) 靑陵府院君에 領敦寧府事가 되었다. 1548년(명종 3) 五衛都摠管이 되고, 1558년(명종 13) 父親喪으로 사직, 상이 끝난 후 영돈령부사와 도총관을 겸했다. 1563년 新進士類로서 화를 당하려던 朴淳 등을 아들 의견과 함께 구하고 권신 李樞를 제거하게 하여 칭송을 받았다. 시호는 翼孝이다.

⑬ 尹 愰 1572(선조 5) ~ 1639(인조 17)

附 尹宣舉 1610(광해군 2) ~ 1619(현종 10)

南山기슭 필동의 禁衛營 서문 밖에 「八松井」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는 八松 尹愰의 집에 딸린 우물이었다. 또 그의 아들인 美村 尹宣舉 이는 八松 尹愰의 집에 딸린 우물이었다.

尹愰의 자는 德, 호는 八松·魯谷, 본관은 坡平, 昌世의 아들. 장인 成渾의 문인이 다. 1592년(선조 30) 謁聖文科에 乙科로 급제, 正字에 보직되고 1601년 典籍에 올랐다. 監察·正言에 이어 병조·예조·형조의 佐郎을 거쳐 水原·北靑의 判管과 靈光郡守를 지내고 奉常寺正에 이어 軍器監正에 전임, 1616년(광해군 8) 大北의 탄핵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尼山에 은거했다. 仁祖反正(1623)후 掌令·執義·대사간·檢詳·舍人·同副承旨·吏曹參義·全州府尹 등을 역임, 1624년 副應敎로서 李适의 난 때 檢察使였던 李貴가 臨津江싸움에서 패한 죄를 탄핵했다. 丁卯胡亂(1627)과 丙子胡亂(1636)때 司諫으로서 斥和를 극력 주장, 1637년 金尙憲·鄭蘊이 斥和臣으로 청나라 군영에 붙잡혀 가게 되자 대신 붙잡혀 갈 것을 자청했으니 허락되지 않았다. 환도 후 상소 문중에 불손한 귀절이 있어 永同君에 유배되었다가 병으로 풀려나와 죽었다. 글씨에 능했다. 영의정에 追贈·魯城의 魯岡書院, 永同의 草江書院, 靈光의 龍溪祠에 祭享, 시호는 文正. 著書로 〈八松奉事〉가 있다.

尹宣舉의 자는 吉甫, 호는 美村·魯西·山泉齋, 본관은 坡]平, 대사간 煌의 아들, 極의 아버지, 金集의 문인이다. 1633년(인조 11) 生員·進士의 兩試에 합격, 성균관에 입학했고, 1636년 後金의 사신이 입국했을 때 유생들의 疎頭가 되어 사신을 죽이고 명나라에 대한 義를 지키고자 상소했으며, 이해 12월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江華에 피난, 성문을 지키다가 이듬해 강화가 함락되자 처 이씨는 자살했으며 평민의 복장으로 성을 탈출, 목숨을 건졌다.

그후 비겁하게 살아난 사실을 자책하여 諮議·形曹佐郎·持平·掌令·執義 등의 벼슬에 여러번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 錦山에 가서 평생을 학문 연구에 정진했다. 특히 禮論에 정통했고 성리학 전반에 걸쳐 당대의 대가가 되었다. 평소 친교가 있던 宋時烈과 尹希가 학문으로 대립하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여 오히려 양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죽은 뒤 그의 아들 증으로부터 아버지의 묘갈을 청탁받은 송시열은 선거가 생전에 윤휘와 절교하지 않은 점에 불만, 자기 글이 아닌 朴世采가 찬술한 行狀 그대로 인용하여 써 주자 양인의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西人이 老·少論으로 갈라졌다. 1715년 兪영와의 共編인 〈家禮源流〉의 跋文으로 노·소론의 싸움이 일어나자 이듬해 아들과 함께 관작을 追奪당했다가, 1722년(경종 2) 부자가 함께 관작이 복구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모두 능했다. 영의정에 追贈, 永春의 宋坡書院, 靈光의 龍巖祠, 魯城의 魯岡書院, 交河의 新谷書院 등에 祭享, 시호는 文敬. 著書로 〈魯西遺稿〉〈發甲錄〉〈魯西日記〉〈牛溪年譜後說〉이 있으며 作品으로 글씨 〈金集墓碣〉이 있다.

⑭ 李 安 訥 1571(선조 4) ~ 1637(인조 15)

지금 中區 墨井洞의 東國大學校 정문 안 비탈길 왼쪽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東岳詩壇」이라는 한자를 새긴 바위가 남아 있었으나 집을 짓기 위해 없앤 것은 못내 아까운 일이다. 〈漢京識략〉 各洞條에 보면 “남산기슭 墨寺洞에 李東岳 安訥의 옛집이 있는데 그 동산에 詩壇이 있다”하였고 또 古跡條에는 “동악 시단이 남산 아래 墨洞에 있는데 李東岳 安訥 등이 집 동산 기슭에 있는 이 단에서 여러 글 선비들과 더불어 시를 읊어 성황을 이루었다. 지금도 그 遺墟가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話題로 삼고 있다. 그 옆에는 홀꽃 紅梅花 나무가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얻은 종자이다”하였다. 「묵사동」「묵동」이 바로 오늘

날의 목정동이고 동악시단 자리가 근자까지 남아있던 바로 동국대학교 정문 안이다.

남산기슭 여기에 정자를 짓고 逍遙自適하였던 仙風道骨의 桂冠詩人인 안눌의 자는 子敏이요, 호는 東岳으로 본관은 德水로 靑鶴道人 容齊 李荇의 증손이고 河의 아들로 璚의 養子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서 神童이라 하였다. 일찌기 成均館에서 배풀어진 과거 시험에 급제하니 나이 많은 선비들이 모두 "이 총각을 당할 길이 없다"하고 감탄함에 宣祖임금이 손수 자리 옆에 그의 이름을 써놓은 일도 있었기에 사람들이 큰 영광이라 하였다. 어렸을 때 독서를 하면 반드시 만번을 되풀이 하여 읽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만번을 읽지 않고는 내것을 삼을 수 없다"하고 "나의 할아버지 容齊公이 곧 나의 마음의 스승일 따름이다"하였다.

1599년(宣祖 32) 庭試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여 여러 言官職을 거쳐 1601년에 禮曹와 李曹의 正郎을 지내고 같은 해인 進賀使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遠接使의 從事官이 되었다. 1607년에 承文院 部提調 同副承旨를 지내고 文臣庭試에 급제한 후 1617년에 禮曹參議에 오르고 이듬해 江華府尹 1622년에 副司果가 되었다.

이 해 광해군의 폭정에 분개하여 은퇴하던 중 1623년 仁祖反正으로 다시 등용되어 禮祖參判에 올랐으나 이듬해 李括의 난 때 이괄의 난 친한 나머지 방관하였다는 三司의 탄핵을 받아 거주지의 제한을 받았다. 1628년(仁祖 6)에 풀려서 江華府 留守에 복직된 후로 형조참판을 거쳐 1631년(仁祖 9)에 咸鏡道觀察使가 되고 다음해 奏請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인조임금의 아버지인 鄭遠君의 追尊을 허락받아 元宗이란 시호를 받고 돌아온 공으로 예조판서에 올랐다. 1633년 藝文館 提學 이듬해에 忠淸道觀察使를 지내고 1636년 丙子胡亂 때 인조를 따라 南漢山城까지扈從하였다. 죽은 후에 淸白吏에 緣選되었다. 후에 左贊成에 追贈되었고 沔川의 鄉祠와 潭陽 龜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文惠로 저서에 「東岳集」이 전한다.

동악은 일찍부터 특히 石州와 사귀며 선조 때 시단에 있어서 쌍벽을 이루었다.

그들이 風流 재상인 松江 鄭澈을 애모하여 適所인 江界에까지 찾아갔을 때 송강은 그들을 일컬어 "天上의 두 신선"이라 하였던 것을 미루어 보면 동악의 風格을 알 수 있다.

⑮ 李浚慶 1499(연산군 5) ~ 1572(선조 5)

남산기슭 墨寺洞의 「찬샘골」 「纘新井洞」에 明宗 때 영의정으로 宣祖를 왕위에 모셔 들이게 한 李浚慶의 옛집이 있었다.

李浚慶의 자는 原吉, 호는 南堂·養高·紅蓮居士, 본관은 廣州, 副修撰 守貞의 아들이다. 1594년(연산군 10) 甲子士禍에 화를 입은 조부와 부친에 연좌하여 형 潤慶과 같이 槐山에 流配되었으며, 1506년 中宗反正으로 풀려나온 뒤 申承演·黃孝獻에게 수학, 1522년(중종 17)생원이 되고 1531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 副修撰에 등용되었다가 1533년 司經으로서 己卯士禍(1519) 때 被罪人의 무죄를 論했다가 金安老 등의 미움을 사서 파직, 1537년 監安로가 賜死된 뒤 다시 기용되었다. 이어 應教·輔德·承旨 등을 거쳐 直提學, 1543년 文臣庭試에 장원, 漢城府右尹에 오르고 大司成을 지냈다. 이듬해 中宗이 죽자 告訃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참판이 되었고, 1545년(명종 즉위) 乙巳士禍 때는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 있어서 화를 면했다. 1548년 병조판서·漢城府判尹을 거쳐 1550년 대사헌이 되었다. 앞서 병조판서 때 이기가 뇌물을 받고 求官者의 이름을 적어 보내어 등용을 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던 일로 그 일당인 李無疆의 탄핵으로尹任일파로 몰려 報恩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기가 파직되자 석방되어 知中樞府事가 되었고, 1553년 함경도 지방에 野人들이 침입하자 咸鏡道巡邊使가 되어 그들을 招諭했다. 1555년 호남지방에 倭寇가 침입하자 전라도 都巡察使로 출정, 이를 격퇴하고 돌아와 右贊成 겸 병조판서가 되고, 1558년 우의정, 1560년 좌의정, 1565년(명종 20) 영의정에 올랐다. 1567년 명종이 죽자 교지를 받들어 선조를 迎立하고 院相으로서 국사를 다스리며 新進士類와 기성사림 사이의 알력을 조정하려다가 新進士類의 政敵이 되어 奇大升 등의 공격을 받았다. 1571년(선조 4) 영의정을 사임, 領中樞府事가 되었다. 죽을 때 朋黨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遺疏를 올려 李珥와 3司의 규탄을 받았으나 뒤에 東西分黨이 일어나 그의 예언이 적중했다. 선조 廟庭에 配享, 淸安의 龜溪書院 등에서 祭享, 시호는 忠正. 著書로 <東臯遺稿> <朝鮮風俗>이 있다.

①⑥ 李 恒 福 1556(명종 11) ~ 1618(광해군 10)

附 李裕元 1814(순조 14) ~ 1888(고종 25)

이항복은 南山의 동쪽 기슭 南倉洞 202번지에 집을 마련하고 이 부근의 그윽하고 이름

다운 경치를 사랑하여 주위에 樹木과 花草를 심어 자연의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집위 자그마한 언덕에는 손수 두그루의 전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후손에 오래가지 못하고 이항복은 종로구 필운동 9번지 彌雲臺로 옮겨 살게 되고 이곳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새 주인이 그 전나무 사이에 집을 짓고 「雙檜亭」이라 하였으며 文人·墨客들이 즐겨 찾았다.

純祖 때에는 石帆 徐念淳이 다시 정자를 짓고 부근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 정자 이름을 「紅葉亭」으로 고쳤다.

哲宗末에 白沙의 후손인 橘山 李裕元이 다시 이 집을 사서 邸宅 亭閣을 수리하고 先祖의 故事를 추모하여 扁額을 전과 같이 「雙檜亭」으로 바꾸어 달았다. 또 이미 없어진 전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고 많은 花樹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그곳 높은 바위에 「橘山」이라 새겼는데 橘山은 곧 南山을 뜻한다 하며 또한 李裕元의 號이다.

그런데 一說에는 이 雙檜亭이 興宣大院君의 命名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즉 李裕元이 이곳을 매입하여 집을 아담하게 꾸미고 하루는 大院君을 비롯한 조정 백관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을 때 李裕元이 大院君에게 새로 지은 정자의 命名과 어울려 揮毫를 부탁했다. 大院君은 쾌히 승낙하고 마침 눈을 들어 보니 두 그루의 전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서 있는 지라 雙檜亭이라 名하고 「雙檜亭」세자를 써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大院君이 평소에 李裕元을 미워하던 참이라 이때를 타서 잠깐 희롱하는 뜻으로 「宋나라의 美檜는 一檜인데도 나라를 그르쳤는데 李裕元은 二檜나 된다」는 말임을 뒤에 他人에게서 전해 듣고 두 그루 전나무를 베어버리고 額子를 떼어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李裕元이 죽은 후 日本人 和田某의 소유가 되었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다.

李恒福은 高麗의 門下侍中 齊賢의 후손이며 參贊 夢亮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自常이요, 호는 白沙·清化眞人·東岡·素雲이며 본관은 慶州이다. 공은 태어나자 2일간 젖을 빨지 않았고 3일간 울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몹시 염려하여 판수 朴堅에게 점을 치게하니 이르기를 “이 아기는 크게 귀한 인물이 되리라”고 하였다 한다. 공이 8세 때 큰 칼과 거문고를 내보이며 시를 지으라 하자 劍有丈夫氣요, 琴藏太古音이라 하였다 한다.

공은 1580년(宣祖 13) 29세 謁聖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權知副正字를 거쳐 이듬

해 檢閱이 되고 1583년 賜暇讀書로 翰林에 뽑혔다. 이때 栗谷 李珣선생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는데 그 중에 공이 들었다. 그후 著作, 博士를 거쳐 典籍, 正言, 修撰, 吏曹正郎 등을 역임하였다. 1589년(宣祖 22)에 鄭汝立의 모반사건을 다스렸다. 이때 임금께서 처리방도를 물음에 밝히 민첩하게 그 방책을 아뢰자 임금께서는 “〈高才高才〉”하시며 그 영민함에 감탄하여 마지않았다.

應教, 舍, 典翰, 直提學, 右承旨를 거쳐 1590년 戶曹參議가 되었고 정여립의 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平難功臣 3등이 되었다. 이듬해 좌승지로 있던 중에 松江 鄭澈의 죄를 다스리는데 태만했다는 죄로 파직되었으나 다시 都承旨에 발탁되어 1592년(宣祖 25)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王妃를 따라 開城까지 護衛하고 이어서 두 왕자를 平壤까지 호위하였으며 선조임금을 따라 義州까지 호위하였다. 그동안 吏曹參判으로 鰲城君에 봉해진 후 刑曹判書로 都摠管을 겸직했고 다시 大司憲을 거쳐 兵曹判書가 되자 漢陰 李德馨과 힘을 모아 明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안으로 임금께 충성을 다하는 勤王의 군사를 모집하였다. 이어서 병조판서로 直提學을 겸하고 또한 知經筵春秋館事, 同知成均館事 左賓客 등을 겸직하였다.

그해 명나라의 지원군을 先導하여 맞아들였으며 이듬해 遠接事가 되고 1594년 병조판서로서 舟師大將을 겸직하고 다음해에 이조판서 兩館大提學 知參贊 등을 역임, 1597년 병조판서에 재임중 신병으로 사임하였다. 이렇듯 공은 임진왜란 중 5차례나 병조판서로서 兵權을 잡고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右議政으로 陳奏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었고 1598년에 우의정, 다음해에 좌의정에 전임되었고 영의정에 승진하여 1602년에 鰲城府院君에 進封되었다. 이해에 牛溪 成渾을 구하려다가 鄭澈의 일당이라는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1604년에 扈聖功臣에 봉해지고 1608년(光海君即位)에 좌의정으로 도체찰사를 겸한 후 1611년에 우의정이 되었으나 1613년 소위 逆魁를 천거하였다는 臺諫의 탄핵으로 辭職疎를 올리고 은거하였다.

1617년(光海君 9年)에 仁穆大妃의 소생인 永昌大君이 강화로 귀양가고 이어서 鄭造尹민등이 廢妃論을 들고 나서자 공은 의연히 수염마저 곤두세우고 “나의 뜻은 이미 결심한 바다”라고 疎를 올려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이 때 공의 그 의로운 정의에 모두 머리발이 선 채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이 반대상소로 해서 공은 관직이 삭탈되고 이듬해에

北靑으로 귀양갔다. 이때 공은 스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집안사람 하여금 壽衣를 갖추어 따르게 하였다. 공은 귀양길 도중 鐵嶺을 넘으며 이렇게 읊었다.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孤臣怨淚를 비삼아 띄어다가

님계신 九重深處에 뿌려볼까 하노라.

공은 그해 1618년 5월에 북청땅에서 63세 일기로 운명하였다.

백사 오성부원군은 벼슬길 40년 동안 임진왜란 중에 난리의 뒷수습을 하는데 힘쓴 名臣으로서 黨爭속에서도 朋黨에 가담하지 않고 그 調停에 힘쓰는 등 전심전력 나라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기에 돌아간 그 해에 다시 復官되었을 뿐만 아니라 淸白吏에 綠選되었다. 抱川의 花山書院, 북청의 老德書院에 제향, 시호는 文忠이다.

공은 글에도 뛰어나서 저서에 〈白沙集〉이 있어 詩文과 〈奏疎啓議〉 각 2권, 〈四禮訓蒙〉 1권, 〈魯史零言〉 15권 〈北遷日錄〉 〈柳淵傳〉이 있다.

李裕元의 자는 景春, 호는 橘山·墨農, 본관은 慶州, 이조판서 啓朝의 아들. 1841년 (헌종 7) 庭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여러 벼슬을 거쳐 1845년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義州府尹·함경도관찰사를 역임했다. 安東金氏의 世道를 배경으로 고종초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大阮君이 집권하자 그와 反目, 1865년(고종 2) 水原 留守로 좌천되었다가 이해 영중추부사로 전임되어 〈大典會通〉 편찬의 총재관이 되었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영의정에 올라 대원군공격의 선봉이 되었으며, 1875년 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仁川의 開港을 주장하다가 守舊派의 공격을 받고 다시 영중추부사로 물러났다. 1880년 致仕하고 奉朝賀가 되었으나 이듬해 그의 開化를 반대하는 儒生申橋의 강력한 상소로 巨濟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왔다. 1882년 全權大臣으로서 일본 辨理公使 花房義質과 濟物浦條約에 조인했다. 隸書에 뛰어났다. 시호는 忠文이다. 著書로 〈林下필記〉, 〈橘山文稿〉 등이 있다.

⑰ 鄭光弼 1462(세조 8) ~ 1538(중종 33)

鄭光弼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世稱 會洞鄭氏를 이루었는데 회동은 곧 회현동을 말한다. 中區 會賢洞 1街 14번지는 속칭 鄭氏터라고 부른다. 會賢洞이란 이름도 이들에게서 유

래하였다. 鴨脚樹가 큼직하게 자라고 있었다. 12개의 犀帶를 申人이 와서 걸어두고 간 후로 鄭씨들이 이 터에서 발복하여 鄭光弼·鄭太和 등의 名賢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그이후도 世世孫孫이 여기에 살았다.

鄭光弼의 자는 士勛, 호는 守天, 본관은 동래로 좌참찬 蘭宗의 아들이다. 성종 23년(149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홍문과에 등용되고, 부제학·이조참의를 역임, 1504년 갑자사화 때 왕을 극간하다가 아산부제학·이조참의를 역임, 1504년 갑자사화 때 왕을 극간하다가 아산에 귀양갔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부제학에 복직, 이조참판, 예조판서, 대사헌을 거쳐 1510년 유참찬으로 전라도 도순찰사가 되어 삼포왜란을 수습 후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중종 11년 영의정에 올랐다. 중종14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구하려다가 파직, 1527년 다시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에 올랐으나 실권은 좌의정 沈貞에게 있었고 세자를 저주한 사건이 일어나자 면직되었다. 1537년 총호사로 章敬王后의 능 禧陵을 불길한 땅에 만들었다는 金安老의 무고로 김해에 귀양갔다가 이 해 金安老가 賜死되자 곧 풀려나왔다. 이때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에 의해 영의정으로 추천되었으나 과거 영의정으로서 조광조를 구하지 못하고, 심정의 죄를 바로잡지 못한 위에 희릉의 땅이 나쁜줄 알면서 그대로 묵인했다는 이유로 중종이 거절했다. 중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文翼이며 저서로 <정문의공유고>가 있다.

⑩ 鄭汝昌 1450(세종 32) ~ 1504(연산군 10)

조선시대 학자·문신으로 중구 회현동에서 살았다. 자는 伯勛, 호는 一囊, 본관은 河東, 함길도 兵馬虞候 六乙의 아들로 함양출신이다. 김굉필과 함께 김종직의 문인이 되고, 한동안 지리산에 들어가 3년 동안 오경과 성리학을 연구했다. 성종 14년(1483)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고, 1490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소격서 참봉이 되었다. 이 해 별시문과에 급제, 검열을 거쳐 세자시강원설서·안음 현감을 지내고 1498년 무오사화로 종성에 유배, 죽은 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부관참시가 되었다. 당시 성리학의 대가로서 경사에 통달하고 力行實踐을 위한 독서를 주로 했다. 「庸學叅疎」「主客」問答說「進修雜著」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무오사화 때 부인이 모두 소각, 지금은 정구가 엮은 <문헌공실기>속에 그 유집이 전할 뿐이다. 중종 때 우의정에 추증, 광해군 때에 문묘에 배

향되었으며, 시호는 文獻으로 저서에는 〈일두유집〉이 있다.

①9 鄭元容 1783(정조 7) ~ 1873(고종 10)

정원용은 회현동 2가에 花樹樓를 짓고 살았다.

公은 純祖 2년(1802) 文科에 급제하여 出仕한 후 純祖, 憲宗, 哲宗, 高宗 4대 60여 년 간을 朝廷에 있어 덕망있었던 정승으로 會賢洞 故家에서 한가히 휴양하던 중 花樹로 둘러있는 이곳 在山樓 일대의 園林을 사서 따로이 樓를 짓고 花樹樓가 이름하였는데 이는 會賢坊內에 사는 많은 同宗人들이 수시로 모여서 옛날 韋氏家의 花樹故事를 본받는다는 의미로 이름한 것이라 한다.

또한 이곳은 大臣家의 名園 名樓였던 만큼 80여세의 老大臣 徐俊輔, 當大의 名流인 雲石, 荷屋, 臺山, 心菴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敘情 詠詩하였다 한다.

이 일대에는 藥泉이 유명하며 언젠가 雲石 趙寅永이 經山의 頌壽 八幅屏을 써 보내니 經山은 필보료로 우리집 山居樓 앞에 있는 약수를 한 병 보내겠으니 그것으로 족하겠느냐면서 네수의 시를 지어 먼저 보냈다 한다.

公은 자는 善之, 호는 經山, 본관은 東萊, 敦寧府都正 東晩의 아들. 1802년(순조 2) 庭試文科에 乙科로 급제, 假注書를 거쳐 檢閱·副應教·吏曹參議·大司諫 등을 지내고 1821년 關西窓諭使로서 평안도의 民弊를 조사 보고했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1831년 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1837년(헌종 3) 예조판서에 승진, 이조판서를 거쳐 1841년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1843년 判中樞府事가 되고, 1849년 헌종이 즉자 영의정으로서 德完君 李元範을 迎立을 주장, 즉위케 했다. 그후 領中樞府事·總護使 등을 지내고, 官紀가 문란해지고 각처에서 民亂이 일어나자 暗行御史制度를 부활시키도록 건의했다. 1862년 箠杖을 하사받은 뒤 이整廳의 摠裁官이 되어 三政의 문란을 시정하려 했고, 1863년 철종이 즉자 院相이 되어 고종이 즉위할 때까지 정사를 맡아보았고, 이듬해 實錄廳摠裁官이 되어 〈哲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文忠, 著書로 〈經山集〉, 〈黃閣章奏〉, 〈北征錄〉, 〈文獻撮錄〉 등이 있다.

②0 鄭太和 1602(선조 35) ~ 1673(헌종 14)

정태화의 자는 유춘이고, 호는 陽坡이며, 본관은 東萊이다. 形曹判書로 知敦寧府事를 지낸 濟谷 廣成의 아들이다. <東國輿地備考>나 <漢京識略>의 第宅 또는 各洞條에 보면 “鄭光弼의 집이 會賢坊에 있는데 은행나무가 있다. 귀신이 이르기를 열두 犀帶가 이 나무에 걸려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면 정씨 문중에서 정승이 된 이가 많은 중에 아직 남은 띠가 있는 셈이라고들 말한다. 이 동리에 정씨의 후손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세칭 會洞 정씨라 하는 바 양과 정승의 옛집도 이 동리에 있다. 그옛날 사랑채가 한칸 斗屋이었지만 형제가 나란히 정승이 되었을 때에도 같이 살면서 좋은 줄을 몰랐다. 또 그 안채는 淸雲 金常憲, 仙源 金常容이 태어난 방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르기를 열두 犀帶란 말이 들어 맞는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어찌든 守天 정광필이 영의정을 지냈고 그 손자 林塘 惟吉과 그의 아들 광성은 형조 판서에 그쳤지만 또 그의 큰 아들 양과와 작은 아들 棋洲 致和도 영의정에 올랐으니 남달리 엄청나게 빛나는 집안이 아닐 수 없다.

회동 정씨의 옛집터에 지금도 큰 회화나무 고목이 서 있어서 눈길을 끌거니와 여기에서 태어난 양과 정공은 1628년(仁祖 6)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1631년 正言을 거쳐 이듬해 吏曹佐郎이 되고 이어 副校理·獻納·舍人·副應教를 역임한 뒤 1635년(仁祖 13)에 司諫이 되었다. 이 해에 청나라의 위협을 느껴 북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元師府가 창설되자 都元師 金自點을 따라 從事官이 되었다. 1637년(仁祖 15) 볼모로 잡혀가는 昭顯世子를 瀋陽까지 陪從하였다.

1640년(인조 18)에 漢城府右尹에 오른 다음 大司諫 平安道觀察使·慶常道 관찰사를 역임하고 都承旨를 거쳐 1644년 吏曹參判으로 接伴使를 겸하고 이듬해에 戶曹判書를 거쳐 大司憲이 되었다. 이 때 소현세자가 죽자 鳳林大君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고 소현세자의 아들로서 嫡統을 계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46년(仁祖 24)에 工曹判書로 전임되었다가 이듬해에 右議政을 거쳐 좌의정에 올라 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領議政에 올랐다. 그후 어머니 喪으로 사직했다가 1650(孝宗 1)에 判中樞府事가 되었고 이어서 좌의정에 재차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듬해에 다시 영의정이 되어 1657년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다음 해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곧 領中樞府事에 재등용되었다가 1659년(孝宗 10)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고 이 해에 효종 임금이 죽자 院相이 되어 國政을 처리하였다. 당시 제1차 禮松이 일어나자 尤庵 宋

時烈의 莽年說을 지지하여 이를 시행케 하였다.

1671년에 공은 나이 70세로 耆老所에 드는 영광을 입었고 죽은 뒤에는 顯宗 廟庭에 配享되었으며 시호는 翼憲이었다가 忠翼으로 개시되었다. 저서에 〈陽坡遺稿〉와 〈陽坡年紀〉가 있다.

② 趙 萬 永

南山 북쪽기슭 筆洞 2가에 豐恩府院君 趙萬永이 老人亭을 짓고 살았으며 그 자손이 대를 지켜왔다.

이곳에는 많은 老人이 항상 모여 悠遊하였으므로 이 亭名이 생겼다. 정자 뒤 바위에는 「趙氏老基」란 刻書가 있었다.

계곡과 園林이 좋아 당시 名文家이던 豐壤趙氏의 高官들을 비롯 安東金氏, 東萊鄭氏가의 文人·文官들이 많이 모여 여가를 즐겼다 한다. 그런데 高宗 31년(1894)의 老人亭에서의 회의는 심히 불쾌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 내용인즉 淸日戰爭에 앞서 日帝의 야욕은 조선에 대한 단독적 武力간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 정부의 훈령을 받은 日本公使 大鳥圭介는 5월 23일 5개 조항의 內政改革案을 제시하고 만일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大兵力을 출동시켜 王宮을 포위, 강제로 그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5개 조항은

1. 중앙 및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새로운 인물은 등용할 것
2. 財政을 정리하고 富源을 개발할 것
3. 法律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
4. 民亂을 진정시키고 안녕 유지에 필요한 兵制를 설치할 것
5. 교육제도를 확립할 것

등이었다. 6월 8일 大鳥圭介는 당시 한국대신 申正熙, 金宗漢, 曹定承 등과 이 노인 정에서 첫번째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강제로 가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日帝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므로 民衆에게 침투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거센 저항을 받게되어 閔王后의 弑害와 斷髮令으로 울분에 쌓였던 民衆들은 경향 각지에서 親日內閣의 타도와 國權의 수호를 외치며 義兵을 일으켰

다.

조만영의 자는胤卿, 호는石崖, 본관은豐壤, 이조판서鎭寬의 아들이다. 1813년(순조 13) 陵園郎으로 增廣文科에 乙科로 급제, 檢閱이 된 뒤, 持平·正言兼文學 등을 역임하고, 1816년 전라도 暗行御史로 나갔다. 1819년 副司直으로 있을 때 딸이世子嬪이 되자, 豐恩府院君에 봉해지고 이후 그 일파인 풍양 조씨가 정계에 등장, 그 중추적 인물로서 安東金氏와 勢道を 다투게 되었다. 시호는 忠敬이다.

② 趙末生 1370(공민왕 19) ~ 1447(세종 29)

조선시대 문신 趙末生의 집은 지금의 中區 會賢洞 2街에 있었는데 명당의 터로 無學大師가 所上한 之地로 소문나 있었다. 또 칭하기를 洛陽名園이라 하였다. 南山의 正幹이 直抵각洞한 형국이어서 伏龜形의 吉地라고 하였는데 이 거북이의 동쪽 눈에 해당하는 자리엔 右相을 지낸 바 있는 尹耆東의 第宅이 있고 서편 눈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 趙末生의 집이 卜占하고 있다고 하였다. 거북이의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엔 北軒이 있는데 이는 곧 후에 朴齊憲이 살게 된 집이었다.

조말생의 자는 謹初, 호는 華山·社谷, 본관은 楊州, 書雲觀正 誼의 아들. 趙庸의 문인이다. 料物庫副使로 1401년(태종 1) 增廣文科에 장원, 監察·正言·獻納을 역임, 1403년 登極使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1407년(태종 7) 文科重試에 급제하고 典農寺副正이 되었다. 이듬해 掌令을 거쳐, 藝文官 直提學·判線工監事, 承定院同府 代言·知申事 등을 역임, 1418년 吏曹參判이 되었다가 이 해 형조판서에 진급, 이어 병조판서가 되었다. 태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항상 측근에서 보좌했고, 이 해 세종이 즉위하자 奏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33년(세종 15) 咸吉道都觀察使兼咸興府尹으로 부임하여 兀狄哈이 침입하자 이를 막아 싸웠다. 1435년 判中樞府事가 되고, 1437년 예문관대제학을 겸임, 이듬해 경상·전라·충청 등 3도의 都巡問使로서 築城을 감독했다. 1439년 箠杖을 하사받고 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446년 領中樞院事가 되었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文剛

③ 趙顯命 1690(숙종 16) ~ 1753(영조 28)

附 趙文命 1680(숙종 6) ~ 1732(영조 8)

남산 기슭 필동2가에 歸鹿亭을 짓고 살았으며 文命은 그의兄이다.

趙顯命은 성품이 청렴 검소하고 立論이 공평 강직하여 일세의 信望을 받았으며 또 분 분한 官界보다도 鄉里의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관직에 있는 중에도 이곳 집 근처에 정자를 짓고 그의 호를 타서 「歸鹿亭」이라 하였는데 옛글에 「사슴수레를 함께 잡고 시골로 돌아간다」는 뜻을 인용하였다 하며, 또 당시 정자 밑에 푸른 실끈으로 사슴을 매어 놓아 언제든 그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鄉里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다.

趙顯命은 자는 稚晦, 호는 歸鹿·鹿翁, 본관은 豐壤·都士 仁壽의 아들이다. 1713년(숙종 39)進士試에 합격, 1719년 增廣文科 丙科에 급제, 檢閱을 거쳐 龍岡縣令·持平등을 지냈다.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난 때 都巡撫使 吳命恒의 從事官으로 공을 세워 奮武功臣 3등이 되고 豐原君에 봉해졌다. 이 해 副提學에 승진, 이어 同知義禁府事·都承旨를 거쳐 1731년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對馬島의 화재로 조정에서 窓間米를 보내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라고 罷職되었다. 1733년 전라도관찰사로 기용되고, 總戎使·工曹參判 등을 거쳐 1736년 이조판서에 오르고, 예조판서에 전임하여 이듬해 刑政의 불공평함을 상소하고 다시 파직당했다. 1738년 이조판서로 복직, 그 후 左參贊·漢城府判尹·공조판서·호조판서·병조판서를 지내고 1740년 우의정에 승진, 1742년 良役查正廳을 復設케 하고, 이듬해 問安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746년에 領敦寧府事로 전임했다가 다시 우의정이 되어 1749년 進賀兼謝恩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 영의정에 이어 다시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1751년 좌의정에 전임, 이 해 호조판서 朴文秀의 주장으로 戶錢法의 실시가 논의되자 均役廳堂上으로서 그 구체적인 節目을 결정하여 良役의 합리적 개혁을 보게 했다. 영돈녕부사로 죽었다. 老論에 속했으나 蕩平策을 지지, 영조의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했고, 청렴한 생활로 일관했으며, 孝行으로 旌門이 세워졌다. 시조 1수가 〈海東歌謠〉에 전한다. 시호는 忠孝. 著書로 〈歸鹿集〉이 있으며 編書로 〈良役實總〉이 있다.

趙文命의 字는 叔章, 호는 鶴巖, 본관은 豐壤, 都事 仁壽의 아들, 金昌協의 문인이다. 1705년(숙종 31) 生員이 되고 1713년 增廣文科에 丙科로 급제, 1721년(경종 1) 修撰·副校理를 거쳐 1725년(영조 1) 持平이 되고 東學兼教授·世子侍講院兼補

德·校理 등을 역임했다. 1727년 吏曹參議가 되고, 이해 實錄都廳堂上으로 <景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고, 이어 都承旨·同知經筵事·御營大將, 이듬해 大司成·吏曹參判을 지냈으며, 이해 李麟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奮武功臣 2등으로 豐陵府院君에 봉해졌다. 병조판서를 거쳐 대제학·訓練大將·判義禁府事を 역임, 1730년 우의정에 승진하여 扈衛大將을 겸하고, 1731년 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다. 관직에 있는 동안 왕의 蕩平策에 적극 협조, 불편부당한 인사관리를 했다. 글씨를 잘 썼다. 영조의 廟庭에 配享, 시호는 文忠·著書로 <鶴巖集>이 있고 作品 글씨로 <二忠祠事蹟碑(淸州)>, <北伯敦再祐表>가 있다.

②4 韓 明 澮 1415(태종 15) ~ 1487(성종 18)

附 韓浚謙 1557(명종 12) ~ 1627(인조 5)

南山기슭 예장동 2번지에는 世祖 때의 文人이요, 정치가로서 널리 알려진 上黨府院君 韓明澮의 집이 있었다. 이곳 비서監 동쪽은 國初 無學大師가 정한 岩石의 가기로 곧 韓明澮의 집이기도 하였다. 또 이집 서쪽 언덕에는 石間泉이 있었으며 물맛이 좋고 世祖가 일찌기 마셨기 때문에 御井으로 이름하였다.

그 위에 素澗堂의 遺址가 있었는데 후에 後澗堂으로 변하고 高宗 때에 와서는 鹿川亭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이 後澗堂을 중심으로 한 일대는 韓明澮의 후손 및 그 同宗人들이 많이 살면서 韓氏宗人들이 자주 이곳 南山 아래 경치좋은 곳에 모여 蘭亭修練會를 하였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蘭亭二文洞 또는 蘭亭洞으로 부르다가 蘭洞으로 약칭되었다.

특히 이곳에 淸州韓氏門으로 인조의 장인인 韓浚謙도 이곳에 살았다.

韓命澮의 字는 子濬, 號는 狎鷗亭·四友堂으로 尙質의 손자, 증 영의정 起의 아들이며 章順王后(예종비)와 恭惠王后(성종비)의 아버지다.

1452년(문종 2) 陰補로 敬德宮直이 되고, 친구인 교리 권람의 주선으로 수양대군에게 가담하여 무사 홍달손 등 30여명을 추천, 그의 심복을 삼게 했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을 도와 군기녹사가 되고 정난공신 1등으로 사복시 소윤에 올랐다.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고,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좌부승지에 승진, 이 해 가을 좌익공신 1등으

로 우승지가 되었다.

이듬해 성삼문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 운동을 좌절시키는데 중요 역을 담당하고 그들의 주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좌승지를 거쳐 도승지에 승진, 1457년 이조판서에 올라 상당군에 봉해졌고, 이어 병조판서가 되었다. 1459년 황해·평안·함길·강원 4도의 체찰사를 지낸 후에 1461년 상당부원군에 진봉되었고, 이듬해 우의정에 이어 1463년 좌의정을 거쳐 1466년 영의정이 되어 병으로 한 때 사임, 다음 해 신숙주 등과 앞서 편찬에 착수했던 「新制大典」의 초안을 완성했다.

이 해 이시애가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신숙주와 함께 반역을 꾀했다는 소문이 돌아 피체, 신문을 당했으나 혐의가 없어 석방되고 1468년 세조가 죽자 세조의 유고에 따라 원상으로서 서정을 결재했다. 이 해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 1등에 올랐고, 1469년(예종 1)영의정에 복직, 이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자 병조판서를 겸임했다. 1471년(성종 2)좌리공신 1등에 책록되고 이 해 영춘주판사로서 최항·신숙주 등과 함께 「世祖實錄」을 완성, 1484년 70세로 궐장을 하사 받았다. 세조의 총신으로 왕을 보필하여 조선 초기 문화의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 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1504년 갑자사화 때 윤비 폐사에 관련했다 하여 부관참시 되었다가 뒤에 신원되었다. 시호는 忠成이다.

韓浚謙의 자는 益之, 호는 柳川, 본관은 淸州, 判官 孝胤의 아들, 인종의 장인이다. 1579년(선조 12) 生員이 되고, 1585년 太陵參奉을 거쳐 이듬해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檢閱을 거쳐 正子·注書·典籍을 지냈다. 1589년 賜暇讀書를 하고 이해 衿川縣監으로 재직중 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앞서 정여립의 사위 李震吉을 천거한 일로 여러달 동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 1592년 禮曹正郎·原州牧使를 지내고, 1595년 持平으로서 都體察使 柳成龍의 從事官이 되었으며 이어 校理·舍人·應教·執義·司諫을 지냈다. 1597년 典翰에서 同副承旨가 되어 명나라 提督 麻貴를 도와 馬草와 병량 보급에 힘썼고, 1598년 왜란이 끝난 뒤 右承旨·경기도 관찰사·大司成, 1599년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 1600년 體察副使로서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살폈다. 1602년 전라도 관찰사, 1603년 4도 제찰 副司를 역임, 이어 副提學을 거쳐 1605년 호조판서가 되었다. 선조로부터 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遺教七臣의 한 사람으로 1613년(광해군 5) 癸

丑獄事에 연루되어 田里放歸 당했다가 1617년 忠州에 付處, 1612년 驪州에 量移, 이 해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할 책임자로 뽑혀 유배지에서 知中樞府事에 임명되고 5도 都元師를 겸임, 국경 수비에 힘썼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딸이 仁烈王后로 책봉되자 領敦寧府事로 西原府院君에 봉해지고 1624년(인조 2) 李适의 난에 왕을 公州에 호종, 1627년 丁卯胡亂에는 世子를 全州에 시종했다. 시호는 文翼이고 저서로 <柳川遺稿>이 있다.

㉕ 許 生

南山 기슭 墨寺洞에는 燕岩 朴趾源의 小說 「許生傳」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許生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人物에 대하여는 <漢京識略>의 記事 중에서도, 집이 가난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자못 事跡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지만, 朴燕岩의 許生傳에 의하면, 그는 無爲道食을 일삼는 당시의 兩班階級 등과는 달리 상당히 偉大한 抱負 經綸과 政治의 能力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㉖ 洪 良 浩 1724(경종 4) ~ 1802(순조 2)

조선시대 문신·학자로 남부 훈도방 진고개 즉 지금의 충무로2가에서 태어나 그 말년을 牛耳洞에서 보냈다.

洪良浩의 초명은 良漢이었고, 자는 漢師요, 호는 耳谿요, 본관은 豊山으로 1724년(景宗 4)에 한성부 南部 薰陶坊 진고개(지금 忠武路 2街)에서 鎭輔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神童으로 알려졌고 처 백부인 沈樛村에게서 글을 배워 당시 修辭詞章에 얽매어 儒學의 폐단을 탈피하여 義理性明說에 몰두하였다. 17,8세 때 이미 이름을 날렸고 1747년(英祖 23)에 進士가 되고 1752년에 庭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持平·修撰·校理를 지낸 뒤 1774년(英祖 50)에 登俊試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영조 임금은 선생의 그릇이 큼을 인정하여 여러가지 자문을 받고 매양 그 학문이 해박함을 칭송하였다.

1777년(正祖 1)에 洪國榮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선생을 시기하는 나머지 횡포가 심하여지자 中價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종조 임금은 慶興府使를 제수하였다. 홍국영이

失脚되자 1781년에 곧 서울로 소환되어 漢城府右尹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大司諫을 지내고 冬至副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후 大司憲·平安道觀察使 등을 역임하고 1794년(正祖 18)에 冬至兼謝恩使로 재차 청나라에 다녀왔다.

중국에 갔을 때 그곳 翰林修選 戴衢亨·禮部尙書 紀曉嵐 등 학자와 교류하여 시문이 장하다는 칭찬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考證學에 대한 지식을 얻어 귀국 후에 고증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후 吏曹判書가 되어 1799년에 兩館大提學을 겸임하고 이어서 1801년(純祖 1)에 判中樞府事도 겸하였다.

선생은 항상 이론보다 실천을 앞세움으로써 당시 관리들이 地方官으로 진출되는 것을 꺼리던 풍조를 개탄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지방관 되기를 희망하여 도처에서 많은 치적을 올리었다. 그런 중에서도 治水와 植樹에 남다른 수완을 발휘하여 平安道 江東郡에 萬柳堤를 쌓고 충청도 唐津郡의 合德池와 황해도 延白郡의 南大池를 준설하고 함경도 豆萬江변과 경기도 揚州郡, 牛耳洞(서울 道峰區)에 식수를 하는 등 이 다섯가지 큰 사업은 후세까지 공적을 남기었다.

선생은 말년을 우이동에서 보냈는데 바 원래 우이동은 東岳 李安訥의 소유였는데 선생의 증조인 萬恢의 사위가 있는 동악의 증손의 승락을 얻어 증조의 산소를 우이동에 모신 후로 차츰 흥씨 가문의 소유가 되어 효심이 깊은 선생은 여기에 은퇴하여 소나무를 기르고 묘역을 지키고 논밭을 일구고 伐採를 금하여 새로운 경승을 이룩하였다. 특히 얼마 전가지도 우이동 벚꽃으로 이름이 높았듯이 그 벚꽃 역시 선생의 각별한 안목에 따른 조경이었다. 〈牛耳洞 九曲記〉는 이곳의 경승을 그대로 그려바친 명문이다. 선생은 글씨에도 능하였고 특히 晉體와 唐體에 뛰어났다. 시호는 文獻이다. 저서에 〈李谿集〉이 있고 編書에 〈萬物原始〉〈六書經緯〉〈群書發排〉〈格物解〉〈七情辯〉〈牧民大方〉〈鄉約折中〉〈海東名將傳〉〈高麗大事記〉〈興王肇乘〉〈朔方拾遺〉〈北塞記略〉이 있다.

3. 南山과 敍景文學

남산은 경관이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다워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계곡이 깊고 물이 좋아 옛부터 만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사계절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하는 자연경관은 서울

시민의 자랑이었다. 또한 남산의 정상에 오르면 서울 시가지가 모두 눈 아래 들어오고 유유히 흘러가는 漢江의 長流를 굽어보고, 서울을 둘러싼 원근의 산악을 조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산은 옛부터 등반·유람하는 사람이 항상 끊이지 않았으며, 산간 계곡의 그윽한 곳을 찾아 仙界·淸遊를 즐기기도 했던 勝地요 名所가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부터 많은 學者·文人들이 이 남산에 오르거나 조용히 居住하면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名詩로 읊어 전하는 등 많은 문학작품을 남기고 있다.

① 定都 초기에 서울 10景(都城十詠) 중의 하나로 南山에서 꽃 구경하기(木覓賞花)가 포함되었고, 月山大君(1454~1488)·姜希孟(1424~1483)·徐居正(1420~1488)·成任(1421~1484)·李承召(1422~1484)의 「木覓賞花」詩가 있어 유명하였다.

○ 月山大君

봄 구름 아름답고 봄 산은 높는데	(原詩) 春雲窈窕春山高
푸르른 山빛은 은근히 시냇다리에 이었구나.	翠微隱隱連溪橋
산에 올라 꽃구경에 술까지 거나하여	登高賞花且就醉
그대와 온종일 포도주 주고 받네.	與君盡日斟葡萄
몇몇 마을 담장에 벌들은 봉봉 새들은 조잘조잘	蜂喧鳥咽幾村塢
꽃기운 쪼오르고 봄은 겨워 비내리네.	花氣已蒸春晚雨
돌아오니 해는 누엿 붉은 꽃두렁 긴데	歸來日斜春靑長
운종가엔 울리네 人定치는 소리.	雲鐘街裏聞鐘鼓

○ 姜希孟

남산의 길은 푸르른 구름 위로 치솟았는데	(原詩) 終南積翠凌雲高
二十四橋를 굽어본다.	俯瞰二十四箇橋
앵화는 정히 윤지고 대궐 동산 그윽한데	鶯花政나宮花深
옥잔으로 포도주 마실 것을 상상해 본다.	想像玉斝斟葡萄
운금같은 꽃으로 꾸며낸 온집의 담들	雲錦粧成萬家塢
보섭 잠길 만해도 꽃향기 앗기엔 넉넉한 비	一畝已足收香雨

긴긴 바로도 西쪽으로 나는 해 묶을 길 없어
아름다운 高樓에서는 북소리 뚝뚝

長繩難繫西飛日
麗蕉 春起鐘鼓

○ 徐居正

바로 앞 城 남쪽에 山 높이 솟은 것이
푸른 구름 열 두 다리를 부여 잡으며 올라 가네
北岳은 저 멀리 玉芙蓉처럼 깎아 섰고
漢江水 깊은 물 金葡萄인양 어른거리네
長安城中 집마다 온갖 꽃으로 둘러 감싸
樓閣, 殿堂에 오락가락 붉은 비가 내리누나
의 좋은 구경 얼마나 즐길 것인가
한낮이 길고 긴데 鼓(樂器) 소리 자주 울리네

(原詩) 尺五城南山政高
攀緣十二青雲橋
華山插立玉芙蓉
漢江染出金葡萄
長安萬家百花塢
樓堂隱映紅似雨青春時節
青春來賞能幾何
白日政長催鼓

○ 李承召

南山에 앉아보니 曾城도 높은 것이
御溝의 버들 홍교에 스치네
상원에 꽃이 피니 붉은 노을 무르익고
太液에 물결 따스하니 포도주 넘치는 듯
큰 집들 구름에 닿고 봄은 담장에 가득한데
東風이 우유같은 비를 불어 보내네
千紫萬紅의 고운 모습 보이는데
무어라 서로 재촉하면서 마루 앞의 북을 칠거나

(原詩) 南山坐曾城高
御溝楊柳拂虹橋
上苑花發蒸紅霞
太液波煖漲葡萄
甲第連雲]春滿塢
東風吹送如乳雨
萬紫千紅總含姿
相催不用臨軒鼓

○ 成 任

인경산 층층한 구름 속에 들어놓고
공중에 백자는 되게 무지개 다리 걸려있네
올라가 구경하며 멀리 바라보니 흥이 다함 없고
푸른 술 처음 익어 포도빛이 진하여라

(原詩) 引慶山入層雲高
架空百尺垂紅橋
登臨遊目興無涯
綠陰初潑濃葡萄

천홍만자(千紅萬紫) 과 담장이 어두운데	千紅萬紫暗花塢
어찌 즐기지 않고 풍우에 맡기리	忍使無歡委風雨
한강수 기울여 금준(金樽)에 더하고	欲傾漢水添金樽
일백개 방망이로 (雷門鼓) 마음껏 두드려 보려네	百抱打激雷門鼓

② 朝鮮開國初에 王權繼承을 둘러싸고 讖謠로서 「南山謠」라는 童謠가 유행하였다.

○ 南山謠

彼南山往伐石釘無餘(저 남산에 가서 돌을 뜨는데 정 남은 것 없다.)

남(南)은 南閭를 말함이고, 정(釘)은 정(鄭)과 음이 같으니 도전(道傳)을 말한 것이며, 여(餘)자의 해석이 남은의 음과 서로 같으니 남(南) · 정(鄭)이 모두 없어진다는 말인 것이다. 南山謠는 鄭道傳 · 南閭가 株殺 당한 사건을 讖한 것이다. 太祖 李成桂가 前妻인 神懿王后의 소생 중에서 世子를 정하지 않고 後聚인 神德王后의 소생인 芳碩을 世子로 정하매 당시의 重臣이었던 鄭道傳과 南閭가 그 쪽에 가담했으니 하루 아침에 사태가 역전되어 神懿王后의 소생 芳遠에 의해서 世子兄弟와 그를 보좌했던 鄭道傳과 南閭도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王權繼承을 둘러싼 骨肉相爭에서 鄭道傳 · 南閭 양인이 무참히 죽을 것의 前兆를 보인 노래였다.

③ 조선 초기 文人 卞季良(1369~1430)은 南山 마루에 올라 紅塵城市에서 浮世의 名利만을 찾아 헤매는 보잘 것 없는 인간들의 생활을 한탄한 詩를 남겼다.

車馬 달리는 城市엔 紅塵만 자욱한데	(原詩) 輪蹄九轍漲紅塵
그 속에 오가는 사람들 名利 찾아 분주도 하네	萬目紛紛名利人
人間 世上 한 백년이 생각하면 꿈인 것이	浮世百年渾似夢
南山에 올라 오면 마음만 상하네.	一回登眺一傷神

④ 南山 기슭 會賢洞에 거주하던 林塘 鄭惟吉(1515~1588)은 豐麗한 문장으로 회현동과 南山의 풍경을 노래한 詩를 몇 편 남기고 있다.

○ 鄭惟吉

學士의 한가한 성미 세상사 다버리고

(原詩) 耽閑學士倦塵埃

南山 찾아 지내며 오솔길 열었네

退食南山一徑開

바위와 골짜기 생긴대로 집을 지으니

岩壑隨緣架房屋

가는 곳마다 못이요 정자이네

起居無處不池臺

물따라 올라가노라니 꽃이 물에 떠오르고

尋源別澗花浮水

폭포 찾아 들어가니 이끼 위에 신자국 나네

看瀑遙聞尾印苔

동쪽의 높은 언덕 더욱더 좋은 것이

最愛東早近天上

달 밝은 밤 그대와 함께 이리저리 거니네

夜邀明月共徘徊

終南山 배게 삼아 코 골며 자는데

(原詩) 白首窺園老仲舒

南山 아래 조용한 곳이 내 집 아닌가

南山山下是吾廬

門 앞의 車馬야 많고 적고 관계하리

門前車馬知多少

그 중에도 기쁜 일은 詩를 쓰는 한장의 종이라네

最喜詩翁一張書

⑤ 東岳 李安訥(1571~1637)은 南山下 지금 中區 筆洞 東國大 경내에 壇을 쌓고 石洲 權鵬·鶴谷 洪瑞鳳 등 당대의 名流들과 壇上·樓上에 모여 앉아 名句의 名詩를 읊어 유명하였고, 그 자리에 그의 玄孫 李周鎭이 刻石 기념한 「東岳先生詩壇」의 刻字가 있었다.

⑥ 박제사(1750~)

이십삼이 南山 기슭으로 이사했는데

(原詩) 李十三移家南山之麓

술과 바위 연못이 아름답고, 샘물이 바위 복판

有林石池塘之勝泉從

에서 솟아나므로 사천이라 이름하였다.

岩中出故號日事泉

나뭇군의 도끼 소리 찌렁찌렁 메아리치고

樵斧響丁丁

山은 그윽한데 불 하나 반하다.

山深一火明

우뚝한 소나무는 어근버근 에워쌌고

高松圍寺齋

구름 긴 바위돌 높은 산을 호위하네	雲石護 磴嶠
날씨 차가워지자 연못엔 모여드는 고기떼 보이고	寒見池魚聚
날 저물자 참새들 기와에 비긴 것 사랑스럽다.	昏燐瓦雀橫
문에 들자 「茶 대령하라」외치니	入門呼茗椀
샘물소리 듣자 茶 생각 왈각 나서라.	爲愛乳泉聲

⑦ 鄭元容(1783~1873)은 南山下 會賢洞에 살면서 花樹樓를 짓고 당대의 名流들과 모여 徐情·詠詩하여 유명하였는데, 그는 花樹樓 부근과 南山下 또 하나의 名所인 雙檜亭·老人亭 등의 주변풍경과 흥취를 읊은 詩들을 남기고 있다.

○ 鄭元容·花樹樓詩

어제 온 비에 살구꽃 피더니	(原詩) 昨雨杏花發
오늘 오는 비엔 복사꽃이 피누나	今雨桃花開
날마다 온갖꽃 피어	郡芳日以盛
紅, 紫色꽃 돌축대를 둘렀네	紫紅繞石臺
黃金菊花는 옛 품종 자라나고,	金菊滋舊種
玉梅花 새로 심어 번성하네	玉梅列新栽
四時節 꽃 끊이지 않으니	四時花相續
날마다 꽃보러 오게나	日日看花來

雙檜亭 賞花詩

포기 포기 꽃송이 늙은 얼굴 쳐다보네	(原詩) 叢花箇箇照裏顏
오늘 아침 어젯밤 사이 많이도 피었다	開遍今朝昨夜間
외딴 곳이 돋보이니 나무 심은 때문이리	僻境生輝緣種樹
깊은 동산 운치있으니 南山을 의지해 좋구나	深園成趣認依山
자주 찾아 술 한잔 들며 늙은 줄 모르는 것이	頻從醉裏渾忘老
봄철만 다가오면 한가롭지 못하다네	每到春前却不閑
수풀 사이 오솔길에 어스름 달 비치면	纖月輕陰林畔路

찾아드는 저녁새 따라 나도 집으로 돌아간다네

遊常伴夕禽還

南山아래 우리집 봄만 되면 날마다 좋은것이
마음내키면 술한잔 들고 勝地찾아 신발신네
숲속엔 구경도 좋은데 노래와 詩로 회포풀고
시냇가 芳草길따라 三溪를 건넌다네

(原詩) 我屋南山下 春深日日佳
適情聊一酌 濟勝又雙鞋
林木延清賞 歌吟紓雅讓
緣溪芳草路 信步過三溪

老人亭 雅會詩

울창한 樹林 사이로 맑은물 소리내 흐르는데
雲石翁 休暇 얻어 산정으로 약속 주셨네
林泉의 興趣 좋은데 벼슬자리 또 차지했소
어진德 더욱 귀한것, 착한이름 길이 전하리

충천茂林色 潏清澗聲
石翁撰公暇 이約奇遐亭
豈無林泉趣 孰非圭組榮
所貴修令德 光垂簡策名

⑧ 開港과 함께 침략주의 日帝의 세력이 首都 서울에 침투·팽창되었으며 日帝는 韓國에 대한 植民地 統治를 시작하면서 試政改革을 위한 회담의 장소를 南山의 老人亭으로 하고 南山 倭城臺(지금 藝場洞)에 統監部를 설치하는 등 수도의 名所 南山을 利用物로 삼았다. 당시 어느 뜻있는 人士는 南山을 중심으로 한 日帝 침략세력의 蠢動과 賣國 奸臣輩의 附和雷同하는 상황을 풍자, 한탄하는 詩를 남겼다.

○ 「漢陽百韻」중 일부

南山소나무 그늘 아래 늙은 여우 들락들락
千百가지 괴상한 소리 무슨일을 하려나
간악한 여우 삶쟁이들 꼬리치며 따라다니고
順良한 소, 양떼들 해가 미칠가 무서워 떴다
많은 사람 모여들어 큰 소리 외쳐 공격하지만
위세빌어 出沒하는 무리 당장 撲滅하기 어렵다
뿌리부터 뽑아내어야 枝葉을 除去할 것이
오늘 이 문제 해결을 우리 힘으로 어찌하나

南山松陰下 老狐頻出沒
吐出千百性 造化不可測
奸惡狐狸輩 搖尾是從役
順良牛羊輩 戰慄恐害及
百吼千呼集 喊聲放攻擊
假威隱沒類 立地難撲滅
不拔此根本 難除基枝葉
現在此問題 吾人不能的

당시의 상황은 民謠「아리랑타령(서울아리랑)」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남산밑에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반들어총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뒤여라 놀다가세

한편 일제침략의 원흉 伊藤博文도 남산에 綠泉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여가를 즐겼는데, 綠泉亭 생활의 소감을 인간 본연의 심정으로 돌아가 詩로 읊기기도 하였다.

○ 伊藤博文

남산 발 아래 綠泉亭에서 三年 세월을 꿈 속에 보냈네.

마음이란 곳에 따라 변하기도, 때로는 한가롭게 구름도 쳐다본다.

南山閣下綠泉亭 三載星霜夢裡經 心緒人間隨境變 別時閑看岫雲青

⑨ 日帝强占期에 日帝에 의해 南山이 점차 변모되어 가는 가운데 裝忠壇 南麓 아늑한 기슭에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독립운동가인 林圭(1863~?)가 당시의 풍경과 심정을 읊기도 하였다.

○ 林圭一暮秋登雲樓詩

(原詩)

외롭게 선 樓臺가 小南門에 잇따랐는데
드문 드문 있는 人家 시내 위의 마을을 이뤘다
이 동산, 이 정자가 어느 시대부터 있었나
壇과 祠堂 그대로 남아 歲月이 흐른다
풀 꽃이 쓸쓸하니 가을을 어디서 찾나
단풍잎 날리는 소리 밤에 혼령이 있는 듯
오늘을 살아 있으니 오늘만도 좋은 것이
무어라 다른 일로 부질없게 말을 할거나

獨樓迥接小南門
往往人家溪上村
不省園亭何世代
空留壇社白朝昏
草花寂寂秋無質
楓葉蕭蕭夜有魂
今日猶存今日好
莫將餘事付餘論

⑩ 그러나 日帝強占期에도 南山의 낙락장송을 쳐다보며 변함없는 민족정신을 다짐함이 우리 「愛國歌」중에도 표현되고 있다.

○ 「愛國歌」 2절 일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광복이 되어서는 南山의 가을풍경을 바라보며 독립된 나라의 건설을 구상하는 심정을 말한 詩도 찾아볼 수 있다.

남산에 단풍들어 나뭇잎 아름답다
씩씩한 청소년들 떼지어 올라가네
보아라 新興朝鮮의 男兒인가 하노라

4. 古代소설 許生傳속의 南山

朴趾源(1737~1805)은 南山下 지금의 墨井洞에 살았던 許生을 주인공으로 해서 당시 무위도식을 일삼는 양반계급을 해학, 풍자한 漢文小說「許生傳」을 저술하였다.

“허생은 목적골에 살았다. 남산밑에 닿으면 우물터위에 해묵은 은행나무가 있고 싸리문이 그 나무를 향하여 열려있으며 초옥 두어간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한채 서 있었다. 그러나 허생은 글읽기만 좋아하였고 그 아내가 남의 바늘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신세였다....” 이것은 실학자이며 문장가이며 소설가인 燕岩 박지원이 쓴 허생전의 대목이다. 이렇게 고생을 하던 허생이 부자가 되고 도둑을 데려다가 자립하게 하여 나라를 위한 멋진 구상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진다. 이 첫대목에서 허생이 남산에 살았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남산에는 풍류객이 놀고 정자를 짓고 시화를 열며 서울 사람이 물을 맞던 풍광지만이 아니라 허생처럼 어려운 사람이 사는 딱한 곳이기도 하였다. 남산골 샌님이 살던 곳이고 가난이 있던 곳이다. 저 6.25 이후에 어렵게 몰려 살던때를 보면 어찌면 남산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의 빈민들과 피난민에게 보금자리가 된 곳이기도 하다. 허생은 이 저거지의 한 증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해묵은 은행나무가 있는 집에서 산다.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는 풍광면에서는 부자이다. 비바람을 가리지 못한 집에 살지만 허생은 당당하였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 겉은 초라한 집에 살지만 속은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다.

남산의 기상은 이처럼 당당하여 학문을 양성하여 주었던 것이다. 당당하다는 말은 志操며 청빈이며 희망이다. 허생은 남산의 정기를 바로 표방한 인물이었다. 남산의 소나무가 없음은 우리 마음에 소나무가 없음이다. 남산이 파괴됨은 우리 서울이 파괴됨이요 남산에 지나치게 치장함은 우리나라가 허식을 치장함이다. 남산의 온전함은 우리 형편의 온전함이고 남산의 싱싱함은 우리 國軍의 싱싱함이며, 허생의 청빈과 외고집, 학문은 우리에게 희망이다. 허생이 남산아래에 살았다는 서두는 전편의 전개를 암시하고 남음이다. 허생은 남산골 샌님답게 그 샌님이 갖는 긍정면과 부정면에서 긍정면을 보여주고 홀연히 떠나갔다. 남산을 이제 더 이상 더럽힐 수 없기에 그는 떠난 것이다. 위정자가 담력이 없고 구상력이 없고 애국의지가 없으며 청빈하지 못하기에 그는 떠났다. 이제 더 남산사람이 되지 아니하려고, 아니 될 수가 없다고 보기에 그래서 남산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남산을 아끼기에 그는 남산을 떠난 것이다. 남산에서 살때의 허생과 남산을 떠나야 할 때의 허생의 대조가 이 허생전의 주체로 들어난다. 허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 된다면 남산도 중요한 산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第 2 節 李荇의 風流觀과 南山의 淸遊形態

1. 李荇의 生涯와 自然觀

① 李荇의 生涯 1478(성종 9) ~ 1534(중종 29)

李荇은 조선시대 문학정승으로 南山아래 예장동의 한 마을인 靑鶴洞에 서당을 짓고 여생을 여기서 마쳤다.

청학동 風流道人이던 이행의 자는 擇之이고, 호는 容齊 또는 청학도인·漁澤漁수이며 본관은 德水로 司諫 宜茂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민첩하고 총명하였으며 배우기를 좋아하여 밤을 새워 글을 읽었고 부질없이 놀지 않음이 마치 어른과 같았다.

1495년(燕山君 1)에 增廣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權知承文院副正字에 등용되었다. 이어서 校閱·典籍을 역임하고 1504년(燕山君 10) 봄 甲子士禍 때 應校로서 廢妃 尹

氏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忠州에 유배되었으며 그해 또 朴闇의 일에 연좌되어 다시 매맞고 귀양처로 돌아갔다. 9월에 다시 응고 시절의 일로 소급해서 잡혀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12월에 사형에서 감형되어 咸安으로 귀향가서 종이 되었다. 다음해 8월에 또 匿名書가 답으로 해서 옥에 갇혀 고문당했고 다음해 1월에 巨濟島에 圍籬安置되었다. 그 즈음에 친구와 죽은 친구를 생각하여 絶句 10수를 지었는데 그 중 이미 목숨을 잃은 詩 同人 把翠軒 朴闇을 그리는 시도 지었다.

1506년(中宗 1) 中宗反正으로 풀려 나와 校理로 등용되어 이해에 賜暇讀書했고 이듬해에 奏請使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14년(中宗 9) 司成이 되어 知製敎를 겸임하고 이듬해에 大司諫이 되어 新進士類인 朴祥·金淨 등이 연산군의 妃 愼氏의 복위를 상소하자 이를 반대하였다. 1517년 大司憲에 올랐으나 왕의 신임을 받은 靜庵 趙光祖 등 신진사류의 重用으로 僉知中檢府事로 좌천되었다가 이내 사임하였다. 이 때 모든 신진사류들과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으므로 물러나서 沔川, 滄澤에 가서 살면서 스스로 어수라 호를 지었다.

1519년(中宗 14) 己卯土禍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자 副提學에 승진하고 工曹參判·吏曹判書를 거쳐 1527년(중종 22) 右議政에 올라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이 즈음에 남산 아래 청학동에 書堂을 짓고 명나라 사신 당고와 사도 등이 시를 지어 보냈는바 스스로 호를 靑鶴道人이라 하였다. 공은 키가 10척이요 얼굴이 모나고 수염이 많았는데 길을 끼고 좌우에 소나무와 전나무·복숭아·버드나무를 심고 公務에서 퇴근하면 지팡이를 짚고 한가하게 거닐기를 즐겨 마치 야인과 같았다. 어느날 날이 저물었는데 녹사가 보고할 일이 있어 찾아갔는데 한 늙은이가 나막신을 신고 떨어진 옷을 입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동구문을 오는 지라 錄事가 말을 타고 지나다가 “정승 계시오?”하고 물었다. 이에 공이 천천히 돌아다 보면서 “무슨 보고할 일이 있느냐? 내가 여기 와 있다”하는 지라 녹사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졌다는 일화가 있다.

1539년(中宗 5)에 공은 修撰堂上이 되어 〈東國輿地勝覽〉을 마침내 撰進하였다. 이듬해에 좌의정에 올라 권신 金安老의 專橫을 논박하다가 判中樞府使로 전직되고 이어 咸從에 유배되어 귀양살이 중에 57세를 일기로 그곳에서 죽었다. 일찌기 신진사류들과 틈이 생겼을 때 공은 沈彦光과 함께 힘써 金安老를 불러 들이었건만 도리어 그 무리에게 공

격을 당하여 귀양처에서 죽은 것이다.

공은 문장에 뛰어나서 당시 읍취헌 박은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었는데 1521년(中宗 16)에 명나라 사신 당고와 사도의 遠接使가 되었을 때 당고가 매양 공의 인격에 탄복하였고 공의 시를 보고서는 詩壇의 老將이라 찬양하여 마지 않았다. 같은 일행인 副使에게 “삼가하고 경솔하게 시를 내놓지 마라”하며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姓彙名世考>나 <典故大方>가 전한다. 후에 신면이 되어 증중 廟庭에 配享되었고 시호는 처음에 文貞이었다가 文獻으로 改論되었다. 저서에 <容齋集>이 전한다.

2. 이행의 자연관

詩人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과 끊임없이 화해와 갈등의 양상을 전개하므로 그가 사물과 접하여 형성하는 情緒의 양상은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 시인의 정서는 현실이나 세계에 대한 그의 견해 태도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李荇의 詩에 나타나는 정서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愛, 憧憬, 悲觀, 絶望의 정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愛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의 情緒로 대상과의 갈등 모순된 상황이 없는 상태의 情緒이다. 그 대상은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겠는데 容齋의 詩에 있어서 自然愛 人間愛 등의 情緒를 볼 수 있다.

自然愛의 詩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거나 그 속에서 즐기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구름은 虛處에서 생기고
산봉우리 공중을 향해
서로 만나 아름다움 이루니
아침해도 새롭고 쾌청하여라
앞아서 완상하며 즐기니

주인도 역시 情을 잊었네.

도봉산에 있는 自身의 모습을 읊은 詩이다. 알지 못할 곳에서 흰 구름이 피어오르고 하늘을 향해 우뚝 선 봉우리들 그 구름과 봉우리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움을 읊었다.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詩人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처럼 느끼고 있다. 詩人의 시선을 먼 곳으로 향해 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점차 詩人쪽으로 가까와져오고 있다. 그래서 시인이 옮겨와 넓은 자연속에 묻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경탄을 보낼 뿐 어떤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

망혜 신고 지팡이 짚고 무명옷 입었어도
사는데 소원과 어긋남이 없어
진세에서의 10년도 이러하니
溪山에서는 종일 냇을 잃는구나
다정한 골짜기의 새들 돌아가라 권해도
웃음 머금은 야승은 시비가 없구나
詩翁의 오묘한 詩句
저녁 바람이 비를 재촉해 훑날리네 〈大興洞道中〉

이 詩는 洪萬宗이 閑淡한 경지로 극찬한 작품이다. 무명옷 입고 망혜신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大興洞으로 가는 소박한 모습이다. 종일토록 돌아가지 않고 詩를 읊는 詩人은 새들이 돌아가라고 해도 일어 설줄 모른다. 野僧은 詩人의 마음을 아는 지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고 있다. 평화스럽고 한가한 분위기의 자연에 흠뻑 취해 훑날리는 산비조차 피하지 않는다. 살아가는데 있어 소원과 어긋남이 없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詩人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詩人과 自然 사이에는 거리감이나 갈등요인이 없다. 또한 詩人이 자연을 찾는 것도 자연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일 뿐 현실과의 불화나 갈등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눈에 비칠 뿐이며 詩人의 감정이입은 찾

아볼 수 없다.

한편 容齋의 詩에는 이런 自然愛의 詩 이외에도 人間愛를 드러낸 詩들이 많다. 이것들은 대체로 容齋가 중국에 다녀올 때 귀양 갔을 때의 詩에 많이 나타난다.

아버님께서 탄식하셨지
風雨가 행리를 재촉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생각나도
왕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
길은 험하고 날마다 물에 지나니
언제 돌아가 술잔치 즐기나

어머님께서 탄식하셨지
말타고 가는 모습이 초초하다고
문에 기대어 널 볼 수는 없어도
밤마다 꿈에서 해매신다고 하셨지
손으로 옷 꿰매어 입히셨어도
몸은 초췌하구나
언제 돌아가 무릎 아래서 놀까 〈終雨終日四首 中〉

정원의 살구 노랗게 익으려 하고
붉게 만발한 복숭아 가지
이제야 부모의 마음 알겠으니
역시 나의 아이 생각나네

첫째 詩는 중국에 다녀오면서 쓴 詩이다. 떠날 때 부모님이 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各 首마다 何時歸去來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가족과 고향에 대한 情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두번째 詩는 忠州로 귀양갔을 때 쓴 詩이다. 정원의 나무들을 바

라보면서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 부모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보고 이미 부모가 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신이 애처롭다고 느끼는 동시에 자기와 떨어져 지내는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 자식으로서의 情과 부모로서의 애뜻한 情을 짧은 한首의 詩에 담고 있다.

이번에 友愛의 詩를 살펴보자, 容齋의 詩 중 많은 首의 詩가 친구에게 쓴 것인데 특히 귀양살이 때에 쓴 詩에 많다.

허암을 못본 지 오래되니
상사에 얼마나 詩를 소비했는지
명예를 더럽힘은 스스로 정한 바이나
헤어지고 만나는 것 기약하기 어려워라
풍우에 늙어 머리 희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 탁주 마시며 즐기나

止亭을 못본 지 오래되었는데
남풍불고 기러기는 드물구나
서로 떨어지니 즐거움이 덜하고
빠른 세월은 머리 희는 것 재촉하는데
속세의 티끌은 白衣를 물들이네
어떻게 돌아가 달밤에 창문 두드리나 〈不見六首 中〉

이것은 容齋가 중국에 갔을 때 쓴 것 중에서 고른 것으로 각각 鄭希良 南袞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 맨 처음 “不見”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끝부분에서 “何因歸去得”이란 말을 반복하는 수법을 써서 친구를 그리워하는 情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친구 하나하나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회상하고 장차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여 빨리 친구의 곁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容齋의 친구에 대한 애뜻한 정은 이미 죽은 친구들에 대한 애도의 詩를 읊게 하기도 했다.

혈뜰고 추어쥌이 천만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건만
 그대 마음은 어름어름 하지 않았네
 楚江 어디에서 빠뜨린 패 찾을까
 통에 얹은 오색 끈을 부쳐주려네

이 사람은 천상에 있음이 합당한데
 인간에 한번 귀양오자 창해가 콩밭으로 변했네
 통곡하노라 광릉산이 이미 끊어져
 이 생애에 아양을 다시 들을 수 없겠구나

聯作 10首 중 그 首만 뽑아낸 것이다. 제목도 무척 길며 제목속에는 詩를 지은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놓고 있다. 첫째 詩는 鄭希良의 죽음을 슬퍼한 詩이다. 鄭希良과는 평소에도 절친했는데 그는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容齋는 그를 楚나라 굴원에 비유하였다. 두번째 詩는 朴闇에 대한 詩이다. 朴闇은 갑자사화때 죽었는데 容齋와는 흥금을 털어 놓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지내던 사이였다. 이러한 친구의 죽음은 容齋에게 있어 충격이었을 것이며 “此生無復聽峨洋”이라고 하면서 애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② 憧憬의 詩

憧憬이란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애뜻한 정서로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욕구의 불충족때문에 생겨나는 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을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는 정서이다. 그러면 容齋의 詩에서 憧憬의 情緒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자.

燕山君 시절의 어지러운 政治的 상황을 겪으면서 세 차례의 귀양을 다녔던 容齋에게 현실의 생활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백년의 반도 안되었는데
 친구들 남은 사람 몇인가
 문장은 이제 뿔가 되니

天地가 어찌 인자하다 하겠는가
 적막한 산천은 어둡고
 초목 茫茫한 봄
 평생에 湖海의 뜻 있어도
 갈수록 머뭇거리기만 했지 〈有懷〉

이 詩는 燕山君때 尹氏 추승문제에 반대하였다가 귀양갈 때 쓴 것이다. 어릴적 힘써 배운 문장은 이미 뒤편이 되었고 자연으로 돌아갈 마음은 있었으나 머뭇거리다가 죄를 입은 자신을 후회하고 있다.

금류는 용기가 없이 뒤로 물러나고
 저무는 세월은 지리하기만 해
 병으로 친구와 떨어지고
 가난하여 술도 마실 수 없어
 아직도 늙지 않았는데
 즐거움으로 걱정을 잊으려 하네
 밤마다 꿈꾸는 전원은
 소소한 소나무에 가을일세 〈奉次中悅李首中〉

자기의 병과 가난을 한탄하면서 현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병과 가난 뿐인 현실에서 樂은 없고 그것은 전원생활을 그리워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燕山君때의 어수선한 정치환경 속에서 병과 가난은 詩人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불만감을 품게 하기에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憧憬은 中宗때 관직생활을 할 때에도 곧 잘 나타나고 있다.

故園으로 돌아가고픈 마음 더하는 것 금할 수 없고
 塵世속의 세월 흐름은 점차 잊어감을 깨달았네

鼎水는 하늘과 닿아 끝이 없는데
언제 배 띄우고 노를 두드릴까
〈書雲鄉南行詩卷後用卷首三節句韻 中〉

여기서 詩人은 아직 塵世에 있다. 머뭇거리며 훌쩍 떠나지 못한 자신을 질책했으면서도 아직도 塵世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미 세 번의 귀양살이를 통해 詩人은 현실에 대해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이며 그래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을 '塵世'라 표현하고 故園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비 내린 끝에 새 울어대니
봄기운 모두 펼쳐져
좋은 경치 구경에
세월 가는 것 누가 알까
이 몸은 진시로 귀에 의지하니
어느 세월에 돌아가려나
육식함은 나의 모습 아니고
정원에 채소 가꾸는 것이 옳도다
이미 봄이 반이 지났으니
나의 집 지금 어떠할까
매화는 꽃 지고
포도는 다투어 싹을 틔우겠지
큰 연못에서 낚시하고
空山 나무에 기대어 시를 읊고
다른 날 이것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더러 말과 다르다 이를 것인가 〈春日憶田園二首〉

비가 내리고 봄기운이 완연해지자 詩人은 경치를 구경한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 있는 모습이다. 육식을 하는 것과 채소를 가꾸는 것을 대비시켜 현재 벼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자기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말한다. 더구나 봄이 반이나 가버린 후 다시 전원생활을 상상함으로써 전원 에 대한 憧憬의 정도는 더욱 고조된다. 塵世속에서 세월의 흐름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 에 대해 누가 말과 다르다고 꾸짖을까 은근히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다.

봉소에서 시가 오니 句마다 새로와
 귀양은 신선이 봄을 애석해 하는 듯
 鹽芹館에서 한가로움이 없고
 綸발銀臺의 일과도 친숙해졌으나
 세월은 흘러 절기 바꾸기를 재촉하니
 묵묵한 심사 누구에게 말하랴
 종남산은 미소 짓는 듯
 지척에 있어도 티끌로 서로 떨어져 있네 〈次告淑韻〉

관직에 있어 한가한 틈이 없는데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있다. 그런 중 문득 바라본 것이 남산의 아름다움이라 산이 미소를 짓고 있으며 지척에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詩人은 이것을 양쪽 세계에 가로 놓인 티끌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詩人이 바라보는 自然은 항상 塵世와 떨어져 따로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容齋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전원이나 자연을 그리워했다. 容齋가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은 病과 가난, 정치적인 어지러움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인은 容齋로 하여금 그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티끌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해주고 있으며 후에 세상에 대한 허무감을 갖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

容齋의 時에서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등장한 전원이나 자연은 愛의 詩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 愛의 情緒가 있는 詩속의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일 뿐이었다. 그러나 憧憬의 情緒가 있는 詩의 자연은 불만족스런 현실로부터 벗어나 詩人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詩人은 현실속에서 그리워하고 있을 뿐 실제로 전원이나 자연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몸은 현실에

있으면서 따로 존재하는 세계를 憧憬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詩人에게 있어 전원과 자연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3. 남산의 청유행태

지금의 장충공원 막바지 부근의 남산 북쪽 깊숙히 漢城都中の 佳境이라고 할 만한 靑鶴洞이 있었다. 이 청학동에는 中宗朝(1506~1539)의 詩人이며 文臣으로 이름난 容齋 李荇이 살아서 더욱 유명하였다. 이 청학동은 선망의 秘境으로서 中國 文人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사신으로 왔던 中國 文人 唐臯, 使道가 詩를 남겼고, 北岳下 大隱岩 주변에 卜居한 止亭 南袞과 친우가 되어 두사람이 서로 南山과 北岳을 왕래하면서 詩庭酒席을 같이하여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 청학동의 위치에 대하여 세조실록<권5>를 보면 세조2년(1456) 11월 王이 친히 청학동에 거동하여 新聞을 내는 것이 편한지의 여부를 물어본 다음 수행한 종친, 宰樞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新聞이란 南小門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든 남산 북쪽의 깊은 洞谷이었던것을 알 수 있다.

○ 唐臯

조선 성안 청학동에	(원시)	朝鮮城과靑鶴洞
누가 찾아 높은 집 지었나		誰向此間起雲棟
나 사절 따라와서 처음 들으니		我隨使節始得聞
청학 선인(仙人)의 글독(書囊)이라네		靑學仙人作書囊
선인(仙人)이 혹은 저자 거리에 나온다지만		仙人偶爾奇市來
때로 학을 타고저 하늘 가에 논다네		有時騎鶴遊海天
그의 입는 것 먹는 것 무엇인가 물으니		問渠服食者何物
자색 구름 옷에 옥간수(玉澗水) 샘물 마신다네		紫雲裳衣玉澗泉
동구문 바로저기 구름 깊은 곳에 있으니		洞門正在雲深處
책상 위 신선의 책권 그 수 얼마나 될까		案上瑤篇不知數
근래에 종적을 아는 사람이 있어		通來踪跡有人知

옥문(玉門)에 데리고 들어가 수양한다네
 신선 사는 그 곳 인강 세상 같으랴
 청학이 소리 내어 공중에서 울고 있다네
 밤 깊어도 저 산에 달 밝아 있고
 봄은 가도 바위 및 꽃은 매양 붉다네
 선동(仙洞)을 그리워 하면서 가지는 못하니
 새 시(詩)나 지어 내 마음 표시하네
 머리를 돌려 황산(黃山) 유가십육봉 바라보니
 흰 학과 푸른 소나무 초연한 생각 일으키누나

携入玉門보眞去
 仙居不與塵凡同
 青鶴有聲常려空
 夜深猶래山月白
 春歸未改巖花紅
 我懷仙洞不得往
 以新詩託心賞
 回首黃山六六峯
 白鶴蒼松動遐想

○ 使道

푸른 학 어느 해에 동문 열었나
 도인이 이곳 찾아 좋은 집 지었네
 자주빛 언덕, 붉은 절벽에 샘물 소리 섞이었고
 푸른 전나무 소나무에 새소리 끊기지 않네
 마음은 성현(聖賢)을 짝지워 세월가는 줄 모르는
 손으로 고금의 책 뒤치며 근원(根源)을 연구하네
 조선에 좋은 경치 많은 줄 내 알지만
 한번 가서 옥 술병 기울여 볼 길 없네

(原詩) 青鶴何年啓洞門
 道人於此構華軒
 紫崖丹壁泉聲襟
 翠檜蒼松鳥聲繁
 心伍聖賢忘歲月
 手披古今究根源
 也知東國多佳境
 一造無由到玉樽

○ 南峯

일부러 그윽한 곳 찾아 푸른 봉우리 올라가니
 주인이 손을 반기매 손은 돌아갈 줄 모르네
 그대 집 술 떨어지면 내 집에서 가져 오세나
 남산에는 꽃이 피고 북악에서는 진다네
 청학은 벌써 신성의 골격 알아보고
 홍도(紅桃)는 어찌타 쇠 간장 괴롭히노

(原詩) 爲訪幽居上碧巒
 主人愛客客忘還
 君家酒盡吾家續
 南嶽花開北嶽殘
 青鶴早知仙骨格
 紅桃還惱鐵心肝

풍류 있는 두 늙은이 조용히 노는데
아이들 시켜 우리 즐거움 방해하지 마오

風流二老從容地
莫遣兒曹損我歡

또 이 청학동에 살면서 靑鶴道人이라 자처하던 李荇(1478~1534)은, 청학동 부근에 있던 栗亭의 주인이 岳陽樓와 天下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南山의 栗亭과 바꾸지 않겠다고 한 얘기에, 「南山下의 한 골짜기가 天下의 절반보다 나은데, 栗亭의 좋은 園林을 어찌 中國의 名勝 岳陽樓와 바꿀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詩 한 수를 읊어 南山下의 佳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 李荇

一壑久傾天下半
率亭寧換岳陽樓

第 3 節 鄭以吾의 南山八詠

정이오 1354(공민왕 3) ~ 1434(세종 16)

고려 조선의 文臣, 자는 粹可, 호는 郊隱, 愚谷, 본관은 晉州 고려 공민왕때 文科급제, 1410년(태종 10) 『태조실록』修撰에 참여, 이듬해 檢校判漢城府事로서 承文院題調를 겸임했다. 1413년 藝文館 大提學이 되어 知貢舉를 겸했으며 贊成事に 이르렀다. 文章으로 이름이 높았다. 시호는 文定, 저서에는 郊隱集, 火藥庫記와 文獻으로는 세종실록, 해동호보, 國朝人物志 등이 있다.

文人 정이오는 「南山八詠」이라는 詩를 지어 남산의 八景을 읊었다고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南山 八景

1. 第1景 운횡북궐(雲橫北關) 구름이 북쪽 궁궐에 가로 지른것

옥엽(玉葉)은 금궐(金關)에 맡기고

玉葉橫金關

붉은 기와 푸른 하늘에 비치네

朱甍照碧天

땡땡 누수 재촉하는데	丁東傳促漏
북쪽에 경사구름 일어나누나	戌北釀非煙
아름다운 기운 개인 날 서로 들렀는데	佳氣晴相擁
높은 기상 바라보니 다시 잇달았네	高標望更連
남산같은 높은 복을 우리 임금께 드리려니	南山將獻壽
조심조심(穆穆) 일만 년을 누리소서	穆穆萬斯年

운회북궐이란 남산에 올라 멀리 북쪽을 바라볼 때 구른 아래로 펼쳐있는 산경과 궁궐의 원경을 말한다. 이것과 오늘의 극도로 과밀화된 북쪽 도심권의 조망은 대비가 될수 있을 것이다.

2. 第2景 수창남강(水漲南江) 물이 南江에 넘치는 것

장마물 들판을 덮었는데	요流橫被野
저 강의 흰 기운 성곽에 잇따랐네	江氣白連城
모래판(平沙) 휩쓸어 가고	卷盡平沙去
온갖 냇물 다 모았네	包容衆派橫
나룻터에서 언덕이 문힌 줄 알겠는데	渡頭知岸沒
저 하늘가 가는 배 아득하게 바라본다	天際望舟行
저녁 때 비 개이고 둥근 달 떠오르니	夕霽水輪上
용용(溶溶)한 그 모습 하늘에 닿았네	溶溶亘大淸

수창남강은 남산의 정상에 올라 멀리 남서쪽으로 한강의 넘쳐 흐르는 물길과 강변 풍경을 바라다보는 전경인데 오늘날 한강변의 水景觀은 이질적인 대비의 조화가 아닐수 없다.

3. 第3景 암저유화(岩底幽花) 바위 밑의 그윽한 꽃

봄은 가고 꽃 이미 졌는데	春歸紅瘦後
산중에 울밀(鬱密)하게 녹음 무성하네	山密綠肥時
물 건너니 그윽한 향기 풍기고	渡水幽香逼
가까운데 언덕 위 바위 틈에 기이한 풀 있구나	巖異卉奇

늦은 포기 은일(隱逸)인양 동정 가는 것이

萬叢憐隱逸

부질없는 꽃 흥망성쇠 애석하네

浪葉惜興衰

여기서도 정(貞)하고 길할 것이

自是能貞吉

하늘 조화는 사정 없다네

天工豈有松

봄철이 다가도 층암계곡의 자주빛 벼랑, 붉은 절벽의 그윽한 곳에 아직도 피어있는 꽃을 감상한다는 佳境을 「岩低幽花」과 운치있게 표현한 것으로 이 절경의 장소는 중종조의 시인이며 文臣인 李荇이 淸遊하며 살았다는 이른바 청학동이라 불리우던 秘境으로 지금의 중구 필동 막바지의 계곡이었을 것으로 기록된다. 이곳 또한 오늘날 남산 북쪽 산기슭의 잠식된 현상태와 조명하여 볼때 무상함을 금할수 없을 것이다.

4. 第4景 영상장송(領上長松) 고개마루의 높은 소나무

집을 둘러 층층한 외뿌리 솟았는데

繞屋層巒聳

공중을 버티어 푸른 일산 되었네

撐空翠蓋成

비가 개이니 구름 와서 희게 걸치고

雨晴雲襯白

밤이 고요하니 달이 맑게 흥청이네

夜靜月節清

벽이 서 있는지 천년은 될 것이

壁立千年地

바람 따라 10리에 소리 들리누나

風傳十里聲

이 모습을 돌아보는 이 없고

無人回首見

떠들썩 명예만 따라 경쟁하네

擾擾競馳名

산마루 이곳 저곳에 서있는 낙락장송의 풍치를 감상하는 것으로 領上長松이라 읊었다. 현재 남산 수목식생의 빈약함이며 젊은 세대들의 도덕적 정신적 빈약상과 당시 그 長松의 푸른 절개를 의젓하게 감상하던 장부의 기개가 대비되어 오늘의 정신문화 고양에 기둥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5. 第5景 삼춘답청(三春踏青) 3월의 답청놀이

북쪽 바라면 성시(城市) 고대지만

北望雖城市

남쪽으로 오면 여기 동천(洞天) 있는 것이

南尋卽洞天

꽃을 찾으니 바람이 맑게 불어오고

問花風澹蕩

풀을 밟으니 날씨가 따사롭다

踏草日照妍

이런 모임 많은 사람 있으리

良會無多子

고상한 정희 열선(列仙)보나 나올씨고

高情勝列仙

남산의 정적이고 소극적인 이용형태면에서 재조명하여 볼때 第五景은 이른바 남산어귀 이곳저곳에서 푸른 풀을 밟은 踏青놀이로 三春踏青이라 하였다.

6. 第6景 구일登高(九日登高) 重陽의 登山놀이

술병 차고 높은 데 오르는 날

佩酒登高日

하늘도 맑은 9월초이네

天晴九日頭

단풍 숲 먼 골짜기에 한창이고

楓林杳遠壑

푸른 소나무 층층한 언덕 둘러있네

松色護層兵

남동(藍洞)은 시 짓던 곳인데

藍洞題詩處

용산(龍山)에 모자 떨어지던 때이네

龍山落帽秋

예나 이제나 취하는 것은 같은 것이

古今同一醉

마음에 맞으면 그 밖에 다른 무엇 구하리

適意百無求

음력 9월 9일 重陽節에 높은 언덕을 찾아 벗과 함께 술잔을 나누는 선비들의 吟風詠月을 일러 九日登高라 하였다.

7. 第7景 척현관등(陟軒觀燈) 언덕에 올라 觀燈行事 구경하는 것

4월 8일 관등놀이 성황인데

八日觀燈盛

승평세월 이 얼마인가

昇平第幾春

일만 초롱불 대낮같이 밝으니

萬龕明似晝

사방이 고요하고 티끌 하나 없는 것이

四境靜無塵

붉은 불길 천 길이나 서린 듯

虹焰蟠千丈

별 광채 북두칠성(北辰)으로 향했네

星芒拱北辰

밤을 새어도 구경 부족하며

通宵看未足

닭 우는 새벽된 줄도 모른다네

不覺到鷄晨

음력 4월 8일의 관등놀이로서 「척헌관등」이라 한 것으로 오늘날은 서울도심의 야경을 연상할 수 있다.

8. 第8景 연계탁영(沿溪濯纓) 시냇물에 갇끈 빨기

정절(도연명의 시호)선생은 물에 옮겨 임했고

靖節徒臨水

종군(終軍)은 일찌기 긴 노끈 청했네

終軍早請纓

냇물 맑으니 발 어이 씻으리

流清何濯足

티끌 떨고 세상 물정 잊을 것이

塵拂澹忘情

천천히 흐르니(宛轉) 시내에 이끼 껴 미끄럽고

宛轉苔溪滑

굽이쳐 돌아오니 옥 물결 감도네

盤回玉派榮

떨어진 붉은 꽃 물에 더 둥구 밖으로 나가니

落紅浮出洞

봉래(蓬萊) 영주(瀛洲) 여긴가 하노라

還訝近蓬瀛

계곡사이의 맑은 물을 따라 갇끈을 빨아 말리는 선비들의 모습으로 沿溪濯纓이라 하였다. 오늘날은 남산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약수터의 변태된 이용형태에서 그 맥을 잇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남산의 풍치용인은 공간의 適所성에 따른 遠心的 조망과 自然回歸的인 감상행위가 詩歌的인 운율의 차원에서 승상되었으므로 오늘날 그 공간적 適所와 행태의 내용을 형태감각으로 재조명함으로서 우리의 독특한 도심자연공원의 멋과 행위를 창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第四章 現在 서울 南山의 都心景觀의 位相

第 1 節 南山의 自然環境

1. 地形

준평원인 서울분지를 둘러싼 산은 外四山과 자연의 방벽인 內四山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外四山은 서울 외곽의 네 산으로서 북쪽의 北漢山과 동쪽의 龍馬山, 서쪽의 德陽山, 남쪽의 冠岳山이다. 內四山은 북쪽의 白岳山을 비롯하여 동쪽의 駱駝山, 서쪽의 仁旺山, 남쪽의 木覓山 즉 南山을 말하는 것이다. (도 2-4 24p. 참조)

이렇듯 남산은 서울의 內四山의 하나이며 해발 265m의 명산으로서 서울분지의 남쪽을 막으며, 좌우의 능선을 끼고 도는 서울 성곽의 남쪽 중심지였다. 지형학적으로 보면 남산은 準平原上의 片磨岩으로 된 殘丘(monadnock)라 하겠다. 『漢京識略』에는 木覓山을 형용하여 「달리 말이 안장을 내려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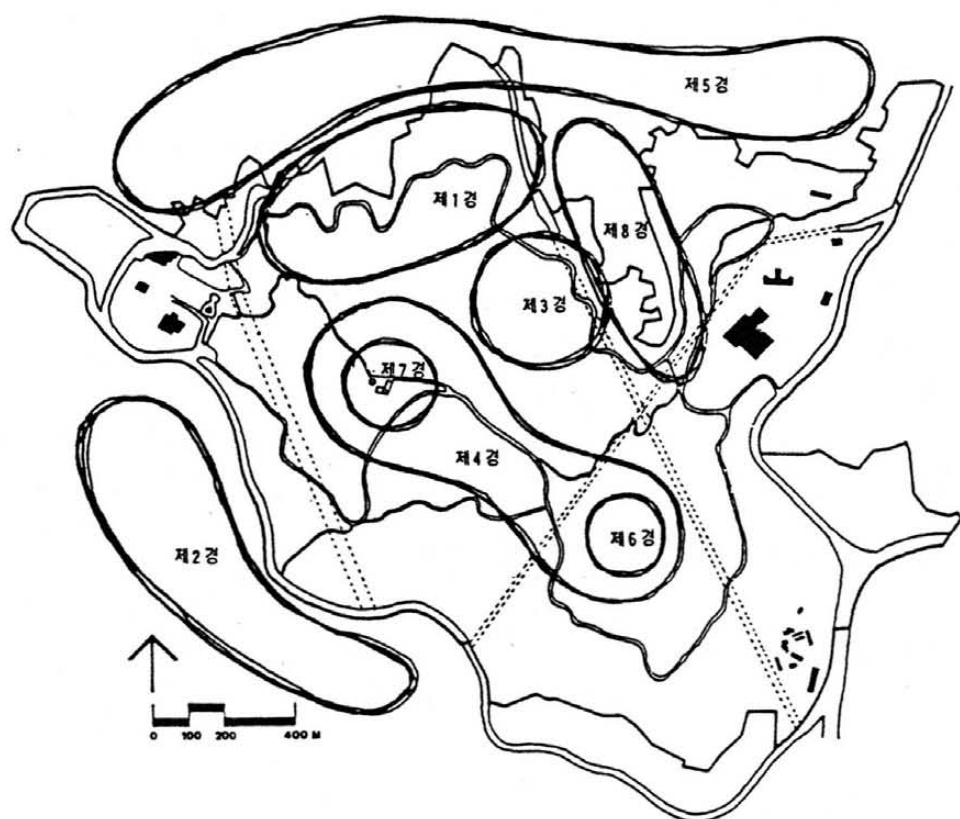
남산은 선이 부드러운 푸른 산이다. 서울 안에 있는 다른 산들이 봉우리가 대체로 뾰족뾰족한 것과는 달리 남산은 봉우리가 둥그스름하고 다른 산들이 돌을 드러내고 있어 거세고 마른 느낌을 주는 것과는 달리 남산은 나무로 뒤덮여 있어 서북쪽 기슭 같은 곳은 경사가 80도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기에는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철령에서 태백산맥과 갈라져 나온 광주산맥이 서남쪽, 곧 서울쪽으로 뻗어 오면서 잠깐 기운을 잃은 듯이 잠잠해지다가 서울에 이르러 도봉산과 북한산, 북악산을 일으켜 놓고 남쪽으로 돌아 인왕산을 세운 다음에 인왕산에서부터 다시 편편해지며 남쪽으로 꺼질듯이 뻗어오다가 동쪽으로 휩 돌면서 가볍게 일으며 세운 듯한 산이 남산이다. 남산은 동서의 길이가 2.7km, 남북의 길이가 2.1km이며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를 이루고 성동구 왕십리쪽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다.

2. 動 · 植物

① 動物

남산의 숲에는 옛부터 꿩 · 다람쥐 · 박쥐 등 뿐만 아니라 철따라 오가는 철새들의 보금자리



(도 3-1) 도식화해 본 옛 남산의 8경도

리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꿩·다람쥐·박쥐·산토끼도 차츰 보기가 힘들어져 갈 뿐만이 아니라 철새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찾아드는 철새가 줄어들는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날로 더해가는 공해와 모자라는 먹이 때문이다.

남산에 사는 새들을, 그 수효가 많은 순서에 따라 이름을 적어보면 참새, 박새, 까치, 노랑턱멧새, 곤줄박이, 진박새, 쭈새, 상모솔새, 쇠막이 들과 그 밖의 여러 새들이다. 여기에 이름이 나온 것들은 쭈새를 빼고는 모두가 텃새인데 서울시 야생 조류 보호 추진반이 1977년부터 1980년까지의 세 해 동안에 걸쳐 11월과 12월에 한 관찰에 따르면, 겨울철이면 찾아와 지저귀었던 방울새, 오목눈이 들은 1980년 겨울부터는 아예 날아들지도 않았다. 또 쭈새와 피새, 홍양진이, 솔갓새, 멧장이새, 직박구리, 지빠귀 같은 철새들도 찾아드는 수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해충을 먹이로 하고 나무구멍을 집으로 삼는 새말고는, 이를테면 나무 열매를 먹이로 하는 새들은 눈에 띄게 줄어간다고 한다. 당연한 노릇인 것이 남산은 공공로게도 대체로 열매 나무가 있는 곳들에 매점이나 공공 시설이 있고 도로가 나 있어 새들이 가까이 날아들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② 植物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르듯…」이라는 애국가 가사에서 보듯이 남산에는 소나무가 많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나무가 나 있는 곳은 비교적 척박한 곳 뿐이고 더군다나 큰 소나무는 많이 남아 있지도 않다.

현재 남산에 자라고 있는 식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산의 지형은 동서로 뻗은 능선을 장축형으로한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표고 100m 이하는 전체면적의 36.9%, 100~200m는 50.1%, 200m이상이 13.0%를 점하고 있고 서북사면이 적습하여 식물의 종류가 비교적 풍부하다.

팔각정에서 식물원쪽으로 향하는 계단길과 소월로, 남산타워 주변을 포함한 팔각정 남서사면을 보면, 위쪽은 느티나무와 산갈나무군락으로 특정지워지고 사면 아랫부분은 소나무림과 아카시나무 조림지가 뚜렷하고 팔배나무, 산벚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때죽나무가 혼재하는 교목층도 많다. 시립도서관 옆 계곡은 물오리, 산벚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때죽나무, 팔배나무 등의 아교목층, 진달래, 엄나무, 회나무 등이 관목층을 이루며, 하층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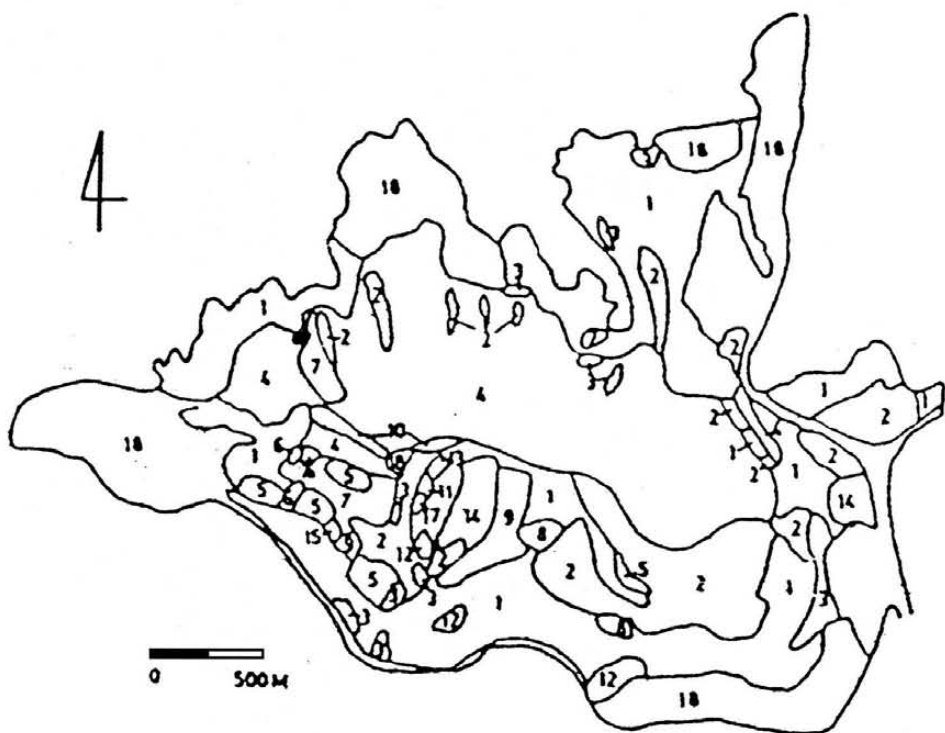
국수나무가 남산 전역 중에서 이곳에 가장 많고, 고사리류, 애기나리, 신갈나무와 당단풍의 치수가 많다.

이태원동과 한남동 뒷사면은 장충약수터-33초소-8각간이매점-제1요금소 사이로서 사면 아래쪽의 아카시나무조림지, 그 위쪽의 소나무림, 외인아파트 주변의 은사시나무 조림지로 구분된다. 아카시나무 조림지에는 물오리, 자작나무, 독일가문비, 잣나무, 소나무, 은사시나무의 조림수종이 복잡하게 섞여있고 아교목층과 관목층에는 팔배나무, 때죽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대체로 층의 발달이 나쁘고 초본층도 빈약하다. 딸기류, 땃대이덩굴, 싸리류, 십자화과식물들이 삼림의 파괴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지대는 남산에서 가장 식생이 나쁜 곳이고 흉고직경(DBH) 15~30cm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북사면은 대체로 신갈나무-당단풍군집으로 덮혀있으며 식생의 발달이 가장 좋은 곳이다. 사면 아래쪽은 계곡과 능선으로 구분되며 습한 계곡의 식생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가 우점하고 아교목층에는 당단풍이 우점하여 식피율은 70%이상이다. 초본층에는 고사리류가 우점한다. 토양이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는 신갈나무, 소나무가 우점하여 관목층에는 노간주나무, 팔배나무, 때죽나무 등이 나며 초본층은 아주 빈약하다. 수경사 뒷사면은 교목층에 신갈나무가 우점하나 조림한 것으로 보이는 물오리나무가 출현한다. 수고 15m, DBH130cm이상의 신갈나무가 많고 아교목층에는 팔배나무, 당단풍, 때죽나무, 산벚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관목층에는 진달래, 생강나무, 초본층에는 국수나무, 애기나무, 고사리류가 높은 피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의 거목 3그루가 발견된 사실이다. 아마 삼림이 파괴되기 이전에는 남산 북산면 중턱 아래계곡은 서어나무림으로 덮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산의 식물군집을 크게 나누어보면 신갈나무-당단풍군집과 소나무군집으로 구분된다. 앞의 군집은 다시 신갈나무-진달래아군집과 서양등골나물아군집으로 갈라진다. 이들 외에 잡다한 군락들이 있다. 즉 신갈나무-느티나무군락, 팔배나무-소나무군락, 산벚나무-때죽나무군락, 신갈나무-아카시나무군락, 아카시나무조림지, 은사시나무조림지, 아카시나무-소나무조림지 등이 있다. 이들 군락은 대부분 무분별한 식수에 기인했거나 인간의 간섭으로 생긴 식생형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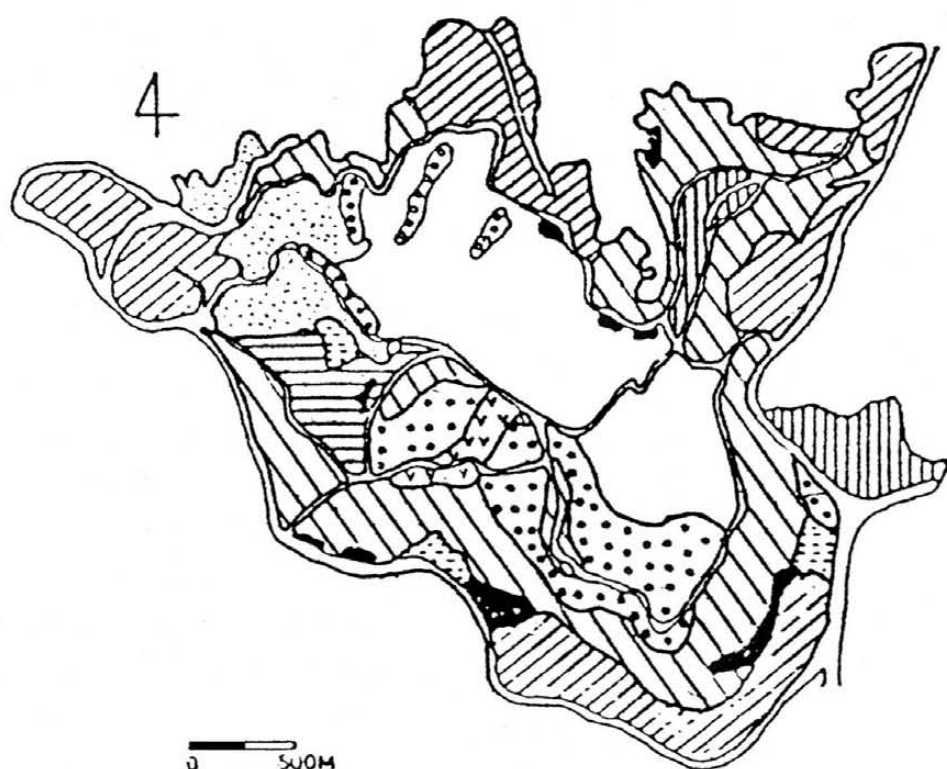


1. 아끼시나무
2. 소나무
3. 온사시나무
4. 산갈나무
5. 산벚나무
6. 에티세콰이어

7. 팔배나무
8. 잣나무
9. 리기다나무
10. 느티나무
11. 자작나무
12. 물오리나무

13. 버즘나무
14. 때죽나무
15. 화백
16. 당단풍
17. 방크스소나무
18. 시설했

(도' 4-1) 남산의 주요 식물 분포도



- | | |
|---|--|
|  신갈 · 당단풍군집 |  아까시나무 · 소나무군 |
|  소나무군집 |  팔배 · 소나무군집 |
|  신갈 · 느티나무군집 |  신갈 · 아까시나무 |
|  아카시아나무 |  신벚 · 때죽나무군집 |
|  온사시나무 |  시설물 |
|  리기다소나무 |  도로 |

(도 4-2) 남산의 현존 식생도

서양등골나물은 남산의 서사면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최근에 퍼진 귀화식물이다. 귀화식물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교통수단에 의해서 외국에서 도입되었거나 농작물이 野化하여 자생하게 된 것으로서 서울시내에는 40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귀화식물의 증가는 도시화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귀화식물은 도시, 고속도로변, 공항 등에 많다. 귀화식물중 망초나 개망초는 개항이후에 전국에 퍼진 식물이고, 그러므로 자연식생에는 귀화식물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등골나물이 언제부터 퍼지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며(물론최근의 일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이 곳 남산에만 유독 많이 퍼져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는 분명치 않다. 무릇 어떤 종이 한 군 집 안에서 생존하려면 그 군집안에서의 위치, 즉 생태적 지위(군집안에서의 다른 종과의 관계에서 본 위치 또는 역할)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등골나물의 급증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구성 초나무, 담쟁이덩굴 등과 같이 등골나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갈참나무는 표고100~200m인 동북사면과 서사면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 군락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또 비원, 양재동의 종여울산, 강남의 선정능, 행주산성 등의 낮은 지대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갈참나무의 분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곳은 남산의 낮은 지대가 대부분 주택지로 잠식되었거나 자연이 파괴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본다면 원래 진고개부근, 장충동저지대 등은 갈참나무림이 분포해 있었고 계류에 연하여 버드나무, 오리나무림이 분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第 2 節 南山公園施設 現況

남산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 262m, 대부분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의 북악산, 동쪽의 낙산(駱山), 서쪽의 인왕산(仁旺山)과 함께 서울 중앙부를 둘러싸고 있다. 즉 중구의 회현동, 남산동, 예장동, 필동, 장충동, 신당동과 용산구의 도동, 후암동, 용산동2가, 이태원동, 한남동에 걸쳐 있는 남산은 정상을 중심으로 東西 2.7km, 南北 2.1km의 長方形의 모습을 갖고 있다.

남산은 결코 움직이는 산은 아니나 서울이 한강 너머에까지 넓혀짐과 함께 '움직여' 서울의 남쪽 끄트머리에서 그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러므로 서울의 자연 공원인 남산은 이제 더는 서울의 '남쪽에 있는 산'이 아니다.

남산은 또 태산이 아니다. 따라서 산이 높거나 골이 깊지도 않다. 그리고 철 따라 펼쳐지는 풍치가 두드러지게 빼어난 산도 못된다. 그러나 남산은 2절이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철갑을 두른듯"으로 시작되는 「애국가」와 수효가 천만 명을 상회하는 서울의 인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나라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입에 담기고, 가장 많은 사람의 눈에 미치고, 가장 많은 사람의 발길이 닿는 산이다. 그런가 하면 나라 안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가 뒹여진 길 위로, 뚫려진 굴로 오르내리거나 드나드는 산이고 나라 안에서 가장 더운 바람과 가장 심하게 오염된 공기와 가장 시끄러운 소음에 갇혀 있는 산이다.

서울의 명승지로 첫손 꼽히는 南山의 훼손사는 바로 시민의 수난, 나아가서 우리민족

(표4-1) 현존식생도에 의하여 추정된 남산의 각 식생형별 분포면적

식생형(토지이용형)	면적(×10,000)(㎡)	면적률(%)
당단풍-신갈나무군집	62	19.9
소나무군집	35	11.2
신갈나무-느티나무군집	32	0.6
아카시나무 조림지	80	25.6
은사시나무 조림지	6	1.9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4	1.3
아카시나무-소나무조림지	14	4.5
팔배나무-소나무군집	9	2.9
신갈나무-아카시나무군집	16	5.1

산벚나무-매죽나무군집	4	1.3
시설물	51	6.4
도로	30	10.0
계	313	100.0

의 受難史와 軌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남산 공원의 면적현황을 보면 총면적 2,971千㎡중 임야 2,778千㎡(93.6%), 녹지대 79,000㎡(2.6%), 도로 42,000㎡(1.4%), 광장 46,000㎡(1.5%), 기타 25,000㎡(0.8%)로 되어 있다.

서울시는 1968년 9월 10일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 557호로 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 공원관리를 맡고 있다. 공원내에는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물원과 자연학습장은 일반시민들의 교육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남산내 광장은 팔각광장, 백범광장, 안국근의사광장, 장충단 광장 등 그 면적합계가 45,950㎡로서 전체 공원 면적의 1.5%를 점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요시설인 공원관리 시설, 교양시설, 조경시설, 유희시설, 편의시설은 다음<표 4-2>와 같다.

이외도 銅像·記念碑 및 塔이 도처에 산재하여 남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주도록 계획되었다.

(표 4-2) 남산공원의 이용시설 현황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실, 오물처리장, 휴지통 등 조명시설
교 양 시 설	학교, 도서관, 극장, 식물원, 기념관 등
조 경 시 설	분수대, 꽃시계, 녹지대
운 동 시 설	축구장, 양구장, 정구장, 궁도장, 롤러스케이팅장
편 의 시 설	주차장, 음수대, 공중변소, 매점, 휴게실
기 타 시 설	약수터(8개소), 史蹟 등

남산은 일제 이후 본격적으로 공원이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남산공원내에는 서울 타

위·남산식물원·각종 기념물 및 동상 등 여러가지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다.

1. 公 園

남산은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 208호(1940. 3. 12)에 의해 남산도로공원과 장충단공원이 지정된 이래, 남산공원과 장충단공원의 2개 공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4년 건설부 고시 제 374호(1984. 9. 22)에 의해 근린공원이던 장충단공원이 자연공원인 남산공원으로 흡수 합병됨으로서 현재의 남산공원은 이전의 장충단공원을 포함한 남산 유일의 공원이 되었다.

① 남산공원

○ 연혁

- 1910년 5월 29일 : 남산 西北麓 일대 30만평에 漢陽公園 開園
- 1940년 3월 12일 : 조선총독부 고시 제 208호 「남산도로공원」지정
- 1959년 3월 12일 : 내무부고시 제 461호로 「남산대공원」 명칭 변경
- 1977년 7월 9일 : 건설부고시 제 138호로 남산공원을 자연공원으로 고시
- 1981년 5월 8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7호로 변경. 이때 남산공원의 면적은 2,261,000㎡이다.
- 1984년 9월 22일 : 건설부고시 제 374호로 장충단공원을 남산공원의 일부로 흡수 합병. 이때 남산공원의 면적은 2,971,000㎡이다.

○ 면적 및 구역

- 총면적 : 2,971,000㎡(약 90만평)
- 임 야 : 2,778,000㎡(약 90만평)
- 녹지대 : 79,000㎡(2.6%)
- 광 장 : 46,000㎡(1.5%)
- 도 로 : 42,000㎡(1.4%)
- 기 타 : 26,000㎡(0.9%)
- 관할구역 : 2구 11개동

중 구 : 1,526,000m²
1,444,000m²

○ 이용자 현황

- 최근 연간 1,375만명, 1일 평균 37,671명으로 추정됨(이중 식물원 이용자는 15만명)

② 장충단 공원

○ 연혁

- 1919년 6월 : 京城府가 南山東麓의 將忠壇(을미사변때 殉國忠節한 사람들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1900년에 설치한 壇)일대를 將忠壇公園으로 이름하여 관리함
- 1940년 3월 12일 : 조선총독부고시 제 208호에 의해 경성부 공원 제8호로 지정됨. 당시 면적 418,000m²
- 1984년 9월 22일 : 건설부 고시 제 374호로 근린공원이던 장충단고원을 자연공원인 남산공원의 일부로 흡수 합병. 당시 면적 297,0002. 따라서 1984년 9월이후 장충단 공원은 공식명칭으로서는 소멸된 것이다.

2. 각종 시설

① 광장 및 도로

○ 광장 : 4개소 45,950m² (1.5%)

장충단광장 : 면적 20,105m²

팔각 광장 : 면적 2,975m²

백범 광장 : 면적 19,835m²

안의사광장 : 면적 3,035m²

○ 도로 : 3개 7,800m

소파길(승의여고 ~ 힐튼호텔) : 길이 1,200m

장충단길(한남로터리~장충분수대) : 길이 1,800m

소월길(힐튼호텔~한남동) : 길이 4,800m

○ 터널 : 3개 4,430m

남산1호터널(중구 필동 ~ 용산구 한남동) : 길이 1,530m 넓이 10.2m

남산2호터널(용산구 이태원동 ~ 중구 장충동) : 길이 1,620m 넓이 7.2m

남산3호터널(용산구 이태원동 ~ 중구 회현동) : 길이 1,2800m 넓이 9.0m

○ 산책로 : 3개 3,950m

팔각산책로 : 길이 1,200m

장충산책로 : 길이 2,300m

후암산책로 : 길이 450m

② 공원관리시설

○ 남산공원관리사무소 : 1968년 9월 16일 서울시 조례 제 557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가 公布되어 설립됨. 현재 직원 67명이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그외 오물처리장·휴지통·조명시설 등이 있다.

③ 동상 및 기념물

○ 동상

- 이준열사상 : 1964. 7. 4 건립, 동상높이 3m
- 안중근의사상 : 1967. 3. 26 건립, 동상높이 3m
- 사명대사동상 : 1968. 5. 11 건립, 동상높이 3m
- 백범김구선생상 : 1969. 8. 23 건립, 동상높이 5m
- 김유신장군상 : 1969. 9. 23 건립, 동상높이 4m

- 김용환지사상 : 1970. 10. 2 건립, 동상높이 2m
- 유관순동상 : 1970. 10. 12 건립, 동상높이 3m
- 다산정약용선생상 : 1970. 10. 20 건립, 동상높이 3.50m
- 퇴계 이황선생상 : 1970. 10. 20 건립, 동상높이 3.50m
- 성제 이시영선생상 : 1986. 4. 17 건립, 동상높이 2.7m

○ 기념비(9개)

- 장충단비 : 1900년 건립, 높이 2m
- 이한응선생비 : 1960년 건립, 높이 3m
- 제일강산태평세계비 : 1963년 5월 15일 건립, 높이 1.2m
- 소월 시비 : 1968. 3. 13 건립, 높이 1.2m
- 반공청년운동기념비 : 1968. 10. 9 건립, 높이 8m
- 최현배선생비 : 1971. 5. 15 건립, 높이 9m
- 조지훈시비 : 1971. 5. 17 건립, 높이 3m
- 파리장서비 : 1973. 10. 3 건립, 높이 3m
- 자연보호헌장비 : 1980. 5. 13 건립, 높이 3.6m

○ 기념물

· 서울타워 : 남산공원 정상에 솟은 탑으로 서울 남산전파탑을 줄인 이름이며, 일명 남산타워로도 불리운다. 대지 99,000㎡, 연건평 13,000㎡로 해발 479.7m이며 탑 자체 높이는 236.7m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탑이다. 1975년 8월 완공했으나 1980년 9월까지 보안상 전파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하여 미공개하다가 1980년 10월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 타워는 팔각정 · 식물원 · 케이블카 등과 연결되어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 팔각정 : 남산 정상에 자리잡은 8각의 이 정자는 1959년에 南亭으로 지었다가 1960년 4 · 19대 훼손되어 1968. 11. 11일에 다시 건립되었으며 면적은 64.17㎡이다.

· 85타입캡슐 : 1985년 10월 17일 中央日報社가 창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85타입캡슐을 남산팔각정 옆에 매설했다. 이 타입캡슐은 500년 후인 2485년 개봉될 예정이며,

길이 240cm로 15m 땅속에 묻고, 그 위에 매설을 표시하는 石物을 세웠다. 1985년도 한국인의 참모습을 증언하게 될 타입캡슐 안에는 태극기·주민등록증·화폐·크레딧 카드 등 실물 200점과 2만5천페이지분의 각종 기록·통계·VTR테이프·가요 및 오디오 테이프 등 총 466점의 물품이 들어있다.

· 1977년도 대학생 야외조각 노장(9개)

④ 교양시설

○ 안중근의사기념관

1971년 10월 26일 개관하였으며 건물은 594.28㎡로 현재 안의사승모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념관내에는 회화(21점)·액자(21점)·사진(36점)·책자(36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

○ 서울과학 교육원

1973년 1월 19일 재단법인 육영재단으로 설립되었다. 1976년 3월 10일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1989년 현재 서울과학교육원으로 사용키 위해 보수공사 중이다. 부지는 3,237㎡이고 건물은 15,905.55㎡ 이다.

○ 국립국악고등학교

1967년 12월 29일 설립되었으며 부지 18,330㎡이고 건물은 2,741.6㎡이다.

○ 중앙국립극장

1973년 8월 26일 설립되었고 부지 57,041㎡에 건물 32,370㎡이다.

○ 남산 식물원 : 서울시립식물원으로 1968년 12월에 1호관이 개관되었고 1971년에 제 2·3·4호관이 증축개원되었다. 면적 2,272㎡, 보유식물은 총 1,100종에 12,000여본에 이른다.

○ 시립남산도서관 : 1964. 12. 10일 설치. 부지 13,292㎡, 건물 5층 9,362㎡ 이다.

⑤ 조경시설

○ 분수대

장춘분수대 : 200, 면적 842㎡, 높이 2.5m

식물원분수대 : 150, 면적 287m², 높이 0.75m

아동분수대 : 5, 면적 49m², 높이 0.6m

○ 그외 꽃시계(11m²) · 녹지대(7,900m²)가 있다.

⑥ 운동시설

○ 장충어린이야구장 : 1971. 8. 26 설치, 면적 6,104m²

○ 장충테니스장 : 1974. 8. 11 설치, 면적 10,545.50m²

○ 궁도장(석호정) : 1970. 9. 29 설치, 면적 133.8m²

○ 수영장

· 장충수영장 : 1969. 8. 5 설치, 면적 5,697m²

· 타워수영장 : 1972. 7. 1 설치, 면적 9,151m²

○ 장충롤라스케이트장 : 1978. 10. 1 설치, 면적 1,502.62m²

○ 식물원탁구장 : 1980. 11월 설치, 면적 108m²

○ 축구장

⑦ 편의시설

○ 주차장 : 3개소 9,090

팔각주차장 : 면적 1,487

백범주차장 : 면적 6,611

소월시비주차장 : 면적 992

○ 음수대 : 14개소

○ 공중변소 : 19개소

○ 매점 : 15개소

○ 휴게실 : 4개소

⑧ 기타 시설물

○ 단군굴 : 통로 약 20m의 인조굴로서 조선말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성부조공통일본당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곳에는 삼신(환인·환웅·환검)을 섬기고 있고 개천절과 어천절(3.14)에 행사를 하고 있다.

○ 약수터 : 8개소

○ 남산정상지역 송신탑

서울타워송신탑

KBS송신탑

미통신대송신탑

○ 그외 한국작도(株)는 1962년 이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고, 원불교수도원(1947. 4. 8)이 자리잡고 있다. 또 남산관광도로에는 주공·외인 단독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第 3 節 南山의 景觀構造 및 利用行態

1. 景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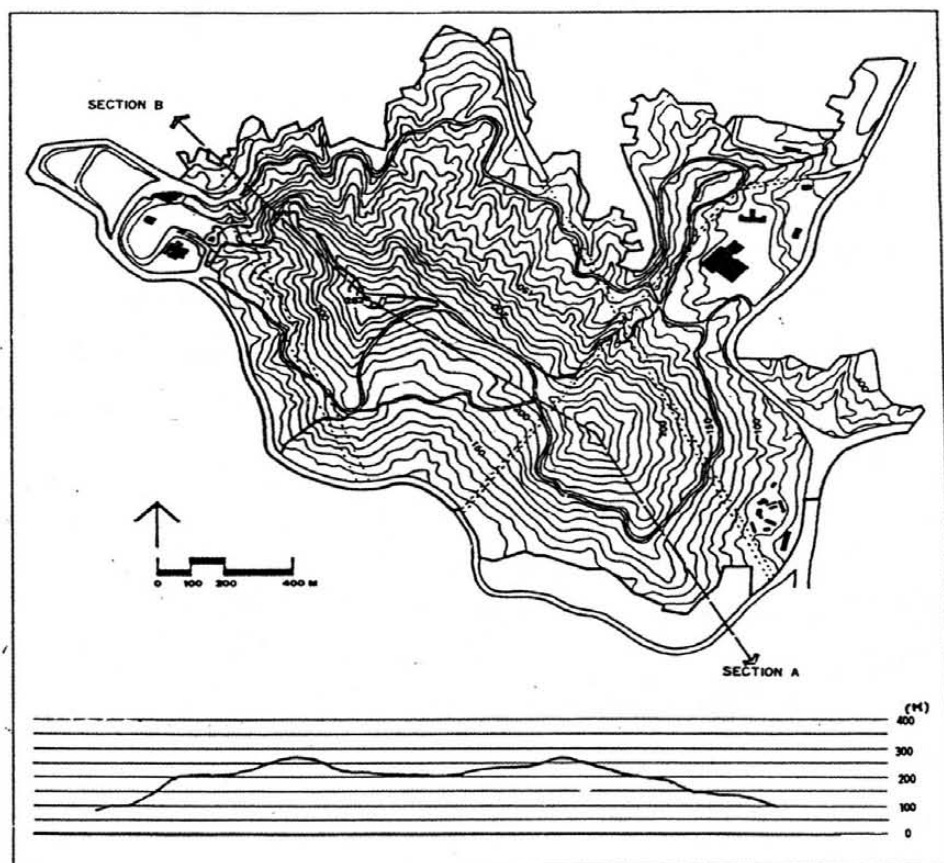
아름다운 도시, 조화로운 도시, 인상적인 도시, 운치있는 도시 그리고 쾌적한 도시가 인간에게는 공간적 적소감을 준다고 하겠다. 한 도시의 녹지율이 30%를 밑돌면 모든 생물은 그 공간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할 때, 그 녹지공간이 인공적일 때는 푸르름과 휴식을 주고, 들판일 때는 목가적 정서감을 주며 산일 때는 운치와 자연회귀적 귀소감을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거대도시화하는 서울에서 남산은 그 규모는 작지만 태산과 같이 거대한 가치로 소중히 간직해야할 것이다.

남산의 인상적 형태로서 도심 외곽에서 관찰된 방향은 남서방향에서의 접근성이며 수직적 위치는 한강 인도교와 동작대교의 수준점에서 바라다보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위치나 방향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시지각의 필요조건이 방향과 위치라면 이의 보조적 충분조건으로 지리와 남산의 규모에서 나타나는 시각감일 것이다.

남산의 규모는 해발 265m,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가 2.7km, 남북이 2.1km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主峯이 남서쪽과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경사가 급한 관계로 남서방향의 접근

에 따른 남산의 인상적 형태가 서울의 첫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산을 通景線으로 형성한 축점경관이며 현재 도심대형건물의 높낮이에 가려진 상태이므로 도시미관적 「스카이라인」을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시각의 「뒤편」이 다르게 지각될 것이다. 그래서 남산은 서울의 옛관문인 과천과 지금의 동작동 부근이나 수원에서 노량진 나루를 접근하는 동남향과 남서방향에서 우선 인상적으로 지각된 탓인지 전해 내려오는 일설에 의하면 남산을 잠두산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아 그 바로 동남쪽에 위치한 지금 잠실 벌의 지명이 우연만은 아닌, 우리 선현들의 풍수설을 간과할 수 없는 근거라고 하겠다.

(도 4-3) 남산의 SKYLINE잠두산 : 누에의 형상을 하고 있다.



형태의 심미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가변적 요인은 운동 시간 일조 또는 조명 계절 그리고 기상조건일 것이다. 자연경관일수록 기본적 양상만으로는 인간의 심미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가변적 요인으로 하여금 조화와 대비의 극치적 미감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서 佳境이나 秘境의 경지를 느끼게 하는지 모른다. 남산 역시 이들 가변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동서의 한강수경을 병행한 여러 교량의 접근성에 따른 인상적 형태를 부각시켜야만 도시경관의 명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서울의 도심은 서구의 근대도시처럼 극도로 인공적 대비와 조화를 형성하는 도시미관과는 달리 지형적 조화성과 남달리 운율적 풍치성을 배제하고 定都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서구적 시각구조와 기능을 부식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은 높은 건물이나 또한 산정에 높이 솟은 전망탑위에서 조망하여야 도시미관의 기능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도시미관은 서울 지형에 걸맞는 높이와 방향과 위치에서 조망하였을 때 항상 歸巢性和 공간內의 適所性を 느낄 것이다.

지질적 방향적 구도에서 남산은 남산본연의 높이와 위치에서 도심을 조망했을 때만 서울이 내포하고 있는 본연의 도시 미관이 표출될 것이다.

남산의 조망적 시각기능성은 우선 정상에서 북서쪽을 향한 거시적 파노라믹한 경관으로 보면 북쪽의 준엄한 산정이며 화강암의 皆骨美를 드러낸 지형미와 대비적 조화를 형성하지만 경관기능의 3대 양상인 근경에 있어 높은 대형건물이며 철탑등이 이질감을 주는 반면, 중경에 있어서 전통가옥이나 척도에 맞는 건물형태와 원경에 있어 궁궐과 주변의 산악들이 가장 회화적인 대비와 조화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동남에서 남서방향에 이르는 한강의 주변경관이며 一望無際의 田野의 풍경은 한강변의 개발과 부도심권의 발달로 과거의 운치성과 그 격조가 다른 浩然的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기쁘게도 우리는 남산과 같은 회화적 정경의 천연동산이나 구룡지가 전국 도처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자연자원의 활용을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2. 利用形態

도시공원은 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접촉의 기회가 많은 중요한 도시속의 여가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의 공원은 주로 녹지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왔다. 공원속의 녹지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녹지의 존재효과만이 전부는 아니다.

남산공원의 경우 경관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형태와 많이 달라졌고 이용형태도 과거의 시인묵객들이 남산의 높은 언덕에 올라 술잔을 기울이며 誦詩詠歌하던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생활형태의 일부로 공원을 그 대상으로 삼고있다.

이용자들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별·시간별 시차를 두어 장기적인 조사를 하여 데이터로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조사와 관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시설물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도시공원도 비슷하겠지만 남산공원의 이용형태는 특히 시간대에 따라 명확한 형태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오전의 중요형태는 이른아침 체력단련을 위해 조깅형태와 간단한 운동 등 動的인 행위가 이루어지고(보기로 베드민턴, 체력단련), 주변 도시민들에 의한 악수터 등반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오전 11시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그 이후는 드물다. 남산은 지형적 여건상 조깅코스로서 남산순환도로의 알맞은 구배의 완급으로 체력단련을 위한 알맞는 코스가 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산에는 악수터가 8개나 되며 산책 겸 일상의 생활처럼 악수를 찾는 형태와 장충공원의 운동장에서는 아침 일찍 베드민턴이나 조기축구 등 간단한 체력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남산공원내에 위치한 도서관이용객(주로 학생층)이 오전 시간에 많이 방문하고 있다.

오후 이용객은 대부분이 노인층이며 벤치에 앉아 휴식 및 담소를 나누는 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며 더운 온실에는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장기·윷놀이·바둑을 두며 여가를 즐기고 있다.

나무그늘에서 행해지는 이런 행위는 자발적이며 자연스럽게 유발되고 있는데 형태의 특성상 탁자라든가 넓은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때로는 대규모 관광단이 남산을 방문, 각종 시설물을 즐기는 형태도 관찰되었다. 18시부터 이루어지는 야간 방문객은 산책과 야경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조명시설이 충분치 못한데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되

어 조명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18시~20시 사이의 장충공원에는 연령 구분없이 많은 사람이 동적, 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소의 혼잡함을 느낄만큼 동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이들의 주요형태는 벤취뿐만 아니라 계단과 광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들과 실제적인 이용공간이 전체 공원에 비해 빈약하여 특히 어린이 놀이 시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서울은 자연환경으로서의 값진 자원인 남산이나 한강을 비롯하여 근교에도 많은 자연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계획 대상에서는 포함되어 있어도 그 실마리를 열지 못하고 관리나 이용의 허점만 노출된 채 체계적인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남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그 이용을 극대화시켜 나가야할 것 같다.

3. 南山公園의 受難史

1955년 7월 11일자 內務部告示 제303호 將忠公園·南山公園擴張으로서 종전의 將忠公園과 南山公園의 면적은 각각 418,000㎡ 였는데 이를 각각 699,000㎡와 1,256,000㎡로 확장한다. 이 확장은 종전의 두 공원이 남산의 일부분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自然綠地인 保安林으로 存置시켰는데 이 변경으로 기존공원의 일부분은 공원용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근일대의 보안림을 편입하여 결국 1,190,100㎡의 廣域을 공원면적으로 추가시켰다. 오늘날의 南山公園은 이렇게 해서 이룩된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는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시기로서 1950년에서 1953년까지는 6·25 동란을 겪었고 1954~1955년에는 前後復舊로 혼란했었다. 1956년부터는 거듭되는 선거로 官權과 金權이 난무했으며 행정권의 남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특권층이라는 것이 생겼고 萬民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리는 망각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공원계획이라는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바랄 수는 없었다. 공원계획용지안에 학교가 들어섰고 外人住宅·營團住宅이 들어섰으며 軍機關과 공공기관, 그리고 종교기관(교회당)과 被援護團體들이 들어섰다.

(표 4-3) 南山公園내 既存建物調書 (1962년 현재)

건물명칭	위치	소관별	허가유무	비 고
中央放送局南山放送局	禮場洞 4番地	國有	1957, 無許可	
軍警遺子女園	禮場洞(乃木神社)	私有	既存	乃木神社
職業少年學校	"	國有	1957, 無許可	
崇義女子高等學校	"	私有	1956, 無許可	
個人住宅(20棟)	"	"	既存	官舍
武侯廟(寺刹)	禮場洞 7番地	國有	"	
韓國神學校	禮場洞 山5의 5	私有	既存	舊 朝鮮神宮附屬建物
基督教博物館	厚岩洞	私有	"	"
大韓基督教長老教會	厚岩洞	私有	1954, 無許可	南大門公園 天幕임
聯合參謀本部	禮場洞 284	國有	既存	
美軍TV放送局	禮場洞 2	建物은 美軍	無許可	垡地는 國有
美軍寫眞電送室	"	"	"	
教會堂	南山頂上	私有		
龍山署解方支署	龍山洞2街 山2의 5	國有	"	
海兵隊本部	"	"	"	
海防教會堂	"	私有	1955, 許可	
圓佛教普光園	"	"	既存	舊名 若草觀音堂
陸軍軍樂學校	南山洞 山10의 11	國有	無許可	
洞會事務所	將忠洞 山9	市有	既存	將忠洞公園內
將忠洞大建物 및 附屬建物	將忠洞	歸屬財産	"	舊 博文寺
住宅建物 3棟	"	私有	"	將忠洞公園內
外國人住宅建物	漢南洞	"	無許可	中央產業會社建物

자료 : 「都市計劃基本資料調查書」p.465

이 기간 내에 자행된 공원용지의 잠식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은 남산공원이었다. 위 표는 1962년에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에서 조사한 남산공원내 既存建物調査인데 中央放送局(KBS)을 위시하여 직업소년학교, 승의여자고등학교, 대한기독교장로교회, 미군TV방송국, 미군사진전송실, 해병대본부, 해방교회, 육군군악학교, 외국인주택 등이

이와같은 蠶食은 비공식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東國大學校의 경우는 당시 李承晩大統領의 총애를 받고 있던 同大學 白性郁總長이 大統領의 특별 승낙을 받아서 1958년 8월 31일자 建設部告示 제1785호로 公園用地에서 해제되었다. 1963년 4월에는 建設部告示 제299호로 中央公務員敎育院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10,800㎡가 南山公園用地에서 해제되었고 역시 같은 달 같은 날짜에 2,500㎡의 公園用地가 私有土地라는 이유로 개인의 진정에 의하여 除斥되었다. 南山公園은 위치가 서울 江北地域의 가장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관계로 이렇게 공식 비공식으로 잠식되어 한때는 세인의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illegible]

第五章 結 論

본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산의 物理的 位相과 이의 정신적 이용형태를 敍景文學的 견지에 입각하여 과거에 文人, 武人, 學者 들의 空間的 聖所를 조사 분석하여 오늘의 남산의 위상과 재조명하여 보았다.

따라서 남산의 공간적 보존성과 경관가치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견해를 제언하는바이다.

1. 청학동

이 청학동 지역은 이조 중종朝의 詩人이며 文臣으로 이름난 용재 이행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의 장충공원 막바지 부근의 남산북쪽 깊숙히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佳境이라고 할 만한 청학동이 있었다고 한다. 더욱 유명해진 것은 中國의 使臣이며 文人인 唐阜와 使道가 청학동을 선망의 秘境으로 읊어서였다.

당고의 詩중에

.....

仙人이 저자거리에 나온다지만
때로 학을 타고 저자거리에 논다네
그의 입을 것 먹을 것 무엇인가 물으니
자색구름옷에 玉間水 샘물 마신다네

.....

.....

신선사는 그곳 인간세상 같으랴
청학이 소리내어 공중에서 울고있다네

.....

이 仙境이 온데간데없는 오늘날의 남산과 서울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秘境으로서의 남산을 읊었다.

전술한 바와같은 이행에 관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진열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 또한 詩碑도 세우고 그 仙境의 모형을 F.R.P로 축소 모형까지 건립하는 등 엄정 보존하여 후손들의 정신문화적 유산과 터전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2. 예장동

남산 기슭의 예장동 2번지는

· 세조때의 文臣 권람이 거처했던 곳인데 조선초기의 무학대사가 터잡은 곳이라고 하여 鹿川亭을 짓고 살았고,

· 세조때의 文人이요 정치가로 널리 알려진 한명회도 이곳에 살면서 後凋堂으로 이름 바꾸었고,

· 철종때의 名臣 박영원도 시냇물 흐르는 곳에 정자짓고 살았으며

· 고종때 이등박문이 이곳에 정자를 새로 짓고 綠泉亭이라고 하여 詩를 지어 읊으기를 남산 발아래 綠泉亭에서 三年세월을 꿈속에서 보냈네……. 라고 한 것을 보아 그곳이 얼마나 운치있고 아름다운 곳이었지 상상할 수 있다.

예장동 한 곳을 지정하여 정자를 지어 공간적 성소로 만들었으면 한다.

3. 회현동

회현동 2가를 중심으로한 그 일대가 남산 기슭 중에서 이조 500년을 통하여 가장 많은 名政丞 및 文臣, 文人들을 배출한 지역이다.

· 인조때의 정승 김상헌

· 선조때의 文臣 김상헌(상헌의 동생)

· 효종때의 名臣 金堉

열아홉 구비치는 폭포가 있고 밑에는 샘물이 있어 물맛이 매우 차고 좋았으며 우물 동쪽 돌벽에는 蒼壁이라고 새겨져 있다한다.

· 이조 500년 詩壇의 제1인자로 평가받는 천재시인 박은도 회현동에 살았다.

· 성종, 중종의 정승인 정광필은 회동 정씨로서 회현동이라는 이름이 이들 정씨들로 인하여 유래하였다고 한다.

12개의 犀帶를 神人이 와서 이 터에 걸어두고 간 후로 정씨들이 이 터에서 발복하여 정광필·정태화 등의 名賢들이 출현했다고 한다.

· 정여창 성종때 文臣

· 고종때 정승 정원용은 회현동 2가에 花樹樓를 짓고 살았다. 이 회수루에는 大臣家의 名園, 名樓였던 만큼 老大臣, 名流들이 많이 모여 敘情, 詠詩하였다 한다.

· 세종때 文臣 조말생은 洛陽名園이라고 칭하여 살았다. 이곳에서 회현동에 거주했던 名大臣들의 총 名單을 비석으로 세우고, 열아홉 구비의 폭포도 F.R.P모형으로 만들어 기념하였으면 한다.

4. 상동

지금의 남창동에 얼마전까지 상동이란 地名이 전해진다. 명종조의 정승으로 名宰相이었던 상진은 명종이 이 老大臣의 세상떠남을 애석히 여겨, 노대신 애도함이란 詩를 題目으로 내어 조상께 하였을 정도였다. 조선조 말까지 남대문로 3가와 태평로 2가, 남창동, 북창동 일대까지 상정승洞이라고 하여, 18C까지도 동리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새로운 백화점자리에 상동교회가 남아 내려온다.

고증을 통하여 상정승집터에 "상동의 유래"에 관한 비석을 세웠으면 한다.

5. 남산의 정상

고려와 조선에 걸쳐 文臣이었던 鄭以僞가 남산의 정상에 올라서 사방을 바라보며 읊은 八景은 남산의 경관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제 남산타워도 연차적으로 철거한다고하니 그곳에 이 八景의 詩를 모두 기록한 詩記 念碑를 세워 600년전의 아름다운 남산으로서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오늘날 남산의 位相은 여러 측면에서 그릇된 것도 있고 공해에 어쩔수 없이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너무나 많은 훼손을 당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도저히 이이상 더 남산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0년 8월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시작

하여 한창 진행중에 있는 때에, 남산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하여 조경학적인 측면과 경관적인 측면에서 남산의 경관적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형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서울시 당국이 혼자하기에는 너무 힘에 벅찬 일이므로, 1907년에 시작된 영국의 National Trust처럼 시당국이 후원자가 되고 서울 시민이나 민간 문화단체가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협회(가칭 서울 남산 보존협회)같은 것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보호 운영할 수 있게끔 법적인 뒷받침이 따랐으면 한다.

英國의 National Trust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단체인가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셔널 트러스트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회원과 대중의 자발적인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있는 순수한 일반 자선 단체로서 오늘날 영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 보존협회이다.

1907년에 제정된 내셔널 트러스트 법령은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이것은 매매되거나 저당잡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N.T는 현재 영국전역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해안의 삼분의 일 이상에 해당하는 460마일의 해안을 소유하고 있으며, 레이크 디스트릭에서만도 고원, 골짜기, 언덕, 늪, 호수, 숲 등 140만에이커의 보호지역을 소유하고 있다. 하드리안 성벽같은 고대로마의 유적지와 도세트지방의 선사시대 유적도 N.T의 소유이다. 경사진 초원, 언덕, 농경지, 산림, 섬, 내륙의 운하 수로 등도 N.T에 속해있다. 100개가 넘는 아름다운 정원과 200여 개의 역사적 건물이 N.T에 의하여 보존되어 공개되고 있으며 성과 수도원, 역사적이나 건축학적 중요성을 지닌 건물들, 초가지붕의 헛간, 혹은 방앗간, 넓은 정원과 잘 조성된 공원들이 N.T에 꾸준히 기증되었다.

이 N.T는 대체로 100명에서 2,000명 이내의 회원으로 이루어지는 제각기 그 크기가 다른 자치적인 그룹들의 협의체인데 회원제를 통하여 기금모으기, 신입회원 모집, 다른 회원과 공통 관심사를 나누기 위한 친교활동, 강의, N.T소유지 방문 등을 계획하기도 한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에만도 160개가 넘는 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회원종류에는 개인과 가족회원이 있으며 기간별로는 1년 만기 회원과 평생회원이 있고 회원증은 이전, 양도가 불가능하다. 회원은 어떤 N.T소유의 건물이나 장소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자체 소유의 건물 장소를 표기한 지도 “내셔널 트러스트 아틀라스”와 안내책자 “내셔널 트러스트 가이드”를 발행하고 있다.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은 협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늘의 가칭 남산보존협회를 시점으로 하여 각 분야에서 이 단체운동이 활발히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필자 및 발행기관	도서명	년도
1. 東洋文獻		
1)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第1卷	1977
2)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第2卷	1979
3)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第3卷	1981
4)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第4卷	1983
5)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第5卷	1985
6)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民俗篇	1990
7)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文化事跡篇	1987
8)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東國輿地備報	1956
9)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漢京識略	1956
10)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	1957
11)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宮闕志	1957
12)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명소고적	1958
13)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北漢山	1958
14)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Seoul	1962
15)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古跡篇)	1963
16)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市政篇)	1965
17)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서울略史	1963

- | | | |
|-----------------------------------|------------|----------|
| 18)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 서울 通史(上下) | 1973 |
| 19)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 洞名沿革攷(中區篇) | 1968 |
| 20) 서울特別市中央編纂委員會 | 2-5(龍山區篇) | 1980 |
| 21) 京城土木建築業協會報 | | |
| 22) 朴雲峰 서울再建相 | | 1953 |
| 23) 東國輿地勝覽 1-3卷 | | |
| 24) 月沙集 | | |
| 25) 李景宰 남산자연공원이 수목 생육환경실태 및 관리방안 | | 1991. 1 |
| 26) 林慶彬 南山公園樹林의 피해상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 1978 |
| 27) 柳明辰 서울 남산공원의 자연환경실태 및 보전대책 | | 1986. 10 |
| 28) 容齋集 1-5卷 | | |
| 29) 李重煥 『擇里志』京畿道條 | | |
| 30) 孫禎睦 「風水地理說이 都邑形成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 | 1973 |
| 31) 天文類抄 字微垣條天床論 | | |
| 32) 徐善繼, 徐善迷 人子須知 『諸都論』明初 | | |
| 33) 兪金精 建都八式歌 | | |
| 34) 楊求貧 司龍經 唐代 | | |

2. 論文

- | | | |
|-------------------------|--------|------|
| 36) 李秉岐 漢陽歌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 | 鄉土서울 1 | 1957 |
| 37) 金龍國 近世朝鮮 서울의 防水防火對策 | 鄉土서울 3 | 1958 |
| 38) 金庠基 讀書堂의 由來와 變遷 | 鄉土서울 4 | 1958 |
| 39) 金龍國 서울 建設의 功防者 | 鄉土서울 4 | 1958 |
| 40) 李在崑 서울地方의 傳來洞名考 | 鄉土서울47 | 1989 |
| - 古蹟·遺址를 중심으로 - | | |
| 41) 李在崑 서울地方의 傳來洞名考 | 鄉土서울48 | 1989 |
| - 人物·事件을 중심으로 - | | |

- 42) 李在崑 서울地方의 傳來洞名考 郷土서울50 1991
 - 自然・陰陽・風水信仰을 중심으로 -
- 43) 金東奎 서울의 風水地理 郷土서울50 1991
 - 서울 주위의 山勢와 天星을 비교하여 -
- 44) 崔昌祚 서울(漢陽)의 풍수 서울六百年史 民俗篇 1990
- 45) 李丙燾 國初의 建都問題
- 46) 金起林 容齋 李荇의 漢詩研究(석사학위논문) 1986
- 47) 徐源祐 서울 南山의 都市景視의位相 환경과 조경 1988. 5
- 48) 최래옥 서울남산의 역사적・문화적 성격, 남산이야기 환경과 조경
- 49) 임양재 남산의 식물상과 식생 환경과 조경
- 50) 양윤재 도시 환경과 녹지공간 한국조경학회지 1982
- 51) 이규목 서울시 도시공원의 이용형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78
- 52) The National Trust 36 Queen Anneis Gate, London sw 1
 THE NATIONAL TRUST PROPERTIES OPEN 1986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南山公園(서울)의 植生과 土壤要因에 관하여

朴 奉 奎

梨花女子大學校 自然科學大學 生物學科

서 론

서울의 南山公園은 冷溫帶 中部 落葉闊葉樹林을 주축으로 하고 소나무와의 混合山林契를 형성하고 있다.

南山의 자연식생은 물론 代償植生이라도 그 후의 人爲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時間勾配와 더불어 그 生育環境條件을 반영한 식물상을 갖게 한다.

植生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토양요인을 해석함으로써 식생과 토양과의 관계를 밝힐 수도 있다. 동일 산지라도 근접한 위치이면서 상이한 식물군락을 갖게하는 것은 환경인자로서의 土壤水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土壤水分의 부족이 남산 식생의 왕성한 生長에 기여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본 조사지역에 관한 학술조사는 任(1978)에 의해서 처음 시도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는 토양요인이 식물군락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調査地 概要

南山公園은 장충동 한남공원을 포함하여 258ha 가운데 임야면적이 236.46ha이고, 經

度 $126^{\circ}58' \sim 127^{\circ}00'$, 北緯 $37^{\circ}32' \sim 37^{\circ}33'$ 에 위치하며 標高 265m에 이르는 산지이다. 지형적으로는東西로 달리는 능선을 경계로 하여 北斜面은 경사가 급하고 주로 화강암인데 반하여 南斜面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에 花崗片麻岩地帶를 이룬 기복이 작은 산지이다. 또한 南斜面은 乾燥性인데 반하여 北斜面은 습하며, 이와같은 乾濕의 차이는 생태적 환경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주변 식생도 능선에 딸서 風衝林이東西로 帶狀이고, 다시 北側의 急斜面에 천연림에 가까운 二次林이, 南斜面의 완만한 경사를 중심으로 植樹林이 발달하여 있다. 주요 樹種은 심갈나무, 팔배나무, 때죽나무, 아카시나무, 소나무, 산벚나무, 느티나무이며, 임상식생의 被服부식질의 樣態가 지형과 斜面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능선을 경계로 하여 지형, 표층지질 및 토양의 어느 것을 보나 틀리는 두 지역이 있으며 植生으로 보아도 능선에 따라 南·北斜面에 獨自의 경관을 나타내어 北斜面의 부식질이 풍부한 天然林에 가까운 二次林, 西斜面의 척박한 땅의 대상식생 및 南斜面의 植樹林과 아카시아나무(순환도로) 등을 구분할 수 있다.

調查 地域 및 方法

1. 調查 地域

調查地點은 3개의 상이한 식물으로부터 거의 같은 標高에 위치하는 각 1地所씩을 선정하여 $5 \times 50\text{m}$ 의 Quadrat를 취하여 植生과 토양요인을 분석하였다.(Fig. 1)

본 조사는 1985년 11월부터 1986년 12월에 걸쳐 실시했다.

2. 調查方法(土壤要因)

① 土壤의 pH : 常法에 따라 1:25의 비율로 증류수를 加하여 懸濁液을 硝子電極을 사용하여 pH-meter(東亞電波 HM-5BS)로 측정하였다.

② 土壤水分 : 常法에 따라 風乾土의 105°C 乾燥에 의한 감소 비율로 구했다.

③ 有機炭素 : Walkley-Black法에 의해서 定量했다.

④ 全室素 : 常法에 따라 Kjeldahl 分解-水蒸氣蒸留法에 의해서 定量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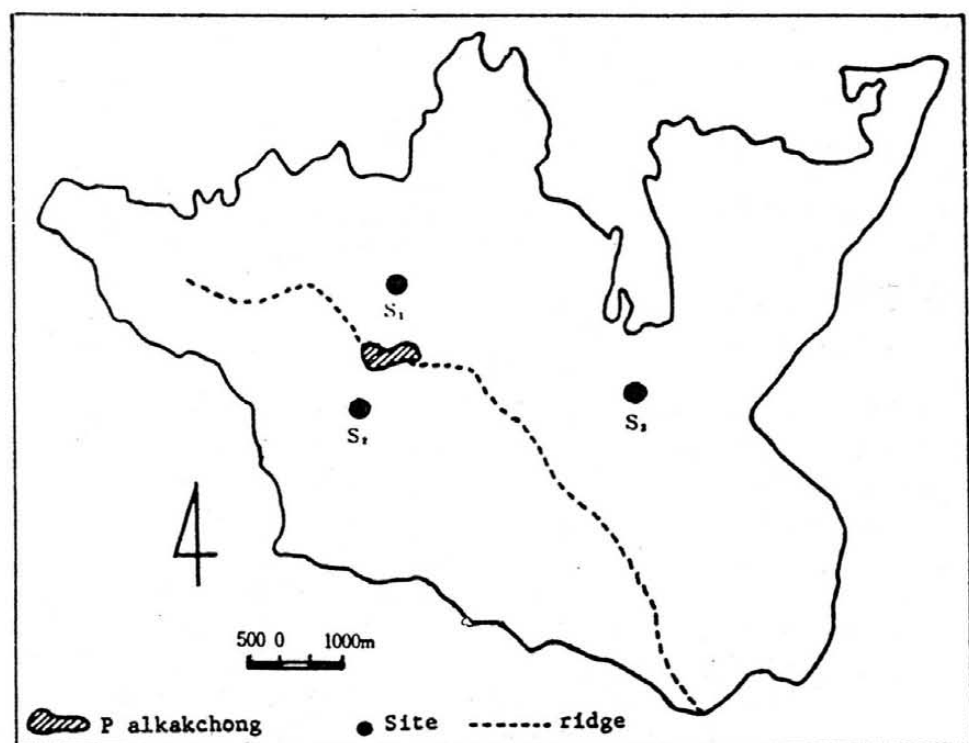


Fig. 1. The investigaged site

調査結果

1. 調査 地点 : S₁

표고는 170m, 斜面方位 N10°E로 急斜面(38°)이다. 강한 降雨가 있으며 토양 표면침식이 일어나기 쉬운 급경사지이지만 낙엽이 두껍게 堆積하여 토양표면을 보호하고 있다. 植生은 二次林이지만 天然林에 가까운 상태이며 신갈나무-팔배나무群落에 속한다. 주위에 巨岩이 点하여 어느정도 凹狀의 지형이다.

植生은 Table 1과 같이 高木層은 樹高 10m내외, 被度는 90%, 신갈나무-팔배나무群

Table 1. The vegetation of investigated site 1. Mt. Namsan, Seoul (5 × 50 Quadrat)

Tree layer	H=Ca 10m	C=90%	
	Cover(%)		Cover(%)
<i>Quercus mongolica</i> (신갈나무)	70	<i>Sorbus alnifolia</i> (팔배나무)	40
<i>Acer formosa</i> (단풍나무)	10	<i>Styrax japonica</i> (때죽나무)	10
<i>Fraxinus rhynchophylla</i> (물푸레나무)	5	<i>Prunus sargentii</i> (산벚나무)	5
<i>Pinus densiflora</i> (소나무)	+	<i>Alnus sibirica</i> (물오리나무)	+
<i>Juniperus utilis</i> (노간주나무)	+		
Shrub layer	H=Ca 5m	C=50%	
	Cover(%)		Cover(%)
<i>Rhododendron mucronulatum</i> (진달래)	30	<i>Stephanandra incisa</i> (국수나무)	15
<i>Rubus crataegifolius</i> (산딸기나무)	5	<i>Lespedeza bicolor</i> (싸리)	10
<i>Euonymus alatus</i> (화살나무)	5	<i>Palura chinensis</i> (노린재나무)	5
<i>Benzoin obtusiloba</i> (생강나무)	5	<i>Morus bonbysis</i> (산뽕나무)	+
<i>Rubus parvifolius</i> (멍석딸기)	+	<i>Rosa multiflora</i> (찔레나무)	+
<i>Rhus javanica</i> (붉나무)	+	<i>Celastrus orbiculatus</i> (노박덩굴)	+
<i>Smilax china</i> (청미래덩굴)			
Herbaceous layer	C=80%		
	Cover(%)		Cover(%)
<i>Carex lanceolata</i> (그늘사초)	25	<i>Miscanthus sinensis</i> (억새)	10
<i>Solidago virgaurea</i> (미역취)	5	<i>Artemisia japonica</i> (제비쑥)	5
<i>Viola ciliata</i> (제비꽃)	+	<i>Melampyrum ciliare</i> (며느리밥풀)	+
<i>Plantago asiatica</i> (질경이)	+	<i>Arundinella hirta</i> (새)	+
<i>Syneilesis palmata</i> (우산나물)	+	<i>Pteridium aquilinum</i> (고사리)	+

落으로서 低木層은 진달래가 우세하며 草本層에서는 그늘사초와 억새가 被度나 數度에서 우세하다.

토양단면에 있어서는 L層:層厚 5cm, 신갈나무와 팔배나무 등의 낙엽층, F層:層厚 1cm, A₁₁層:0~5cm, 土色 7.5YR3/2 黑褐, 土性 Lic, 團粒狀 구조, 습하고 中小根이 풍부하고 A₁₂層:5~15cm, 土色 YR3/2黑褐, 土性 Lic, 약간 습하고 뿌리가 풍부하며, A₃層:15~30cm, 土色 10YR3/3暗褐, 土性 Lic, 습하고 뿌리가 풍부하고, B₁層:30~50cm, 土色 10YR3/3暗褐, 土性 SC, 습하고 뿌리가 풍부하다.

2. 調査地点 : S₂

標高는 160~165m, 斜面方位 W40°S로 완만한 경사(10°~15°)이다. 落葉堆의 두께도 얇고 비교적 척박한 토양이다. 植生은 소나무群落到 아카시나무가 침입하여 소나무-아카시나무群落을 형성하고 있다.

植生은 Table 2와 같이 高木層은 樹高 8m, 피도 80%, 소나무-아카시나무群落으로서 低木層은 樹高 3m, 피도 70%로서 싸리가 우세하며, 草本層은 피도 40%, 김의털과 억새가 優占種이다.

토양단면은 L層:2cm, 소나무, 아카시나무 및 싸리 등의 낙엽, F層:1cm 내외, A₁層:0~10cm, 土色 7.5YR3/2黑褐, 土性 Lic, A₃層:10~22cm, 土色 7.5YR3/4暗褐, 약간 습하고 뿌리가 풍부하다. B₁層:22~35cm, 土色 7.5YR4/4褐이다.

Table 2. The vegetation of investigated site 2. Mt. Namsan, Seoul (5×50Quadrat)

Tree layer	H=Ca 8m	C=80%	
	Cover(%)		Cover(%)
Pinus densiflora (소나무)	50	Robinia pseudoacacia (아카시나무)	40
Prunus sargentii (산벚나무)	5	Acer formosa (단풍나무)	+
Quercus acutissima (상수리나무)	5	Sorbus alnifolia (팔배나무)	+
Ailanthus altissima (소테나무)	+		
Shrub layer	H=Ca 3m	C=70%	
	Cover(%)		Cover(%)
Lespedeza bicolor (싸리)	30	Elaeagnus umbellata (보리수나무)	10
Rhus javanica (붉나무)	5	Styrax japonica (때죽나무)	5
Clerodendron trichotomum (누리장나무)	+	Zanthoxylum schinifolium (산초나무)	+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	Cocculus trilobus (댕댕이덩굴)	+
Euonymus alatus (화살나무)	+	Rubus parvifolius (멍석딸기)	+
Herbaceous layer	C=40%		
	Cover(%)		Cover(%)
Festuca ovina (김의털)	20	Miscanthus sinensis (억새)	20
Zoysia japonica (잔디)	10	Oenothera odorata (달맞이꽃)	10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5	Chelidonium simense (애기똥풀)	5
Patrinia scabiosaefolia (마타리)	+	Agrimonia pilosa (짚신나물)	+
Lysimachia barystachys (까치수염)	+	Prunella vulagaris (꿀풀)	+
Cirsium japonicum (영경귀)	+	Erigeron canadensis (망초)	+

3. 調査地点 : S3

標高 160~170m, 斜面方位 S10° W, 완만한 斜面(10° 내외)으로 아카시나무 벌목지에 잣나무를 植樹한 지역이지만, 아카시나무의 地下根으로 인하여 잣나무林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植生은 高木層의 樹高 8m 내외, 잣나무-아카시나무群落을 형성하고 있으며, 低木層은 樹高 4m 내외, 피도 50%, 伐木跡地에 침입한 떡갈나무와 好强光性의 槲의 발달을 볼 수 있으며, 草本層은 피도 70%, 쑥, 억새, 고사리의 임상식물이 발달하여 있다(Table 3).

토양단면은 L層:2cm 내외, F層:1cm, A1層:0~9cm, 土色 7.5YR2/1黑, 土性 Lic, A3層:9~28cm, 土色 7.5YR3/1黑褐, 土性 Lic, B1層:28~35cm, 土色 7.5YR4/4褐,

Table 3. The vegetation of investigated site 3. Mt. Namsan, Seoul (5×50Quadrat)

Tree layer	H=Ca 8m	C=80%	
	Cover(%)		Cover(%)
Pinus koraiensis (잣나무)	70	Robinia pseudoacacia (아카시나무)	40
Pinus densiflora (소나무)	10	Quercus acutissima (상수리나무)	10
Alnus japonica (오리나무)	5	Prunus sargentii (산벚나무)	5
Shrub layer	H=Ca 4m	C=50%	
	Cover(%)		Cover(%)
Quercus dentata (떡갈나무)	20	Benzoin obtusilobum (생강나무)	10
Pueraria thunbergiana (쑥)	20	Lespedeza bicolor (싸리)	10
Corylus japonica (개암나무)	5	Rhododendron mucronulatum (진달래)	10
Rhus javanica (불나무)	+	Fraxinus rhynchophylla (물푸레나무)	+
Herbaceous layer	C=70%		
	Cover(%)		Cover(%)
Artemisia asiatica (쑥)	30	Miscanthus sinensis (억새)	20
Pteridium aquilinum (고사리)	10	Chelidonium simense (애기똥풀)	5
Humulus japonica (흰삼등굴)	5	Plantago asiatica (질경이)	5
Erigeron canadensis (망초)	5	Rumex coreanus (쟁이)	5
Patrinia villosa (뚝갈)	+	Artemisia asiatica (쑥)	5
Peucedanum terebinthaceum (기름나무)	+	Artemisia keiskeana (맑은 대쑥)	+
Hypericum ascyron (물레나물)	+	Persicaria blumei (개역귀)	+

Table 4. The soil chemical properties of investigated sites, Mt. Namsan, Seoul

Investigaged Site	soil layer	soil water content (%)	organic matter (%)	total nitrogen (%)	C/N	pH
S ₁	A ₁	19.9	6.45	0.66	9.8	5.64
	A ₂	31.3	3.72	0.50	7.4	5.97
	B ₁	23.6	3.06	0.42	7.3	5.87
S ₂	A ₁	10.8	9.26	0.68	1.36	5.39
	A ₂	10.6	7.56	0.51	1.40	5.69
	B ₁	10.5	5.80	0.17	16.5	6.01
S ₃	A ₁	16.6	22.60	1.33	17.0	4.83
	A ₂	17.2	14.39	0.92	15.7	5.17
	B ₁	22.6	10.21	0.80	12.8	5.64

土性 Lic이다. 3地所의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수분은 風乾土水分이며, 거의 吸濕水에 相當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이지만, 母材, 土性등을 반영한 値를 나타낸다. 土性は S₁의 B₁層을 제외하고는 全試料가 Lic로 나타나고 있다. pH는 S₁, S₂, S₃의 순으로 낮아지고 S₂의 A₁層에서 4.83의 强산성을 나타낸 것은 植生の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믿어진다. 有機炭素, 全窒素 모두가 S₂에서 특히 높은 含量치를 나타내고 있다. C/N은 S₁에서 10이하로 낮다. 이 地所는 거의 자연식생에 가까운 상태로 오랜 세월동안 안정된 森林生態를 유지하고 있어 土壤酸度도 그다지 낮지 않고 유기물의 공급도 적지 않으며 토양수분도 適潤이다. 따라서 S₁은 다른 2地所 보다도 토양미생물에 있어서 好適한 환경이며, 미생물의 증식이나 활동도 왕성하다고 믿어지므로, 토양 중의 부식의 분해가 진전되어 C/N이 낮아졌다고 믿어진다.

결 론

지형, 경사 및 방위가 다른, 거의 같은 高度의 3개 地所에서 植生과 토양요인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조사에서 北斜面은 지형적으로 급경사이기 때문에 식생환경으로는 바람직한 조건은

아니지만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南斜面 및 東斜面에 비하여 高木層, 低木層 및 草本層의 발달이 양호한 것은 인위작용이 거의 없는 天然林에 가까운 二次林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落葉層이 지표에 堆積하여 腐植層도 발달한 비교적 安定된 토양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토양의 화학적 특성 가운데 C/N비가 다른 2地所보다 낮은(10 이하)것으로 보아, 토양미생물 활동에 호적한 환경조건이라 생각되어 오랜 세월에 걸쳐서 培養되어 온 여러 요인의 조화라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남산공원의 삼림계의 보전은 외부로부터의 무기적(입지조건), 생물적인 파괴 요인(토지붕괴, 토양유실, 水位의 저하 및 벌목·採草, 踏壓 등의 인위적 요인과 병충해, 동물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는다.

따라서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요인에 대한 관리방법은 무기적 요인으로서의 大氣, 토양, 물(降水量) 등의 상태가 植生の 生育에 負(一)의 작용을 일으킬 때, 그 상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된다. 특히 생물적 요인 가운데에는 인간간섭이 크기 때문에 자연식생의 보존 지역의 출입금지, 벌목·採草制限, 수목병충해, 병해방지 등이다.

또한, 표층지질조사(風化層의 붕괴), 토양수분의 유실방지, 표토의 중시, 토양침식의 발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될 줄 믿는다.

참고문헌

- 任慶彬, 1978, 南山公園樹林의 被害狀態와 그 對策에 관한 研究
 Walkley, A. and I.A.Black, 1943. Soil Sci. 37:29-38.
 坂上寬一·刈戸義正, 1975. 池の平にみる植物群落の違いと水分關係. 日本 環境廳 調査報告書
 박봉규·이인숙·김종희, 1984. 설악산 삼림식물의 생물량과 생산성에 관하여. 설악산 학술조사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자연보존」 60호, 1987년도에 수록)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

발행일 : 1996. 12. 28.

발행처 : 중구문화원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9-6

발행인 : 김영남

TEL : (02) 775-3001

비매품

- ❶ 이 책은 중구청의 지방자치 예산과 국고의 일부로 발간되었습니다.

